

발간등록번호 11-1370000-000084-01

2002년도 국어정책 공모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 조 철 현 (연세대학교)

2002년 11월

문 화 관 광 부

2002년도 국어정책 공모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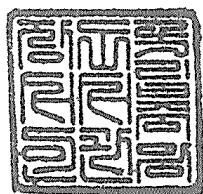
과제책임자 : 조철현

공동연구원 : 한송화, 김제열, 정희정, 고석주, 김미옥

연구보조원 : 김진홍, 박주영, 박수연

2002년 11월

문 화 관 광 부



2746178

제 출 문

문화관광부 장관 귀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에 관하여 귀 부와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2년 11월

연구책임자 : 조철현

요 약 문

I. 사업명 및 기간

○ 사업명 :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 사업 기간 : 2002. 4.12 ~ 2002. 11. 11.

II.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취지 및 목적

최근 국내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에 따라, 문화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한국어 교육과 보급의 기반이 점차 확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어 교육 기관, 정부 기관, 연구자 등의 공동 노력을 통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와 교육 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적 조사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및 교재 요목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를 조사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한 언어를 습득하려는 학습자의 쓰거나 읽기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자들의 오류를 계량적,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학습자가 생산해 낸 자료를 통해 한 언어에서 다른 한 언어로 이동하는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유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빈번한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국가별, 지역별, 언어권별로 나타나는 오류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습득의 현황 파악과 학습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 방법론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1)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분류: 작문 자료의 입력과 주석 과정에서는, 한국어 말뭉치의 구축과 주석의 풍부한 경험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말뭉치의 주석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한국어 학습자 오류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 수집된 자료의 총 어절 수 및 오류 어절 수 등 기초 통계 정보를 작성하였다.
- 자료 제공자의 신원 사항 분석 통계 및 출신권역별, 성별, 모국어별, 학습정도별 기초 통계 정보를 작성하였다.
-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별 기초 통계를 작성하였다.
- 한국어의 특정 형태소의 사용과 오류의 경향을 검토, 이를 분석하였다.

(3) 한국어 학습자 오류에 관해, 문법 형태소의 사용 양상, 학습자들의 사용 어휘, 존대법의 사용, 시제, 관형어의 사용 양상, 표현 상의 오류, 어순 등에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첨부 결과물

- 최종보고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최종 보고서”(200부)
- 연구결과물을 담은 CD 3장

차례

제1장. 학습자 오류 말뭉치와 그 언어학적 효용	1
1. 학습자 오류 말뭉치	1
2. 국내외 연구 사례	3
3. 학습자 말뭉치의 언어학적 효용	9
제2장. 학습자 말뭉치의 수집과 전산화	17
1. 머리말	17
2. 말뭉치의 수집	18
3.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전산화 방안의 실제	26
4. 학습자 말뭉치 구축 현황	34
제3장. 오류 유형 주석을 위한 기초 연구	40
1. 오류 유형의 분류 체계를 위한 기초적 연구	40
2. 오류 유형 분류	46
제4장. 오류 주석 도구의 개발	69
1. 머리말	69
2. 오류 주석의 정의와 주석의 필요성	69
3. 오류 주석 도구의 실제	71
4. 맺음말	79
제5장. 오류의 통계적 분석	80
1. 연구 방법 및 절차	80
2. 연구 대상	81
3. 연구 가설	82
4. 자료 분석 방법	82
5. 연구의 제한점	83
6. 통계적 분석 결과	83
7. 요약	145
제6장. 학습자 오류 유형의 국어학적 분석	147
1. 어휘적 오류 유형의 분석	147
2. 조사 오류 유형의 분석	163
3. 종결 어미 오류 유형의 분석	184
4. 연결어미 오류 유형의 분석	196

5. 전성 어미 오류 유형의 분석	208
6. 존대 어미와 시제 어미 오류 유형의 분석	225
7. 관형어 오류 유형의 분석	233
 참고문헌	 241
붙임. 학습자 오류 말뭉치 목록	246

제 1 장

학습자 오류 말뭉치와 그 언어학적 효용

1. 학습자 오류 말뭉치

1.1. 말뭉치의 정의

‘말뭉치’란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언어 자료의 집합이다.¹⁾ 이는 언어를 연구하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 재료이다. 그러므로, 말뭉치는 그 크기나 내용이 말뭉치의 구축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또한 말뭉치는 단순한 텍스트의 집합체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의 다양한 특성이 총체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정확성과 균형성을 갖출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되고 구축된 말뭉치는 대개 자연 언어 처리, 사전 편찬, 이론 언어학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자료 생산자나 텍스트에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미 각 언어권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으며, 언어의 특징과 언어 변화,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 실태 등을 살펴 “언어”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2 학습자 말뭉치의 정의

‘학습자 말뭉치’는 말뭉치의 한 하위 분류로서, 일반적으로 특정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생산한 언어 자료를 수집한 특수 말뭉치의 하나이다. 학습자 말뭉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쳐서 구축된다. 즉 말뭉치 수집 과정에서 일반적인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모으는,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구축된 말뭉치이다. 특수한 목적성이란 의미는 자료 선별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뭉치가 지니는 독특한 특성 역시 그 목적성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미 구축된 학습자 말뭉치에서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1) ‘말뭉치’란 용어는 연세대학교 한국어 사전 편찬실에서 제안한 용어로서 영어의 ‘corpus’에 상응한다. ‘말모듬’, ‘코퍼스’로 불리기도 한다: 서상규(1999)에서 재인용.

아니라, 구축 단계에서부터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다.

1.3 학습자 말뭉치의 특징

학습자 말뭉치는 특정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쓰거나 읽기, 말하기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한다. 이렇게 구축된 학습자 말뭉치는 학습자들의 오류를 특별한 분석 방법을 사용해 분석하고 말뭉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자가 생산해 낸 자료에서 한 언어에서 다른 한 언어로 언어 습득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면서 언어학적인 추상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이러한 애매성을 지니는 오류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류 분석이 아닐 수 없다. 학습자 말뭉치가 지니는 애매성과 언어의 추상성으로 인해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어의 추상성과 애매성은 오류 분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이며 오류 분석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학습자 말뭉치의 다양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말뭉치의 특징(가-바: 유석훈 2001)

가. 일반 말뭉치가 아니고 특수 말뭉치이다.

나. 통시적 (diachronic)이 아니고 공시적 (synchronic)이다.

다. 입말과 글말을 다 수용한다.

라. 균형 말뭉치이다.

마. 기계 가독형 자료 (MRD)여야 한다.

바. 다중 병렬 말뭉치 (multi-layered parallel corpus)적 성격이 강하다.

사. 학습자의 오류가 반영된 오류 말뭉치이다.

아. 오류 기술 및 분석을 통해, 언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 말하기 자료일 경우 전사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학습자의 발음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채록자에 따라서 동일인의 발음을 다르게 전사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1980년대 이후 말뭉치 언어학이 관심을 끌게 되면서 말뭉치 적용의 범위가 확대·세분화 되어갔다.²⁾ 사전편찬에 있어서는 낱말의 의미를 보다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말뭉치에서 얻은 용례를 제시하였으며, 학습 교재 편찬이나 교육 방

2) 역사적으로 말뭉치는 1747년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이 옥스포드 사전의 기반을 닦을 무렵 한 낱말의 의미와 역사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문헌에서 용례를 인용하면서 사전에서 사용되었다. 그 당시 용례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 쪽지의 형식을 살펴보면 쪽지의 상단 원편 모서리에 낱말을 적고 줄을 바꾸어 책의 출판연도, 저자, 제목, 페이지수를 적었으며 다음 줄에는 충분한 길이의 인용문을 적었다. : 이상섭 (1992:96~136)

법론적인 측면, 즉 오류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교수법 개발에서도 말뭉치가 분석 자료로서 널리 이용되었다.

1.4 학습자 말뭉치의 필요성

다른 말뭉치가 지닐 수 없는 독특한 특성과 활용도를 지닌 학습자 말뭉치는 1950년대 말 60년대 초 사이에 말뭉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학습자를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구축되지는 않았다. 외국의 경우 제2언어 습득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 왔고, 영어권에서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영어의 변이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말뭉치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 결과 학습자 말뭉치는 거대 말뭉치(mega-corpora)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독립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어 말뭉치는 과학기술원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립국어연구원 등의 기관들에서 한국어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구축작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시작된 세종계획을 통하여 본격적인 통합 말뭉치 구축작업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습득의 현황 파악과 학습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어의 특성 파악과 이를 통한 효과적인 언어 교수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빈번한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국가별, 지역별, 언어권별로 나타나는 오류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관찰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구축되지 못했다. 또한 세부적인 한국어의 특징 조사나 어미의 사용 양상, 문장 사용 양상을 밝히고 그 연구 결과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재가 간파하지 못한, 실질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도 학습자가 생산한 자료와 그것의 오류 분석 그리고 오류의 해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국내의 연구 사례

학습자 말뭉치 구축은 그 필요성의 요구에 의해 영어권 나라에서는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새로운 말뭉치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현황은 국가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을 통틀어서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 나라 언어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세계 언어가운데 인지도가 낮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말뭉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외국인

의 숫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인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학습 자료를 위해서는 앞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 외국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학습자 말뭉치의 경우 국내에서는 구축된 사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앞선 외국의 말뭉치 구축 현황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과 오류 분석에 참고를 삼고자 한다.

2.1. 학습자 말뭉치 구축 현황

학습자 말뭉치에 대한 관심은 영어권 나라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으로 그 구축의 영역이 확대되어 지고 있는 상태이다. 말뭉치 구축은 지역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북미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구축 목적에 따라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어권 나라들의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언어 변이를 관찰하는 부분과 비영어권 나라들의 영어 사용 실태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교수법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1. 아시아

① HKUST Corpus

-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 말뭉치
- EFL 과정에 있는 2000여 학생들의 쓰기 숙제와 시험에서 작문한 자료를 사용.
- 1998년 현재 1800만 어절을 구축했으며 POS태그와 오류 태그를 사용.
- 5백만 어절 가량 오류 태그해 놓은 상태임.

② The Corpus of English by Japanese Learners(CEJL)

-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 일본인 학습자들의 입말과 글말 자료를 3년간 수집
- 100만 어절 가량 구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중임.
- 말뭉치 언어학 연구자와 제2언어나 제2외국어 습득과 관련된 연구 종사자들에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③ JEFLL Corpus (Japanese EFL Learners Corpus)

- 영어를 제 2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 일본인 학습자의 자료를 구축한 것.
- 6개 학급의 중등·고등학생들이 3개월 동안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얻은 자료임.
- 자료는 어휘, 문장 분석을 하고 다시 텍스트 정보를 덧붙인 후에 오류 주석을 함.
- 100만 어절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고급자 학습 말뭉치뿐만 아니라 초보자 말뭉치도 구축.

- 제 2언어 습득 과정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자 말뭉치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④ Project of 1 million word Corpus of Chinese Learner of English

- 홍콩에서 영어를 제 2외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의 글말 자료를 모은 것
- 2500만 어절 정도 구축된 상태
- 부분적으로 오류 태그가 부착되어 있다.
- 언어 구성을 찾을 수 있으며 단어나 구의 효과적인 어휘 습득을 가능케 함.
- Wordpilot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직접적으로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도록 함.

⑤ Japanese Junior & Senior Highschool students' Japanese/English translation Corpus

-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에서 L1에서 L2로 번역하는 과업 수행에서 주어진 target sentence와 학생들이 답으로 쓴 문장들, 그리고 함께 나열되어 있는 모델 문장들을 대상으로 말뭉치를 구축.
- 교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어떤 어휘가 얼마만큼 사용되고 적당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

⑥ Taiwanese Learner Corpus of English (TLCE)

- 대만인 가운데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영어 글말을 모아 놓은 것.
- 100만 어절 구축을 목표하고 있으나 현재 726000 어절이 구축된 상태
-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관찰하고 대만인 학습자의 영어 습득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의 종류를 관찰하기 위해서 구축

2.1.2. 유럽 및 북미

⑦ International Corpus of Learner English(ICE)

- 전 세계 20개국 학습자의 입말과 글말 자료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영어 연구를 위한 것.
- 적어도 280만 어절이 구축되어 있으며 각 에세이 당 500단어 이상을 표준으로 삼음.
- 15개의 상이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나라로 구성
- TOSCA 태거를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태깅되며 각각의 어휘 요소마다 태깅됨.

⑧ Cambridge Learners Corpus (CLC)

- CLC 안의 영어는 세계 전역에서 UCLES 영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쓴, 익명으로 처리된 영어 시험지를 바탕으로 함.
- 1000만 어절 정도의 글말뭉치가 데이터 베이스 되어 있으며 그 수가 점차 확장.

- 말뭉치는 작가, 편집자, 사전 편찬자 등 출판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사용 가능하며, 주로 학습자들이 어떻게 영어를 사용하는지 그 예를 찾기 위해 CLC를 이용함.
- 단어, 패턴 그리고 문법적 구조들이 성공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찾아서 확인 가능함.
- 영어의 어떤 부분이 학습자에게 커다란 문제 거리로 야기되는지 찾아 낼 수 있음. 즉 학습자들이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분야 인지 발견 가능함.
- 사전이나 CLC를 사용한 ELT course 교재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함.
- 학습자 오류에 대한 250만 단어의 독특한 자질이 코드화됨.
-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단어와 문장을 알 수 있으며 어떠한 오류들이 오류의 전형을 이루는지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개선시킬 것인지 방법을 찾도록 함.

⑨ The Longman Learner's Corpus

- 전 세계의 학생과 선생들이 에세이와 시험지를 바탕으로 구축. 각 학생의 에세이는 국가별, 언어 등급별로 코드화됨.
- 1000만 어절 정도의 글말뭉치가 데이터 베이스 되어 있음.
- 학생들에 하는 실수에 대한 정보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또한 사전편찬의 완벽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교과서 제작에도 영향을 줌.
- 특정한 학생 그룹을 선택하고 초점을 맞추어 언어 상황을 관찰할 수 있으며, 단어 나 구 그리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일으키는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등급별로 어떤 표현에서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지 관찰 가능함.
- 'The Longman Activity Study Dictionary' 안에 usage note를 만들 때, source를 제공.

⑩ UCL

-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의 영어 입말 글말 자료를 구축한 것.
- 200만 단어를 담고 있으며 자료는 14개의 각각 다른 모국어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 얻어진 것임.
- CLC는 학습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교육학적 자료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응용할 수 있으며 오류 coding 시스템을 개발해서 유형적인 학습자 오류를 카테고리 별로 접근 가능하게 하고자 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학습자에게 더 적절한 철자, 문법, 문체를 제공.

⑪ CHILDES in The ESF Databank

- 미국 아동의 입말 글말 자료로서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CHILDES-모국어와 제2언어 습득 말뭉치를 위한 공공분야 자료, CHAT-언어 습득 자료를 위한 번역 지침서, CLAN-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각각의 구성 내용은 상이한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적인 음성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당하는 어휘의 음성정보를 들을 수 있음.

⑫ Department of Linguistics SLA

- 호주 뉴캐슬 대학의 language program에 참가하고 있는 각각의 다른 모국어를 가진 학생들의 자료를 오류 분석한 것.
- 학습자 중간언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2언어습득(SLA)에서 발생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오류를 언어학적 분류에 기초하여 형태론적, 통사론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오류분석을 중간언어(말뭉치) 수집, 확인, 분류, 설명, 평가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함.

2.2. 학습자 말뭉치 및 오류 분석 연구

영어 학습자의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중간 언어(Interlanguage) 및 오류 분석(Error Aalysis)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말뭉치를 이용한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화되었다. 각 분야별로 학습자 오류 말뭉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학습자 말뭉치의 연구 방법론

Barown,J.D. (1988), Gass, S.M. (1998), Hatch, E. & Farhady, H. (1982), Johnson, D.M. (1992), Larsen & Freeman, D & Long, M.H. (1991), Seliger,H. & Shohamy, E. (1989), Sirace, A. & Gass, S. & Selinker, L. (1994) 등은 말뭉치와 관련해서 제 2언어 습득에서 그 연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연구해 놓은 자료이다.

2.2.2. 학습자 오류 말뭉치 일반론

Corder(1967,1971,1985), Shachter,J(1974), Dulay & Burt(1974, 1982), Taylor,B.P(1975) Dechert,H.W.& Brüggemeier,M. Fütterer,D.(1984), Odlin.T. (1989), Janes, C(1998), de Haan, P. (1998), Yang, D. (1998) 등은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말뭉치에 있어서 오류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2.3. 중간언어에 대한 연구

학습자들의 입말이나 글말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 즉, 모국어와 제2언어의 중간 혼합 형태의 언어를 중간언어(Interlanguage)라고 한다. 중간 언어의 특징이 곧 제2언어를 습득하는 학습자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중간 언어의 다양한 특징과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연구를 한 것으로는 Selinker, L. (1972), Tarone, E. (1998), Cohen, A.D & Robbins, M. (1976), Richard Young (1991), Selinjer, L. (1992)가 있다.

중간언어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특정한 방해를 일으키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안 방법을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대부분이 일본어 화자가 한국어 학습시에 나타나는 일본어 방해 현상을 다루고 있으며 그 원인과 교수법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는 유진형(1982), 고성중(1992), 진은주(1994), 고성중(1992), 이수경(1996)에 의해 이루어졌다.

2.2.4. 오류 분석 및 오류 말뭉치 특징에 대한 연구

학습자들이 생산해낸 말뭉치에서 오류를 분석하고 분석한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특징을 문법 항목별, 국가별, 등급별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체계화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연구를 Richards, J. (1974), Spillner, B. (1990), Kallkvist, M. (1995), Meunier, F. (1995), Milton, J. and Chowdhury, N. (1994), de Monnik, I. (forthcoming), Etherton, A.R.B. (1977), Henning, G. H. (1978), Hulstijn, J.H. and Hulstijn, W. (1984), Kim, Ik Hwan (1983), NaKamura, Yoshihiro (1982) 등이 선행했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화자 및 외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어 화자가 제2외국어를 학습할 때 일으키는 여러 오류들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연구한다.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조사나 어미, 어휘 등 특정한 문법 요소나 어휘를 가지고 오류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오류 분석 연구는 말뭉치 기반이 아닌 극히 극소량의 학습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오류 분석은 강석순(1985), 오소정(1986), 김정숙(1988, 1989), 이순자(1987), 공일수(1992), 김성길(1992), 홍성선(1992), 고진숙(1994), 김미옥(1994), 왕혜숙(1995), 이수경(1997), 최우영(1997), 이은경(1999), 김유미(2000)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2.2.5. 오류 분석 프로그램

오류 분석을 빠르고 일관성있게 실행하기 위해 말뭉치의 오류 태거 부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해당 연구는 Dagneaux, E., Denness, S., Granger, S. and Meunier, F. (1996), He, A. (forthcoming), Meunier, F. (1998)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2.2.6. 오류 말뭉치 사용·응용 연구

구축한 말뭉치를 가치 있게 사용하고 학습자들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 등을 알기 위해 실시한 오류 분석에서 더 나아가, 오류 말뭉치를 이용한 다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Chen, H. H. (1998), Flowerdew, L. (1998), Gillard, P. and Gadsby, A. (1998), Housen, A. (forthcoming), Ma, D. (1998) 등이 오류 말뭉치를 응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여 새로운 학습법을 제시하고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는 연구는 이영찬(1997), 김영만(1994), 서 혁(1992)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국내·외로 이루어진 학습자 말뭉치 구축과 말뭉치 오류 분석 작업과 그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 일찍부터 학습자 말뭉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학습자들이 생산한 입말과 글말 뭉치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 교수법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교재와 학습자들에게 편리한 사전을 편찬하였다. 이에 반해서 한국어 학습자의 말뭉치 및 오류 분석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대규모 말뭉치를 통한 오류 분석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얻어진 자료와 경험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발성에 그치는 점이 없지 않다. 학습자 말뭉치 일반론과 연구 방법론, 그리고 오류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고 한국어 습득 모국어가 방해하는 현상과 중간언어에 대한 연구와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3. 학습자 말뭉치의 언어학적 효용

언어교육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지만 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심리학과 언어학의 이론적 기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며 바뀌어 왔다.

먼저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생산해 내는 오류를 좋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언어의 잘못된 습관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오류는 새로운 언어습관을 훈련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대조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에서는 외국어 학습의 오류는 모국어의 언어습관이 외국어 학습에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두 언어간의 구조적 차이가 클수록 외국어 학습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대조분석 가설에서는 두 언어간의 과학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당면하게 될 어려움을 예측한 후,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조분석 가설의 주창자인 프리스(Fries/1945)와 라도(Lado/1957)에서는 외국어 지도시 학습자의 모국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목표어와 모국어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비교하여 교재의 편찬과 교수방법에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조분석의 예측이 실제 실험연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학습자의 오류에는 모국어의 간섭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대조분석은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된다. 휘트만(Whitman/1970)³⁾, 올러 외(Oller and Ziahosseiny/1970)⁴⁾에서는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대조분석의 연구가 실제 언어학습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리고 리차드(Richards/1971)에서는 대조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류를 언어간 오류(Interlingual error), 언어 내부적 오류(Intralingual error), 발달상 오류(Developmental error) 등으로 설명하면서 대조분석 가설의 수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오류분석 이론에서는 오류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특히 코더(Corder/1967,1981:10-11)에서는 학습자의 오류는 학습자가 현 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체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오류의 의의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교사에게는 학습자가 목표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으며 무엇을 더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둘째, 연구자에게는 언어의 학습, 습득의 방법과 학습자가 목표어 학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과정을 암시해 준다. 셋째, 학습자 자신에게는 목표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가설이 타당한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위 책에서 코더는 오류를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전략(Strategy)으로 보기까지 한다.

오류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은 오류를 학습과정의 일부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오히려 오류 유발시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을 파악해 보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연결 된다.

최근에는 오류분석(error analysis)을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내성연구/자기관찰연구(introspection)가 있다. 이 연구방법은 "블랙박스" 라고 불릴 수 있는 학습자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는 방법으로(George, 1972:5) 학습자들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행동주의 과학에서는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입력(자극)과 출력(반응)의 차이에 근거해서 추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촘스키가 말했듯이 "행동이란 단지 여러 증거들 중 하나 일 뿐이며 때로는 최상의 증거도 아니고 또 지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Chomsky, 1980:54). 이러한 촘스키의 주장에 자극받아 연구자들은 인간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다른 종류의 자료(또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 찾은 방법은 19세기에 유행한 이후 점점 퇴조

3) 휘트만(Whitman/1970)은 대조분석의 허점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로서 대조분석 가설에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어와 영어의 대조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학습자에 대한 문법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실험 결과는 대조분석을 통해 예측된 내용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4) 올러 외(Oller and Ziahosseiny/1970)의 연구는 영어를 목표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을 상대로 철자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모어로 로마자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일본어나 아랍어 등을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보다 더 많은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목표어와 모국어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영어 철자사용에 방해가 된 증거로서 대조분석가설의 예측과는 반대가 되는 결과를 낸 것이다.

되어 심리분석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해 온, 행동주의 이전의 인간정신세계 접근방법이었다. 이 연구방법의 중심 생각은(Frith and Kasper, 1987) 언어학습자나 사용자가 언어활동을 지배하는 정신세계에 접근한다고, 즉 정신세계의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 자신들의 내면세계를 관찰한 것을 일종의 메타언어(metalanguage)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널리 용인되어 온 외국어 학습 연구에 관한 패러다임으로 Selinker(1972)에 의해서 제안된 중간언어 가설이 있다. 중간언어 가설은 포괄적인 기술을 하는 것과, 비교를 삼가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중간언어 가설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와 비교함으로써 체계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실수'(1983)인 '외국어 학습자 연구에서 비교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 비교에 대한 이러한 금지는 아마도 대조 분석을 비난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정당화되지는 못한다. 대조 분석의 연구자들은 중간언어 가설과 유사하게, 한 언어의 기술적인 범주를 다른 언어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술이 되도록 왜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학습자의 언어를, 다른 언어의 분석으로부터 나온 기술적인 범주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 자체로 기술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50년대의 구조주의자들은 단지 영어에서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문말 위치에 전치사가 놓이는 것이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문말 위치에 전치사를 쓰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 심지어 비교 금지에 대한 인류학적 언어 실지 조사 방법론에서의 흔적도 있다. 인류학적 현장 언어 학자, 선교사, 성경 번역가가 모국어 자료 제공자에게 그러했듯이, 학습자를 '객관적으로' 연구한다.

중간언어 또는 학습자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단지 오류 분석 요인의 절반일 뿐이다. Meara(1984)는 왜 어휘 학습이 중간언어 연구에서 그렇게 경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Meara는 그것이 중간언어 연구가 거의 전적으로 중간언어의 記述(Meara는 'the tools'라고 말함)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석해 밝혔다. 그리고 비교의 차원이 광범위하게 경시되어 왔다. '우리가 학습자의 내재화된 제2언어의 기술과 모국어 화자가 갖고 있는 내재화된 기술 사이의 차이에 대해 관심이 있어' 온 이래로(Meara, 1984) Meara가 위에서 지적한 바는 애석한 점이 아닐 수 없다. 언어 기술에 있어서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유도된 기술이 되지 않아야 하며, X를 Y로 환산하여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 오류 분석을 할 때에는 예외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학습자의 오류는 목표어에 대한 그들의 현재 양상의 증명이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의 오류는 목표언어(TL)를 사용하는 어법이라 할 수 있다.

중간 언어(IL) 연구와 제 2 외국어 연구에 동원된 사람들의 오랜 설명을 통한 우선권과 함께 한편으로 오류 분석을 하는 외국어 교육자의 단기간 이루어진 교육학적 우선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 2 외국어 연구가 응용 언어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 즉 언어 교습보다는 순수 언어학의 한 부분으로 교습 과정보다는 학습자의 언어학습 능

력에 그 중요성을 두고싶다. 제 2 외국어 연구와 오류분석의 세계가 서로 다르며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면 서로 견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Cook 은 “오류분석은 [여전하다! CJ] 습득의 이론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 (1993:22) ‘데이터로 처리하는’ 방법을 원하는 이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류분석을 하도록 하자.

하지만, 제 2 외국어(SLA) 중간언어 연구에는 비교가 불가피하다. 중간 언어를 개념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형태의 집합체이고 학습자가 다른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언어학습자가 추상화를 해 가는 과정이다. 이 개념은 Saussure의 랑그와 비슷하다. 또한 중간언어는 여러 가지 구체화 방식에도 이용될 수 있다. (Saussure의 발화: parole) 이것은 순서대로 배열된다. 최초 중간언어는(학습된 언어)(IL1)시작한 지 100 시간이 지나면 발달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중간언어(IL2)는 200 시간 뒤에 등등, 역사 언어학자나 중간언어를 발전적이나 수직적인 면으로 연구하는 제 2 외국어 학습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언어발달의 단계를 비교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오류 분석가에게 외국어 학습 관점에 있어 이 ‘발전 단계’ 는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학습자에게 심리학적인 현실이 내재한다는 사실 또한 그럴 듯 하다. 언어학적 형태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중간 언어(IL) 연속체의 말기단계가 아니다. 즉 언어학적 형태는 목표언어(TL) 상태가 아니라 중간언어(IL) 언어능력이 현재 위치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단계의 형태이다. 그 경우에 (IL_{n+1}) 과 IL_n 의 사이의 차이를 보고자 오류를 정의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다. IL_n 과 TL 의 대조는 아니라고 오류를 정의할 수 있다.

적어도 한 객관적인 관찰자에게 오류의 비교 정의에는 문제가 없다. 오류의 완전개념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된 것이다. 중간 언어(IL) 의 특징은 목표언어(TL)와 상응하는 비교에 의한 오류 일 뿐이다. 중간언어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체계라 할 수 있다.’ 라고 John Hawkins 는 주장했다. 제 2 외국어 이론가들이 때로는 목표언어(TL)와 중간언어(IL)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적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Ellis (1992:232ft) 는 두 언어 교습 기술을 비교 또한 예증하는 -언어 연습과 자아의식 확대-를 정의하는데 이르렀다. 후자(Ellis)는 언어연습을 통해 함축적인 지식을 생성하는 한편 명백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곧 Ellis 에 의하면 ‘함축적인 지식의 습득’ 에는 세 가지 과정이 포함된다. :인지... 비교... 그리고 통합(ibid:238) 이 그것이다. Ellis의 비교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정신적으로 입력된 문법과 새로운 입력으로 인식된 언어학적 형태를 비교한다. 즉 입력된 사실과 문법 사이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생각한다.’(ibid:238) 여기서 Ellis가 학습자의 모국어 뿐 아니라 학습자의 목표언어(TL)표현이 ‘학습자의 문법’ 이라고 지정한다.-그것이 바로 학습자의 중간언어(IL)이다. Ellis가 맞는다면 학습자가 시작한 것은 오류분석뿐 아니라-정의하자면-한 사람의 목표언어(TL)와 중간언어(IL)을 비교하고 그 둘 사이의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다.

Ellis는 이 개념을 발전시켜 분류를 하였다: 인지비교 즉 입력은 학습자가 이차조작을 수행

할 때 증진된다. 곧 학습자가 현재의 출력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입력을 인지하는 비교한다.(ibid:95) Ellis는 ‘이것을 육성하는 방법은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오류의 종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는 결코 새 개념이 아니다. Harlow(1959)가 모든 학습이 진보적이고 누적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라 정의한 바 있다. Clark(1982)이 조정이론(coordination theory)을 공식화 할 때 같은 생각을 하였다. 즉 언어산물은 아이들이 많이 들으면서 늘어나며 많이 들수록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줄게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엘리스는 이러한 전통을 지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오류(Turton, 1995) 혹은 방언 오류(Crewe, 1977)를 수집한 실제적인 많은 오류분석가들을 인식하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이러한 수집의 목적은 종종 인지적인 비교를 만들어내는 학습자들을 지도하는 데 있다. 엘리스는 교사들을 위한 것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 오류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그는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입력내용과 관련하여 단순한 실제 형태의 오류라기보다 전체적인 문법을 비교할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독단적으로 제한된 잘못된 형태가 아닌 정확한 형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오류분석의 효용성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언어 교육의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과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익히는 학습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외국어 학습에서 범하는 학습자들의 오류를 연구한다. 이러한 오류는 제 2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오류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오류를 사전에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습자가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제2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판단하고 학업 성취도와 개인별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진단하여 보완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오류는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언어 습득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되며 학습의 난점 극복과 학습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학습자 말뭉치와 그것의 오류 분석은 학습자 교육에 중요한 근간이 아닐 수 없다.

학습자 말뭉치는 단일한 목적성, 즉 특정한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해 구축되어진 것이다. 학습자 말뭉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가 생산한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판단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학습 자료와 교수법을 선택하게 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말뭉치의 기반이 없는 실정이고 단편적으로 학습자가 만들어 내는 오류의 종류에 대한 제기만 있을 뿐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학습자를 위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 말뭉치 구축과 말뭉치의 오류 분석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수자의 경험과 직관에 전적으로 의존한 기존의 언어교수법에서 과학적인 근거와 토대를

바탕으로 한 교수법을 생성할 수 있으며 교재나 기타 자료의 편찬에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언어 교육의 효율성과 표준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학습자 말뭉치는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요구가 제기된다.

첫째, 기존의 언어 교수법은 교수자의 경험과 직관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언어 교육의 효율성 및 교수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둘째,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측면에서 한국어 문법과 어휘에 대해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말뭉치에 근거하여 사전뿐만 아니라 학습교재 편찬, 다양한 교수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학습자 등급별, 주제별, 국가별로 학습자의 능력이나 상황에 맞는 맞춤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여러 가지 변수-성별, 나이, 학습기간, 모국어, 교재선택-가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학습에 반영할 수 있다.

여섯째, 세계적으로 말뭉치를 이용한 언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말뭉치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오류 분석이다.

학습자 오류의 원인은 모국어, 학습 과정, 교과서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방법, 외국어 화자와의 의사 소통에 있어서 학습자의 태도, 목표 언어 규칙의 과잉 적용 등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 학습자 오류는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과 목표어 구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설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활발한 학습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오류는 학습자가 습득하려고 하는 목표어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학습자는 오류를 학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류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학습 과정이다. 학습자가 제 2언어를 바르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교사나 교재, 사전 등 여타의 학습 교재들은 학습자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인지 연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오류의 생산과 확인 그리고 오류 수정을 통해 완전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습자의 말뭉치에서 오류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시하거나 어휘나 문장, 문법 교수에서 이러한 분석 자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보다 쉬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축된 학습자 말뭉

치를 학습자들을 위한 실용성 있는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류 분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여년간 계속되어 왔다. 몇 가지 오류에 대한 가설들⁵⁾과 이를 이론을 적용한 여러 가지 실험 연구들은 외국어 학습자의 학습과정 및 바람직한 언어교수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왔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날자료를 바탕으로 한 오류 분석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지는 학습상의 난점들과 그 원인을 살펴보는 일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교실내 한국어 교수-학습 활동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교수 방법을 모색하고 학습자들의 언어 습득 능력에 맞고 외국인의 눈에서 본 한국어의 난점들을 가려 교재와 학습 자료들을 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분석의 결과 및 내용의 가치를 자세히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말뭉치 구축과 오류 분석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양상을 살피며 학습자의 학습 단계 및 오류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다. 즉 언어권별 학습자에 따라 차별적 교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조사, 어미의 제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오류만을 일으키는 학습자에게 해당 오류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교수할 수 있다.

셋째, 기타 학습 자료를 생산하는데 기준과 참고의 역할을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을 편찬할 때에도 학습자들이 생산한 오류 예문을 실어 사전 사용자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예문 추출과 등재 표제어를 선택하는데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지니는 오류 분석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오류 분석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한계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류 분석은 학습자의 오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오류와 비오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에 비해 오류가 없는 부분은 왜 그러한지를 알 수 있고 이로써 학습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오류의 분류에 관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범주에 걸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선 어느 범주로 적절히 분류할 것인가 결정하기 어려우며 다분히 분석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셋째, 오류의 빈도수를 기술하는 문제로, 오류의 빈도를 단순히 양적으로 파악하여 측정

5) 오류 가설에는 대조분석론, 오류분석론, 중간언어론 등의 오류에 대한 가설들이 있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관사와 같은 문법 항목은 사용 빈도가 많으므로 오류의 빈도수도 높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오류의 절대적 빈도가 아닌 사용 빈도에 대한 상대적 빈도수를 기술하여야 한다.

넷째, 오류 분석 후 오류가 많으면 어려운 항목으로 간주하는데, 오류의 고빈도와 난이도가 과연 비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자신이 어려워하는 문법 항목에 대해 그 항목의 사용을 피해 오류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난이도와 빈도수의 관계는 일치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오류 원인 규명의 문제로 상당수의 오류는 그 원인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모국어론 가진 학습자가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상이하게 오류의 경향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생산한 오류를 언어간의 차이로 할 것인지 목표어 자체 내의 어려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류 분석의 몇 가지 난점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명확한 판단의 기준과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점이다.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은 학습자 말뭉치와 말뭉치에서 얻은 오류 분석의 결과가 학습자가 목표를 향해 얼마나 발전해 왔는가, 무엇을 더 학습할 것인가를 지시하며,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고, 학습자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 분석은 학습자와 학습 교수 지표로 매김할 수 있다.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면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오류는 언어 습득에 있어 분명히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분석과 분석 결과의 연구는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학습과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제 2 장

학습자 말뭉치의 수집과 전산화

1. 머리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과 교수 요목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를 조사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류의 유형화 작업과 이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법의 제시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생산한 말뭉치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특정한 언어를 습득하려는 학습자의 쓰기나 읽기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자들의 오류를 계량적,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별 과정을 거쳐서 전산화된 학습자 말뭉치¹⁾가 모든 학습자 연구의 기초 과정이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생산한 실질적인 자료를 통한 새로운 교수법의 모색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말뭉치의 수집과 이를 전산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즉, 전산화된 학습자 말뭉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나 토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간헐적인 소규모의 오류 분석의 사례만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학습자 말뭉치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 말뭉치(기계 가독형 자료, machine readable data, MRD)의 형태로 구축하여 적은 수의 언어 특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 특질과 그들간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특징적인 오류와 중간 언어적 특성,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 등급별 오류의 특성 등 언어 외적인 변인과의 상관적인 측면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교육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격적인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과제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수집과 전산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며, 말뭉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객관적인 말뭉치 구축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1) 학습자 말뭉치(Learner's corpus)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구축되는 것으로 특정한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생산한 언어 자료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다.

통한 실질적인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말뭉치의 수집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자료를 수집하고 말뭉치를 구축하여 분석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맞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뭉치의 크기 및 그 구성 내용들을 설계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여 체계화 할 것인가가 말뭉치 구축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결정 과제이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있어온 한국어 학습자 오류 조사와 그 결과가 일반성과 객관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첫째, 학습자들의 글말 및 입말을 전사한 것이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그 양이 부족했고 둘째, 자료를 수집, 가공 처리하는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왔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산한 텍스트 자료를 전자 자료로 구축한 예가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잘 구성된 전산화된 말뭉치는 연구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며, 연구자간의 자료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²⁾는 특수 말뭉치로써 표준 말뭉치와 말뭉치 크기나 자료 표집 분야의 선정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준말뭉치가 해당 언어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본화하여 보여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과 구성하는 자료가 내용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텍스트 선별과정이 있으며 또한 범주별 자료 추출량을 어떻게 배정하는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자료 표집 분야가 표준 말뭉치에 비해 복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출량의 배정에 있어서도 학습자가 생산한 자료 전체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기 때문에 자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학습자들이 생산한 텍스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많은 수의 표본을 수집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보다 폭넓은 자료의 수집과 전산화를 위해 자료 표집 대상인 외국인 학습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외부 기관과 어떻게 적절히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1 단계: 말뭉치 규모와 구성 결정
- 2 단계: 한국어 학습자 자료 수집
- 3 단계: 자료의 분류 및 선별
- 4 단계: 자료의 파일링(filing) 및 라벨링(labeling) 작업

2) 여기서 말하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외국어로써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생산한 텍스트를 말한다.

- 5 단계: 한국어 교사 및 한국어 전문가에 의한 오류 주석(첨삭형태)
 6 단계: 오류 판정을 거친 표본의 전산화
 7 단계: 오류 태그 세트에 의한 오류 태깅

각 단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논의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1. 말뭉치 규모와 구성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뭉치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양의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으나 실제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즉, 일반 말뭉치의 경우, 가능한 한 다양한 주제와 텍스트 유형과 장르에 따른 자료 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 비해, 학습자 말뭉치는 극히 한정된 생산자로 일정한 형태의 자료밖에 얻기 어렵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가 생산한 표본의 평균 어절이 초급인 경우 60~70 어절을 넘기 어렵고, 중·고급 수준의 학생의 경우도 100~120 어절 내외의 작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많은 수의 텍스트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감안해 50만³⁾ 어절을 적정한 크기의 말뭉치 규모로 설정하고 차후 지속적인 자료의 보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료는 크게 글말 자료와 입말 자료로 나눈다. 입말 자료는 토론과 대화 이야기 엮어가기로 세분할 수 있고 대화는 다시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와 학생들 간의 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야기 엮어가기는 그림보고 이야기 엮어가기와 책이나 영화 등의 줄거리 말하기로 나눌 수 있다. 글말의 경우, 자유작문과 과제 작문, 시험작문, 백일장, 논문 및 보고서로 세분할 수 있다. 위 제시한 구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글말	자유작문	입말	토론	자유토론
	과제작문			주제토론
	시험작문		대화	교사와의 대화
	백일장			학생들 간의 대화
	논문·보고서		이야기 엮기	그림보고 이야기 엮기
				책이나 영화 줄거리 말하기

<표 1>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 구성

글말과 입말의 비중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성 방법

3) 초기 외국에서 전산화 말뭉치를 구축할 때, 그 표본이 된 BROWN, LOB CORPUS 등은 100만 어절을 말뭉치 크기의 표준으로 삼았다.

이지만 입말을 자료로 선택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학습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고, 둘째, 채록자에 따라 동일인의 발음이라고 해도 다르게 전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전사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표준 전사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전사자의 임의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발화자가 생산한 입말이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말의 명확한 오류 판단의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입말 자료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글말의 경우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간적인 통제를 가할 것인가 가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엄격한 시간의 제한을 두고 일정한 시간 안에 작문을 완성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작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고, 오류와 실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흔히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동일한 표본에서 동일한 어휘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서는 오류를 발생시키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잘못된 어휘 사용을 오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오류와 실수의 판정을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에서 실수로 판단되는 표본을 선별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다시 그 표본을 나누어 준 다음 자신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고치게 함으로써 오류와 실수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글말에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글말의 경우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학습자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교사들의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어 학습자 자료의 전산화에 대한 이해가 차츰 늘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각 교육기관마다 자료를 다루는 방침이 엄격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에 심리적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하나의 표본이 지닌 양이 극히 소량이라는 점과 앞으로 전산화된 학습자 말뭉치가 교육 지침과 교수 방법 개선에 있어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각 교육기관의 공동 참여가 필수불가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매 학기 평균 600명 이상의 학습자)을 비롯하여, 이화여대, 경희대, 서강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학습자들의 글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의 구성이라고 본다.

2.2. 자료 수집의 실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조사 연구 대상 자료의 수집 방법과 생산자 및 자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대상자료의 선정은 어떤 범위의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며 자료는 각 등급별로 어떠한 종류의 자료를 선별할 것인가 결정하는 문제이다.

2.2.1. 대상 자료 수집과 자료가 갖추어야 할 요건

대상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먼저 글말과 입말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글을 중점적으로 수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입말은 입말의 전사 표준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에 있어 오류 판별의 정확도를 신임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많은 양의 자료를 하나의 표본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글말의 경우, 표본의 양이 적긴 하지만 오류 판별이 명확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대상 자료의 선정은 구축 목적과 여러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의 수집 대상 기관 선정에서는 매학기 평균 학생의 수가 200명을 넘는 언어 교육기관을 이용해 최대한 다양한 학습자의 글을 수집하도록 하며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학습자의 글을 수집하도록 한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자료 종류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집 대상 자료는 자유작문과 과제작문(주제작문), 백일장 자료, 시험지 자료 및 외부자료로 구성하도록 한다. 입말자료는 아직까지 전사에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음성 오류 판별에 대한 부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다룬다.

또한 수집 대상으로 가장 많은 학습자 비율을 차지하는 영어 학습자, 일본어 학습자, 중국어 학습자의 글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밖에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 자료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 이유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의 이유가 각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오류에 대처한 교수 방안 및 학습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학습자 비율을 차지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자료가 필수 포함되어야 하며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료는 특정한 등급에 편중됨이 없이 각 등급별로 고루 분포하도록 한다. 각 등급별로 고루 분포하도록 하되 저급의 경우 하나의 표본에 생산한 작문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서 표본수로 하기보다는 어절 수로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즉 각 등급별로 일정한 어절의 양을 추출하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표본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의 표본이 최소 50어절을 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50어절 이하의 것은 작문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학습자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즉 생산자가 글을 쓴 의도나 생각을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판정하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최소 50어절 10문장 이상의 텍스트를 표본으로 삼는다.

동일한 등급에서 자료를 수집할 경우 한 명의 생산자가 여러 개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다. 자료의 종류가 다르다며 상관성이 없겠지만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텍스트를 여러 개 생산했다면 5개 이상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다른 학습자에게 나타나지 않는 오류의 유

형이 다량의 텍스트를 생산한 특정 학생에게만 나타난다면 그 오류 유형은 특정 학생이 속한 등급이나 언어권의 일반적인 오류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객관적인 오류 유형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원본에 대한 복사물로 자료를 접했을 때 오류의 불명확한 판정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 자료 수집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집 대상 자료	-글말 -자유작문/과제작문(주제작문)/백일장/시험지/논문 및 보고서
표본의 어절수	하나의 표본이 50어절, 10문장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학습자 종류	영어, 일본어, 중국어권 모어 화자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한다.
복수 생산자 텍스트	한 명의 생산자가 생산한 표본이 5개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자료의 배분	각 등급의 자료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표본의 수가 아니라 어절 수로 계산한다. (저급의 경우 표본의 수는 많지만 하나의 표본이 가지는 어절의 양은 극히 적음)

<표 2> 한국어 학습자 자료의 기본적 요건 사항

위의 요건은 이미 확보된 자료에 대한 사항이며,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작문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통된 주제에 대한 기획 작문이나 자유 작문들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자료는 기본적인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료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은 말뭉치가 가치 있는 자료로서, 분석의 대상으로서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표본에 대한 학습자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대상자료는 학습자의 중간언어의 생성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쓴 텍스트에 개인의 정보를 반영하여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출신국가, 성별, 학습기간, 모국어, 등급, 학습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의 오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 각 요인 별로 오류를 분류, 분석하고 유형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류 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요소로서 다음의 10가지를 고려하기로 한다. 국가(nationality), 학습자 모국어(mother tongue), 학습자 등급(level), 교육 기관(school type), 학습기간(learning period), 과제유형(task type), 성별(gender), 나이(age), 직업(occupation), 문제 유형(topic)의 10가지가 자료 수집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학습자 정보 표지이다. 이외에 한가지 더 첨가한다면 ‘할 수 있는 다른 외국어(possible language)’ 정도가 있다. 즉 다른 제2 외

국어가 오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며 다른 외국어의 문법이나 어휘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오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언어 배경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국가명은 영어 철자의 앞에 세 자리까지만 사용하도록 한다(USA). 제외 동포들은 'Korean'의 'K-'를 국가명 약자 앞에 붙이도록 한다(KUSA). 학습자 모국어는 국가명 앞에 'Speak'의 'S-'를 붙인다(SRUS). 단 영어는 'English'의 철자를 따서 'SENG'로 한다. 학습자의 등급은 각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어 능력 시험(KPT)의 등급으로 조정한다면 전체를 1급에서 6급까지 구분하는 것을 표준안으로 선정한다. 수준 역시 BEGINNING, ELEMENTARY, PIPRE-INTERMEDIATE, INTERMEDIATE, ADVANCED, PROFICIENCY, AS ACADEMIC-STUDENT로 나눈다. 학교 유형은 기관과 개인으로 먼저 나눈 뒤, 기관의 경우 국가적 기관과 대학 부설기관으로 다시 분류한다. 국가적 기관의 경우는 'National-해당교육기관의 약자'로 표기하고(National-UNESCO), 대학 부설 기관의 경우는 'Public-해당교육기관의 약자'로 표기(Public-YON)한다. 학습자의 학습 기간은 국내, 국외가 다르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을 단위로 계산한다. 과제의 유형은, 숙제, 시험, 일기, 작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에 번호를 주어서 표기하도록 한다. 성별은 남(M), 여(F)로 나이는 10대, 20대, 30대 등으로 기준을 삼되 표시는 A10, A20 으로 나타낸다. 직업은 국가명을 표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앞 철자 3자로 표현한다. 문제 번호는 과제 유형이 시험지의 경우일 때 해당되는 기입 사항으로 중간시험은 6MT, 기말시험은 6FT 등으로 표현한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료 수 집	생산지	
	생산일	
	생산자	
국가 (nationality)		1. 국가명은 영어 철자로 하며 영문의 앞 세 자리까지 한다. → JAP(일본), USA(미국), CHI(중국), FRA(프랑스), RUS(러시아), NOR(노르웨이), AUS(호주), UZB(우즈베키스탄), KAZ(카자흐스탄), MON(몽골), PHI(필리핀)...
학습자 모국어 (mother tongue)		2. 재외동포들은 앞에 K-를 붙인다. → KJAP(재일동포), KUSA(재미동포)
학습자 등급 (Level)		1. 국가명 앞에 '말하다(Speak)'를 의미하는 '-S'를 붙인다. 2. 영어의 영문 표기 중 첫 세 글자를 약호로 취한다.(ENG) → SGER(독어), SJAP(일어), SENG(영어), SCHI(중국어), SFRA(불어)...
학습자 등급 (Level)	수준	BE(GINNING), EL(EMENTARY), PI(PRE-INTERMEDIATE), IN(INTERMEDIATE), AD(VANCED), PR(OFICIENCY), AS(ACADEMIC-STUDENT).....
	등급	다음은 한국어 교육의 기관에서의 등급이다. 총 6등급으로 나눈다. → L1(1급), L2(2급), L3(3급), L4(4급), L5(5급), L6(6급)
학교 (school type)	기관	기관의 경우 국가적 기관과 대학부설기관으로 나눈다. National - 국제교육진흥원, 한국 유네스코, YMCA... Public - 대학 부설 어학원, 사설 학원... *대학 부설 기관일 경우 학교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 → Public-YON, Public-KUNG...
	개인	개인의 경우 독학과 개인 과외로 나눈다. Self-study(독학) MTM(Man to man) (개인교습)
학습 기간 (learning period)		학습기간의 경우 기준이나 단위가 국내, 국외, 개인마다 다르므로 시간단위로 계산함. → ○○주 : 100T(time, 100시간)
과업 유형 (Task type)		1(숙제)-보고서.../2(발표)-연극 대본, 웅변... /3(좌담)-토론... /4(작문)-수필, 편지, 소개서... /5(일기) /6(시험) * 시험의 경우 종류별로 표시할 수 있다. PT(power test:능력평가), MT(middle test:중간평가), FT(final test:기말평가), AT(aptitude:적성평가), QU(quiz:퀴즈), ACT(achievement:성취도평가), PRT(proficiency:능숙도평가) ...
성별(gender)		M(남), F(여)
나이(age)		A10(10대), A20(20대), A30(30대), A40(40대), A50(50대).....
직업(occupation)		STU(DENT), TEA(Cher), WOR(KER), WIF(E), PRO(Fessional), NONE...
문제유형(topic)		시험 경우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중간평가일 경우 6MT로 표시함)

<표 3> 학습자 개인 정보 표지 부착안

이상의 개인 정보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의 분석과 유형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2.2. 자료 분류 및 선별

자료가 수집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 자료가 사용가능한 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우선 자료의 양이 적정한지 판별해야 하며 아울러 학습자 개인 정보가 부착되어 있거나 개별적으로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갖추어진 것만을 선정한다. 이 같은 정보가 없을 때에는 자료로써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시 되어야 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즉, 앞서 설명한 자료 요건에 따라 작문의 형태로 된 것만을 취하되, 전체 어절이 50어절 이하이거나 작문의 형태가 아니라 문장 이어나가기나 질문에 대답하기 등의 글말 자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학습자 개인 정보가 빠진 텍스트는 자료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텍스트를 5회 이상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며 5회이상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텍스트는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수집된 자료가 일정한 분류의 형식을 갖추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가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자료의 종류별, 즉 자유작문, 과제작문(주제작문), 백일장, 시험지 자료, 논문 및 보고서 등으로 분류하여 선별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2.2.3. 자료의 파일링(filing) 및 라벨링(labeling) 작업

선별과정을 거친 자료들은 각 기관과 수집 시기, 자료의 종류, 등급별로 분류된다. 수집 기관과 수집 시기, 자료의 종류, 등급 등은 자료의 파일링의 기준으로 삼고 라벨링 작업에 그대로 적용한다. 기관은 앞서 설명한 생산자가 소속되어 생산한 기관을 의미하며 표시 방법은 영문자의 첫 세 글자를 약자로 삼는다. 따라서 연세대학교의 언어교육연구원에서 수집된 자료는 'YON'이라는 약자로 파일명이 생성되고, 이화여자 대학교의 언어교육원은 'EHW' 등으로 표기된다. 수집시기는 그대로 숫자로 표기하여 '2001', '2002'로 수집 기관에 연달해 표기한다.

자료의 종류는 자유작문, 과제작문(주제작문), 백일장 등으로 표기하거나 자료의 양이 많아 하나의 덩이로 묶을 경우는 일정한 그룹명을 붙여 그 그룹명을 자료의 종류로 삼는다. 예를 들어 '자료1'이 자유 작문을 나타낸다면 '자료1'을 수집 시기에 이어서 표기하도록 한다.

등급은 학습자 정보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level'의 'L'을 사용해 1급은 'L1' 2급은 'L2', 3급은 'L3' 등으로 표시한다.

각각의 기관과 수집시기, 자료종류, 등급은 언더바(under bar)로 구분하여 라벨링 한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에서 2002년 봄에 수집한 3급의 자유 작문은 'YON_2002_봄_자유작문_L3'로 라벨링 하고 하나의 파일로 만든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집된 자료는 원본을 수집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원본에 대한 복사물로 자료를 접했을 때 오류의 불명확한 판정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집된 원본에 대해서 2부의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용과 오류 주석을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 원본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캔(scan)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는데 이는 원본을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되돌려 주고 난 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확인 작업과 학습자 오류의 판정을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함이다.

2.2.4. 한국어 교사 및 전문가에 의한 첨삭 형태의 오류 주석

선별과정을 거쳐서 파일링과 라벨링 작업을 마친 자료는 첨삭 형태의 오류 주석의 과정을 거친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학습자가 생산한 표본에 대해 오류를 판정하고 그에 대한 주석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어 교사 및 한국어 전문가에 의한 첨삭 형태의 오류 주석 과정이 필요하다. 원본에 대한 오류 주석용으로 복사한 자료를 이용해 주석 작업을 실시하는데, 여기서는 오류에 대한 면밀하고 유용한 태그 세트 확정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수작업으로 실시되는 오류 주석에 대한 대안으로 오류 주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한데, 하나는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를 그대로 입력한 텍스트 파일과 다른 하나는 동일한 텍스트 파일이지만 오류 부분을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한 텍스트 파일이다. 두 파일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한 뒤, 오류가 발생한 어절에 대해서 이미 수정해 놓은 어절이 자동으로 교체되고 오류 부분에 대해 자동으로 주석이 되는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는 반자동적인 방법으로써 텍스트 파일로 된 표본에 직접 오류 주석을 가하는 방법이다. 종이에 주석하는 것을 텍스트 파일에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오류 주석이 가한 텍스트 파일과 오류 주석은 DB로 저장되고 오류 탐색 도구에 의해 찾고자 하는 오류를 탐색할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방법 모두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완벽한 자동화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3.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전산화 방안의 실제

이 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전산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려고 한다. 균형말뭉치는 여러 장르의 텍스트를 적절히 배분해서 각각의 개별 텍스트가 가진 특수성보다는 전체 말뭉치가 가지는 대표성과 균형성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전체 말뭉치를 구성하는 각각의 표본에 대한 특수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하며 각 표본이 지닌 여러 개별 정보와 오류가 전체 말뭉치 구성과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말뭉치를 사용하기 위한 전산화 과정에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한국어 학습자 오류 말뭉치 표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전산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사항과 학습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의 보다 효과적인 주석 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시하겠다.

3.1. 폴더 및 파일의 구성과 표본의 입력 방안

한국어 교사 및 한국어 전문가의 손을 거친 자료는 오류 주석이 부착되어 있고 이를 전

산화하는 작업이 남았다. 전산화 과정이야말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가 전산 자료로써 여러 가지 연구에 이용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전산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 입력을 하기 전에 앞서 말뭉치의 이름과 체계적인 파일명이 필요하다. 말뭉치의 이름은 파일이름은 말뭉치의 이름은 '연세 학습자 오류 말뭉치(YONSEI LERNER'S ERROR CORPORA)' 줄여 YLEC 라고 한다. 각 말뭉치는 생산된 시기별로 폴더화 한다. 예를 들어 'YLEC 1'은 2002년 자유작문, 'YLEC 2'는 2002년 시험작문, 'YLEC 3'은 2002년 백일장 자료 등으로 번호를 붙여서 말뭉치의 성격을 규정하도록 한다. 전체 말뭉치에서 하나의 파일로 묶을 수 있는 폴더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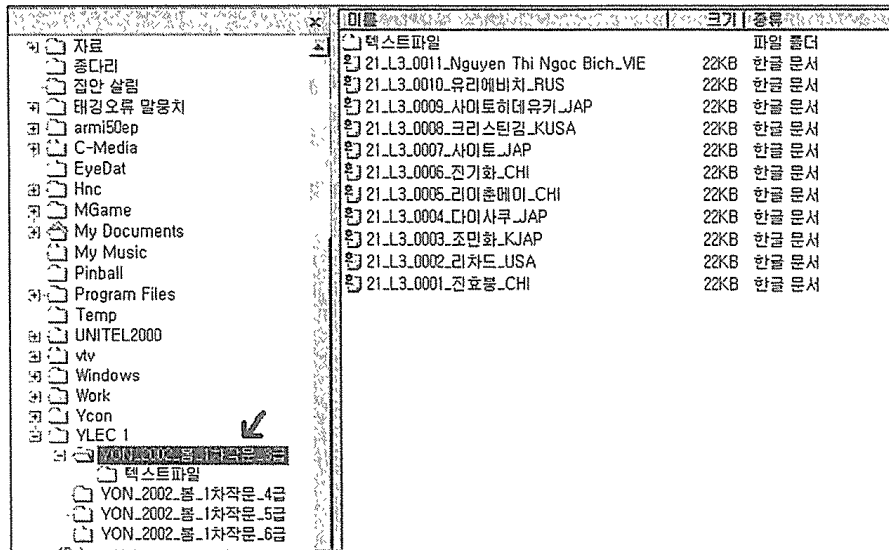
YON_2002_봄_1차작문(자유작문)_3급

'YON'은 'Yonsei'의 줄인 말로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의미한다. '2002_봄'은 2002년 봄에 작문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3급'은 해당 자료의 급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폴더 안에는 각 급에 해당하는 각각의 표본들이 들어 있는데, 하나의 표본이 하나의 파일로 생성되도록 한다. 하나의 표본이 하나의 파일로 존재할 때, 표본과 학습자 정보 그리고 오류가 지니는 상관적인 요소의 파악이 가능하다.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표본을 담았을 경우, 파일명에 여러 명의 표본 생산자 이름과 서로 다른 국적 및 등급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파일명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자 정보가 상실될 수 있다.

파일명은 다음과 같다.

21_L1_0001_생산자 이름_CHI

앞의 숫자 21은 2002년도에 생산된 자료1(자유작문)을 의미한다. L1(level 1)은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며 0001은 일련 번호를 나타낸다. 일련번호 뒤에는 생산자의 이름과 해당 국적을 표기하는데 각각의 정보는 언더바(under bar)로 구분한다. 폴더는 각각 등급별로 만들어서 저장한다. 이러한 파일명으로 생산 연도, 등급, 총 표본의 수, 생산자이름, 국적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컴퓨터에 폴더와 파일을 생성한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YLEC 폴더와 파일 생성

자료의 입력은 ‘아래 한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일정한 양식을 갖춘 학습자 정보를 부착한 표본을 입력한다. 입력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은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학습자가 생산한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이 자료를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일본어, 중국어 화자들은 자국 언어의 특성상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입력자가 정확하게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입력을 한다. 왜냐하면 어절 단위로 잘라서 오류 태그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절 빈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띄어쓰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띄어쓰기 오류는 오류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거의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오류로 인정한다면 모든 어절이 오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띄어쓰기 판정이 모호한 경우, 즉 음절과 음절간의 간격이 너무 일정해서 이것이 띄어쓰기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명확한 것도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는 오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입력할 때 띄어쓰기를 원칙에 맞게 입력하도록 한다.

둘째, 한글을 제외한 그 밖의 언어 즉, 한자, 영어, 문장부호 등 한글 이외의 언어는 원문 그대로 입력한다. 그러나 전각기호로 표시된 것은 취하지 않는다. 한글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했을 때, 전각기호가 깨져서 출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문 지도 시 될 수 있으면 전각기호나 특수기호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한 문장이 끝나면 반드시 ENTER 키를 친다. 텍스트 파일에서는 ENTER 키를 치지 않으면 문장이 계속 이어져서 화면 안에 모든 문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체의 작문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오류 입력 프로그램에서도 한 문장의 구분자를 ENTER 키로 설정하기 때문에 한 문장이 끝나면 반드시 ENTER 키를 이용해 다음 문장과 구분한다. 보통 마침표를 문장 구분자로 하는데 이럴 경우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한 작문에서 문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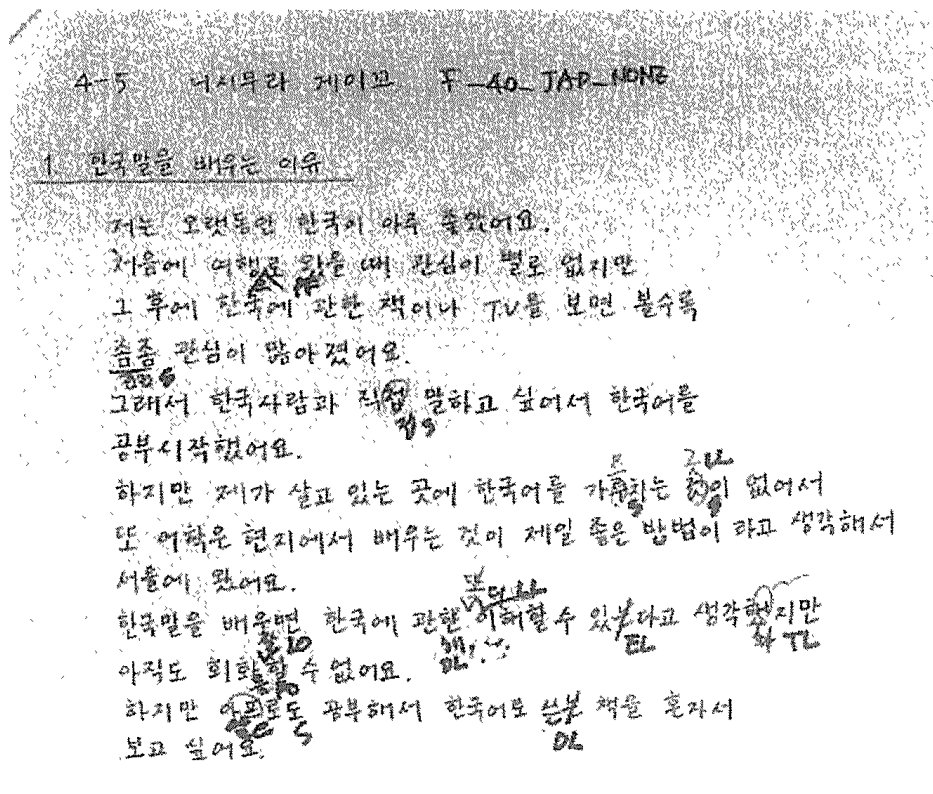
간에 사용한 낱자에 사용하는 점(2002.2.23)과 혼동되기 때문에 문장 구분자는 ENTER 키로 한다.

넷째, 맞춤법의 오류로 인해 글자가 깨져서 입력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한다.

<code> 엽</code>

원문에는 ‘ㄷ’이 ‘엽’의 종성에 ‘ㅂ’과 나란히 쓰여져 있었으나 한글에서는 동일하게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글자가 깨어져 입력됨을 표시한다. 만약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가 동일하게 생산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류 분석과 유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다.

다섯째, 입력이 완성된 한글파일은 동일한 파일명으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시킨다. 또한 원문은 스캔(scan)을 하도록 한다. 한글파일의 파일명과 텍스트 파일명, 그리고 스캔한 원본의 파일명을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 오류 판정을 거친 원문을 스캔한 것

3.2. 개인 정보 표지 체계의 필요성

개인 정보 표지는 표본을 입력할 때 표본의 첫머리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학습자 정보는 각 개인의 오류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통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론 파일명에 간단한 표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보다 상세한 표본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 정보 표지가 필요하다. 개인 정보 표지에 입력되는 사항은 국가(nationality), 학습자 모국어(mother tongue), 학습자 등급(level), 교육 기관(school type), 학습기간(learning period), 과제유형(task type), 성별(gender), 나이(age), 직업(occupation), 문제 유형(topic)의 10가지가 고려된다. 이 외에 '할 수 있는 다른 외국어(possible language)' 정도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제2 외국어가 오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며 다른 외국어의 문법이나 어휘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오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보 입력방법은 앞서 2.2.1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실제로 학습자 개인 정보 문서 표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ead>	
<place>KOR</place>	← 생산장소
<date>2001.03.23</date>	← 생산날짜
<name>고바야시</name>	← 생산자 이름
<national>JAP</national>	← 국적
<mother>SJAP</mother>	← 모국어
<possible foreign language>NONE</possible foreign language>	← 할 수 있는 다른 외국어
<level>L1</level>	← 학습 수준
<school>Public</school>	← 학습 기관
<period>100T</period>	← 학습 기간
<gender>M</gender>	← 성별
<age>A10</age>	← 연령
<occupation>STU</occupation>	← 직업
<topic>5</topic>	← 과제 유형
</head>	

학습자 개인 정보 표지는 <head></head>로 구분되며 모든 정보는 태그(tag)에 의해 표시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학습자 개인 정보 표지는 프로그램 상에서 일관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며 어절 분석기에서는 <head></head>로 묶인 학습자 정보가 count되지 않는다. 실제 학습자 개인 정보 표지가 부착된 샘플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자료 입력물 예>
<set 0001>
<head>
  <place>KOR</place>
  <date>2001.04.23</date>
  <name>캔</name>
  <national>USA</national>
  <mother>SENG</mother>
  <possible foreign language>NONE</possible foreign language>
  <level>L4</level>
  <school>Public-YON</school>
  <period>600T</period>
  <gender>M</gender>
  <age>A20</age>
  <occupation>PRO</occupation>
  <topic>4</topic>
</head>
내가 한국말을 배우는 이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미이나 제일 교보이고 가족을 하고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
을 하고 결혼했으니까 한국말을 꼭 배워야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으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저요?
처음에는 제가 육군에서 입대한 후에 책임자들이 제 시험을 결과가 봐서, 야! 니가 잘 했으니까 직업
으로 한국말을 번육을 하고 통육을 하라고 했어요.
</set>

```

전체 표본은 학습자 정보 표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set으로 표시한다. <set0001>은 해당 표본이 속한 폴더의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set0005>라고 표시된 표본은 해당 폴더의 5번째 표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자 정보는 <head>로 시작해서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서 </head>로 닫힌다. 이후에 학습자가 생산한 작문이 입력되고 작문 내용이 끝나는 곳에서 전체 표본이 끝났다는 </set>가 표시된다. 학습자 정보 표시를 통해서 학습자의 이름과 국적, 모국어, 등급, 학습기관, 한국어 교육 시간, 성별, 나이, 직업, 문서종류, 작문의 생성 장소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오류의 유형화와 통계에 반영된다.

3.3. 자료 오류 주석 방안과 프로그램 이용

3.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오류 말뭉치를 전산화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폴더 및 파일의 구성 방안과 표본의 입력방안, 그리고 표본에 부착되어야 하는 학습자 정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3.3에서는 말뭉치의 전산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바탕으로 오류 주석과 오류가 나타나는 어절 및 문장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려고 한다.

앞서 2장에서 말뭉치 수집의 실제 과정에서 파일링과 라벨링 작업이 끝난 자료에 대해

한국어 교사와 한국어 전문가에 의한 오류 주석 과정이 있었다. 이 오류 주석과정 이후 전산 입력과정이 실시되고 오류 주석도 입력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때 오류 주석 입력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표본이 입력된 한글 파일에 직접 태그를 이용해 오류 주석을 하는 경우이다.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류 유형을 탐색하기 어렵고 통계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오류 주석을 일일이 사람의 힘을 빌어 해야한다.

둘째, 일정한 오류 주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류 주석을 하는 방법이다.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개발된 오류 주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오류 주석을 수월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 유형별 통계 및 사용자가 손쉽게 자신이 찾으려고 하는 오류의 유형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류 주석을 함에 있어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한 작문에 문법 정보를 주기 위해 형태소 분석을 해왔다. 그러나 텍스트의 특성상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한 작문은 자동 형태소 분석을 했을 경우, 분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며 분석의 오류율이 일반 텍스트보다 높게 나타난다. 수작업에 의한 형태소 분석은 믿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형태소 분석은 그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 외국인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를 가지고 자동으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오분석이 나타났고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를 명사나 고유명사로 판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법 정보를 주기 위한 형태소 분석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굳이 문법 정보를 주기 원한다면 사람이 직접 형태소를 분석을 하거나 자동으로 형태소 분석을 한 후, 후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용 형태소 분석기 개발 방법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한 일반 텍스트의 형태소 분석의 오류율을 감안할 때 얼마나 높은 분석율을 가지는 한국어 학습자용 형태소 분석기가 개발될지 의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기보다는 어절 분석을 중심으로 어절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절 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류 주석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오류 주석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력된 한국어 학습자 오류 말뭉치가 있어야 하고 오류 주석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하는 오류 주석 태그 세트(tag set)를 확정해야 한다. 오류 태그 세트가 확정이 되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선택사항들을 설정하고 오류에 대한 주석을 실시하는데, 오류 주석은 완전 자동이 불가능하다. 자동으로 오류 주석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컴퓨터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오류 분별 능력이 있거나 학습자가 생산해 내는 모든 종류의 오류를 유형화해서 비슷한 오류가 입력되었을 때 프로그램이 해당 오류 유형에 유사한 주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학습자가 생산하는 오류의 종류가 유한하다는 전제에서 값을 주는 것이므로 정확한 오류 주석이 불가능하다. 즉, 인간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오류는 무한하며 일정한 몇 개의 것으로 유형화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류

주석은 아직은 기술적인 면에서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오류 주석을 오류 주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을 강구한 결과 완전한 자동처리는 아니지만 좀 더 손쉬운 방법의 학습자 오류 주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래의 그림이 학습자 오류 주석 입력기의 화면이다.

<그림 3> 학습자 말뭉치 오류 주석 입력기

오류 주석 입력기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 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선택한 파일을 열어서 위에 제시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이때 학습자 정보는 왼쪽의 해당 정보란에 자동적으로 입력된다. 오른쪽 하단의 버튼들 중 “원본문장->교정어절”을 클릭하면 원본문장에 있는 문장들을 어절단위로 분리하여 아래의 그리드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입력자는 교정어절 부분을 수정하고 적절한 예러 유형을 아이콘으로 선택한 후 “교정어절->교정문장”버튼을 클릭하면 교정어절 부분에서 수정한 사항들이 맨 위의 교정문장 박스로 자동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표본의 오류 주석에 대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서버에 데이터 베이스화 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된 자료는 탐색이 가능하다. 완전한 자동처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류 주석의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말뭉치의 전산화, 그 가운데서도 유형화하기 어려운 학습자 오류 말뭉치에 대한 주석에서 어느 정도 전산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고 본다.

입력

파일명: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바탕 화면\WLI_0001_전효봉_CHI(T).txt

출가: [출가]

파일열기: [파일열기]

학습자 정보

성명: 한국

성명 날짜: 2002.04

성명자 이름: Qin Xiao Peng 진효

국적: CHI

모국어: SCHI

학습 수준: L1

학습 기관: Pub-YON

학습 시간: []

성별: M

연령: 30

직업: STU

문제 번호: 4

오류 입력

원문

저는 진효봉입니다.
제 친구는 조덕화씨입니다.
이 분이 조덕화입니다.
조덕화 씨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입니다.
조덕화씨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한국말이 공부합니다.
놀도 합니다.
노래도 합니다.

교정문

저는 진효봉입니다.
제 친구는 조덕화씨입니다.
이 분이 조덕화입니다.
조덕화 씨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입니다.
조덕화씨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한국말이 공부합니다.
놀도 합니다.
노래도 합니다.

오류 분석

원문	교정문	오류유형
저는	저는	LN
진효봉입니다.	진효봉입니다.	LEX
제	제	LX
친구는	친구는	LF
조덕화씨입니다.	조덕화씨입니다.	LF
이	이	PL
분은	분은	TL
조덕화입니다.	조덕화입니다.	TL
조덕화	조덕화	HL
씨는	씨는	PA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PA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	PA
조덕화씨는	조덕화씨는	PA

원문문장>교정문장 | 교정문장>교정문장 | 입력 | 종료

<그림 4> 오류 주석 입력기의 오류 주석 실제

4. 학습자 말뭉치 구축 현황

본 연구에서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균형 말뭉치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먼저, 자료별로 말뭉치 구축을 살펴 보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에서 '자유형 작문'과 '통제형 작문'의 균형을 고려하였는데,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즉,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이 학습 현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한국어 학습 역시 교실 이외의 공간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양상을 적절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유형 작문'과 '통제형 작문'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별로 충분한 표본을 모아, 평균 어절 수도 일정 수 이상이 되도록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표본의 수가 충분치 않거나 어절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이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학습된 언어 지식/능력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오류의 출현이 실수에 의한 것인지, 한국어 지식의 미흡으로 발생한 진정한 오류인지를 타당하게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본의 수집에서 교육 기관의 다양성도 고려하였는데, 현재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여러 공식 교육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여러 교육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교육 기관 별 한국어 학습의 차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각 교육기관의 한국어 학습 교재와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한국어 학습 교재의 편찬 및 교안 개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측면도 고려하였다.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 혹은 주제가 동일할 때, 그리고 수준이 동일할 때, 학습자마다의 한국어 지식과 오류 양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고, 내용 혹은 주제가 다양할 때, 학습자의 한국어 지식을 폭넓게 관찰함으로써, 특정 표현이 오류인지 실수인지, 학습의 산물인지 우연의 산물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측면에서 말뭉치 구축을 살펴보면, 급(수준)별로 학습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성별의 비율도 고려하였으며, 모국어 별로도 각 언어권마다 일정 수 이상의 표본이 되도록 하였다. 재외교포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교포와 외국인의 비율도 고려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고려 사항들은,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가 여러 가지 변인(모국어, 성별, 등급, 등등)에 대한 적절한 통계적 분석의 기반이 되기 위한 것들이며, 이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자료별 구축 현황

구 분		수준	분류	내 용	표본수	어절수	평균
자료1 (자유작문)	YON_2002_봄_1차	1급	자유 작문	친구 소개	85	4,797	56
		2급		편지 쓰기	67	7,405	111
		3급		내가 살고 싶은 집	55	7,462	136
		4급		내가 한국말을 배우는 이유	69	5,544	80
		5급		친구, 가족, 봄	67	9,084	134
		6급		자기 소개	31	5,998	193
		B고급		추천하고 싶은 곳	22	5,614	94
		B저급		한국에 와서 느낀 점	59	3,352	152
전 체					455	49,256	119

표 4.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현황 : YLEC4 자료1(자유작문)

구 분		수준	분류	내 용	표본수	어절수	평균
자료2 (주제작문)	YON_2002_봄_2차	1급	주제 작문	사진보고 설명하기	104	6,624	63
		2급		여행이야기	53	7,132	137
		3급		영화, 유행에 대해 자기 의견 이야기하기	35	4,245	121
		4급		얼굴, 20년 후의 나	59	11,459	194
		5급		스트레스 해소법, 가치관 차이 등	62	8,700	140
		6급		방송규제, 동성애, 한자 교육 등	29	5709	197
		B고급		자유 주제	14	2,842	124
		B저급		음식 이야기, 집 이야기	23	1,717	123
전 체					379	48,428	137

표 5.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현황 : YLEC4 자료2(주제작문)

구 분		수준	분류	내 용	표본수	어절수	평균
자료3 (자유작문)	YON_2002_봄_3차	1급	주제 작문	내가 좋아하는 것	127	8,771	68
		2급		사진 이야기	48	6,223	139
		3급		3급을 끝내며, 한국 생활	45	5,289	118
		5급		인터넷과 사람, 사생활 침해, 다양한 가족형태	63	9,396	150
		6급		다양한 주제	28	6,944	248
		B저급		자기 소개, 가정의 소중함, 부탁	17	1,500	88
전 체					328	38,123	135

표 6.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현황 : YLEC4 자료3(자유시험)

구 분		수준	분류	내 용	표본수	어절수	평균
자료4 (중간시험)	YON_2002_봄_4차	4급	시험 작문	가 볼 만한 장소 추천하기, 봉사활동 등	80	7,277	91
		5급		세대차이, 한국어 온 후 달라진 한국에 관한 선입관	80	7,244	91
		6급		반대하는 주장 쓰기	32	1,671	52
전 체					192	16,192	78.00

표 7.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현황 : YLEC4 자료4(중간시험)

구 분		수준	분류	내 용	표본수	어절수	평균
자료5 (기말시험)	YON_2002_봄_5차	4급	시험 작문	아름답게 산다는 것 나의 꿈	76	10,596	139
		5급		두 견해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의 견해 쓰기	76	3,875	50
전 체					152	14,471	94

표 8.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현황 : YLEC4 자료5(기말시험)

구 분		수준	분류	내 용	표본수	어절수	평균
자료6 (숙제공책)	YON_2002_봄_6차	2급	숙제 작문	학기 중의 숙제	15	7,277	485
전 체					15	7,277	485

표 9.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현황 : YLEC4 자료6(숙제공책)

구분		수준	분류	내용	표본수	어절수	평균
자료7 (외부자료)	EWHA_2002_봄	3급	자유작문	숙제로 여러 가지 글쓰기	23	3,801	165
	HANKUK_2002_여름	1-5급	시험작문, 자유작문	편지쓰기, 고향, 날씨	29	4,641	133
	KUNG_2001_봄_기말	고급	주제작문	한국의 문화, 언어 정치, 경제에 대하여 쓰기	26	5,797	223
	KUNG_2001_가을	초급	자유작문	여러 가지 내용	53	4,292	79
	KUNG_2001_가을	중고급	주제작문	자기소개/짧은 글 읽고 자신 생각 적기/ 날씨에 관한 경험	20	1,954	98
	SOGANG_2002	1-6급	주제작문	하루일과, 친구소개, 편지	7	1,037	148
	SOGANG_2002_봄	2-7급	주제작문	자기소개, 한국에 대하여	41	3,561	87
기타		1-6급	시험작문	편지쓰기, 취미	4	608	152
전체					203	25,691	135

표 10.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현황 : YLEC4 자료7(외부자료)

구 분		수준	분류	내 용	표본수	어절수	평균
자료8 (백일장)	2001_백일장	등급 섞임	주제 작문	수필	316	65,030	206
				시	662	53,342	81
전 체					978	148,372	144

표 11.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현황 : YLEC4 자료8(백일장)

구분		수준	분류	내용	표본수	어절수	평균
자료9 (2001년)	YON_2001_겨울_기말	1급	시험 작문	자기소개	70	4,362	62
		2급		여행이야기	98	6,307	64
		3급		내가 ~이라면	84	6,671	79
		4급		여행, 정보화	80	8,027	100
		5급		현대산업사회와 환경문제	51	4,143	81
		6급		나이, 상담	36	3,267	91
		B1급		한국생활, 가족, 친구	11	2,169	197
		B2급		서울의 교통, 내가 좋아하는 음식, 소포나 편지	12	786	66
		B3급		아팠을 때	10	759	76
		B4급		가장 후회스러운 일, 실수	12	966	81
	YON_2001_겨울_중간	4급	시험 작문	나만의 건강 관리법, 미신이나 종교, 당황했던 경험	93	8,719	121
		5급		달라진 한국의 선입관, 직업관	51	5,554	109
		6급		종교에 대한 의견 쓰기	35	2,060	59
		B1급		하루 일과	13	1,408	108
		B3급		자주 가던 가게, 잊을 수 없는 여행, 어렸을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10	1,877	188
		B4급		잊을 수 없는 사람/말/선물, 내가 만약 ~라면	8	689	86
	2001_봄	6급	주제, 시험 작문	자기소개서, 여행과 꿈을 주제로 한 작문	63	13,937	221
전체					737	71,701	105

표 12.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현황 : YLEC4 자료9(2001년)

구 분		수준	분류	내 용	표본수	어절수	평균
자료10 (2000년 이전)	2000_가을	6급	자유 작문	쓰레기, 폭력, 편지 쓰기 등	63	13,538	218
	2000_가을	4급	주제 작문	건강, 미신, 세월에 관한 작문	7	1,001	143
	2000_겨울_중간	1급	시험 작문	문장 주고 적절하게 답하기	39	1,391	36
	2000_겨울_기말	6급	시험 작문	긴 글을 50자로 요약하기/편지의 주제에 맞게 답장 쓰기	27	2,781	103
	2000_봄	6급	보고서	자유로운 작문	40	62,078	1,552
전 체					176	80,789	410

표 13.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현황 : YLEC4 자료10(2000년 이전)

5. 결론

지금까지 학습자 말뭉치의 수집과 전산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말뭉치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말뭉치 수집 과정에서부터 면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말뭉치 수집이 없고서는 전산화된 말뭉치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즉, 학습자 말뭉치의 전산화는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학습자 정보, 그리고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오류 태그 세트가 확정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오류 유형의 조사와 분석, 오류의 예방과 대처,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교수법의 제시 등이 불가능하다.

학습자 말뭉치의 수집과 그 전산화 방안에서 다른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또 폭넓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습자 오류의 유형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료의 수집이 있어야 하고 둘째, 학습자 말뭉치의 주석과 가공, 그리고 용례의 검색을 위한 도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앞서 제시한 오류 주석 프로그램이 있으나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어 교육 기관 및 연구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표준 마크업 체계 및 완전한 오류 주석 태그 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 기관 및 연구자간의 공감각이 없이는 널리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이럴 경우, 각 기관별 주석 체계 및 마크업 체계가 만들어지고 전체 기관에 사용되는 오류 주석 및 용례 검색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자료의 공유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이나 오류 주석 및 용례 검색기에 대한 표준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한국어 교육 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제 3 장

오류 유형 주석을 위한 기초 연구

1. 오류 유형의 분류 체계를 위한 기초적 연구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오류 유형의 범주 혹은 오류에 관한 기초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오류 유형의 태그셋을 한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EA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많은 분류 체계를 보겠다.

1.1. 오류 사전에서의 오류의 범주 분류

먼저 한 카테고리 안에 여러 오류 군들을 조정하고 분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오류 사전(dictionary)이다. 오류 사전은 각각의 사전 특성에 맞게 오류의 범주를 설정한다.

Turton의 '일반적 문법 오류의 ABC'(ABC of Common Grammatical Errors)에서는 주어-동사 일치, 시제, 수동태, 의문사 등등의 구조적 문법적 오류뿐만 아니라, '단어의 문법적 오류'(word grammar errors) 즉, 학습자가 특정 단어의 사용법칙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다루고 있다.⁴⁾ 그리고 이 외에,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용법이 다른 경우를 표시해 주고, '공식성의 정도'(levels of formality)와 관련된 스타일의 문제나 다소 관습적이고 오래된 모호한 표현 규칙-영어 화자들은 사용하지 않는-들을 사용하여 '오류'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한 표시를 해 주고 있다.

오류 사전의 원형인 Fitikides의 '영어의 일반적인 실수'(Common Mistakes in English, 1936)라는 책에서는 오류들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1. 잘못 사용된 형태(Misused forms): 잘못된 전치사, 시제의 부적절한 사용, '비영어적 표현'

4) 예를 들어, 'allow'와 'let'이 각기 다른 보어 구문(complement structures)을 사용하는 데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She allowed her son to smoke 와 She let her son smoke는 모두 문법적으로 맞지만, She let her son *to smoke 와 She allowed her son *smoke 는 틀린 것이다.

- 의 잡동사나: 그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instead of *to wait/√waiting; a poem to learn *from out/√by heart.
2. 부정확한 생략(Incorrect omission): 전치사의 부정확한 생략, 기타 등등.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He lest he *∅ miss/ √shoul miss the train.
 3. 불필요한 단어(Unnecessary words): 전치사, 관사, to, 기타 등등. 예: Please answer * to/ √∅ my letter.
 4. 단어의 잘못된 배치(Misplaced words): 부사, 기타 등등. 예: He worked *yesterday at home/√at home yesterday.
 5. 혼동되는 단어(Confused words): *to/at, *to/till, *lie/lay, *borrow/lend, made*of/fro,, *less/fewer, *cost/price

1.2. 언어학적 분류 방식에 따른 오류의 범주

위와 같이 오류 사전에는 간단한 범주화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목록화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목록화는 오류 분류(error taxonomies)는 아니다. 즉 어떤 구조적 기준(criteria)에 의해서 분류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류 기준은 분류 대상에 대해 관찰 가능한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오류 분류에 이용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인데 성별, 연령, 학습자의 국적, 교육 기관, 오류가 나타난 활동의 유형(type of activities: 예를 들면 번역, 받아쓰기, 자유 발화(free speech), 유도 작문(guided composition), dictogloss⁵⁾ 같은 것이 있다) 등이 있다. 이 기준들 중 몇몇은 다른 기준들보다 더욱 더 명확하게 오류를 설명해주며 몇몇 문제(decision-making)에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먼저 DENG(Dictionary of English Normative Grammar)에서는 언어학적 일탈(deviance)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ambivalence(모순/양면성), dissonance(불일치), ellipsis(생략), idiom(관용표현), incoherence(모순/비논리), incongruence(부조화/부적절), redundancy(잉여) 등 일곱 개의 순환 항목(recurrent categories)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대부분 형태보다는 메시지 조직(message organizations)과 관련된 것이며 문체(style)나 수사학적인(rhetoric) 부분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사전은 영어를 제2언어나 외국어로서 배우는 학습자들보다는 영어 모어 화자를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Dulay, Burt and Krashen(1982, Ch.7)는 언어학적 범주에 의한 분류방식으로, 오류가 음운, 철자, 문법, 어휘, 텍스트, 담화 등 어떤 언어적 층위(level)에서 발생하는지를 분류하고, 다음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언어적 단위(linguistic unit)의 '항목'(category)을 분류한다. 즉 어떤 오류가 문법적 층위에서 일어났다면, 다음으로 이것이 어떤 언어적 단위, 즉 어떤 문법 구조(grammatical construction)⁶⁾와 관련된 것인가를 분류한다. 이들을 좀 더 세분화

5) 이 활동은 듣기를 통해 머리 속에 입력된 내용을 쓰기를 통해 다시 출력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미 배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앞으로 배울 내용을 소개하는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구체적인 예로는 조동사, 수동태, 보문 등에서 어떤 언어적 구조와 관련이 있는가 분류한다.

하면 먼저 언어적 층위(level)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어떤 항목(class)에 속하는지를 본다.⁷⁾ 그 다음에는 그 오류가 언어적 층위(level)를 구성하는 단위(unit) 체계 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오류의 rank를 결정해야 한다.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 체계(system)를 상세하게 기술한다.⁹⁾

이러한 오류 분류법은 확실하게 유용한 측면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급학습자들의 오류를 기술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류법의 한 가지 문제점은 문법 층위에서는 그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반면에 음운적 어휘적 층위와 텍스트/대화적 층위에서는 문법적 층위에 대응하는 체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1.3. 목표어와의 비교에 따른 오류의 분류

다음으로 Dulay, Burt and Krashen(1982)이 주창한 목표어 변형 분류법(Target Modification Taxonomy)에 의한 분류 방식이다. 이 분류 방식은 학습자의 오류가 목표어와 어떻게 다른가에 기초를 두고 분류한다. 이에선 먼저 ①생략(ø) omission이 있다. 이는 비문법적인 생략이며 문법적으로 생략이 허용되는 ellipsis(E)와 zero(Z)와는 구분이 되는 개념이다. 생략이 많아지면 뚝뚝 잘린 중간언어가 되어서 피진어와 비슷한 양상을 띄게 된다. 이는 교수받지 않은 학습자나 학습의 초기단계에 있는 학습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생략은 초기 단계에서는 의미(content, 내용)어에서보다 기능(function)어에서 많이 나타나며, 고급 학습자일수록 자신들이 의미어를 모르는 경우를 확실히 알아서, 생략을 하기보다는 보상 전략(compensatory strategy)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Kasper and Kellerman, 1997). 그런데 여기서 생략과 비습득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두 번째로 ②첨가(Addition)가 있다. Dulay, Burt and Krashen은 이런 종류의 오류를 '특정 규칙을 너무 충실히 사용하는 결과'라고 주장하며 (1982:156), 이러한 오류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규칙화(regularization)인데, 이것은 예외를 간과하거나, 적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규칙을 확장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bought 대신 buyed라고 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규칙화의 반대 개념인 불규칙화(irregularization)의 결과로 나타나는 오류로서 접사첨가(affixation)와 같은 생산적 과정이 적용되지 않고, 형태가 일반적 규칙에 예외라고 잘못 추정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과거형으로 dived라고 해야 하는 곳에 dove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첨가의 두 번째 유형은 중복(double marking)인데, 이것은 '어떤 언어학적 구조에서는 요구되거나 어떤 언어학적 구조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는 데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정

7) 예를 들어 만약 문법적 층위에서 일어난 오류가 있다면 그것이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한정사 등 어떤 언어 항목과 관련된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8) 즉 오류가 형태소, 단어, 구, 절, 문장 중 어떤 것의 오류인지 분류한다.

9) 예를 들면, 시제, 수, 태, 가산성(countability), 타동성(transitivity) 등 중 어떤 것의 오류인지 분류한다.

의할 수 있다(ibid.:156).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영어의 경우 두개의 부정법이나 두개의 과거시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He doesn't knows me같은 것으로 여기서 조동사 do에 이미 사용된 3인칭-s가 know에서도 중복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예로 I didn't went there yesterday 에서처럼 과거 시제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규칙화와 중복이라는 두개의 하위 유형에 대한 구분이 명백한 것은 아니어서 sheeps, putted같은 경우는 규칙화로도 중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칙화는 과정이나 원인이고, 중복은 결과물이나 효과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겠다. 따라서 중복은 다음에서 볼 혼합(blend)에 들어갈 수도 있다. 첨가의 세 번째는 단순 첨가(simple addition)로, 중복이나 규칙화로 설명될 수 없는 모든 나머지 첨가가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③잘못된 변형(misformation)이 있다. 이는 다시 세 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이는 구조나 형태소에 대한 잘못된 형태로서, 학습자가 saw를 seen으로 사용한다거나, this대신 that을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의 형태군 중 한 요소를 그 군의 다른 요소를 대표하는 것으로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도 있다. 즉 this/that/those/these 중 학습자는 that만을 사용하는 경우로 Levenston(1971)은 이것을 과잉대표(overrepresentation)이라고 했다. 그리고 Dulay, Burt and Krahen은 이의 하위 유형으로 runned, geese와 같은 '규칙화(regulatzation)'와 '한 군의 다양한 요소들을 꽤 자유롭게 교체'하는 교체 형태(alternating forms)를 들고 있다. 다음 네 번째로 ④잘못된 어순이 있다. 이에는 통사론적인 어순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수사학적인 어순의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잘못 배열과 미묘하게 차이는 것은 잘못된 위치(misplacement)이다. 예를 들면 편지 쓰기에서 날짜를 적는 것이 문화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관계를 따르는 것에 어긋나면 잘못된 위치이다.

Carl James는 Dulay의 네 가지 범주를 수용하여 이름을 달리하여 생략(omision), 과대포함(overinclusion), 잘못선택(misselection), 그리고 잘못된 어순(misordering)의 네 가지 범주를 내세운다 이에 마지막으로 혼합 오류(blend error)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화자나 작가가 현재 자신의 의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것과 의미상 연결되어 있는 것, 두 문장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까를 경쟁적으로 고민하다가 그 어떤 것의 선택에서도 실패한 경우이다.

1.4. 층위로 본 오류의 범주

학습자의 오류는 어휘적인 오류, 문법적인 오류, 담화차원적인 오류가 있다. 먼저 어휘적인 오류는 어휘를 형태적으로 잘못 선택한다든지¹⁰⁾, 차용어나 신조어를 함으로써 잘못된 형태를

10) 어휘를 잘못 선택하는 것은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언어의 형태적인 유사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예1) Can I * become (✓ get ← German 'bekommen') a beefsteak?

예2) I think Senhor is *constipated (✓ caught a cold ← Portuguese 'constipado')

영어를 배우는 독일어권 학습자와 포르투갈어 학습자의 위와 같은 오류는 모국어의 형태를 목표언어에 투영시킴으로써

만든다든지(오형성, Misformations)하는 형태적인 면에서의 어휘 오류가 있는가 하면¹¹⁾, 의미 관계를 혼동한다든지¹²⁾ 언어 관계가 잘못된¹³⁾ 의미론적인 면에서의 오류가 있다.¹⁴⁾ 어휘 오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11) 오형성(Misformations)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즉 목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만들어 내는 오류를 말한다. 이는 모국어에서 비롯되거나 학습자가 사용하는 목표 언어 자체의 자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를 언어간 오형성 오류(interlingual misformation errors)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모국어를 그대로 목표언어에 다음과 같이 차용(borrowing)한 경우이다.

I shoot him with gun in *kopf. (나는 총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쏘았다.) (kopf는 '머리(head)' : 독일어 L1 Kopf)

(2) 모국어의 어휘를 이용하여 목표언어의 구조에 맞게 만든 오류이다.

to *massacrate (massacre: 대학살하다) the victims; ...who *preconizes ('방어하다(defends)' : L1 스페인어 preconizar)

smoking can be very *nocive to health ('해로운(harmful)' : L1 포르투갈어 nocivo)

one is here *insered ('포함된(included)' : L1 포르투갈어 inserido)

these *mortific wars ('죽음을 초래하는(bringing death)' : L1 포르투갈어 mortiferas)

(3) 모국어의 단어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여 목표언어의 새 단어를 만드는 오류이다.

*baby car ('유모차(pram)' : L1 스페인어 cochecito de nino)

*sleep suit ('파자마(pajamas)' : L1 독일어 Schlafanzug)

*goldworthy ('귀중한(precious)' : L1 독일어 goldwert)

*cooking recipe ('요리법(recipe)' : L1 독일어 Kochrezept).

- 12) 의미 관계 혼동으로 인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어휘론자들은 어휘를 어휘 체계란 관점에서 설명하여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어휘의 의미적 다발을 어휘장(lexical fields)이라고 한다. 어휘장의 체계를 참조하여 어휘오류를 범주화 하면 다음과 같다.

(a) 더욱 구체적인 용어가 필요한 데도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하의 관계어(hyponym) 대신 상의 관계어(superonym)).

그 결과 의미의 구체화가 낮아진다.

The flowers had a special *smell (scent/perfume).

(꽃이 특별한 냄새가 난다) 냄새-향기

The village women *washed (scrubbed) the steps.

(마을 여인들은 계단을 씻었다) 씻다-복복 문질러 닦다

Capitalism...made America *big (great/powerful).

(자본주의에 따라 미국은 크게 되었다) 크게-위대하게/강력하게

(b) 너무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다(상의 관계어 대신 하의 관계어).

The *colonels (officers) live in the castle.

(그 성에는 대령(장교)들이 거주한다)

(c) 두 가지 공통 하의 관계어 가운데 적합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한다.

...a decision to *exterminate (eradicate) dialects.

(방언을 몰살(근절)하려는 결정)

(d) 근접한 동의어 세트 가운데 잘못된 어휘를 사용한다.

...a *regretful (penitent/contrite) criminal or sinner...

(후회하는(참회하는/회개하는) 범죄자 또는 죄수)

- 13) 언어 오류 (Collocation errors)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언어(collocation)란 어느 특정 단어가 정상으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단어를 말한다. 언어에는 3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의미론적으로 단어 선택이 결정된다. crooked stick(굽은 막대기)은 옳고 *crooked year (굽은 해)는 틀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해(year)는 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통계상으로 비중 있는 우선 단어와 결합하는 것이다. '군대는 큰 손실(big losses)을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big losses보다는 heavy losses가 선호된다.

셋째, 자의적 결합이 있다. attempt/try가 동의어이지만 make an attempt나 have a try라고는 할 수 있어도 *make a try나 *have an attempt라고는 하지 않는다.

외국어의 언어 관습을 교수하면 관용어 구사력과 원어민 화자를 닮은 언어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

There is much turmoil in the Middle *Orient/East.

(중동에 분규가 많이 일고 있다.)

My wife did some *lavish/extravagant shopping in London.

류를 분류하는 편리한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가진 단어에 대한 지식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Richards(1976)는 하나의 단어에 대해 일곱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 단어에 대한 형태론적 지식: val*ious가 아니라 valy/iant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자법이나 발음에 대한 지식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 2) 단어를 통사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 예를 들어 *Explain me this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 3) 단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알 수 있다. : 전류를 electrical y/current라고 하지 electrical *tention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 4) 단어의 의미론적인 뜻(value)이나 외연(denotaion)을 알 수 있다. : 다리가 부러졌다고 할 때 y/leg이 아니라 *foot을 사용한다는 것을 안다.
- 5) 단어의 이차적 의미나 내포적 의미(connotation)를 알 수 있다.: 당신이 분대(squad)이나 파견대(contingent)를 의미할 때는 *gang of policeman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gang이란 단어는 문제아(trouble maker)라는 모욕적인 뜻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 6) 그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들을 연상시키는지 안다. 예를 들어 sofa라는 단어는 기호학적으로 가구의 범주에 속해 있고 따라서 침대나, 결상 등을 연상시킨다.
- 7) 어떻게 그 단어가 쓰일 것 같은가, 그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쓰일 것인가를 안다.

일곱 가지의 범주는 형식적인(formal) 특징과 의미론적인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1), 2), 3), 7)의 특징은 형식적인 반면 나머지 세 항목의 특징은 의미론적이다.

다음으로 문법적 오류는 형태론적 오류(Morphology errors)와 통사론적 오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태론적 오류는 six book*, aboli*shment(√-tion)와 같은 명사의 형태론적 오류, *bringed, was drink*en(√-ing)는 동사의 형태론적 오류, visit me soon*ly는 부사의 형태론적 오류, 그리고 a colourfull*er scene는 형용사의 형태론적 오류 등이 있다. 이러한 오류들

(우리 아내는 런던에서 낭비성 쇼핑을 했다.)

The *late/recent dispute between France and Australia.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최근 분쟁)

A *vivacious/lively discussions in the House of Lords.

(귀족원의 활발한 토론)

- 14) 이 외에도 왜곡(Distortions)이 있다. 이는 모국어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창출된 언어 내적(intralingual) 형태 오류이다. 그 결과로 목표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창출된다. 이러한 오류에는 생략(omission), 과대 포함(overinclusion), 잘못된 선택함(misselection), 잘못된 순서짓기(misordering), 혼합(blending)이 한 가지 이상 오용됨에 따라 발생한다. 각각에 대해 2가지씩 예를 들어 보겠다.

(a)생략: int(e)resting

(b)과대 포함: fresh(er)men, din(n)ing room

(c)잘못 선택함: *delitouse ,delicious

(d)잘못 순서짓기: littel (little), ferporate (perforate)

(e)혼합: the *deepths of the ocean (depth + deeps).

언어 내적 형태 오류는 철자의 오류로 나타난다.

은 아주 지속적이고 기본적으로, 심지어 박사 과정에 학생들의 외국어로서 영어 쓰기에 있어서도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통사론적 오류(Syntax errors)는 어휘, 구, 절, 문장과 궁극적으로 단락보다 더 큰 텍스트에 영향을 주는 오류로 구의 오류(Phrase structure errors), 절 오류 (Clause errors), 문장 오류 (Sentence errors), 문장 내 오류 (Intersentence errors (cohesion)가 있으며, 문장 내 오류는 생략이나 대치, 잘못된 선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담화상의 오류로서 작문의 오류 연구 등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던 것으로 주제의 일관성이나 담화를 구성하는 진술들 서로간의 긴밀함이 있는지, 효율적인 순서로 배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일관성(Coherence)에 대한 오류이다.

그리고 Pragmatic error (화용적 차원의 오류)가 있는데 이는 화자가 메시지를 잘못 이야기했을 때(혹은 청자가 잘못 해석했을 때)마다 일어나며 그러한 오류는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화용론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담화적 또는 상호작용적 실수에 의한 오류이다.

2. 오류 유형 분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류의 유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오류의 원인이나 결과에 따른 다양한 오류의 유형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류 말뭉치를 구축하고 각각의 항목에 오류의 종류를 태깅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제적인 오류 유형의 태그 세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의 오류 유형을 수용하면서 오류의 형태적인 면에 집중된 태그세트를 구축하기로 한다.

먼저 언어의 층위로 보아 어휘 면에서의 오류(L)¹⁵⁾ 문법적인 면에서의 오류, 그리고 단순히 철자에서의 오류(S)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어휘 오류는 다른 종류의 오류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문법이 조직적이고 일반화될 수 있는, 그래서 규칙으로 기술될 수 있는 부분인 데 반해 어휘론은 규칙으로 일반화될 수 없는 열린 체계이기 때문이다. 제이 언어 학습에서 문법이 규칙배우기라면 어휘는 목록배우기이다.

특히 근래에 들어, 어휘론은 중요한 언어 연구 분야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론과 문법론의 경계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모호해졌다. 문법론의 일부로 다루어졌던 단어의 형태론적 측면은 어휘론의 일부분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동법으로 다루어지는 ‘열다-열리다’와 같은 파생은 문법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으나

15) 여기서의 오류 태그 세트는 기존의 이론서 등에서의 오류 분류와 일부 일치하기도 하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오류의 유형별로 머리글자화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태그 세트의 기호는 자의적이었음을 밝힌다.

‘열다’와 ‘열리다’ 각각의 어휘부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관용어구들은 한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의미를 각각의 어휘 의미로 나누어 해석할 수가 없다. 즉, 하나의 어휘 차원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휘의 층위를 넘어서 문법 단위로 다루어지는 구성도 하나의 어휘처럼 학습자가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Schmidt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흔히 오류는 규칙을 기반으로 한 언어의 생산성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오류를 학습자들이 매번 창조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만들어 낸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오류는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총체(wholes)로서 기억(stored)되었다가, 다시 나타난다(retrieved)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사론적인 오류임이 분명한 것들도 하나의 총체로서 생산된 것이고, 결국 어휘적 오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습자들 스스로가 언어 학습에서 어휘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때때로 학습자들은 어떤 언어를 안다는 것을 그 언어의 어휘를 아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같은 학습자의 믿음은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어떤 학습자 집단에서는 여러 오류 중 어휘적 오류가 가장 자주 발생한다. Grauberg(1971)는 영어를 모어로 하는 고급 독일어 학습자 집단의 오류를 분석한 결과(193 개의 오류 중 102개: 53%) 어휘적 오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평했다. Meara(1984)는 어휘적 오류의 수가 다른 종류의 오류를 세 배나 네 배정도 많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원어민 화자들은 학습자의 중간언어에서 어휘적 오류가 다른 종류의 오류보다 학습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다섯 째로 어휘는, 특히 초기 중간언어에서는 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중간 언어에서는 문법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메시지는 주로 어휘적 용어- 그것이 나타내는 뜻을 조합한-로부터 추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휘 오류 분석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어휘 오류를 기술 할 것인가, 그리고 어휘 오류 분석에 대한 기술을 통해 어떻게 오류들을 분류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어휘 면에서의 오류(L)는 어휘를 잘못 선택하거나, 필요한 어휘인데 그 어휘가 나타나지 않아 생략된 경우(LO), 또는 그 반대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불필요한 어휘를 첨가하는 경우(LA)가 있다. 어휘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는 동일한 품사에서 언어 관계나 의미 관계 등의 혼동으로 인해 다른 어휘로 대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LL)와 의미적 관련성을 가지거나 혹은 의미적 혼동으로 인해 다른 품사의 어휘로 대치하는 오류의 유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어떠한 문법 범주의 어휘들을 품사 교체하는 오류를 범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품사별 태깅 표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목표어에서 명사로 나타

나야 하나 다른 품사로 대치한 오류(LN), 동사를 다른 품사의 어휘로 대치한 오류(LV), 형용사(LA_j), 부사(LA_d), 관형사(LD), 감탄사(LE_x), 대명사(LPr), 수사(LNm), 지정사(LC) 등의 어휘를 다른 품사로 대치한 오류 등 품사에 따른 다른 태깅 표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어휘를 학습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어에는 없는 한자 어휘를 모국어인 일본어나 중국어 등에서 차용하거나 학습자가 이미 습득하고 있는 한국어 어휘로 신조어를 함으로써 잘못된 형태를 만든다든지, 아예 학습자의 모국어로 대신하는 오류(LX)가 있는가 하면, 고급에서 많이 나타나듯이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다른 어휘로 환언하여 해당 어휘를 대치하는 경우(LP)도 있다. 위의 오류는 모두 어휘의 형태 의미론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면, 어휘의 문법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규칙화 혹은 불규칙화의 오류(LF)가 있다.

다음으로 문법적인 면에서의 오류는 문법 요소에서의 오류와 구 차원에서의 표현적인 오류(R), 그리고 문장 차원에서의 오류(G), 어순에서의 오류(O)로 나눌 수 있다. 문법 요소의 오류는 다시 조사에서의 오류(P)와 어미에서의 오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어미는 그 종류에 따라 시제 어미의 오류(T), 존대 어미의 오류(H), 종결어미의 오류(E), 연결어미의 오류(C), 전성어미의 오류(D)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해당 문법 요소가 안 나타난다든지(-O), 잘못 선택된다든지(-L), 반복하여 나타난다든지(-A), 다른 요소로 환언하여 나타난다든지(-P) 하는 것에 따라 각각 하위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문법 요소가 형태론적인 면에서의 오류, 즉 이형태의 선택에 있어서 오류(-F)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순에서의 오류는 한국어는 자유어순이나 부사나 수사의 어순은 다소 제약을 받으므로 이를 달리 태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사의 어순 오류(OA_d), 수사의 어순 오류(ON_m), 그 외의 어순 오류(OE)로 나누어 태깅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오류 태그 세트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거나 여러 오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류의 혼합(B)으로 본다.

위의 태그 세트를 다시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어휘 오류(L)		동일 품사로의 대치(L)				
		다른 품사로의 대치	N(명사), V(동사), Aj(형용사), Ad(부사), D(관형사), Ex(감탄사), Pr(대명사), Nm(수사), 지정사(C)			
			한국어에 없는 어휘로 대치(X)			
		다른 어휘로 환언(P)				
		어휘의 첨가(A)				
		어휘의 생략(O)				
		어휘의 형태론적인 오류(F)				
문법적 오류	조사 오류(P)		조사의 생략(O)			
			다른 조사로의 대치(L)			
			조사의 첨가(A)			
			형태론적 오류(F)			
			다른 조사 등으로 환언(P)			
	어미 오류		시제 어미 오류(T)		어미의 생략(O)	
					다른 시제 어미로 잘못 쓴 오류(L)	
					형태론적인 오류(F)	
			존대 어미 오류(H)		어미의 생략(O)	
					어미를 잘못 씀(L)	
			종결 어미 오류(E)		어미의 생략(O)	
					다른 종결어미로의 대치(L)	
					종결어미의 중복적인 첨가(A)	
					다른 어미로의 환언(P)	
					형태론적인 오류(F)	
			연결 어미 오류(C)		어미의 생략(O)	
					다른 연결어미로의 대치(L)	
					연결어미의 중복적인 첨가(A)	
					다른 어미로의 환언(P)	
					형태론적인 오류(F)	
			전성 어미 오류(D)		어미의 생략(O)	
					다른 전성어미로의 대치(L)	
					전성어미의 중복적인 첨가(A)	
					다른 어미로의 환언(P)	
					형태론적인 오류(F)	
	어순의 오류(O)		부사의 어순 오류(Ad)			
			수사의 어순 오류(Nm)			
			그 외의 어순 오류(E)			
	표현적인 오류 (R)					
	문장 전체의 오류(G)					
	오류의 혼합(B)					
	철자 오류(S)					

위에서 보인 각 세부 오류 유형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1. 어휘 오류(L)

이 연구에서는 어휘 오류를 범주화하기 위해서 어휘 오류의 형태적인 면과 통사적인 특성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종류로 어휘 오류를 나누어서 어휘오류태그셋을 만들었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1. 동일한 품사 체계에서 오류를 보이는 경우(LL)

이것은 의미 관계의 혼동이나 언어관계에 의한 오류, 그리고 형태적으로 비슷함에서 오는 오류,, 철자나 발음이 비슷하여 어휘를 잘못 쓰는 오류들이 있다.

<동사의 오류>

- ▶ 물론 채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해야 LL) 합니다. *감동적으로(✓감정적으로 LL) 하면 안 되지요.
- ▶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고 시끄럽게 *떠들썩거리는(✓떠드는 LL) 것도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요.
- ▶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고 시끄럽게 *떠들썩거리는(✓떠드는 LL) 것도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요.

<명사의 오류>

- ▶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과 마음과 정성으로 이런 *질문(✓문제 LL)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소위 '신'에게 비는 것이 *현실적인(✓현대 LL) 과학이 급속 발전한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 ▶ 그렇지만 가끔씩 채벌도 쓸 *데(✓모 LL)가 있어요.
- ▶ 물론 채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감동적으로(✓감정적으로 LL) 하면 안 되지요.

<부사의 오류>

- ▶ 제 생각에는 먼저 *이야기(✓말 LL)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 아이가 *아직도(✓계속 LL) 똑같은 짓이나 못되게 굴면 어쩔 수 없이 대려야 해야 해요.

2.1.2. 각 품사 체계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여 오류를 보이는 경우(LN(명사), LV(동사), LAj(형용사), LAd(부사), LD(관형사), LEx(감탄사), LPr(대명사), LNm(수사), LC(지정사))

이것은 한국어의 품사 범주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류와 위에서 언급한 형태적 오류로 인한 것이 많다.

<조사(지정사)를 형용사로 잘못 쓰는 경우>

- ▶ 나는 학생 *있습니다.(✓입니다 LC)

<형용사를 관형사로 잘못 쓰는 경우>

- ▶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이런 LAj) 힘을 줄 수 있을까요?

▶ *그(√LAj) 사람 중에서 *도덕(√ 도덕심 LL) 없는 사람을 훨씬 더 많아요.

▶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이런 LAj) 힘을 줄 수 있을까요?

▶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이런 LAj)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동사를 형용사로 잘못 쓰는 경우>

▶ 때리고 나서는 *위축한(√ 위축된) 아이 마음을 *편안하게(√ 편안해지게 LV) 하도록 아
이스크림을 사주거나 하며 AS도 필요하다.

<형용사를 동사로 잘못 쓰는 경우>

▶ 너무 불안하고 *고민하지만(√ 고민스럽지만 LAj) 나는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꿈은
없다고 생각한다.

<명사를 형용사로 잘못 쓰는 경우>

▶ 소위 '신'에게 비는 것이 *현실적인(√ 현대 LN) 과학이 급속 발전한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1.3.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습득하지 못하여 다른 어휘로 풀어 쓰는 과정에서 보이 는 오류(LP)

이는 상황이나 의미에 적절한 어휘를 습득하지 못하여 다른 어휘로 풀어 쓰는 과정에서보
이는 오류이다. 모국어의 어휘를 그대로 번역하여 쓸 때 많이 나타난다.

▶ *알지 않는(√ 모르는 LP) 사람에게 인사를 했어요.

▶ 예를 들면 옷보다 *몸 언어(√ 몸짓 LP)과 *자기(√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보면 자기(√
그 사람의) 국적을 짐작할 수 있어요.

▶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은 *싫어하게 되고(√ 즐겁지 않고 LP) 얼굴도 역시 싫어하
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 그렇게 먼 날에 대해 *심사숙고 아직 안 했다(√ 아직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2.1.4. 어휘를 생략하여 쓰는 경우(LO)

이는 의미에 필요한 어휘를 모른다거나 문법적인 잘못으로 어휘를 생략하는 경우이다.

▶ 물론 감정적으로 때려서는 안 되고요 몇 번이나 말로 * (√ 잘못을 LO) 일깨우려고 노
력해도 말을 안 들은 아이들이한테 때려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에 화를 안 내시는 아버지한테 맞았다는 것은 자기 잘못의 크기를 *이해할(√ 이해시
킬 LL) 수 있고 날마다 듣는 잔소리보다 *____(더 많이 LO) 반성시킬 수 있다고 봐요.

▶ 지구의 극 *____(지방의 LO) *어름(√ 얼음)이 다 녹을 거예요.

2.1.5. 필요 없는 어휘를 첨가하여 쓰는 경우(LA)

▶ 자기도 기분이 좋고 거기의 분위기도 좋아지게 *되게(∅ LA) 마련이지만, ...

▶ *벌써(∅ LA) 20년*을 살던 기간에(√ 동안에) *많이(∅ LA) 배운 것이 많았다.

- ▶ 상대방과 자주 만나 *그(∅ LA) 많은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외모를 보고 느낀 느낌은 점점 변하게 됩니다.

2.1.6. 어휘를 잘못 만들어 한국어 어휘 체계에 없는 어휘를 만들어 쓴 경우(LX)

모국어의 어휘를 그대로 번역하여 쓰거나 한국어의 맞춤법 체계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

- ▶ 제 의견으로는 한국아이들이 딱딱한 교육 때문에 더 *질선하게(✓ 질서있게LX) 걸어요.
- ▶ 18 *면(✓ 명) 있는 그 반의 *반문(✓ 반LX) 이상이 한국 사람이었다.

2.1.7. 어휘의 형태적인 특성을 잘못 이해하여 오류를 보이는 경우(LF)

이는 한국어 어휘의 형태 변화를 잘못 습득하여 보이는 오류이다. 주로 불규칙 동사의 활용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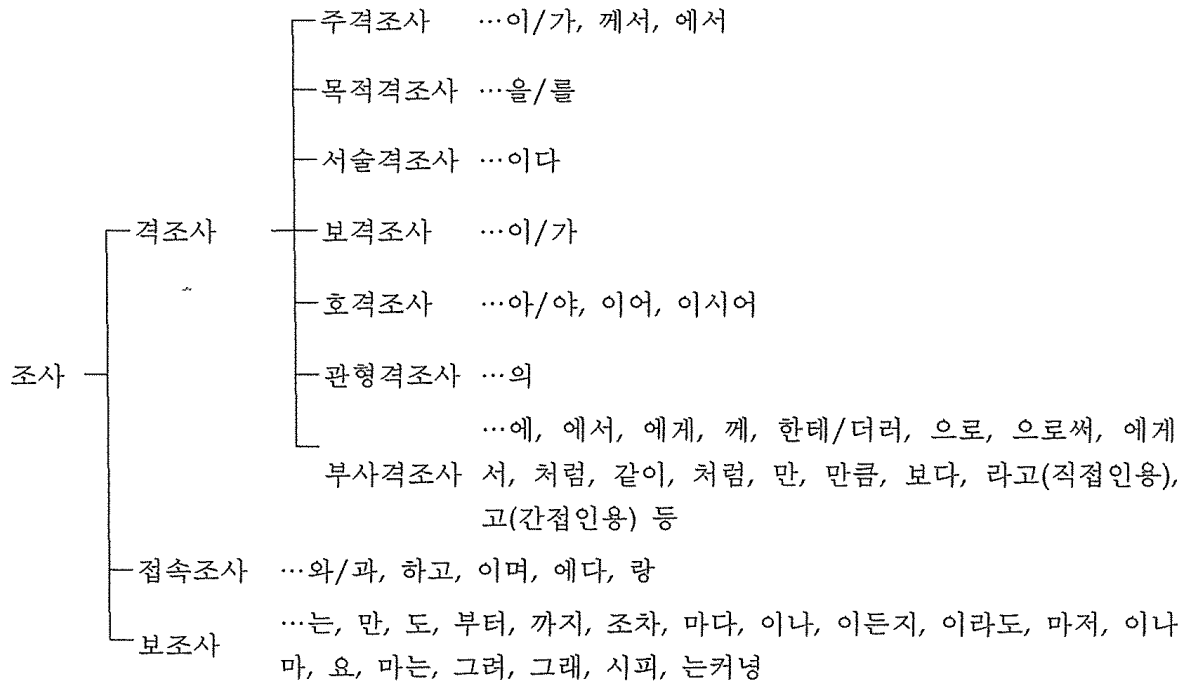
- ▶ 따님이 이야기하기 *쉬은(✓ 쉬운 LF)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 ▶ 인간이 알 수 없는 *사실(✓ 상황)을 만나면 어떤 안 보이는 신이나 하나님에 믿는 게 제일 *쉬웠어요(✓ 쉬웠어요 LF).
- ▶ 이상하게 한국 사람이 *제(✓ 저 LF)를 보면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

2.2. 조사 오류(P)

국어의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 그러므로 조사의 오류는 형태론적 오류(morphology errors)의 측면에서 보면 선행 체언의 환경(자음으로 끝났는지 모음으로 끝났는지와 같은 음운적 환경)에 따라 조사의 형태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겠고 통사론적 오류(syntax errors)의 측면에서 보면 조사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 두 단어(명사와 명사, 명사와 동사 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적절한 조사가 선택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겠다.

국어 조사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단순히 두 체언을 연결하는 접속 조사가 있는가 하면, 주로 명사와 동사의 관계에 작용하는 격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도 있다. (1)은 학교 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조사의 분류 체계와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의 종류를 대상으로 하여 태깅을 하였다.

(1) 조사의 분류 체계



위의 조사들 중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용법에 따라 태깅 기준을 바꾼 것이 있다. 우선 서술격 조사는 활용한다는 점에서 용언으로 보고,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은 서술격 조사를 포함하여 종결형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보조사 중에서 종결 보조사 '-요, -마는 -그려, -그래' 등은 '-어요, -다마는, -네그려, -면그래' 등과 같이 어미를 포함하여 종결 어미를 처리한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독립된 형태로 의미가 없고 언제나 종결형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피, -는커녕'도 어미를 포함하여 '-다시피', '-기는커녕' 등과 같이 연결형으로 태깅하기로 한다.

조사의 오류는 한국어 조사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한 경우에 발생한다.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어 조사는 그 의미나 용법이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습자는 가능한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조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모국어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모국어나 기타 언어학적 지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배운 다른 규칙을 적용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임기응변적인 조치를 취하고 넘어가거나 표현을 하지 않고 회피해 버리는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학습자가 한국어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표현을 과잉 적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은경(1999)에서는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의 전이(transfer of mother tongue), 목표어 규칙의 과잉 일반화(over gener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회피(escape), 그리고 과잉 적용(over monitoring)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조사의 사용 현상적인 측면에서 오류 태깅을 하고자 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해석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현상을 태깅하여 보여주고 원인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게 맡긴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 오류의 태깅은 ‘조사의 생략(PO)’, ‘조사의 대치(PL)’, ‘조사의 첨가(PA)’, ‘조사의 형태 오류(PF)’, ‘조사의 환언 오류(PP)’ 등으로 나누어 태깅을 하기로 한다.

2.2.1. 조사의 생략 오류(PO)

‘조사의 생략(PO)’ 오류는 조사를 써야 할 환경에서 조사를 쓰지 않고 회피한 경우이다. 조사가 없는 언어권 학습자의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이고, 초급 학습자에서 고급 학습자까지 폭넓게 나타난다. ‘-이/가’, ‘-을/를’, ‘-에’, ‘-에서’와 같은 주격이나 목적격, 부사격 등의 격조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때때로 접속 조사나 보조사 등 문장에서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 조사의 경우도 그 용법이 정확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다. (2)는 그 예이다.

- ▶ 남산 경치(√경치가) 좋습니다.
- ▶ 저는 산(√산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 하고 감사했습니다.
- ▶ 지난 주말에 친구와 같이 롯데 월드(√롯데 월드에) 갔습니다.
- ▶ 이것은 작년 12월 26일(√26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 ▶ 지금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 ▶ 때때로 어머니하고 아버지(√아버지하고) 같이 낚시합니다.
- ▶ 오후 6시부터 저녁11시(√11시까지) 일합니다.
- ▶ 이 음악을 "Fish and Chips"(√Chips라고) 불러요.
- ▶ 비빔밥을 먹으러 일부러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해서라도) 먹을 만한 맛이니까 한국에 오면 한 번 먹는 것이 좋다.

2.2.2. 조사의 대치 오류(PL)

‘조사의 대치(PL)’ 오류는 조사를 사용했으나 조사의 용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다. 조사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 조사 오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이기도 한다. 역시 초급 학습자에서 고급 학습자까지 폭 넓게 나타난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주격과 목적격의 혼용이나 존재의 배경이 되는 ‘-에’와 활동의 배경이 되는 ‘-에서’ 간의 오류가 자주 나타나고 고급 학습자의 경우는 특별한 조사의 의미와 기능이 숙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 정선생님 왼쪽에(√왼쪽이) 읽기 김선생님입니다.
- ▶ 이월에 여자 친구와 여동생을(√여동생이) 홍콩에 갔습니다(왔습니다).
- ▶ 저는 한국음식이(√한국음식을 PL) 좋아합니다.

-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미국에(√미국을 PL) 여행 했습니다.
- ▶ 그럴 때는 언제나 혼자서 기차로 여행으로(√여행을 PL) 떠난다.
- ▶ 이 사람들이(√사람들은 PL) 우리 대학교 학생 입니다.
- ▶ 한국물건을(√한국물건은 PL) 비싸고 나쁩니다.
- ▶ 금년 3월31일에 한국에서(√한국에 PL) 왔습니다.
- ▶ 천구백 사십 일 년에서(√천구백사십일년에 PL) 태어났습니다.
- ▶ 우리는 식당에(√왼쪽에 PL) 일합니다.
- ▶ 많은 고급의 노래를 짓고 많은 음악가들(√음악가에게 PL) 영감을 줬습니다.
- ▶ 저는 홍콩 수족관에(√수족관으로 PL) 안내했습니다.
- ▶ 나는 Netherland에서는 무료에서(√무료로 PL) 몇번도 탔어요.
- ▶ 우리 아버님이(√아버님은 PL) 회사원이십니다.
- ▶ 지난 2월 22일에서(√22일부터 PL) 3월 9일까지 우리는 졸업여행 갔습니다.

2.2.3. 조사의 첨가 오류(PA)

‘조사의 첨가(PA)’ 오류는 조사가 불필요한 환경에 조사를 표기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 보태고 싶어서 불필요한 조사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오류이다. 과잉 적용(over monitoring)이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주로 학습자들은 조사가 필요 없는 특별한 관용 용법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조사를 과잉 적용한다. 특히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이다’ 동사 앞에서 ‘-이/가’나 ‘-을/를’을 쓰는 경우가 많다. 조사의 첨가 오류에 빈번한 경우의 하나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불필요한 조사가 나오는 경우이다.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수식할 때 한국인 화자는 쓰지 않는 관형격 조사 ‘-의’를 쓰는 경우나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에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사에 걸린다고 생각해서 ‘-에’, ‘-에서’ 같은 부사격 조사를 쓸 때도 있다. 특히, 시간 명사나 장소 명사 명사에 ‘-에’가 불필요한 경우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도 많다.

- ▶ 나보다 더 딸이(√딸 PA) 같습니다
- ▶ 저는 오른쪽 하얀색 옷이 입니다(√옷입니다 PA).
- ▶ 여기가 우리집 사진을 입니다(√사진입니다 PA).
- ▶ 많은 고급의 노래를(√고급 노래를 PA) 짓고 많은 음악가들 영감을 줬습니다.
- ▶ 남문으로 들어갑니다. 남문 뒤에서 길로(√뒤 길로 PA) 똑바로 걸어갑니다.
- ▶ 위에 사진에(√위 사진에 PA) 아버지 어머니 저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 ▶ 미국 음악 역사는에서(√역사에서 PA) 버브 대이란(밥 딜런)이 아주 유력(유명)합니다.
- ▶ 그래서 밤 늦게부터(√늦게 PA) 그냥 바이크를 타다 오싸까으로 출발합니다.

2.2.4. 조사의 형태 오류(PF)

한국어 조사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면서도 음운적 환경에 따라 두 가지의 이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다. ‘조사의 형태 오류(PF)’는 이와 같은 경우에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서 쓰지 못하

는 경우이다. 주격에서 ‘-이’와 ‘-가’를 구별해서 쓰지 못하는 것, 목적격의 ‘-을’과 ‘-를’, 보조사 ‘-은’과 ‘-는’, 접속 조사 ‘-와’와 ‘-과’, 부사격의 ‘-으로’와 ‘-로’ 등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국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이것이 한국어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의 형태 오류는 의미나 기능에 대한 문제는 아니므로 초급 단계를 지나면 현저하게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든다.

- ▶ 형제(형)하고 형수이(√형수가 PF) 되(뒤)에 있습니다.
- ▶ 저는 가족를(√가족을 PF)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합니다.
- ▶ 친구은(√친구는 PF) 결혼했습니다.
- ▶ 독일와(√독일과 PF)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갔습니다.
- ▶ 저의 이제까지 기억에 남는 여행은 대학교 이학년 때 친구와 같이 둘 사람으로 3박 4일로(√4일로 PF) 타이페이에 가본 일이에요.
- ▶ 가끔 빨래방에서 일했고, 가끔 바나나 field이나(√field나 PF) 아보가도 field에 일했어요.

2.2.5. 조사의 환언 오류(PP)

‘조사의 환언 오류(PP)’는 한국어에 그 표현을 위한 적절한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의 용법을 알고 있지 못한 학습자가 다른 어휘적 표현을 써서 조사의 의미를 대신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모국어 사용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표현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부사격 조사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보조사의 사용에서 발생하는데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의 의사 소통 전략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오류이다. (6)에서 ①은 ‘-에게는’의 용법을 ‘-에 있어서’로 풀어 쓴 경우이고, ②는 ‘-로’를 ‘-를 써서’라는 어휘적 표현으로 풀어 쓰고 있다.

- ▶ 2박 3일의 여행이어서 그리 관광도 못했는데 나에 있어서(√나에게는 PP) 경북궁이 제일 재미있었다.
- ▶ 단 특급이나 급행은 탈수 없다. 그 표를 써서(√표로 PP) 자주 여행을 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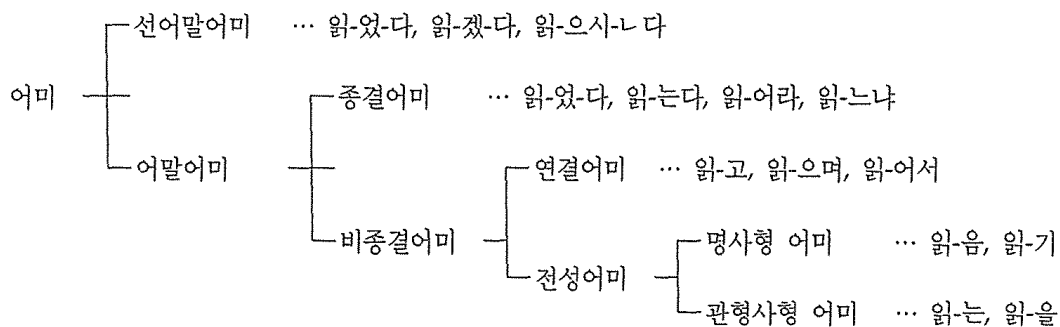
2.3. 어미 오류(E/C/D)

문법의 오류는 형태론적 오류(morphology errors)와 통사론적 오류(Syntax errors)로 나눌 수 있다(Carl 1998). 형태론적 해석으로 보면 어미는 어간과 함께 모두 의존 형태로서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형태적인 구성인 동사와 형용사를 이룬다. 그러나 통사론적 해석에서 보면 어미는 선행하는 모든 문장 구성성분을 포함하는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면에서, 선행 문장 전체와 상대적인 의미, 통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김기혁, 1995). 문장에 서법성

(modality) 개념에 도입된 이후 국어에서도 문장을 명제(Proposition)와 양태(modality)의 이중 구조로 인식하거나(양인석 1972), 혹은 명사구(NP), 동사구(VP), 문장 어미(SE)의 삼분 구조로 인식하는 견해(임홍빈외 1983)들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런 견해에서는 어미가 단지 어간과 함께 동사를 이루는 한 부분이 아니라 명제가 서술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표현하는 장치로 문장 전체와 관련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어미의 오류는 단순한 형태의 오류일 수도 있고, 통사론적 오류도 있을 수 있다. 형태론적 오류에 초점을 맞출 때는 어미의 이형태들 중에서 적절한 형태가 선택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통사론적 오류에 초점을 맞출 때는 서술 내용, 즉 명제에 대해서 적절한 문법적 기능을 가진 어미가 정확하게 선택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학습자 문법 오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미 오류의 태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단 국어 문법의 어미 체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하였다. 국어 어미 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국어 어미 체계



2.3.1. 시제 어미의 오류(TO/TL)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국어의 선어말어미로 주체 높임의 ‘-으시-’, 현재 시제의 ‘-는-’, 과거 시제의 ‘-었-’, 미래 시제의 ‘-겠-’, 공손의 ‘-옵-’, 상대 높임의 ‘-마-’, 직설법의 ‘-느-’, 회상법의 ‘-더-’, 추측법의 ‘-리-’, 그리고 확인법의 ‘-것-’, 원칙법의 ‘-니-’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 한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유의미한 오류는 ‘-으시-’, ‘-는-’, ‘-었-’, ‘-겠-’, ‘-더-’ 등이다. 하지만 ‘-는-’은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한국어 시제에서 현재를 ‘-는-’으로 보지 않고 ∅으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여 ‘-는다’를 어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서정수 1996). 이렇게 보면 ‘-었-’, ‘-겠-’, ‘-더-’는 시제 어미의 오류에서 ‘-으시-’는 존대 어미의 오류에서 다룰 수 있다.

시제 어미의 오류에서는 ‘-었-’, ‘-겠-’, ‘-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들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시제 어미의 생략(TO)’과 이들 형태를 표기했으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시제 어미의

잘못 씀(TL)'으로 나누어 태깅하기로 한다. '시제 어미의 생략(TO)' 오류는 학습자가 한국어의 시제 형태가 사용되는 때를 모르거나 이들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학습자는 과거나 미래, 또는 회상 시제로 표현할 것을 현재형으로 표현하게 된다.

<시제 어미의 생략(TO) 오류>

- ▶ 그저께 부터 수업이 시작했어서(√ 시작돼서) 숙제가 밀리다(√ 밀렸다 TO).
- ▶ 그러나 그 사람은 일본에 와서 1달(√ 한 달) 밖에 지나지 않기(√ 았았기 TO) 때문에 저하고 얘기도 거의 할 수 없었다.
- ▶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편이기(√ 편이었기 TO) 때문에 타워의 꼭대기에는 안 가봤어요
- ▶ 책을 너무 많이 사니까(√ 사서) 못 가지고 옵니다(√ 왔습니다 TO). 그래서 배달을 시켰어요.
- ▶ 내가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이 유치원만 보내요(√ 보내겠어요 TO).
- ▶ 나는 돌 위에 그리져(√ 그려져) 있는 오래된 그림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겠습니까 TO).
- ▶ 용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TO) 다시 설명해 보세요.

①과 ②는 완료의 '-었-'의 생략 오류이고 ③과 ④는 과거의 '-었-'의 생략 오류이다. ⑤-⑦은 '-겠-'의 생략 오류인데 이 때 '-겠-'은 각각 의지, 의도, 가능의 의미를 갖는다.

'시제 어미의 잘못 씀(TL)' 오류는 일차적으로 학습자가 '-었-', '-겠-', '-더-'를 과잉 생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학습자는 현재형으로 써야 할 곳에 '-었-', '-겠-', '-더-'를 쓰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과거 시제 관형형 어미 '-(으)ㄴ'을 써야 할 곳에 '-었던'이나 '-었은'을 쓰는 경우와 미래 시제 관형형 어미 '-(으)ㄹ'을 써야 할 곳에 '-겠는'이나 '-겠은' 혹은 '-겠을'을 쓰는 경우가 있다.¹⁶⁾ 다음으로는 형태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로 과거와 회상의 형태에 대한 용법이 정확하지 않아서 '-었-'을 써야 할 곳에 '-더-'를 쓴다든지, '-더-'를 써야 할 곳에 '-었-'을 쓰는 경우, 그리고 '-있었-'과 '-었-'을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시제 어미의 잘못 씀(TL) 오류>

- ▶ 여러분 일본에 있는 '오끼나와'를 아시겠습니까(√ 아십니까 TL)?
- ▶ 여행으로 여러 나라에 가면 갈수록 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할지(√ 하는지) 알게 되었다(√ 된다 TL).
- ▶ 내가 돈이 아주 많았으면(√ 많으면 TL), 제일(√ 제일) 하고 싶은 일이 간단한(√ 간단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이다.
- ▶ 다음에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이용했어(√ 이용하겠어 TL).
- ▶ 혹시 돈을 잃어버렸는(√ 잃어버린 TL) 분 아니에요?

16)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나타나는 오류 중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관형사형 어미'만을 써야 할 곳에 '시제 형태+관형 형태'로 풀어쓴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시제 형태와 관형 형태'를 다 써야 할 곳에 '관형사형 어미'만을 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잃어버린'을 써야 할 곳에 '잃어버렸는'을 쓴 경우는 전자의 경우이고, 학습자가 '살던'을 써야 할 곳에 '사는'을 쓴 경우는 후자의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는 시제 형태의 과 사용으로 보아 HL로 태깅하고, 후자는 관형사형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아 DL로 태깅하기로 한다.

- ▶ 요즘에 나왔던(✓나온 TL)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노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 들중에도 80%쯤(✓쯤이) 미신을 믿대요.
- ▶ 이태리를 여행했을(✓여행할 TL) 때 신기한 곳을 보았고 착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 ▶ 작년에 고대 시숙사(✓기숙사)에서 호주 친구들이 만났어요. 일년까지(✓동안) 호주 친구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살았어요 TL).

①은 ‘-겠-’을 과잉 적용하여 잘못 쓴 경우이고 ②,③은 ‘-었-’을 과잉 생산하여 잘못 쓴 경우이다. ④는 ‘-겠-’을 써야할 곳에 ‘-었-’을 잘못 쓴 경우이다. ⑤는 ‘-은-’을 써야할 곳에 ‘-었는-’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고, ⑥은 ‘-은-’을 써야 할 곳에 ‘-었던-’을 쓴 경우이다. ⑦은 ‘-을-’을 써야 할 곳에 ‘-었을-’을 쓴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⑧은 ‘-었-’을 써야 할 곳에 ‘-고 있었-’을 쓴 경우이다.

2.3.2. 존대 어미의 오류(HO/HL)

존대 어미 오류에는 주체 높임의 ‘-으시-’를 써야 하는 경우인데 쓰지 않은 ‘존대 어미 생략(HO)’ 오류와 ‘-으시-’를 썼으나 잘못 사용한 ‘존대 어미 잘못 씌(HL)’ 오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존대 어미의 오류의 경우는 다른 문법적 오류와는 달리 문법성(grammaticality)이나 적합성(Acceptability)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존대 어미는 한국인 화자도 그 사용이 일관되지 않아서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의 폭이 아주 넓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는 사용할 수도 있는 문장이지만 문맥에서 학습자가 명시적으로 존대 어미를 써야 하는 경우인데 쓰지 않은 ‘존대 어미 생략(HO)’ 오류와 비수용적인 ‘존대 어미 잘못 씌(HL)’ 오류를 중심으로 오류 태깅을 하기로 한다.

< 존대 어미 생략(HO) 오류 >

- ▶ 우리 엄마는 금년에 마흔 여덟살었습니다(✓여덟살이십니다 HO). 생일이 시월 십삼일이 십니다.
- ▶ 아버지는 매우 바쁩니다(✓바쁘십니다 HO). 그래서 저녁에 돌아오시면 피곤해 합니다(✓피곤해하십니다 HO).
- ▶ 평일에는 할머니께서 요리를 합니다(✓하십니다 HO).

①과②는 문맥의 다른 부분에서는 높임의 형태 ‘-으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으시-’를 써야 할 환경에서 ‘-으시-’가 드러나지 않았다. ③은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호응하기 위해서는 ‘-으시-’가 나타나야 하는데 쓰지 않은 경우이다.

< 존대 어미 잘못 씌(HL) 오류 >

- ▶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나 목표에 따라 우리들 중에서는 다시 한국에 남아서 다른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나라로 돌아가서 목표한 일을 하시거나(✓하거나 HL),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하는 HL)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졸업 후에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이 판문을 통과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목표하신(✓목표한 HL) 일들을 누구보다 더 훌륭하게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존대어미의 잘못 씌 오류는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다. 한국인 학습자도 잘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①과 ②는 존대 어미가 과대 사용되었다고 보고 오류로 판정하였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 존대 어미는 문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못하게 만든다. 고급 학습자의 문장에서나 적용할 법한 오류이다.

2.3.3. 종결 어미(E) 오류(EO/EL/EA/EF/EP)

어말 어미는 일단 문장을 종결지으면서 상대 경어법을 표시하는 종결어미와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비종결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비종결어미는 문장을 접속하는 연결어미와 선행절의 기능을 바꾸어주는 전성어미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도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등을 단위로 하여 오류를 태깅하기로 한다.

국어의 종결어미는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명령형, 청유형과 같이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지’, ‘-군’, ‘-네’ 등과 같이 화자의 다양한 심리 상태를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져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으며, 격식체는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로 나뉘고, 비격식체는 ‘해체’와 ‘해요체’로 나뉘는 높임의 등분이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결어미의 체계를 제시한다.

○ 상대높임법에 따른 종결어미의 체계

	해라	하게	하오	합쇼	해	해요
평서형	-(는/ㄴ)다	-네	-오	-(습/ㅁ)니다	-어	-어요
의문형	-(느)냐	-(느)ㄴ가	-오	-(습/ㅁ)니까	-어	-어요
감탄형	-(는)구나	-(는)구면	-(는)구료	○	-어	-어요
명령형	-어라	-게	-오	-(ㅁ)시오	-어	-어요
청유형	-자	-세	○	-(ㅁ)시다	-어	-어요

물론, 위에서 제시한 기본형 외에도 문장의 종류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종결형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장의 종류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문장의 종류는 비교적 명시적인 것이어서 학습자들이 그 형태를 알고 있다면 혼동해서 쓸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결형에서 학습자들은 반말과 높임말의 적절한 사용이나 문어체와 회화체의 사용,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사용 등에 빈번한 오류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종결 어미의 오류를 ‘종결어미의 생략(EO)’, ‘종결어미의 잘못 씌, 대치(EL)’,

‘종결어미의 첨가(EA)’, ‘종결어미의 형태 오류(EF)’, ‘종결어미의 환언 오류(EP)’ 등으로 나누어 태깅을 하기로 한다.

‘종결어미의 생략(EO)’은 적절한 종결어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학습자 오류이다,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알고 있다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오류 유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를 제시하지 않는다.

‘종결어미의 잘못 씌, 대치(EL)’는 적절한 종결어미를 쓰지 못하고 다른 기능을 가진 종결어미를 쓴 오류이다. 종결어미의 오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오류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을 것 같습니다’를 써야 할 경우에 ‘-겠습니다’를 쓴 경우도 종결어미의 오류로 보기로 하였다. 그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을 것 같다’가 종결형의 문형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종결어미의 잘못 씌, 대치(EL) 오류>

- ▶ 내가 여자라면 너무 힘들어요(✓힘들 거예요 EL).
- ▶ 내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눈 크 뜰 세가 없고 바빠서 일직 죽겠어요(✓죽을 거예요 EL).
- ▶ 그리고 친퀘테라(Cinque Terre)에서 지중해가 아주 멋있었어서(✓멋있었어요. EL) 그 바다가 깊은 푸른색이었어요.
- ▶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국장에서 영화를 보면 돈이 많이 들은데요(✓들을 것 같은데요. EL).
- ▶ 그 중에서 가장 드문 것은 타조의 알일 것이다. 가까이에 신슈대학교 농학대학이 있어서 거기서 타조를 기르거든(✓기르기 때문이다 EL).
- ▶ 그것은 1박 5000원이었다(✓5000원이었어요 EL)!! 아주 싸니까 널랐어요.
- ▶ 서울 대공원 여행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도 같이 오십시오(✓잡시다 EL). 선생님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종결어미의 첨가(EA)’는 종결어미가 불필요한 곳이나 이미 종결어미가 쓰여진 곳에 다른 종결어미를 더 쓴 오류이다. 역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여기에 예를 제시하지 않는다.

‘종결어미의 형태 오류(EF)’는 여러 이형태를 가진 종결어미 중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이형태를 쓴 경우이다.

<종결어미의 형태(EF) 오류>

- ▶ 이곳은 시내를 따라서 벚꽃이 심어져 있어서 너무 아름답니다(✓아름답습니다 EF). 가을은 단풍이 아름답니다(✓아름답습니다 EF).
- ▶ 다만, 금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팀이 이기다면(✓이긴다면 EF) 저도 기쁩니다.
- ▶ 유카리씨는 성격이 아주 좋아요(✓좋아요 EF). 모리도 아주 좋아요(✓좋아요 EF).
- ▶ 요즘에 나왔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노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 들중에도 81%쯤 미신을 믿대요(✓믿는대요 EF).

‘종결어미의 환언 오류(EP)’는 화자가 문맥에서 보여주는 의미로 볼 때 한국어에 적절한

종결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문법 요소나 어휘로 대치한 경우이다. 역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여기에 예를 제시하지 않는다.

2.3.4. 연결 어미 오류(CO/CL/CA/CE/CP)

국어에서 둘 이상의 의미상 주어와 서술어가 연달아 나타날 때 이를 내포¹⁷⁾하거나 접속해 주는 것이 연결어미이다. 학교 문법에서 연결어미는 두 절을 동등한 자격으로 연결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 두 절을 부사적 용법의 종속절과 중심절로 연결해 주는 종속적 연결어미,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구분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문장에 따라서는 두 절의 연결 관계가 대등적인지, 종속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는 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구분하는 데 유의미한 기준으로 작용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조적 연결어미의 오류는 대개 보조용언 자체의 사용 오류와 긴밀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어휘적 오류로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¹⁸⁾. 그러므로 대등, 종속, 보조 등의 구별없이 연결어미의 오류를 태깅하기로 한다.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9)와 같이 연결어미의 종류를 제시한다.

○ 연결어미의 종류

- ①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나열하는 것 : -고, -으며
- ② 한 가지 이상의 일이 동시에 일어남을 보이는 것 : -으면서
- ③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잇달아 일어남을 보이는 것 : -자
- ④ 서로 상반됨을 보이는 것 : -으나, -어도, 지마는, -라도, -되
- ⑤ 조건이나 가정을 보이는 것 : -으면, -라면, -거든, -더라도
- ⑥ 이유나 원인을 보이는 것 : -으니까, -으므로, -어서
- ⑦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의 지속을 보이는 것 : -어서
- ⑧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바뀌는 것을 보이는 것 : -다가
- ⑨ 다른 일이 더 보태지거나 점점 더해 감을 보이는 것 : -을 뿐더러, -을수록
- ⑩ 의도를 보이는 것 : -으려고, -고자
- ⑪ 목적을 보이는 것 : -으러
- ⑫ 어느 쪽이나 상관없이 없음을 보이는 것 : -거나, -든지
- ⑬ 반드시 그래야 함을 보이는 것 : -어야
- ⑭ 어떤 일의 배경을 보이는 것 : -는데
- ⑮ 어떤 행위가 어떤 정도까지 이르는 것을 보이는 것 : -도록

물론,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연결어미가 존재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17) 연결어미가 사용되어 두 절이 내포 관계가 되는 경우를 동사구 내포문이라고 할 수 있고, 전성어미가 사용되어 두 절이 내포 관계가 되는 경우는 명사구 내포문이라고 할 수 있다.

18)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오류가 다른 오류의 원인이 될 때는 가장 중심적인 오류만을 골라 태깅하기로 하였다.

연결 어미 오류는 연결어미가 가지고 있는 각 나뉠대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연결어미의 쓰임에 따르는 문법적 제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 어미의 오류를 ‘연결어미의 생략(CO)’, ‘연결어미의 잘못 씌, 대치(CL)’, ‘연결어미의 첨가(CA)’, ‘연결어미의 형태 오류(CF)’, ‘연결어미의 환언 오류(CP)’ 등으로 나누어 태깅을 하기로 한다.

‘연결어미의 생략(CO)’은 적절한 연결어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학습자 오류이다, 역시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알고 있다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오류 유형이다.

‘연결어미의 잘못 씌, 대치(CL)’는 적절한 연결어미를 쓰지 못하고 다른 기능을 가진 어미를 쓴 오류이다. 연결어미의 오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오류이기도 하다. 특히 의미 범주가 유사한 연결어미 간에 혼동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연결어미의 첨가(CA)’는 연결어미가 불필요한 곳이나 이미 연결어미가 쓰여진 곳에 다른 연결어미를 더 쓴 오류이다.

‘연결어미의 형태 오류(CF)’는 여러 이형태를 가진 연결어미 중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이형태를 쓴 경우이다.

‘연결어미의 환언 오류(CP)’는 화자가 문맥에서 보여주는 의미로 볼 때 한국어에 적절한 연결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문법 요소나 어휘로 대치한 경우이다.

<연결어미의 생략(CO) 오류>

- ▶ 그 뱃머리 제일 높(√높을 CO) 때 바다하고 90도각(√90도각이어서 CO) 너무 무서웠어요.
- ▶ 옛날에 우리 항상 같이 수업이 끝나고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할게 슬프하고(√슬퍼하고 CO) 함께 기쁜 했어요.

<연결어미의 잘못 씌, 대치(CL) 오류>

- ▶ 오전 01시까지 숙제를 했으니까(√해서 CL) 지금 아주 피곤해요
- ▶ 우선, 제가 런던에 도착했고(√도착해서 CL) 내친구와 친구의 식구들을 만났어요.
- ▶ 제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제 차가 공장났어서(√고장났는데 CL) 당신의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일 층에 들러갔을테(√들어가서 CL) 옷을 두 벌 샀어요.
- ▶ 이 사진을 봤을테(√보면 CL) 애인이 기억나요.
- ▶ 여행으로 여러 나라에 가면 갈수록 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할지(√좋아하는지 CL) 알게 되었다.
- ▶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었던 것을 아주 행복하러(√행복하게 CL) 생각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 ▶ 왜내하면 Shanghai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그 식당에 만든 음식의 맛이 있어 없어는 것을(√있는지 없는지를 CL) 제일 관심하고 식사 후에 배 불러지 안 불러지 신경쓰지 않은 것 같아요.

<연결어미의 형태(CF) 오류>

- ▶ 발리에는 구두와 가방이 많이 있었어(√있어서 CF) 값이 쌉니다.

- ▶ 5년 전에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한테 "제일교포 대표하게 미국에 가서 일본의 전쟁 역사에 대해서 스피치를 해 주세요"라고 말하(√말해 CF) 주셔서 2주일 동안 Indiana에 갔다 왔습니다.
- ▶ 왜내하면 Shanghai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그 식당에 만든 음식의 맛이 있어 없어는 것을 제일 관심하고 식사 후에 배 불러지 안 불러지(√부른지 안 부른지 CF) 신경쓰지 않은 것 같아요.
- ▶ 혼자이니까(√혼자니까 CF) 언제나 가족들이나 친구하고 갔을 때보다 진자 고생했어요.
- ▶ 저는 바이아를 생각만 하도(√해도 CF), 좋은 기분이 납니다.

<연결어미의 환언(CP) 오류>

- ▶ 파리에 도착했을 때 바로(√도착하자마자 CP) 드레스덴(Dresden), 독일 갔어요.
- ▶ Netherland에서 돌아가서 지금부터(√돌아가면 CP) 꼭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만 해서 그만뒀어요.

2.3.5. 전성 어미 오류(DO/DL/DA/DE/DP/DO)

국어에서 둘 이상의 의미상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날 때 이를 내포절로 만들어 명사에 연결시켜 주거나 명사로서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전성어미이다. 학교 문법에서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분류된다. 명사형 전성어미는 문장의 기능을 명사화하여 명사절로 안긴 문장을 만들어 주거나 명사구 내포문을 만드는 것으로 대표적인 형태로는 '-음'과 '-기'를 들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은 지', '-는 것', '-을 수', '-은 줄', '-은 데'와 같이 비교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형식적 의존 명사를 핵으로 하여 명사구 내포문을 만드는 경우도 이 의존명사만을 유의미한 단위로 분석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모두 묶어 명사형 전성어미로 보기로 한다. 하지만 의존 명사 중에서도 '때문', '따름', '탓', '따위'와 같이 의미가 분명한 경우나 자립 명사와 넘나드는 경우는 명사의 실질 의미를 존중하여 명사형 전성어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선행절을 관형사처럼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은', '-는', '-을', '-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앞의 형식적 의존 명사가 이끄는 절과 다른 점은 뒤에 실질 명사가 온다는 것이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의 오류에서도 분류해 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작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모두 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여기에 또한 인용절을 다시 관형절로 안기게 만들어 주는 '-다는', '-냐는', '-라는', '-자는'등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도 종결형과 관형형 어미를 구분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전성어미의 오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다음은 본고에서 고려하게 될 전성어미의 종류이다.

○ 전성어미의 종류

- ① 명사형 전성어미 : -음, -기, -은/는/을 것, -은/는/을 줄, -은/는/을 데, -은/는/을 때, -은/는/을 바, -은/는/을 줄, -을 리, -을 겹 등

② 관형사형 전성어미 : -은, -는, -을, -던, -다는, -냐는, -라는, -자는, -다던, -냐던, -라던, -자던 등

※ 명사형 전성어미로 포함시키지 않는 의존 명사 : 노릇, 놈, 만큼, 대로, 분, 바람, 자, 지경, 이, 통, 따위, 측, 무렵, 뿐, 때문, 즈음, 적, 양, 듯, 나름, 따름, 척, 체, 채 등

한국어 학습자들의 전성어미 오류는 전성어미가 사용되는 관용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성어미의 형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 그리고 특히 관형사형 전성어미에서 전성어미에 포함되는 시제 표현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 자주 발생한다.

전성어미의 오류도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 마찬가지로 ‘전성어미의 생략(DO)’, ‘전성어미의 잘못 씌, 대치(DL)’, ‘전성어미의 첨가(DA)’, ‘전성어미의 형태 오류(DF)’, ‘전성어미의 환언 오류(DP)’ 등으로 나누어 태깅을 하기로 한다. ‘전성어미의 생략(DO)’은 적절한 전성어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학습자 오류이다. (15)는 그 예이다. ‘전성어미의 잘못 씌, 대치(DL)’은 적절한 전성어미를 쓰지 못하고 다른 전성어미 혹은 어말 어미를 쓴 오류이다. (16)은 그 예이다. ‘전성어미의 첨가(DA)’는 전성어미가 불필요한 곳이나 이미 전성어미가 쓰여진 곳에 다른 전성어미를 더 쓴 오류이다. ‘전성어미의 형태 오류(DF)’는 여러 이형태를 가진 전성어미 중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이형태를 쓴 경우이다. (17)은 그 예이다. ‘전성어미의 환언 오류(DP)’는 화자가 문맥에서 보여주는 의미로 볼 때 한국어에 적절한 전성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문법 요소나 어휘로 대치한 경우이다.

<전성어미의 생략(DO) 오류>

- ▶ 그렇지만 Amsterdam은 예쁘(√예쁜 DO) 여자나 경물이 많이 있어서 밤 풍이기도 exciting고 진짜 재미있었어요.
- ▶ 그 뱃머리 제일 높(√높았을 DO) 때 바다하고 90도각 너무 무서웠어요.
- ▶ 사진이 찍(√찍을 DO) 때 그냥 잤어요.

<전성어미의 잘못 씌, 대치(DL) 오류>

- ▶ 뭐 편리할(√편리한 DL) 구두가 있습니까?
- ▶ 뭐 책상 속에 재미있을(√재미있는 DL) 게 있습니까?
- ▶ 경희궁에 산책한(√산책하는 DL)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 ▶ 그렇지만 정보화가 발달해서 문제도 많아졌는(√많아진 DL) 것 같아요.
- ▶ 고궁은 옛날에 황제가 사는(√살던 DL) 장소이다.
- ▶ 우리는 친밀하게(√친밀한 DL) 자매 같습니다
- ▶ 여름은 너무 더워서 지내는 게(√지내기가 DL) 어렵습니다.
- ▶ 저는 자기가 운동하기(√운동하는 것 DL)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경기를 관전하면 언제나 선수들을 존경해요.
- ▶ 제일 (좋은) 추억은 파리에서 로마까지 침대 차량에서 죽 말해기(√이야기하는 것 DL)입니다.

<전성어미 형태(DF) 오류>

- ▶ 물을(√물 DF) 때 운전면허증 없어도 돼요?

- ▶ 너희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동생이 울을(√울 DF) 것 같아요
- ▶ 발리에 갔을(√갔을 DF) 때 짧은 휴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없었어요.
- ▶ 한강은 한국에 있는 제일 길은(√긴 DF) 강인데 발리에 있는 제일 길은(√긴 DF) 강은 아유이라고 해요.

2.4. 어순의 오류(O)

한국어는 자유 어순이므로 일반적으로 어순 상의 오류는 그리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조사 어순의 오류나 부사 어순의 오류, 특히 서양권 학습자의 경우에는 수량 명사구의 어순에 있어서 오류를 보인다. 이 외에도 수사학적인 면에서 어순 상의 오류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 ▶ 지난 방학때 제친구(√와)같이와 태국(√태국)에 갔어요.(B3 서양교포)
- ▶ 특히 불경기가 되고 나서 (√남자보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남자보다 하늘에 별따기예요.(A3 서양권)
- ▶ 더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문화와 말을 (√더) 배우고 싶어요.(A3 일본교포)
- ▶ 가족들이 한 크고 수수한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네요.(A3 서양권)

2.5. 표현 오류(R)

이는 구 차원에서의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에는 먼저 ‘하다’ 동사구의 오류가 있다. 이는 ‘N하다’ 동사의 목적어가 실현되었을 때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N1 N을 하다’로 ‘N하다’ 동사를 구로 분리시키지 않고 ‘N1을 N하다’로 쓰는 오류이다. 또 구 전체의 어휘적 선택이 잘못된 경우, 관용구 등을 잘못 쓰는 경우 등이 있다.

- ▶ 아홉 시에 영어를 공부합니다(√영어 공부를 합니다) (B1 서양권)
- ▶ 내가 사장님이라면 자제(√자녀)가 곤란하고 있는데도(√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일을(A3 일본권)
- ▶ 내가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기(√아주 좋아하기) 때문이다.(A3 일본권)
- ▶ 사람이 많아서(√많은 걸 보니) 광관철인가봤어요(√봐요)(B3 서양권)
- ▶ 태국 절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구경했어요.(√우리는 구경을 많이 했어요)(B3 서양교포)
- ▶ 친구가 많이 있고 그 중에 중학교 시절 친한 친구를 잘 기억내요(√친구가 가장 기억나요)(B4 서양권)
- ▶ 제 아들이라면 의사이에요. 제 딸이라면 선생님이예요.(√아들이라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이라면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A3 서양권)
- ▶ 내가 선생님이라면 김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고 하면 좋아해요.(√잘 가르치면 좋겠어요)(A3 서양교포)
- ▶ 가끔 나는 울해서 그렇지만(√울지만) 어머니를(√는) 종구(√천국)에서(√에) 있습니다.(B4

서양권)

- ▶ 졸업 끝난 후에 나는 머러운 인사(✓이사)를(✓면 곳으로 이사를) 했다.(B4 서양권)
- ▶ 한국에 있는 동안에(✓지금) 우리 부모님을 청말 보고 싶습니다.(B3 서양권)

2.6. 문장 오류(G)

이는 문장 전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일부의 교정이 아니라 전체적이 교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러한 문장 전체의 오류의 경우, 각 어절의 문법에는 오류가 없으나 전체 문장의 구조나 어절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문장 전체의 구조적 문법적 오류 뿐 아니라 어절 단위에서도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 ▶ 비행기 안에서 옆에 사람 만났던 미국이방과 영어선생님이었어요.(✓비행기 안에서 옆에 앉았던 사람은 미국에 입양된 사람이었고 영어 선생님이었어요)(B3 서양교포)
- ▶ 대국의 요름이서 대국에 너무 더웠어요.(✓그 때 태국은 여름이어서 너무 더웠어요.)(B3 서양교포)
- ▶ 그래도 내가 재미있는 추억이 많아서 아까워지않습니다.(✓그래도 저는 재미있는 추억이 많아서 그렇게 안타깝지는 않습니다.)(B3 서양권)
- ▶ 우리 사귀의 폭 인상(✓인생)을 지냈다.(✓우리는 잘 사귀면서 죽 지냈다)(B4 서양권)
- ▶ 첫버제(✓첫번째) 인상을 친찰한(✓친절한) 줄 몰았어 저(✓조)금 무뚝뚝한 보였어요.(✓첫 인상은 친절해 보이지 않고 조금 무뚝뚝해 보였어요)(B4 서양권)
- ▶ 제가 남자라면 무술을 배워서 누구든지 싸웠으면서도 이기고 싶어요. 그때 상대방은 남자 만이에요(✓여기서 제가 싸울 상대는 남자만입니다.) (B4 서양교포)

2.7. 오류의 혼합(B)

이는 위에서 언급한 오류의 유형이 여러 가지 겹쳐 있어 그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기 힘든 경우이다.

- ▶ 제가 어린있을때(✓어렸을 때) 음식을 많이 먹던데요.(B4 서양권)
- ▶ 그러지만 수업이 끝나(✓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2.8. 철자 오류(S)

학습자들은 많은 철자의 오류를 범한다. 철자 오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발음의 영향으로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받침, 특히 겹받침, 모음, 거센소리 등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초급의 경우에는 글자를 혼동하여 첫소리와 받침을 바꿔 쓴다거나 한

국어에는 없는 글자를 쓴다거나 하는 일도 있다.

맞춤법 오류는 크게 자음과 모음, 음운의 첨가와 생략, 연철과 과분철,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음의 경우 첫소리의 오류는 주로 ‘쓰,ㄴ,ㄷ’ 등의 된소리나 ‘츠’ 등의 거센소리, ‘ㅎ’처럼 발음상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받침의 경우에는 겹받침이나 발음 상 절음되는 받침 혹은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발음상 구분이 안 되는 ‘ㄴ,ㅁ,ㅇ’의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 또 발음상의 문제로 자음접변 등의 음운 규칙이 나타나는 것도 소리나는 대로 철자를 쓰는 경우도 있다. 모음의 경우에는 발음상의 유사성으로 ‘에’와 ‘애’를 잘못 쓴다거나, 발음 상 잘못으로 ‘오,어,으,여’ 등의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초급 학습자들은 ‘우 ㅁ’등 한국어에는 음운을 스기도 한다.

맞춤법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을 크게 발음상의 문제로 인한 오류와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류, 문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오류, 맞춤법의 이원성으로 인한 오류가 있다.

- ▶ 여덟시십분에 아진(✓침)을 먹습니다.(B1 중국)
- ▶ 영수는 한시에 진(✓친)구를 ...습니다.(B1 중국)
- ▶ 브더워기대(✓때)문에 만(✓많)이 먹었어요.(B3 서양권)
- ▶ 영수는 일곱(✓곱)시에 일어납니다.(B1 서양권)
- ▶ 영수는 여덟(덥)시 쉰분에 아침먹습니다.(B1 서양권)
- ▶ 아홉(✓홉)시에 공부했(✓했)습니다. (B1 서양권)
- ▶ 미국시(✓사)람입니다. (B1 서양권)
- ▶ 일곱시에(✓에) 일어났습니다. (B1 서양권)
- ▶ 1년 전에 하와이 갔다왔서(✓어)요. (B3 서양교포)
- ▶ 두시에 친구(✓친구)를 남(✓만)났습니다. (B1 서양권)
- ▶ 두시에 학우 ㄴ(✓원) 갑니다.(B1 중국)

제 4 장

오류 주석 도구의 개발

1. 머리말

구축된 말뭉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언어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뭉치에 주석(annotation)을 해야 한다. 말뭉치 주석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한데, 말뭉치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해당 말뭉치에 기입하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 오류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례 수준의 관찰이 있어왔지만 대량의 말뭉치에 대한 구축이 시도된 적이 없었다. 많은 양의 오류 주석 수작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석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한국어 학습자 오류 말뭉치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오류 주석 도구의 개발에 진전이 없었다.

여기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가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오류 주석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류 주석 도구 개발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과 실제 도구 개발 과정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2. 오류 주석의 정의와 주석의 필요성

학습자가 생산한 말뭉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언어학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말뭉치에 주석을 해야한다. 주석하지 않은 낱말뭉치(raw corpus)에서 얻을 수 있는 언어학적인 정보란 자소·음절·어절·문장 등의 개별 빈도와 이들의 연결 빈도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오류의 유형과 오류 분석을 위해서는 낱말뭉치의 오류 주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석이 없는 학습자 말뭉치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학습자 말뭉치 오류 주석의 정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2.1. 학습자 말뭉치 오류 주석이란?

말뭉치 주석이란 낱말뭉치에 언어학적 정보를 첨가해서 주석된 말뭉치(annotated corpus)를 산출하는 것이다. 주석할 수 있는 언어학적 정보의 유형은 형태·통사·의미·담화에 이

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품사 정보 표시(part of speech : POS tagging), 즉 문법정보주석이다. 학습자 말뭉치 오류 주석이란 학습자들이 생산한 텍스트를 면밀히 검토하여 생성된 오류들을 일정하게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하나의 태그 세트(tag set)를 설정한 다음, 태그 세트에 설정된 것과 동일한 오류에 일정한 방식의 표지를 붙여서 이를 언어학적 분석에 응용하는 방식이다. 주석은 오류의 범위나 음운, 형태, 어휘, 언어, 담화 등의 차원에서 주석 가능하다.

언어학적 정보의 첨가는 기본적으로 말뭉치를 구성하고있는 언어 단위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주석 대상 언어의 내적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말뭉치 주석의 목적에 따라서 그 방법과 내용이 달라진다. 즉,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주석은 학습자가 생산하는 오류의 종류와 그것의 분포 양상 등을 분석, 한국어 교육에 응용하려는 목적이므로 목적에 맞는 태그 세트의 구성과 주석이 필요하다.

2.2. 왜 오류 주석이 필요한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오류 주석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낱말뭉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석하지 않은 낱말뭉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자소·음절·어절·문장 등의 빈도나 이들의 연결 빈도 정도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석된 말뭉치가 가지는 언어 정보의 활용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를 대치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거나 일본어권 학생들은 조사 ‘에’의 사용이 빈번하다거나 하는 언어권별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주석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즉, 말뭉치에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언어 정보, 정확하게 말하면 얻고자 하는 학습자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낱말뭉치에 이러한 정보를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뭉치 주석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자동 주석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상의 오류와 이를 해결하는데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 오류 주석기의 개발은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수작업에 의한 처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말뭉치의 양이 크지만 주석 작업에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들이는 비용과 시간, 노력 역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주석된 말뭉치가 일회성으로 그 사용이 끝난다면 이러한 주석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다. 주석된 말뭉치는 단순한 통계 정보 이상의 작업에 활용될 수 있고, 다른 연구자와 공유할 수 있어서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선 오류 주석된 말뭉치는 오류의 유형별로 통계가 가능하고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하는 오류의 비율을 점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언어권별, 등급별 오류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 오류 주석은 필수적인 사

항이 아닐 수 없고 주석 도구의 개발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 주석에는 몇 가지 지켜야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주석 원칙에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오류 주석된 말뭉치는 낱말뭉치로 환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주석된 부분만 따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오류를 생산한 생산자의 정보를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말뭉치의 경우, 주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는 주석된 부분만 따로 추출하여 통계처리나 분석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사항은 오류의 유형화와 언어권별 중간언어의 언어학적 특질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여 나아가 새로운 교수법의 강구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원칙이다.

3. 오류 주석 도구의 실제

이 장에서는 오류 주석 도구에서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 즉 주석 입력 방법, 언어외적 변인의 고려, 태그 세트, 오류 탐색 기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구 개발의 실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3.1. 오류 주석 도구에서 요구되는 사항

3.1에서는 주석 입력 방법, 언어외적 변인, 태그 세트, 오류 탐색 기능 등 오류 주석 도구에서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3.1.1. 주석의 방법과 어절 단위 주석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주석은 주석 도구가 있다면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이미 입력된 자료의 경우에는 파일을 프로그램 상에서 읽어 들인 다음 오류 주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류의 주석은 자동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힘든데, 그것은 자동으로 주석을 하기에는 오류 유형을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렵고 모든 오류의 유형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주석 도구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주석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하는 것이 주석의 오류율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이다.

다음은 주석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보통 형태소 분석의 단위를 주석의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오류의 정확한 태그가 어렵게 된다. 아울러 자동으로 처리되는 형태소 분석은 정확도에 있어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 외국인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를 가지고 자동으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오분석이 나타났고,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를 명사나 고유명사로 판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를 모두 손으로 후처리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또 형태소 분석 단위가 과연 오류의 유형화 작업에 얼마만큼 유의미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떠한 문법 형태소가 오류를 일으켰는가에 대한 통계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이미 오류가 유형화되어 태그가 붙여지는 상황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법 정보를 주기 위한 형태소 분석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굳이 문법 정보를 주기 원한다면 사람이 직접 형태소를 분석을 하거나 자동으로 형태소 분석을 한 후, 후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절 단위로 텍스트를 잘라서 오류에 대한 주석을 하는 것으로 한다.

3.1.2. 언어외적 변인

학습자 오류의 원인은, 모국어, 학습 과정, 교과서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방법, 외국어 화자와의 의사 소통에 있어서 학습자의 태도, 목표 언어 규칙의 과잉 적용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오류는 학습자가 습득하려고 하는 목표 언어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학습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오류의 생산과 확인 그리고 오류 수정을 통해 완전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어휘나 문장, 문법 교수 등에서 이러한 오류의 분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쉬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언어를 습득하려는 학습자의 쓰거나 읽기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자들의 오류를 계량적,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학습자가 생산해 낸 자료를 통한 언어에서 다른 한 언어로 이동하는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유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빈번한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국가별, 지역별, 언어권별로 나타나는 오류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오류는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언어 습득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되며 학습의 난점을 극복하고 학습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학습자들이 생산한 오류를 알맞은 태그 세트에 의해 주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아울러 학습자들의 국적과 모국어, 학습 기간, 학습 수준, 성별, 나이 등 다양한 학습자 배경 상황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오류와 학습자 언어 배경 간의 상호작용 및 관련성을 조사할 수 있다. 즉, 주석시 오류 태그 세트만이 아니라 언어외적 변인으로 작용되는 이러한 요소의 상호 관련성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따라서 오류 주석 도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3.1.3. 오류 태그 세트

오류 주석 도구에는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목적에 맞는 태그 세트가 필요하다. 오류 태그 세트가 주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적인 부분이 되며 오류의 범주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아래는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작성한 오류 태그 세트이다.

어휘 오류(L)	동일 품사의 대치(L)		
	품사 오류	N(명사), V(동사), Aj(형용사), Ad(부사), D(관형사), Ex(감탄사), Pr(대명사), Nm(수사), 지정사(C)	
	한국어에 없는 어휘(X)		
	환언 오류(P)		
	어휘의 첨가(A)		
	어휘의 생략(O)		
	어휘 형태 오류(F): 불규칙 동상의 어간과 같은		
표현 오류(R)			
조사 오류(P)	조사의 생략(O)		
	조사의 대치(L)*		
	조사의 첨가(A)		
	조사의 형태에서의 오류(F)	예) 으로 :로/ 을: 를	
	환언적 오류(P)		
어미 오류	시제 어미 오류(T)	생략(O)	
		잘못 씀(L)	
	존대 어미 오류(H)	생략(O)	
		잘못 씀(L)	
	종결 어미 오류(E)	생략(O)	
		잘못 씀, 대치(L)	
		첨가(A)	
		형태(F)	
		환언(P)	
	연결 어미 오류(C)	생략(O)	
		잘못 씀, 대치(L)	
		첨가(A)	
		형태(F)	
	전성 어미 오류(D)	환언(P)	
		생략(O)	
		잘못 씀, 대치(L)	
		첨가(A)	
	어순의 오류(O)	부사의 어순 오류(Ad)	
		수사의 어순 오류(Nm)	
그 외의 어순 오류(E)			
오류의 혼합(B)	판단이 어렵거나 여러 오류가 혼합되어 있을 때		
철자 오류(S)			

<표 18>한국어 학습자 오류 태그 세트 (2002.5.1)

오류 태그 세트는 여러 가지 목적과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오류 주석 도구에서는 위의 오류 태그 세트를 기본으로 한다.

3.1.4. 오류 탐색 기능

오류가 주석된 각 어절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오류별로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오류를 주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용자가 어떠한 오류들이 학습자에게 분포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언어외적인 변인과 연관시켜 학습자의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보완하는 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탐색의 기능은 필요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일으키는 특징적인 오류를 모아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습자별, 학습 등급별 요소 등을 연구자, 사용자의 목적에 맞도록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습과 교수에 필요한 각종의 기초적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3.2. 도구 개발의 실제

오류 주석 도구를 개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도구 사용환경과 개발환경이 설정되어야 하며, 주석 도구에 포함되는 기능을 확정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검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2.1. 사용환경 및 개발환경

한국어 학습자 오류 주석 도구의 사용환경 및 개발환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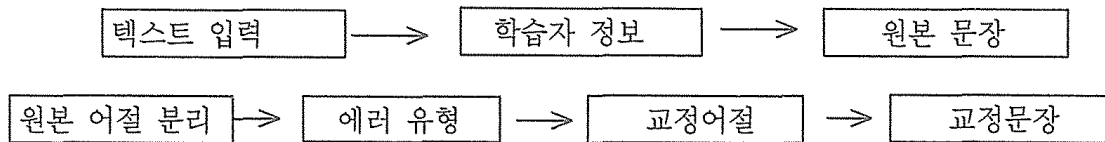
사용 환경	개발 환경
Windows 98 이상	Windows 2000 서비스팩2
Windows DotNet Framework	Visual-C#
Microsoft Data Access Control 2.7	MS SQL Server 2000

위와 같은 조건을 사용환경과 개발환경으로 한다.

3.2.2.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은 원활한 프로그램 배포와 버전 관리를 위하여 웹사이트(<http://165.132.149.58:8000/ErrorCorpus>)에서 설치 및 실행되며 입력프로그램과 검색프로그램이 탭 스타일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입력과 검색을 같은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에서는 직접 타이핑하여 입력할 수도 있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할 수도 있다. 직접 입력하는 경우,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원본문장을 타이핑한 후 “원본문장→교정어절”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문장을 어절단위로 분리한 다음 교정어절 부분을 수정한다. 그리고 나서 “교정어절→교정문장”을 클릭하여 교정문장을 완성한 후 에러영역과 에러유형에서 적절한 오류표지를 선택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DB에 입력된다. 텍스트파일에서 가져오는 경우, “열기”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열기” 버튼을 누른다. 텍스트 파일을 분석하여 학습자 정보와 원본문장을 자동으로 채워주는데 입력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래어절과 교정어절, 교정문장, 에러영역, 에러유형을 완성하여 입력하면 된다.

(2) 학습자 정보

학습자 정보는 언어외적인 변인으로 오류의 유형과 언어외적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자동 입력되는 학습자에 대한 정보는 생산장소, 생산날짜, 이름, 국적, 모국어, 학습 수준, 학습기간, 성별, 연령, 직업 10개 항목이다. 학습자에 대한 정보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서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정보가 없는 경우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학습자 정보는 없다. 즉,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빈칸으로 남게 된다.

<그림 12> 학습자 정보 입력부와 입력된 학습자 정보

위의 그림은 학습자 정보 입력부와 입력된 학습자 정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시간은 측정되지 않아서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오류 유형과 영역 표시

말뭉치에 대한 오류표지는 문장단위의 오류를 표현하기 위한 에러영역과 어절단위의 오류를 표현하기 위한 에러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오류 영역 표시는 다음과 같다.

오류없음	NONE
전체오류	global
부분오류	local

오류가 없는 어절인 경우에는 'NONE' 또는 표시 없이 그냥 두어도 무방하다. 오류가 문장 전체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global'로 표시하고 부분적인 오류일 때에는 'local'로 표시한다.

오류의 영역은 세부적인 오류 유형과 오류 영역간의 관련성을 살피는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오류 유형은 오류 태그 세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자세한 오류 유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시한 오류 태그 세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류없음	NONE
어휘오류	LL, LN, LV, LAJ, LAD, LD, LEX, LPR, LNM, LC, LX, LP, LA, LO, LF
표현오류	R
조사오류	PO, PL, PA, PF, PP
어미오류	TO, TL, HO, HL, EO, EL, EA, EF, EP, CO, CL, CA, CF, CP, DO, DL, DA, DF, DP
어순오류	OAD, ONM, OE
혼합오류	B
철자오류	S

(4) 원본의 어절 분리와 오류 주석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 한 뒤 각 어절에 대한 오류 주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표본에 대한 어절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오류 주석 도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입력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 하면 원본 문장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오른쪽 하단의 버튼들 중 “원본문장->교정어절”을 클릭하면 원본문장에 있는 문장들을 어절단위로 분리하여 아래의 그리드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입력자는 교정어절 부분을 바른 표현으로 수정하고 오류에 해당하는 적절한 오류 유형을 선택한 후 “교정어절->교정문장”버튼을 클릭하면 교정어절 부분에서 수정한 사항들이 교정문장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난 후에 적절한 에러영역을 선택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입력된다.

<그림 13> 오류 주석 도구를 이용한 오류 주석

입력된 원본과 오류 유형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베이스화되고 이는 오류 검색에 다시 사용된다.

(5) 말뭉치 검색

한국어 학습자 오류 말뭉치의 오류를 검색하려고 할 때는, 검색하고자 하는 조건에 대한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에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검색조건에 맞는 말뭉치와 개수가 출력된다. 이때 찾아보려고 하는 오류의 조건은 사용자의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오류 주석 도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탐색 조건의 종류는 국적, 모국어, 학습수준, 성별, 연령, 오류 유형, 오류 영역의 일곱 가지 정도이다. 조건은 복수 개로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오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되어 화면에 출력된다. 아래의 그림은 검색의 조건 입력부와 그 화면이다.

<그림 14>오류 검색 화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 검색된 오류를 모아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습자별, 등급별, 모국어별로 연구자의 목적에 맞도록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학습과 교수에 필요한 각종 기초 정보를 얻어 낼 수 있다.

4. 맺음말

오류 주석 도구는 한국어 학습자 오류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류 주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류 주석 도구의 개발이 미루어져 왔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오류 주석 도구의 개발로 인해서, 보다 쉬운 방법으로 오류에 대한 주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오류 주석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빈번히 일으키는 오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국가별, 모국어별, 성별, 연령별 등 언어 외적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의 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 학습자 오류는 오류 주석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초 통계 정보나, 오류 유형화 등의 작업을 통해 학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사나 교재, 사전 등 여타의 학습 교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5 장

오류의 통계적 분석

1.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의 오류는 듣기나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 오류와 말하거나 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출 오류 등이 있겠으나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연구 대상은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한 오류, 특히 쓰기에서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및 시험 등 문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학습자가 생산한 문장을 입력하고, 이들 문장 중 오류문을 추출하여 이를 수정함과 동시에 여기서 나타난 오류를 연구자가 설정한 오류 유형의 범주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오류에 대한 기초 통계를 작성하고, 학습자의 오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언어권과 성별, 학습 단계(급)를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오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은 이 외에도 이전 외국어 학습 경험의 유무, 연령, 교육 기관, 지능, 언어 적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능이나 언어 적성 등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따로 지능이나 적성 검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연령은 대개 한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대부분 20대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령대 별 비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 교육기관에 따른 오류의 경향도 다를 수 있으나 교육 기관별로 언어권이나 성별, 급별로 학습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교육 기관마다 학습 단계를 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학습자의 학습 단계를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외 여러 가지 변인을 설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 변인을 추가하면 할수록 이들 조건에 적합한 학습자의 수가 제한되어, 연구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변인 중 오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4가지 변인, 즉 학습 단계와 언어권, 성별, 모국어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학습 단계는 연구 대상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세대학교 학습자를 기준으로 1급에서 6급까지의 6단계를 설정하였으며, 언어권으로는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 그리고 동남아권을 주축으로 하는 기타권, 이렇게 다섯 언어권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기타권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많지 않아 하나의 표집으로 구성하기에는 인원수가 너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통계 처리에서는 부득이하게 기타권을 분석에서 제외시킬 수 밖에 없었다. 성별은

남자 학습자와 여자 학습자, 그리고 모국어는 국적과 조금 다른 의미로 교포와 외국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네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각 변인별로 총 어절과 전체 문장에서 차지하는 오류 어절의 비율을 나타내는 오류율, 그리고 각 오류 유형 별로 나타난 오류 어절이 전체 어절에서 차지하는 각 범주별 오류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으로는 2002년 봄 학기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말을 수강한 학습자가 주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연세대 이외에 이화여자 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와 서강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자료도 일부 포함되었다. 학습자들이 산출한 문장은 모두 50만 어절의 말뭉치로 구축이 되었으며, 이 중 오류 분석된 자료는 약 10만 어절이다. 다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이들 자료 중 각 변인별 조건에 맞는 자료를 추출한 결과 최종 통계적 검증에 이용된 자료는 총 645명, 어절수로는 약 103771 어절이다.

전체 학습자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이 <표1>이며, 전체 학습자를 변인별로 나누어 본 것이 <표 2>이다.

대상		사례수	백분율(%)
급	1급	153	23.7
	2급	136	21.1
	3급	83	12.9
	4급	105	16.3
	5급	97	15.0
	6급	71	11.0
성별	여자	395	61.2
	남자	250	38.8
언어권	영어권	143	22.2
	일어권	268	41.6
	중국어권	117	18.1
	러시아권	89	13.8
	기타	28	4.3
모국어	교포	152	23.6
	외국인	493	76.4
계		645	100

<표 1> 학습자 분포

		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성별	여자	84(54.9)	91(66.9)	56(67.5)	63(60)	51(52.6)	50(70.4)	395
	남자	69(45.1)	45(33.1)	27(32.5)	42(40)	46(47.4)	21(29.6)	250
언어권	영어권	29(19)	35(25.7)	23(27.7)	24(22.9)	18(18.6)	14(19.7)	143
	일어권	56(36.6)	49(36.0)	28(33.7)	49(46.7)	54(55.7)	32(45.1)	268
	중국어권	46(30.1)	22(16.2)	12(14.5)	16(15.2)	11(11.3)	10(14.1)	117
	러시아권	17(11.1)	21(15.4)	17(20.5)	11(10.5)	10(10.3)	13(18.3)	89
	기타	5(3.3)	9(6.6)	3(3.6)	5(4.8)	4(4.1)	2(2.8)	28
모국어	교포	25(16.3)	19(14)	19(22.9)	30(28.6)	38(39.2)	21(29.6)	152
	외국인	128(83.7)	117(86)	64(77.1)	75(71.4)	54(60.8)	50(70.4)	493
계		153(100)	136(100)	83(100)	105(100)	97(100)	71(100)	645

<표 2> 변인별 학습자 분포

3.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급별로 나타나는 오류율과 오류 유형별 빈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각 급에서 나타나는 오류율과 오류의 유형별 빈도는 성별, 언어권별, 모국어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성별로 나타나는 오류율과 오류 유형별 빈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성별로 나타나는 오류율과 오류의 유형별 빈도는 급별, 언어권별, 모국어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언어권별로 나타나는 오류율과 오류의 유형별 빈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언어권별로 나타나는 오류율과 오류의 유형별 빈도는 급별, 성별, 모국어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모국어별(교포와 외국인)로 나타나는 오류율과 오류의 유형별 빈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 모국어별로 나타나는 오류율과 오류의 유형별 빈도는 급별, 성별, 언어권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가설의 검정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학습 단계(급), 남녀, 언어권, 모국어를 따른 오류율과 오류 유형별 빈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인은 급, 성별, 언어권, 모국어로 하고 종속 변인은 총 어절 수, 오류 어절 수와 오류율(오류 어절 수/총 어절 수), 각 유형별 오류가 전체 오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유형별 오류 어절 수/총 어절 수)로 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학습자가 산출한 문어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결과를 말하기나 읽기, 듣기 등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2) 대상자가 주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수강하는 학습자이므로 이를 학습자 전체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대상자의 인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라, 일본 이외의 언어권의 학습자 표집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언어권의 대상자의 경우 임의 표집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로부터 나온 결과를 일반화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6. 통계적 분석 결과

6. 1 전체 학습자 오류 분석

전체 학습자가 산출한 총 어절 수는 103771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160.9어절을 산출하였다. 이들이 산출한 총 오류 어절 수는 18208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28.2개의 오류 어절을 보였다. 총 어절 중 오류 어절이 차지하는 비율인 오류율은 평균 20.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각 유형별 오류율은 <표3>과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은 어휘, 조사, 철자, 어미 오류의 순이었으며, 가장 많은 어휘 오류의 경우 전체 오류 중 약 28.3%, 조사는 24.4%, 철자는 20.8%, 어미는 1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	총합	평균	표준 편차
총어절수	645	103771.00	160.8853	119.0413
오류어절	645	18208.00	28.2295	24.9247
오류율	645	13137.41	20.3681	15.9066
어휘오류어절	645	5133.00	7.9581	7.8671
어휘오류율	645	3537.07	5.4838	4.7257
표현오류어절	645	789.00	1.2233	2.4753
표현오류율	645	492.93	.7642	1.8617
조사오류어절	645	4296.00	6.6605	6.9710
조사오류율	645	3256.97	5.0496	4.9896
어미오류어절	645	2956.00	4.5829	5.0496
어미오류율	645	2037.85	3.1595	3.2286
시제오류어절	645	540.00	.8372	1.5772
시제오류율	645	424.97	.6589	1.4373
존대오류어절	645	142.00	.2202	1.2265
존대오류율	645	103.03	.1597	.8697
종결오류어절	645	596.00	.9240	1.6434
종결오류율	645	401.05	.6218	1.2602
연결오류어절	645	1007.00	1.5612	2.0119
연결오류율	645	671.03	1.0404	1.3337
전성오류어절	645	671.00	1.0403	1.5826
전성오류율	645	437.77	.6787	1.1517
어순오류어절	645	139.00	.2155	.7061
어순오류율	645	102.33	.1587	.5732
철자오류어절	645	3772.00	5.8481	7.4851
철자오류율	645	2784.68	4.3173	5.5178

<표 3> 유형별 오류 어절 수와 오류율

6.2 학습 단계(급)에 따른 유형별 오류율 차이 분석

6.2.1 급별 오류율 차이 분석

총 어절 수와 오류율, 그리고 유형별 오류율이 급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4>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급별 통계 분석 결과는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과 표현 오류율, 조사 오류율과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 거의 모든 오류 유형에 걸쳐 .001 수준에서 급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총 어절 수에 있어서는 급이 올라가면서 어절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오류율은 급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어휘와 조사 오류율에 있어서는 급이 올라갈수록 대체로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전 급에 걸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 유형은 어휘, 조사, 철자, 어미 오류였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휘 오류의 경우, 어휘 대치 현상이 전 급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조사 오류의 경우는 급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율이 뚜렷하게 내려가는 경향을 보여, 한국어 학습을 시작할 때 많은 학습자들이 조사 사용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만 시간이 가면서 안정적으로 조사 사용을 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조사 오류 중에서는 써야 할 조사 대신 다른 조사를 쓰는 조사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오류는 조사

생략 오류였는데, 특히 이런 현상은 중국어권과 영어권 학습자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다.

철자 오류의 경우 전 급에서 영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높아, 영어권 학습자에 대한 철자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어미 오류의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는 급에 관계없이 연결 어미 오류였다. 한국어의 연결 어미는 문장을 연결하면서, 앞 뒤 절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연결 어미의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쓰는 용법이 서로 다르거나, 또는 각각의 문법적 제약이 달라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2453300.4	5	490660.078	46.987	.000
	집단내	6672717.1	639	10442.437		
	전체	9126017.5	644			
오류율	집단간	14007.384	5	2801.477	12.019	.000
	집단내	148937.859	639	233.080		
	전체	162945.243	644			
어휘오류율	집단간	1046.731	5	209.346	10.031	.000
	집단내	13335.341	639	20.869		
	전체	14382.072	644			
표현오류율	집단간	77.089	5	15.418	4.572	.000
	집단내	2154.856	639	3.372		
	전체	2231.945	644			
조사오류율	집단간	1694.440	5	338.888	15.103	.000
	집단내	14338.548	639	22.439		
	전체	16032.989	644			
어미오류율	집단간	423.756	5	84.751	8.611	.000
	집단내	6289.246	639	9.842		
	전체	6713.002	644			
어순오류율	집단간	3.579	5	.716	2.199	.053
	집단내	208.048	639	.326		
	전체	211.627	644			
철자오류율	집단간	758.951	5	151.790	5.146	.000
	집단내	18848.249	639	29.496		
	전체	19607.200	644			

<표 4> 급별 오류율 차이 분석

각 급별 오류율의 기술 통계치는 <표5>와 같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1	153	81.0458	53.2675
	2	136	145.6765	94.9717
	3	83	151.9036	85.0555
	4	105	171.2667	102.4558
	5	97	209.4330	97.5096
	6	71	290.8873	186.1669
	Total	645	160.8853	119.0413
오류율	1	153	26.5847	21.2360
	2	136	22.2379	14.8814
	3	83	19.3507	13.1561
	4	105	20.0848	13.8911
	5	97	15.2516	11.7945
	6	71	11.9886	6.4129
	Total	645	20.3681	15.9066
어휘오류율	1	153	7.0750	5.8710
	2	136	5.6737	4.9786
	3	83	4.8672	3.5335
	4	105	6.3060	4.7530
	5	97	3.7110	3.0149
	6	71	3.6184	2.6832
	Total	645	5.4838	4.7257
표현오류율	1	153	1.0534	3.1465
	2	136	1.0337	1.6415
	3	83	.4327	1.0524
	4	105	.1490	.3983
	5	97	.6864	.9827
	6	71	1.0287	1.1101
	Total	645	.7642	1.8617
조사오류율	1	153	7.3784	6.3568
	2	136	5.3099	4.7618
	3	83	4.5938	4.3631
	4	105	5.2170	4.5800
	5	97	3.0840	3.3755
	6	71	2.5029	2.0667
	Total	645	5.0496	4.9896
어미오류율	1	153	2.6746	3.3379
	2	136	4.3972	4.0167
	3	83	2.9410	2.6744
	4	105	3.8288	3.3301
	5	97	2.2216	1.7380
	6	71	2.3800	2.3536
	Total	645	3.1595	3.2286
절자오류율	1	153	5.7379	6.9597
	2	136	4.5433	5.2510
	3	83	4.1332	4.9511
	4	105	3.6767	4.1890
	5	97	4.3421	6.1971
	6	71	1.9519	1.8579
	Total	645	4.3173	5.5178

<표5> 급별 오류율

6.2.2 급에 따른 변인별 오류율 차이 분석

각 급 내에서 성별, 언어권, 모국어에 따라 유형별 오류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급별로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1) 1급

1급 학습자가 산출한 총 어절 수는 12400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81.0어절을 산출하였다. 또 이들이 산출한 총 오류 어절 수는 3295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21.5개의 오류 어절을 보였으며, 오류율은 평균 26.6%였다. 각 유형별 오류율은 <표6>과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은 조사, 어휘, 철자, 어미 오류의 순이었으며, 가장 많은 조사 오류의 경우 오류율은 7.3%로 전체 오류 중 약 28%를 차지하였으며, 어휘 오류는 7.0%로 조사와 비슷한 정도로 높았다. 조사 오류 중에서는 조사를 다른 조사로 잘못 쓴 조사 대치 오류가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조사 생략 오류로 1.5%를 차지했다.

철자 오류율은 5.7%로 전체 오류 중에서 22.5%를 차지하였고, 어미 오류율은 2.7%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9.8%를 차지하였다. 어미 오류 중에서 연결 어미, 시제 어미, 전성 어미, 종결 어미의 순으로 오류가 많았으며, 가장 많은 연결 어미 오류의 경우 대개 다른 연결 어미로 잘못 사용한 연결 어미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 내에서 성별, 언어권, 모국어에 따라 오류 유형별 오류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을 한 결과 언어권과 성별로 몇 개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모국어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급에서 오류율이나 오류 유형에 있어서 교포와 외국인간에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① 언어권별 차이

1급 내에서 언어권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에서 언어권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어절 수와 철자 오류율은 .05수준에서, 또 오류율이나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은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총 어절 수에 있어서는 중국어권 학습자가 산출한 일인당 평균 어절 수가 가장 많았으며, 영어권 학습자의 평균 어절수가 가장 적었는데, 특히 한국어와 언어 구조가 상이한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 문장을 산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보인다. 오류율에 있어서는 중국어권과 영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높았고 일본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중국어권이나 영어권 학습자들이 일본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학습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오류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1급 학습자들의 오류를 유형별로 보면, 어휘 오류에 있어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와 영어권 학

습자의 오류율이 높았는데, 어휘 오류 중에서는 특히 어휘 대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어절수	153	12400.00	81.0458	53.2675
오류어절수	153	3295.00	21.5359	23.8093
오류율	153	4067.46	26.5847	21.2360
어휘오류율	153	1082.47	7.0750	5.8710
표현오류	153	129.00	.8431	2.1798
표현오류율	153	161.17	1.0534	3.1465
조사오류	153	928.00	6.0654	7.3482
조사오류율	153	1128.90	7.3784	6.3568
어미오류	153	341.00	2.2288	3.0726
어미오류율	153	409.22	2.6746	3.3379
시제오류	153	90.00	.5882	1.3005
시제오류율	153	120.47	.7874	1.8194
존대오류	153	39.00	.2549	.9701
존대오류율	153	55.34	.3617	1.5974
종결오류	153	55.00	.3595	.9221
종결오류율	153	70.24	.4591	1.5885
연결오류	153	85.00	.5556	1.0317
연결오류율	153	88.98	.5816	1.0282
전성오류	153	72.00	.4706	1.2143
전성오류율	153	74.19	.4849	1.1331
어순오류	153	23.00	.1503	.4555
어순오류율	153	33.51	.2191	.7557
철자오류	153	675.00	4.4118	6.3511
철자오류율	153	877.90	5.7379	6.9597

<표 6> 1급 유형별 오류율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27620.193	4	6905.048	2.532	.043
	집단내	403668.486	148	2727.490		
	전체	431288.680	152			
오류율	집단간	14733.205	4	3683.301	10.130	.000
	집단내	53813.984	148	363.608		
	전체	68547.189	152			
어휘오류율	집단간	775.322	4	193.831	6.426	.000
	집단내	4463.950	148	30.162		
	전체	5239.272	152			
조사오류율	집단간	1384.562	4	346.141	10.768	.000
	집단내	4757.564	148	32.146		
	전체	6142.126	152			
어미오류율	집단간	140.135	4	35.034	3.338	.012
	집단내	1553.393	148	10.496		
	전체	1693.528	152			
철자오류율	집단간	542.984	4	135.746	2.946	.022
	집단내	6819.430	148	46.077		
	전체	7362.414	152			

<표 7> 1급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영어권	29	60.9655	32.1086
	일본어권	56	80.3750	48.0933
	중국어권	46	98.4783	69.6320
	러시아권	17	70.4118	35.6284
	기타권	5	80.8000	47.6728
오류율	영어권	29	32.1006	20.6678
	일본어권	56	16.4834	9.4178
	중국어권	46	38.8396	27.7749
	러시아권	17	18.2839	9.8689
	기타권	5	23.2049	13.2479
머획오류율	영어권	29	7.5153	5.3217
	일본어권	56	5.5377	4.4943
	중국어권	46	10.1348	7.0988
	러시아권	17	3.9972	4.0001
	기타권	5	4.0532	3.0158
표현오류율	영어권	29	.6691	1.5722
	일본어권	56	.5673	1.1459
	중국어권	46	2.2201	5.2804
	러시아권	17	.3120	.8623
	기타권	5	.5128	1.1467
조사오류율	영어권	29	9.6274	6.9508
	일본어권	56	3.8458	3.2494
	중국어권	46	10.7168	7.3439
	러시아권	17	6.1330	4.8878
	기타권	5	7.4209	1.9239
머미오류율	영어권	29	3.3180	2.8950
	일본어권	56	1.9042	2.5203
	중국어권	46	3.7674	4.2957
	러시아권	17	1.1417	2.4505
	기타권	5	2.7314	3.2748
시제오류율	영어권	29	1.5817	2.2811
	일본어권	56	.8405	2.2150
	중국어권	46	.5028	1.0045
	러시아권	17	.0000	.0000
	기타권	5	.8802	1.5356
존대오류율	영어권	29	7.416E-02	.3993
	일본어권	56	.0000	.0000
	중국어권	46	.9660	2.5820
	러시아권	17	6.258E-02	.2580
	기타권	5	1.5385	3.4401
종결오류율	영어권	29	.2667	.6873
	일본어권	56	.1529	.4400
	중국어권	46	1.0999	2.7028
	러시아권	17	.1553	.4526
	기타권	5	.1418	.3172
연결오류율	영어권	29	.8791	1.2212
	일본어권	56	.6029	.9071
	중국어권	46	.3975	.6974
	러시아권	17	.6728	1.6920
	기타권	5	.0000	.0000
전성오류율	영어권	29	.5163	1.2840
	일본어권	56	.3078	.7954
	중국어권	46	.8011	1.4522
	러시아권	17	.2511	.8259
	기타권	5	.1709	.3822
머순오류율	영어권	29	.2411	.7166
	일본어권	56	.2717	.9286
	중국어권	46	7.762E-02	.3687
	러시아권	17	.4549	1.0187
	기타권	5	.0000	.0000
절자오류율	영어권	29	8.5086	10.6149
	일본어권	56	3.5740	3.6011
	중국어권	46	6.5852	6.9162
	러시아권	17	5.2448	4.3545
	기타권	5	7.7862	11.1283

<표8> 1급의 언어권별 오류율

조사 오류에서도 역시 중국어권 학습자와 영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높았는데, 이는 중국어나 영어에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미 오류의 경우에도 중국어권과 영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높았으나 다만 철자 오류의 경우 영어권의 오류율이 가장 높아 영어권 학생들에 대한 맞춤법 교육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1급 학습자들의 경우 중국어권과 영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언어권의 오류에 대한 위한 교사들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성별 차이

1급 내에서 오류율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에 있어서 성별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의 오류율은 <표 9>와 같다. 표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전체 오류율이나 유형별 오류율이 조금씩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여자	84	84.8571	50.6764
	남자	69	76.4058	56.2859
	Total	153	81.0458	53.2675
오류율	여자	84	24.6892	20.2094
	남자	69	28.8923	22.3538
	Total	153	26.5847	21.2360
어휘오류율	여자	84	6.3762	5.2706
	남자	69	7.9256	6.4655
	Total	153	7.0750	5.8710
표현오류율	여자	84	1.0166	2.6497
	남자	69	1.0982	3.6819
	Total	153	1.0534	3.1465
조사오류율	여자	84	6.8279	5.6592
	남자	69	8.0486	7.0996
	Total	153	7.3784	6.3568
어미오류율	여자	84	2.5877	2.7772
	남자	69	2.7805	3.9332
	Total	153	2.6746	3.3379
어순오류율	여자	84	.1965	.7552
	남자	69	.2465	.7609
	Total	153	.2191	.7557
철자오류율	여자	84	5.2278	5.3626
	남자	69	6.3590	8.5121
	Total	153	5.7379	6.9597

<표9> 1급의 성별 오류율

③ 모국어별 차이

1급 내에서 오류율에 있어서 모국어별 차이가 있는지, 즉 교포와 외국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에 있어서 모국어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어별 오류율은 <표10>과 같다. 표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교포 학습자보다 전체 오류율이나 유형별 오류율이 조금씩 높은 것으로 보여 교포 학습자의 경우

전혀 새롭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다소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교포	25	78.6000	55.4655
	외국인	128	81.5234	53.0396
오류율	교포	25	20.5144	13.4930
	외국인	128	27.7703	22.2860
어휘오류율	교포	25	5.7785	4.4577
	외국인	128	7.3282	6.0913
표현오류율	교포	25	.8622	1.7921
	외국인	128	1.0907	3.3516
조사오류율	교포	25	5.6249	6.1819
	외국인	128	7.7209	6.3575
어미오류율	교포	25	2.6111	2.9370
	외국인	128	2.6871	3.4211
어순오류율	교포	25	.1648	.4973
	외국인	128	.2296	.7975
철자오류율	교포	25	4.9922	5.4213
	외국인	128	5.8836	7.2310

<표10> 1급의 모국어별 오류율

2) 2급

2급 학습자가 산출한 총 어절 수는 19812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145.6어절을 산출하였다. 또 이들이 산출한 총 오류 어절 수는 4160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30.5개의 오류 어절을 보였으며, 오류율은 평균 22.2%였다. 각 유형별 오류율은 <표11>과 같다.

	N	Sum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136	19812.00	145.6765	94.9717
오류어절	136	4160.00	30.5882	27.8127
오류율	136	3024.35	22.2379	14.8814
어휘오류	136	1164.00	8.5588	9.7310
어휘율	136	771.62	5.6737	4.9786
표현오류	136	192.00	1.4118	2.3773
표현율	136	140.58	1.0337	1.6415
조사오류	136	962.00	7.0735	6.8903
조사율	136	722.15	5.3099	4.7618
어미오류	136	829.00	6.0956	6.4531
어미율	136	598.02	4.3972	4.0167
시제오류	136	182.00	1.3382	2.1090
시제율	136	151.64	1.1150	1.9073
존대오류	136	24.00	.1765	.4851
존대율	136	18.48	.1359	.4876
종결오류	136	180.00	1.3235	2.2571
종결율	136	118.60	.8721	1.4278
연결오류	136	292.00	2.1471	2.5049
연결율	136	206.47	1.5182	1.6708
전성오류	136	151.00	1.1103	1.8203
전성율	136	102.82	.7560	1.1766
어순오류	136	49.00	.3603	1.1332
어순율	136	30.93	.2274	.6475
철자오류	136	789.00	5.8015	6.8560
철자율	136	617.89	4.5433	5.2510

<표 11> 2급 유형별 오류율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은 어휘, 조사, 철자, 어미 오류의 순이었으며, 가장 많은 어휘 오류의 경우 오류율은 5.7%로 전체 오류 중 약 25%를 차지하였다. 조사 오류율은 5.3%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조사 오류 중에서는 조사를 다른 조사로 잘못 쓴 조사 대치 오류가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조사 생략 오류로 1.1%를 차지했다.

철자 오류율은 4.5%로 전체 오류 중에서 19.4%를 차지하였고, 어미 오류율은 4.4%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19% 정도를 차지하였다. 어미 오류 중에서는 연결 어미, 시제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의 순으로 오류가 많았으며, 가장 많은 연결 어미 오류의 경우 대개 다른 연결 어미로 잘못 사용한 연결 어미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급 내에서 성별, 언어권, 모국어에 따라 오류 유형별 오류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을 한 결과 각 변인별로 몇 개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① 언어권별 차이

2급의 언어권별 오류율은 <표12>와 같다.

2급 내에서 언어권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 오류율과 철자 오류율에서 각각 .001, .05 수준에서 언어권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유형별 오류율에 있어서는 언어권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 학습자들의 오류를 유형별로 보면,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오류에 있어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와 영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조사 오류 중에서는 특히 어휘 대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급과 동일한 것으로 2급에서도 중국어권 학습자나 영어권 학습자는 조사 사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철자 오류에서는 1급과 마찬가지로 영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2급의 경우 1급에 비해 언어권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영어권	35	135.8286	79.2648
	일본어권	49	169.6735	104.3640
	중국어권	22	151.9091	98.5813
	러시아권	21	98.7619	72.6752
	기타권	9	147.5556	107.6953
오류율	영어권	35	27.9879	16.7660
	일본어권	49	20.6616	15.3663
	중국어권	22	22.3883	12.6913
	러시아권	21	17.8719	11.2734
	기타권	9	18.2785	12.5511
어휘오류율	영어권	35	6.7672	5.7953
	일본어권	49	6.5541	5.2754
	중국어권	22	4.3603	2.7033
	러시아권	21	4.2016	4.6967
	기타권	9	3.2728	2.7065
표현오류율	영어권	35	1.6345	2.3152
	일본어권	49	.9304	1.5587
	중국어권	22	.9511	1.0377
	러시아권	21	.5902	.9344
	기타권	9	.4963	.7726
조사오류율	영어권	35	7.1137	5.8717
	일본어권	49	3.8764	3.4796
	중국어권	22	7.1159	5.2198
	러시아권	21	3.0507	2.3450
	기타권	9	6.9561	5.0945
어미오류율	영어권	35	4.0782	2.8987
	일본어권	49	4.5146	4.3704
	중국어권	22	5.4777	4.3539
	러시아권	21	4.4398	4.5884
	기타권	9	2.2578	3.2655
시제오류율	영어권	35	.9674	1.4427
	일본어권	49	1.0915	1.9618
	중국어권	22	1.2531	1.3815
	러시아권	21	1.5398	3.0180
	기타권	9	.4880	.7754
존대오류율	영어권	35	6.650E-02	.2239
	일본어권	49	.2093	.6245
	중국어권	22	.2681	.7005
	러시아권	21	.0000	.0000
	기타권	9	.0000	.0000
종결오류율	영어권	35	.9454	1.4670
	일본어권	49	.7132	1.0639
	중국어권	22	1.7221	2.1024
	러시아권	21	.3708	.9518
	기타권	9	.5440	1.2841
연결오류율	영어권	35	1.5173	1.4408
	일본어권	49	1.5206	2.0110
	중국어권	22	1.1139	.9002
	러시아권	21	2.1937	1.7852
	기타권	9	.9203	1.3702
전성오류율	영어권	35	.5816	.8905
	일본어권	49	.9799	1.4253
	중국어권	22	1.1205	1.3521
	러시아권	21	.3355	.7105
	기타권	9	.3055	.4947
어순오류율	영어권	35	.3583	.8912
	일본어권	49	.2612	.5672
	중국어권	22	.1633	.6457
	러시아권	21	9.524E-02	.4364
	기타권	9	.0000	.0000
철자오류율	영어권	35	6.9214	7.8369
	일본어권	49	3.7043	3.6015
	중국어권	22	3.2902	2.9520
	러시아권	21	4.2786	4.6414
	기타권	9	3.5442	3.8779

<표 12> 2급 언어권별 오류율

		SS	df	MS	F	Sig.
소사오류율	집단간	417.901	4	104.475	5.178	.001
	집단내	2643.157	131	20.177		
	전체	3061.059	135			
절자오류율	집단간	277.433	4	69.358	2.637	.037
	집단내	3444.960	131	26.297		
	전체	3722.393	135			

<표 13> 2급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② 성별 차이

성별간의 오류율은 <표14>와 같다.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여자	91	154.6703	94.6290
	남자	45	127.4889	94.0847
오류율	여자	91	20.0151	13.6620
	남자	45	26.7329	16.3340
어휘오류율	여자	91	5.1523	4.7800
	남자	45	6.7279	5.2549
표현오류율	여자	91	.8663	1.3836
	남자	45	1.3721	2.0436
조사오류율	여자	91	4.9359	4.3201
	남자	45	6.0662	5.5246
어미오류율	여자	91	3.9126	3.3410
	남자	45	5.3770	5.0203
시제오류율	여자	91	.8782	1.3430
	남자	45	1.5939	2.6685
존대오류율	여자	91	.1045	.3757
	남자	45	.1994	.6593
종결오류율	여자	91	.7163	1.1240
	남자	45	1.1870	1.8758
연결오류율	여자	91	1.5137	1.6562
	남자	45	1.5273	1.7188
전성오류율	여자	91	.7000	1.1237
	남자	45	.8693	1.2826
어순오류율	여자	91	.1596	.5071
	남자	45	.3646	.8553
절자오류율	여자	91	4.0182	5.0894
	남자	45	5.6053	5.4676

<표 14> 2급 성별 오류율

2급 내에서 오류율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율과 어미 오류율에 있어서 .05 수준에서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 차이 분석 결과는 <표15>에 제시하였다. 오류율이나 어미 오류율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오류율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다.

		SS	df	MS	F	Sig.
오류율	집단간	1358.866	1	1358.866	6.381	.013
	집단내	28537.700	134	212.968		
	전체	29896.567	135			
어미오류율	집단간	64.565	1	64.565	4.093	.045
	집단내	2113.551	134	15.773		
	전체	2178.116	135			

<표 15> 2급 성별 오류율 차이 분석

③ 모국어별 차이

2급 내에서 오류율에 있어서 모국어별 차이가 있는지, 즉 교포와 외국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철자 오류율을 제외하고는 오류에 있어서 모국어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철자 오류율에 있어서는 .05 수준에서 교포와 외국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급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1급과 달라진 이유는 1급의 경우 교포 학습자들은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말에 익숙해져 있고, 한글을 많이 보고 접하여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용이하게 배우는 경우가 많다. 즉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교포 학습자가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포 학습자의 경우, 이미 가정에서 어느 정도 한국말을 알고 있는 학습자가 많아 2급이나 3급 등 중간 단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습자들의 경우 듣거나 말하기에는 능하나 읽거나 쓰기에 약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글과 한국말을 배운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특히 맞춤법에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모국어별 오류율과 차이 분석 결과는 < 표 16> <표 17>과 같다.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교포	19	142.4737	85.0479
	외국인	117	146.1966	96.8124
오류율	교포	19	25.2453	18.0906
	외국인	117	21.7495	14.3256
어휘오류율	교포	19	6.1715	4.6346
	외국인	117	5.5928	5.0464
표현오류율	교포	19	1.5996	1.4205
	외국인	117	.9418	1.6618
조사오류율	교포	19	5.3197	5.3533
	외국인	117	5.3083	4.6842
어미오류율	교포	19	4.2835	2.7676
	외국인	117	4.4156	4.1935
시제오류율	교포	19	1.3481	1.7476
	외국인	117	1.0772	1.9363
존대오류율	교포	19	.1087	.2784
	외국인	117	.1403	.5143
종결오류율	교포	19	.4090	.7364
	외국인	117	.9473	1.4991
연결오류율	교포	19	1.7905	1.7145
	외국인	117	1.4740	1.6669
전성오류율	교포	19	.6272	.8229
	외국인	117	.7769	1.2259
어순오류율	교포	19	.3148	.9110
	외국인	117	.2132	.5980
철자오류율	교포	19	7.0155	9.8592
	외국인	117	4.1419	3.9803

<표 16> 2급 모국어별 오류율

		SS	df	MS	F	Sig.
철자오류율	집단간	134.971	1	134.971	5.042	.026
	집단내	3587.422	134	26.772		
	전체	3722.393	135			

<표 17> 2급 모국어별 오류율 차이 분석

3) 3급

3급 학습자가 산출한 총 어절 수는 12608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151.9어절을 산출하였다. 또 이들이 산출한 총 오류 어절 수는 2545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30.6개의 오류 어절을 보였으며, 오류율은 평균 19.4%였다.

		SS	df	MS	F	Sig.
조사오류율	집단간	241.547	4	60.387	3.570	.010
	집단내	1319.474	78	16.916		
	전체	1561.021	82			

<표 18> 3급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각 유형별 오류율은 <표19>와 같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주	83	151.9036	85.0555
오류어절	83	30.6627	29.5331
오류올	83	19.3507	13.1561
어휘오류	83	7.6988	6.7854
어휘올	83	4.8672	3.5335
표현오류	83	.6988	1.6874
표현올	83	.4327	1.0524
조사오류	83	7.5783	9.9206
조사올	83	4.5938	4.3631
어미오류	83	4.2048	4.1016
어미올	83	2.9410	2.6744
시제오류	83	1.0602	2.0562
시제올	83	.6730	1.2724
존대오류	83	6.024E-02	.3612
존대올	83	1.860E-02	.1055
종결오류	83	.8675	1.3323
종결올	83	.6357	1.0006
연결오류	83	1.3012	1.6135
연결올	83	.9566	1.2520
전성오류	83	.9157	1.3811
전성올	83	.6571	1.0579
어순오류	83	.2892	.8044
어순올	83	.2045	.7874
철자오류	83	6.4096	8.2949
철자올	83	4.1332	4.9511

<표 19> 3급 유형별 오류율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은 어휘, 조사, 철자, 어미 오류의 순으로 2급과 동일하였으며, 가장 많은 어휘 오류의 경우 오류율은 4.8%로 전체 오류 중 약 27%를 차지하였으며, 조사 오류율은 4.6%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 오류 중에서는 조사를 다른 조사로 잘못 쓴 조사 대치 오류가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조사 생략 오류로 2.3%를 차지했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영어권	23	161.4783	74.3651
	일본어권	28	151.7857	89.0515
	중국어권	12	137.7500	59.3206
	러시아권	17	152.4706	109.7726
	기타권	3	133.0000	100.8613
오류율	영어권	23	22.1576	13.1896
	일본어권	28	15.1527	11.8468
	중국어권	12	26.5347	15.0721
	러시아권	17	16.7464	10.9575
	기타권	3	23.0333	18.7918
어휘오류율	영어권	23	4.8850	2.9913
	일본어권	28	4.7241	3.6792
	중국어권	12	6.3425	4.6480
	러시아권	17	4.5065	3.2787
	기타권	3	2.2101	.9360
표현오류율	영어권	23	.4959	.7434
	일본어권	28	.4930	1.3770
	중국어권	12	.5330	1.3455
	러시아권	17	.2537	.6186
	기타권	3	.0000	.0000
조사오류율	영어권	23	6.2728	5.0527
	일본어권	28	2.6668	2.8566
	중국어권	12	6.7895	5.6314
	러시아권	17	3.7643	3.2601
	기타권	3	5.6251	3.0498
어미오류율	영어권	23	2.6457	2.3196
	일본어권	28	2.6405	2.6367
	중국어권	12	5.1414	3.0900
	러시아권	17	2.4595	2.5254
	기타권	3	1.9376	1.3693
시제오류율	영어권	23	.4914	.6417
	일본어권	28	.1859	.3881
	중국어권	12	2.3921	2.3873
	러시아권	17	.4481	.6497
	기타권	3	1.0101	1.7495
존대오류율	영어권	23	.0000	.0000
	일본어권	28	1.000E-02	5.294E-02
	중국어권	12	.0000	.0000
	러시아권	17	7.431E-02	.2191
	기타권	3	.0000	.0000
종결오류율	영어권	23	.4517	.7355
	일본어권	28	.5846	1.1023
	중국어권	12	.7359	.8405
	러시아권	17	.9403	1.2734
	기타권	3	.3968	.6873
연결오류율	영어권	23	1.2370	1.2522
	일본어권	28	1.1697	1.3194
	중국어권	12	.4237	.6200
	러시아권	17	.7011	1.4432
	기타권	3	.3968	.6873
전성오류율	영어권	23	.4655	.6933
	일본어권	28	.6903	1.2344
	중국어권	12	1.5896	1.3853
	러시아권	17	.2957	.5293
	기타권	3	.1339	.2319
어순오류율	영어권	23	8.691E-02	.2061
	일본어권	28	.3035	1.2289
	중국어권	12	.2825	.7568
	러시아권	17	.1816	.3568
	기타권	3	.0000	.0000
철자오류율	영어권	23	5.9938	7.1253
	일본어권	28	2.7934	3.6399
	중국어권	12	4.5080	4.2520
	러시아권	17	3.6713	3.3587
	기타권	3	3.4928	3.1344

<표 20> 3급 언어권별 오류율

철자 오류율은 4.1%로 전체 오류 중에서 21%를 차지하였고, 어미 오류율은 2.9%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15% 정도를 차지하였다. 어미 오류 중에서 연결 어미, 시제 어미, 전성 어미, 종결 어미의 순으로 오류가 많았으며, 가장 많은 연결 어미 오류의 경우 대개 다른 연결 어미로 잘못 사용한 연결 어미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급 내에서 성별, 언어권, 모국어에 따라 오류 유형별 오류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을 한 결과 성별과 모국어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언어권별 차이에서 특히 조사 오류율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급의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① 언어권별 차이

3급의 언어권별 오류율은 <표 20>과 같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오류에 있어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와 영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높았는데, 조사 오류 중에서는 특히 조사 대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급, 2급과 동일한 것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나 영어권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어려움은 급이 올라가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3급의 경우 변인별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성별 차이

3급 내에서 오류율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에 있어서 성별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모국어별 차이

3급 내에서 오류율에 있어서 모국어별 차이가 있는지, 즉 교포와 외국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에 있어서 모국어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4급

4급 학습자가 산출한 총 어절 수는 17983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171.3어절을 산출하였다. 또 이들이 산출한 총 오류 어절 수는 3086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29.3개의 오류 어절을 보였으며, 오류율은 평균 20.0%였다. 각 유형별 오류율은 <표21>과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은 어휘, 조사, 어미, 철자 오류의 순이었으며, 가장 많은 어휘 오류의 경우 오류율은 6.3%로 전체 오류 중 약 31%를 차지하였고, 조사 오류율은 5.2%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 오류 중에서는 조사를 다른 조사로 잘못 쓴 조사 대치 오류가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조사 생략 오류로 2.2%를 차지했다.

	N	Sum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주	105	17983.00	171.2667	102.4558
오류어절	105	3086.00	29.3905	19.9666
오류율	105	2108.90	20.0848	13.8911
어휘오류	105	1019.00	9.7048	7.9638
어휘율	105	662.13	6.3060	4.7530
표현오류	105	37.00	.3524	.9902
표현율	105	15.64	.1490	.3983
조사오류	105	734.00	6.9905	4.9039
조사율	105	547.78	5.2170	4.5800
어미오류	105	550.00	5.2381	3.7661
어미율	105	402.03	3.8288	3.3301
시제오류	105	83.00	.7905	1.1905
시제율	105	58.77	.5598	1.0045
존대오류	105	7.00	6.667E-02	.2864
존대율	105	7.03	6.695E-02	.3930
종결오류	105	102.00	.9714	1.1305
종결율	105	86.25	.8215	1.3619
연결오류	105	235.00	2.2381	2.1237
연결율	105	160.09	1.5247	1.4563
전성오류	105	123.00	1.1714	1.3116
전성율	105	89.88	.8560	1.2659
어순오류	105	26.00	.2476	.6168
어순율	105	12.89	.1227	.2894
철자오류	105	604.00	5.7524	6.2169
철자율	105	386.05	3.6767	4.1890

<표 21> 4급 유형별 오류율

어미 오류율은 3.8%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18% 정도를 차지하였다. 어미 오류 중에서 연결 어미, 전성 어미, 종결 어미, 시제 어미의 순으로 오류가 많았으며, 가장 많은 연결 어미 오류의 경우 대개 다른 연결 어미로 잘못 사용한 연결 어미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자 오류율은 3.7%로 전체 오류 중에서 18%를 차지하였다.

4급 내에서 성별, 언어권, 모국어에 따라 오류 유형별 오류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국어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언어권별, 성별간에는 몇 개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4급의 언어권별 오류율은 <표 22>과 같다.

① 언어권별 차이

4급 내에서 언어권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율과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과 어미 오류율이 <표 23>에서와 같이 모두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급 학습자들의 언어권별 오류를 유형별로 보면,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오류에 있어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눈에 띄게 높았으며, 일본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 오류나 조사 오류, 어미 오류 등에서도 똑같이 중국어 학습자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눈에 띄게 높았으며, 또한 일본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영어권	24	168.7917	94.5893
	일본어권	49	177.9592	100.7236
	중국어권	16	148.5000	95.5231
	러시아권	11	180.1818	122.6098
	기타권	5	170.8000	158.3041
오류율	영어권	24	21.2820	10.9255
	일본어권	49	13.9287	9.3310
	중국어권	16	35.6429	20.4499
	러시아권	11	21.1966	7.1825
	기타권	5	22.4362	11.7154
어휘오류율	영어권	24	6.7596	4.2322
	일본어권	49	4.5675	3.2280
	중국어권	16	10.5582	7.0683
	러시아권	11	6.3438	3.4159
	기타권	5	7.4754	5.5251
표현오류율	영어권	24	.1954	.3874
	일본어권	49	5.918E-02	.1858
	중국어권	16	.1890	.3662
	러시아권	11	.4359	.8890
	기타권	5	4.684E-02	.1047
조사오류율	영어권	24	5.7546	3.4839
	일본어권	49	3.3101	3.2024
	중국어권	16	10.6711	6.5291
	러시아권	11	4.9050	2.7719
	기타권	5	4.5570	2.7166
어미오류율	영어권	24	4.1129	3.2278
	일본어권	49	2.5322	2.2616
	중국어권	16	6.6808	4.9552
	러시아권	11	4.5549	2.4541
	기타권	5	4.4485	2.0903
시제오류율	영어권	24	.4284	.8695
	일본어권	49	.2653	.5272
	중국어권	16	1.3282	1.5231
	러시아권	11	.9514	1.2855
	기타권	5	.7552	1.3121
준대오류율	영어권	24	.1044	.3103
	일본어권	49	.0000	.0000
	중국어권	16	.2548	.9244
	러시아권	11	4.058E-02	.1346
	기타권	5	.0000	.0000
종결오류율	영어권	24	1.1533	1.6975
	일본어권	49	.6176	1.2598
	중국어권	16	.7734	1.4630
	러시아권	11	.6924	.7605
	기타권	5	1.6642	1.0129
연결오류율	영어권	24	1.6472	1.5597
	일본어권	49	1.0234	1.0917
	중국어권	16	2.8069	1.4882
	러시아권	11	1.4173	1.3318
	기타권	5	1.9823	2.0173
전성오류율	영어권	24	.7796	.9938
	일본어권	49	.6259	.8407
	중국어권	16	1.5175	1.9101
	러시아권	11	1.4532	1.9578
	기타권	5	4.684E-02	.1047
어순오류율	영어권	24	6.385E-02	.2617
	일본어권	49	.1009	.2436
	중국어권	16	.1879	.3650
	러시아권	11	.2669	.4130
	기타권	5	9.368E-02	.2095
절자오류율	영어권	24	3.8313	3.5051
	일본어권	49	2.8630	3.0398
	중국어권	16	5.6412	7.1317
	러시아권	11	3.6343	3.5084
	기타권	5	4.7159	5.3082

<표 22> 4급 언어권별 오류율

		SS	df	MS	F	Sig.
오류율	집단간	5805.516	4	1451.379	10.176	.000
	집단내	14262.548	100	142.625		
	전체	20068.063	104			
어휘율	집단간	449.192	4	112.298	5.909	.000
	집단내	1900.308	100	19.003		
	전체	2349.500	104			
조사오류율	집단간	664.311	4	166.078	10.946	.000
	집단내	1517.218	100	15.172		
	전체	2181.529	104			
어미오류율	집단간	222.173	4	55.543	5.965	.000
	집단내	931.164	100	9.312		
	전체	1153.336	104			
시제오류율	집단간	15.987	4	3.997	4.494	.002
	집단내	88.941	100	.889		
	전체	104.928	104			
연결오류율	집단간	40.154	4	10.039	5.565	.000
	집단내	180.398	100	1.804		
	전체	220.552	104			
전성오류율	집단간	16.933	4	4.233	2.827	.029
	집단내	149.739	100	1.497		
	전체	166.672	104			

<표 23> 4급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② 성별 차이

4급 내에서 언어권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율과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의 경우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SS	df	MS	F	Sig.
오류율	집단간	857.731	1	857.731	4.599	.034
	집단내	19210.333	103	186.508		
	전체	20068.063	104			
어휘오류율	집단간	88.634	1	88.634	4.038	.047
	집단내	2260.866	103	21.950		
	전체	2349.500	104			
조사오류율	집단간	109.075	1	109.075	5.421	.022
	집단내	2072.454	103	20.121		
	전체	2181.529	104			

<표24> 4급 성별 오류율 차이 분석

4급 학습자들의 남녀별 오류를 유형별로 보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류율이 낮으며, 총 어절 수에 있어서는 여자가 더 많은 문장을 생산하지만 전체적인 오류율이나 어휘 오류, 조사 오류 등에 있어서 오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모국어별 차이

4급 내에서 오류율에 있어서 모국어별 차이가 있는지, 즉 교포와 외국인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에 있어서 모국어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여자	63	174.2857	96.7807
	남자	42	166.7381	111.4812
오류율	여자	63	17.7511	12.6483
	남자	42	23.5853	15.0541
어휘오류율	여자	63	5.5558	4.4961
	남자	42	7.4312	4.9572
표현오류율	여자	63	.1460	.3907
	남자	42	.1535	.4142
조사오류율	여자	63	4.3848	3.9097
	남자	42	6.4653	5.2377
어미오류율	여자	63	3.5558	3.3103
	남자	42	4.2383	3.3575
시제오류율	여자	63	.4829	.9275
	남자	42	.6750	1.1116
존대오류율	여자	63	2.482E-02	.1168
	남자	42	.1301	.6036
종결오류율	여자	63	.8195	1.1511
	남자	42	.8244	1.6436
연결오류율	여자	63	1.3375	1.4197
	남자	42	1.8054	1.4822
전성오류율	여자	63	.8910	1.2233
	남자	42	.8035	1.3407
어순오류율	여자	63	.1047	.2633
	남자	42	.1497	.3261
철자오류율	여자	63	3.2723	4.0546
	남자	42	4.2833	4.3616

<표25> 4급 성별 오류율

5) 5급

5급 학습자가 산출한 총 어절 수는 20315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209.4어절을 산출하였다. 또 이들이 산출한 총 오류 어절 수는 2691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27.7개의 오류 어절을 보였으며, 오류율은 평균 15.2%였다. 각 유형별 오류율은 <표26>와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은 철자, 어휘, 조사, 어미 오류의 순이었으며, 가장 많은 철자 오류의 경우 오류율은 4.3%로 전체 오류 중 약 25%를 차지하였으며, 어휘 오류율은 3.7%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 오류 중에서는 조사를 다른 조사로 잘못 쓴 조사 대치 오류가 4.9%로 가장 많았다.

어미 오류율은 2.2%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17.5% 정도를 차지하였다. 어미 오류 중에서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시제 어미, 전성 어미의 순으로 오류가 많았으며, 가장 많은 연결 어미 오류의 경우 대개 다른 연결 어미로 잘못 사용한 연결 어미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급 내에서 성별, 언어권, 모국어에 따라 오류 유형별 오류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을 한 결과 성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언어권별, 모국어간에는 몇 개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오류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N	Sum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97	20315.00	209.4330	97.5096
오류어절	97	2691.00	27.7423	19.8480
오류율	97	1479.40	15.2516	11.7945
어휘오류	97	682.00	7.0309	5.1447
어휘오류율	97	359.97	3.7110	3.0149
표현오류	97	132.00	1.3608	1.8940
표현오류율	97	66.58	.6864	.9827
조사오류	97	542.00	5.5876	5.3750
조사오류율	97	299.15	3.0840	3.3755
어미오류	97	439.00	4.5258	4.0314
어미오류율	97	215.50	2.2216	1.7380
시제오류	97	48.00	.4948	.9588
시제오류율	97	20.32	.2095	.3870
존대오류	97	15.00	.1546	.5070
존대오류율	97	8.08	8.333E-02	.2830
종결오류	97	79.00	.8144	1.2693
종결오류율	97	36.99	.3814	.5930
연결오류	97	152.00	1.5670	1.8925
연결오류율	97	76.37	.7874	.9478
전성오류	97	145.00	1.4948	1.8321
전성오류율	97	73.72	.7600	1.0122
어순오류	97	7.00	7.216E-02	.2975
어순오류율	97	4.27	4.405E-02	.1917
철자오류	97	763.00	7.8660	10.5471
철자오류율	97	421.18	4.3421	6.1971

<표26> 5급 유형별 오류율

① 언어권별 차이

5급 내에서 언어권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어절과 오류율과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 표현 오류율과 철자 오류율에 있어서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권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33097.801	4	33274.450	3.926	.005
	집단내	79682.013	92	8474.804		
	전체	112779.814	96			
오류율	집단간	3621.279	4	905.320	8.557	.000
	집단내	9733.219	92	105.796		
	전체	13354.498	96			
어휘오류율	집단간	94.038	4	23.509	2.778	.031
	집단내	778.593	92	8.463		
	전체	872.631	96			
표현오류율	집단간	12.605	4	3.151	3.619	.009
	집단내	80.101	92	.871		
	전체	92.706	96			
조사오류율	집단간	211.975	4	52.994	5.529	.000
	집단내	881.853	92	9.585		
	전체	1093.828	96			
철자오류율	집단간	933.365	4	233.341	7.797	.000
	집단내	2753.365	92	29.928		
	전체	3686.730	96			

<표 27> 5급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5급 학습자들의 언어권별 오류를 유형별로 보면 <표28>과 같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권수	영어권	18	177,0000	89,5774
	일본어권	54	230,5185	95,5999
	중국어권	11	197,2727	93,6259
	러시아권	10	132,8000	67,4797
	기타권	4	295,7500	100,4104
오류율	영어권	18	24,6470	15,7285
	일본어권	54	10,4936	6,2476
	중국어권	11	15,9754	10,7086
	러시아권	10	24,1114	14,1620
	기타권	4	13,0645	13,0021
어휘율	영어권	18	3,8430	3,6814
	일본어권	54	3,0672	1,8683
	중국어권	11	4,6297	3,8465
	러시아권	10	6,1743	4,7032
	기타권	4	3,1230	2,3210
표현율	영어권	18	,6342	,9741
	일본어권	54	,5769	,5817
	중국어권	11	,5252	1,0047
	러시아권	10	1,7271	1,9789
	기타권	4	,2415	,4831
조사율	영어권	18	3,6711	3,4964
	일본어권	54	1,8628	1,3761
	중국어권	11	5,5714	5,9368
	러시아권	10	5,2641	3,6657
	기타권	4	4,6377	5,7815
어미율	영어권	18	2,4833	2,0202
	일본어권	54	2,0227	1,4423
	중국어권	11	2,2997	1,7398
	러시아권	10	2,7295	2,4961
	기타권	4	2,2456	2,4497
시제율	영어권	18	,2420	,4376
	일본어권	54	,1847	,3594
	중국어권	11	,3162	,5626
	러시아권	10	,1326	,2797
	기타권	4	,2983	,2135
존대율	영어권	18	7,356E-02	,2506
	일본어권	54	7,637E-02	,2483
	중국어권	11	,0000	,0000
	러시아권	10	,1047	,3311
	기타권	4	,3968	,7937
중립율	영어권	18	,5906	,8909
	일본어권	54	,2923	,4731
	중국어권	11	,5501	,6455
	러시아권	10	,3055	,4594
	기타권	4	,3683	,4998
연결율	영어권	18	,7216	,8210
	일본어권	54	,7240	,8794
	중국어권	11	,7919	1,2144
	러시아권	10	1,4264	1,2170
	기타권	4	,3282	,4046
전성율	영어권	18	,8556	1,2695
	일본어권	54	,7453	,8869
	중국어권	11	,6415	,6361
	러시아권	10	,7603	1,3998
	기타권	4	,8540	1,5512
어순율	영어권	18	,1564	,3786
	일본어권	54	2,698E-02	,1228
	중국어권	11	,0000	,0000
	러시아권	10	,0000	,0000
	기타권	4	,0000	,0000
원자율	영어권	18	10,8055	10,6218
	일본어권	54	2,8553	3,4050
	중국어권	11	2,2861	1,9378
	러시아권	10	3,6569	4,1172
	기타권	4	2,6959	3,2035

<표28> 5급 언어권별 오류율

총 어절 수에 있어서는 일본어권 학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어권, 영어권, 러시아권의 순이었다. 기타권은 인원이 너무 적어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다. 오류율은 영어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권, 중국어권이 그 뒤를 이었고, 일본어권 학습자가 다른 급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류율이 낮았다. 다른 급과 눈에 띄는 차이점은 4급까지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5급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낮게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과연 분석 결과대로 5급에 올라오면서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 체계가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5급의 중국어권 학습자가 모두 11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습자 개개인의 특징에 의존하는 부분이 클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켜도 좋을 지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어휘 오류에 있어서는 러시아권, 중국어권, 영어권, 일본어권의 순서로 오류율이 높았으며, 표현 오류에 있어서는 중국어권, 러시아권, 영어권, 일본어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오류에 있어서는 중국어권, 러시아권, 영어권, 일본어권의 순이었는데, 조사 오류에 이어서는 역시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높아 중국어권 학습자가 조사 사용에 계속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철자 오류에 있어서는 영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 중국어권의 순으로 나타나 영어권 학습자들이 특히 철자에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어권 학습자는 다른 급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권 중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② 성별 차이

5급 내에서 오류율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에 있어서 성별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모국어별 차이

5급 내에서 모국어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율과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의 경우 <표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포와 외국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5급 학습자들의 모국어별 오류를 유형별로 보면, <표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교포 학습자가 오히려 외국인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어절에 있어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총 어절 수가 더 많았으며, 오류율에 있어서는 교포 학습자의 오류율이 더 높았다. 어휘 오류나 조사 오류 등에 있어서도 교포 학습자의 오류율이 더 높아 외국인 학습자보다 정확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현 오류에 있어서만은 외국인 학습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포 학습자가 한국어 노출 시간이 더 많아 자연스러운 표현에 더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철자 오류에 있어서는 교포 학습자의 오류가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어에는 능하나 읽고 쓰는 문어에는 약한 것을 보여주는 교포 학습자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교

또 학습자에 대한 철자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SS	df	MS	F	Sig.
오류율	집단간	1262,755	1	1262,755	9,921	,002
	집단내	12091,743	95	127,282		
	전체	13354,498	96			
어미오류율	집단간	14,037	1	14,037	4,832	,030
	집단내	275,960	95	2,905		
	전체	289,997	96			
철자오류율	집단간	477,435	1	477,435	14,133	,000
	집단내	3209,295	95	33,782		
	전체	3686,730	96			

<표 29> 5급 모국어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교포	38	206,8684	108,5649
	외국인	59	211,0847	90,6180
오류율	교포	38	19,7474	14,0602
	외국인	59	12,3560	9,0756
어휘오류율	교포	38	4,0174	3,2262
	외국인	59	3,5136	2,8817
표현오류율	교포	38	,5360	,7119
	외국인	59	,7833	1,1183
조사오류율	교포	38	3,7286	4,0933
	외국인	59	2,6689	2,7790
어미오류율	교포	38	2,6956	1,8610
	외국인	59	1,9163	1,5964
시제오류율	교포	38	,2595	,4714
	외국인	59	,1774	,3216
존대오류율	교포	38	7,996E-02	,2872
	외국인	59	8,550E-02	,2828
종결오류율	교포	38	,2902	,4309
	외국인	59	,4401	,6743
연결오류율	교포	38	,9840	1,0651
	외국인	59	,6607	,8494
전성오류율	교포	38	1,0820	1,2962
	외국인	59	,5527	,7157
어순오류율	교포	38	7,883E-02	,2676
	외국인	59	2,165E-02	,1176
철자오류율	교포	38	7,1065	8,8514
	외국인	59	2,5616	2,3134

<표 30> 5급 모국어별 오류율

6) 6급

6급 학습자가 산출한 총 어절 수는 20653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290.8어절을 산출하였다. 또 이들이 산출한 총 오류 어절 수는 2431어절로 한 사람 당 평균 34.2개의 오류 어절을 보였으며, 오류율은 평균 11.9%였다. 각 유형별 오류율은 <표31>와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은 어휘, 조사, 어미, 철자 오류의 순이었으며, 가장 많은 어휘 오류의 경우 오류율은 3.6%로 전체 오류 중 약 29%를

차지하였으며, 조사 오류율은 2.5%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19.9%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 오류 중에서는 조사를 다른 조사로 잘못 쓴 조사 대치 오류가 4.3%로 가장 많았다.

어미 오류율은 2.3%로 전체 오류 중에서는 20.1% 정도를 차지하였다. 어미 오류 중에서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 시제 어미의 순으로 오류가 많았으며, 가장 많은 연결 어미 오류의 경우 대개 다른 연결 어미로 잘못 사용한 연결 어미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급 내에서 성별, 언어권, 모국어에 따라 오류 유형별 오류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국어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언어권별, 성별간에는 몇 개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N	Sum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71	20653.00	290.8873	186.1669
오류어절	71	2431.00	34.2394	26.1460
오류율	71	851.19	11.9886	6.4129
어휘오류	71	753.00	10.6056	9.4074
어휘율	71	256.90	3.6184	2.6832
표현오류	71	241.00	3.3944	4.3342
표현율	71	73.04	1.0287	1.1101
조사오류	71	501.00	7.0563	6.6028
조사율	71	177.70	2.5029	2.0667
어미오류	71	448.00	6.3099	7.0924
어미율	71	168.98	2.3800	2.3536
시제오류	71	49.00	.6901	1.2023
시제율	71	17.90	.2522	.5469
존대오류	71	52.00	.7324	3.2203
존대율	71	12.54	.1767	.6874
종결오류	71	108.00	1.5211	2.3656
종결율	71	36.20	.5098	.6757
연결오류	71	135.00	1.9014	2.0987
연결율	71	59.72	.8411	1.0358
전성오류	71	104.00	1.4648	1.6804
전성율	71	42.62	.6003	1.2212
어순오류	71	10.00	.1408	.3503
어순율	71	3.76	5.290E-02	.1498
철자오류	71	409.00	5.7606	6.0059
철자율	71	138.58	1.9519	1.8579

<표 31> 6급 유형별 오류율

① 언어권별 차이

6급 내에서 언어권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에 있어서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 수준에서 언어권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급 학습자들의 언어권별 오류를 유형별로 보면 <표33>과 같다.

		SS	df	MS	F	Sig.
어휘오류율	집단간	71.843	4	17.961	2.743	.036
	집단내	432.115	66	6.547		
	전체	503.957	70			
조사오류율	집단간	40.951	4	10.238	2.619	.043
	집단내	258.034	66	3.910		
	전체	298.985	70			

<표32> 6급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영어권	14	319,4286	261,2949
	일본어권	32	308,4375	176,2141
	중국어권	10	238,3000	138,3980
	러시아권	13	235,2308	146,5299
	기타권	2	435,0000	123,0366
오류율	영어권	14	13,4434	7,3664
	일본어권	32	10,2130	5,2666
	중국어권	10	14,3772	7,1406
	러시아권	13	12,9355	7,3893
	기타권	2	12,1169	,3367
어휘오류율	영어권	14	4,3109	3,3374
	일본어권	32	2,5691	1,8638
	중국어권	10	4,9707	2,7005
	러시아권	13	4,0949	3,0492
	기타권	2	5,6992	,3367
표현오류율	영어권	14	1,0312	1,0875
	일본어권	32	1,1029	1,1814
	중국어권	10	,9924	,9794
	러시아권	13	,9998	1,2012
	기타권	2	,1916	,2709
조사오류율	영어권	14	3,4041	2,6360
	일본어권	32	1,7340	1,0477
	중국어권	10	3,3803	2,8594
	러시아권	13	2,8698	2,1861
	기타권	2	1,7241	1,6255
어미오류율	영어권	14	1,8527	1,6362
	일본어권	32	2,7171	2,9093
	중국어권	10	2,5171	2,2380
	러시아권	13	1,9958	1,6111
	기타권	2	2,4904	2,1674
시제오류율	영어권	14	,1985	,3883
	일본어권	32	,1815	,2788
	중국어권	10	,3398	,4986
	러시아권	13	,4405	1,0618
	기타권	2	9,579E-02	,1355
존대오류율	영어권	14	,0000	,0000
	일본어권	32	,2736	,8993
	중국어권	10	,2463	,7789
	러시아권	13	,1021	,3682
	기타권	2	,0000	,0000
종결오류율	영어권	14	,5462	,7229
	일본어권	32	,4756	,6646
	중국어권	10	,3882	,4410
	러시아권	13	,4394	,4493
	기타권	2	1,8678	1,8287
연결오류율	영어권	14	,6686	,9321
	일본어권	32	,9854	1,3120
	중국어권	10	,7083	,6288
	러시아권	13	,8220	,6582
	기타권	2	,5268	,4741
전성오류율	영어권	14	,4394	,5025
	일본어권	32	,8010	1,6850
	중국어권	10	,8345	,8198
	러시아권	13	,1919	,4044
	기타권	2	,0000	,0000
어순오류율	영어권	14	3,483E-02	9,739E-02
	일본어권	32	4,207E-02	,1214
	중국어권	10	,1010	,2453
	러시아권	13	4,808E-02	,1733
	기타권	2	,1437	,2032
철자오류율	영어권	14	2,4176	2,1322
	일본어권	32	1,8819	2,0945
	중국어권	10	2,2618	1,1798
	러시아권	13	1,4415	1,4759
	기타권	2	1,5805	,2032

<표33> 6급 언어권별 오류율

총 어절 수에 있어서는 일본어권 학습자와 영어권 학습자가 많았으며, 중국어권과 러시아권 학습자의 어절 수가 이보다 조금 적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 오류율에 있어서는 중국어권, 영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의 순서로 다른 급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대체적으로 6급 학습자들의 경우 다른 급에 비해 언어권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급이 올라가면서 언어권을 비롯한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휘 오류의 경우 언어권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어권, 영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의 순서였는데, 앞의 세 언어권은 거의 비슷한 오류율을 보였으나 일본어권 학습자는 이들 세 언어권과 차이 나게 오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오류에 있어서는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의 순서였으며, 조사 오류 중에서는 조사 대치 오류가 특히 영어권 학습자에게서 많이 나타나 고급이 되어서도 영어권 학습자들이 조사 사용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생략은 중국어권과 영어권에서 높이 나타났는데, 조사 오류의 경우 이들 두 언어권은 초급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고급에 이르기까지 계속 오류율이 높아, 조사 개념이 없는 이들 두 언어권에서 조사 사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히 이들 두 언어권에 대한 조사 교육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② 성별 차이

6급 내에서 성별에 따른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어절 수와 오류율과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의 경우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6급 학습자들의 남녀별 오류를 유형별로 보면, <표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류율이 낮으며, 총 어절 수에 있어서는 여자가 더 많은 문장을 산출하지만 전체적인 오류율이나 어휘 오류, 조사 오류 등에 있어서 남자보다 오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모국어별 차이

6급 내에서 오류율에 있어서 모국어별 차이가 있는지, 즉 교포와 외국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에 있어서 모국어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34173.040	1	134173.040	4.039	.048
	집단내	2291894.1	69	33215.856		
	전체	2426067.1	70			
오류율	집단간	342.640	1	342.640	9.322	.003
	집단내	2536.127	69	36.755		
	전체	2878.766	70			
어휘오류율	집단간	36.696	1	36.696	5.419	.023
	집단내	467.261	69	6.772		
	전체	503.957	70			
조사오류율	집단간	45.816	1	45.816	12.487	.001
	집단내	253.169	69	3.669		
	전체	298.985	70			

<표34> 6급 성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여자	50	319.0600	176.5905
	남자	21	223.8095	195.4312
오류율	여자	50	10.5649	5.7153
	남자	21	15.3783	6.8393
어휘오류율	여자	50	3.1525	2.1944
	남자	21	4.7277	3.4008
표현오류율	여자	50	1.1361	1.1596
	남자	21	.7730	.9600
조사오류율	여자	50	1.9823	1.2848
	남자	21	3.7424	2.9350
어미오류율	여자	50	2.0534	1.7480
	남자	21	3.1578	3.3168
시제오류율	여자	50	.2017	.3475
	남자	21	.3724	.8542
존대오류율	여자	50	.2243	.7956
	남자	21	6.321E-02	.2897
종결오류율	여자	50	.4921	.7029
	남자	21	.5520	.6203
연결오류율	여자	50	.6537	.7351
	남자	21	1.2872	1.4610
전성오류율	여자	50	.4816	.5966
	남자	21	.8830	2.0564
어순오류율	여자	50	4.041E-02	.1102
	남자	21	8.265E-02	.2180
철자오류율	여자	50	1.8888	2.0167
	남자	21	2.1021	1.4432

<표35> 6급 성별 오류율

6.3 언어권에 따른 유형별 오류율 차이 분석

언어권에 따라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 수가 적은 기타권을 제외하고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을 대상으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36>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표현 오류율,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 전반적인 오류 유형에서 언어권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 어절 수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언어권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어권 학습자가 급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어절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의 순서로 나타났다.

언어권별 오류율은 <표37>과 같다.

		SS	df	MS	F	Sig.
종어절수	집단간	07754,176	4	51938,544	3,727	,005
	집단내	8918263,3	640	13934,786		
	전체	9126017,5	644			
오류율	집단간	22516,079	4	5629,020	25,654	,000
	집단내	40429,164	640	219,421		
	전체	62945,243	644			
어휘오류율	집단간	951,785	4	237,946	11,339	,000
	집단내	13430,288	640	20,985		
	전체	14382,072	644			
표현오류율	집단간	44,615	4	11,154	3,263	,012
	집단내	2187,330	640	3,418		
	전체	2231,945	644			
조사오류율	집단간	2918,869	4	729,717	35,612	,000
	집단내	13114,119	640	20,491		
	전체	16032,989	644			
어미오류율	집단간	247,112	4	61,778	6,115	,000
	집단내	6465,889	640	10,103		
	전체	6713,002	644			
존대오류율	집단간	17,093	4	4,273	5,818	,000
	집단내	470,044	640	,734		
	전체	487,137	644			
종결오류율	집단간	29,046	4	7,261	4,677	,001
	집단내	993,705	640	1,553		
	전체	1022,750	644			
전성오류율	집단간	23,307	4	5,827	4,488	,001
	집단내	830,919	640	1,298		
	전체	854,225	644			
철자오류율	집단간	1256,872	4	314,218	10,959	,000
	집단내	18350,328	640	28,672		
	전체	19607,200	644			

<표36>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영어권	143	153.4615	126.0347
	일본어권	268	179.4888	123.1186
	중국어권	117	140.6325	96.2307
	러시아권	89	137.4270	107.8706
	기타권	28	179.9286	138.4060
오류율	영어권	143	24.9143	16.1778
	일본어권	268	14.6856	10.7166
	중국어권	117	29.8065	22.4755
	러시아권	89	18.1266	10.5764
	기타권	28	19.2251	12.4127
어휘오류율	영어권	143	6.0063	4.7265
	일본어권	268	4.6089	3.9201
	중국어권	117	7.7590	6.2079
	러시아권	89	4.6916	3.9413
	기타권	28	4.2007	3.4298
표현오류율	영어권	143	.8291	1.5370
	일본어권	268	.5989	1.1136
	중국어권	117	1.2664	3.4664
	러시아권	89	.6413	1.1426
	기타권	28	.3076	.6681
조사오류율	영어권	143	6.4636	5.4729
	일본어권	268	2.9786	2.8805
	중국어권	117	8.5199	6.6622
	러시아권	89	4.2272	3.4571
	기타권	28	5.7632	4.0600
어미오류율	영어권	143	3.2808	2.7460
	일본어권	268	2.6941	2.9319
	중국어권	117	4.3834	4.1470
	러시아권	89	2.8966	3.2216
	기타권	28	2.7142	2.6655
시제오류율	영어권	143	.7584	1.4111
	일본어권	268	.5020	1.3941
	중국어권	117	.9190	1.4229
	러시아권	89	.6457	1.6802
	기타권	28	.6066	1.0436
존대오류율	영어권	143	5.810E-02	.2606
	일본어권	268	8.737E-02	.4325
	중국어권	117	.4861	1.7298
	러시아권	89	5.784E-02	.2324
	기타권	28	.3314	1.4734
종결오류율	영어권	143	.6795	1.1846
	일본어권	268	.4520	.8892
	중국어권	117	1.0224	2.0486
	러시아권	89	.4808	.8522
	기타권	28	.7259	1.0986
연결오류율	영어권	143	1.1814	1.3133
	일본어권	268	.9769	1.3195
	중국어권	117	.9281	1.2055
	러시아권	89	1.2356	1.5507
	기타권	28	.7768	1.2880
전성오류율	영어권	143	.6035	.9931
	일본어권	268	.6759	1.1451
	중국어권	117	1.0279	1.4124
	러시아권	89	.4767	1.0532
	기타권	28	.2734	.6607
어순오류율	영어권	143	.1844	.5844
	일본어권	268	.1652	.6450
	중국어권	117	.1245	.4585
	러시아권	89	.1841	.5496
	기타권	28	2.699E-02	.1021
철자오류율	영어권	143	6.6234	8.1727
	일본어권	268	3.0394	3.3370
	중국어권	117	4.8498	5.6402
	러시아권	89	3.7833	3.8875
	기타권	28	4.2439	5.6848

<표37> 언어권별 오류율

오류율은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급과 상관없이 중국어권 학습자가 가장 오류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어권, 러시아권, 그리고 일본어권 학습자가 가장 오류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 오류율도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휘 오류율이 가장 많은 언어권은 중국어권, 다음이 영어권, 그리고 러시아권과 일본어권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현 오류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의 순서였다.

조사 오류율도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어권 학습자가 조사 오류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 학습자의 순으로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미 오류율은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어권, 영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의 순서로 오류율이 높았으며, 어미 범주 중에서 특히 존대 어미 오류와 종결 어미 오류, 전성 어미 오류에 있어서 언어권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자 오류율도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철자 오류가 가장 많은 언어권은 영어권이었으며, 다음이 중국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으로 다른 오류 범주와 달리 유독 철자 오류에 있어서만 순위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어권 학습자가 거의 모든 오류 유형에 있어서 가장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등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영어권

영어권 학습자들은 급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교포와 외국인에 따라 오류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권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각 변인별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급별 차이

영어권 학습자들이 급에 따라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3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표현 오류율,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 전반적인 오류 유형에서 급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 어절 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산출하는 어절 수도 많아졌다.

오류율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형별 오류율은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어휘 오류와 철자 오류에서는 5급이 의외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오류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5급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뚜렷하지 않으나 5급의 구성 비율을 보면 다른 급과 달리 교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포 학습자의 경우

대개 입말에 능하나 문법적인 측면이나 특히 맞춤법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

안할 때 5급의 오류율이 높은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1	29	60.9655	32.1086
	2	35	135.8286	79.2648
	3	23	161.4783	74.3651
	4	24	168.7917	94.5893
	5	18	177.0000	89.5774
	6	14	319.4286	261.2949
오류율	1	29	32.1006	20.6678
	2	35	27.9879	16.7660
	3	23	22.1576	13.1896
	4	24	21.2820	10.9255
	5	18	24.6470	15.7285
	6	14	13.4434	7.3664
어휘오류율	1	29	7.5153	5.3217
	2	35	6.7672	5.7953
	3	23	4.8850	2.9913
	4	24	6.7596	4.2322
	5	18	3.8430	3.6814
	6	14	4.3109	3.3374
표현오류율	1	29	.6691	1.5722
	2	35	1.6345	2.3152
	3	23	.4959	.7434
	4	24	.1954	.3874
	5	18	.6342	.9741
	6	14	1.0312	1.0875
조사오류율	1	29	9.6274	6.9508
	2	35	7.1137	5.8717
	3	23	6.2728	5.0527
	4	24	5.7546	3.4839
	5	18	3.6711	3.4964
	6	14	3.4041	2.6360
어미오류율	1	29	3.3180	2.8950
	2	35	4.0782	2.8987
	3	23	2.6457	2.3196
	4	24	4.1129	3.2278
	5	18	2.4833	2.0202
	6	14	1.8527	1.6362
어순오류율	1	29	.2411	.7166
	2	35	.3583	.8912
	3	23	3.691E-02	.2061
	4	24	6.385E-02	.2617
	5	18	.1564	.3786
	6	14	3.483E-02	9.739E-02
철자오류율	1	29	8.5086	10.6149
	2	35	6.9214	7.8369
	3	23	5.9938	7.1253
	4	24	3.8313	3.5051
	5	18	10.8055	10.6218
	6	14	2.4176	2.1322

<표 38> 영어권 급별 오류율

		SS	df	MS	F	Sig.
종어절수	집단간	661714.475	5	132342.895	11.375	.000
	집단내	1593919.1	137	11634.446		
	전체	2255633.5	142			
오류율	집단간	4163.169	5	832.634	3.457	.006
	집단내	33001.432	137	240.886		
	전체	37164.601	142			
표현오류율	집단간	36.896	5	7.379	3.386	.006
	집단내	298.570	137	2.179		
	전체	335.466	142			
조사오류율	집단간	589.386	5	117.877	4.408	.001
	집단내	3663.942	137	26.744		
	전체	4253.328	142			
어미오류율	집단간	88.192	5	17.638	2.459	.036
	집단내	982.540	137	7.172		
	전체	1070.732	142			
철자오류율	집단간	864.852	5	172.970	2.749	.021
	집단내	8619.711	137	62.918		
	전체	9484.564	142			

<표 39> 영어권 급별 오류율 차이 분석

② 성별 차이

영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남녀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40>에 제시된 것처럼 오류율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S	df	MS	F	Sig.
오류율	집단간	152.744	1	1152.744	4.513	.035
	집단내	6011.857	141	255.403		
	전체	7164.601	142			

<표 40> 영어권 성별 오류율 차이 분석

오류율의 경우 .05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오류율이 떨어져,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 여자 학습자가 남자 학습자보다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오류 유형에 있어서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어절 수도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 각 유형별 오류율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오류율이 낮은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로도 볼 수 없었다.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별간 오류 차이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영어권은 특히 다른 언어권에 비해 성별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여자	68	173.3529	142.4155
	남자	75	135.4267	106.8864
오류율	여자	68	21.9325	12.4955
	남자	75	27.6178	18.5817
어휘오류율	여자	68	5.4687	4.7557
	남자	75	6.4939	4.6780
표현오류율	여자	68	.8958	1.3926
	남자	75	.7686	1.6642
조사오류율	여자	68	5.6863	4.8405
	남자	75	7.1684	5.9334
어미오류율	여자	68	3.0948	2.6060
	남자	75	3.4494	2.8740
어순오류율	여자	68	.1130	.4230
	남자	75	.2491	.6960
철자오류율	여자	68	5.3212	6.0220
	남자	75	7.8041	9.6106

<표 41> 영어권 성별 오류율

③ 모국어별 차이

영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교포와 외국인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42>에 제시된 것처럼 어휘 오류율과 조사 오류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S	df	MS	F	Sig.
어휘오류율	집단간	95.099	1	95.099	4.358	.039
	집단내	3077.090	141	21.823		
	전체	3172.188	142			
조사오류율	집단간	131.683	1	131.683	4.505	.036
	집단내	4121.645	141	29.232		
	전체	4253.328	142			

<표 42> 영어권 모국어별 오류율 차이 분석

전체적으로 보면 <표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포 학습자의 경우 순수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오류율이 대체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어휘 오류와 조사 오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차이였다. 다소 특이한 점은 철자 오류율에 있어서만은 외국인 학습자가 교포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떨어지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다른 오류율과는 달리 철자에 있어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더 정확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였다.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교포 학습자의 경우 입말에만 익숙하여 대개 글을 쓸 때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등 맞춤법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특히 교포 학습자에 대한 맞춤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교포	59	168.0169	145.0801
	외국인	84	143.2381	110.5058
오류율	교포	59	23.6867	14.0407
	외국인	84	25.7765	17.5551
어휘오류율	교포	59	5.0333	3.9400
	외국인	84	6.6898	5.1211
표현오류율	교포	59	.6107	.9692
	외국인	84	.9824	1.8242
조사오류율	교포	59	5.3186	4.7191
	외국인	84	7.2678	5.8392
어미오류율	교포	59	3.0146	2.5384
	외국인	84	3.4678	2.8831
어순오류율	교포	59	.1217	.5476
	외국인	84	.2284	.6083
철자오류율	교포	59	8.0029	8.8539
	외국인	84	5.6545	7.5624

<표 43> 영어권 모국어별 오류율

2) 일본어권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급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교포와 외국인에 따라 오류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어권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각 변인별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급별 차이

일본어권 학습자들이 급에 따라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44>에 제시

한 바와 같이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표현 오류율,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등 전반적인 오류 유형에서 급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영어권과 마찬가지로 학습 단계인 급은 오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어권과 다른 점은 철자 오류율에 있어서 급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었다.

총 어절 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어절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류율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특이한 것은 2급에서 오류율이 유난히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휘 오류와 어미 오류에서도 함께 나타났는데, 이는 1급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사용 등의 문법 요소들을 문장 속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숫자와 이름 등의 기본적인 단계를 벗어나 차츰 다양한 어휘를 접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증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영어권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로겠지만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는 한국어 학습을 시작할 때부터 상이한 언어 구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2급 역시 어려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영어권과는 달리 처음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다가 2급에 올라오면서 학습량이 많아지고 단계가 높아져 학습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2급 일본어 학습자의 오류를 높이는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19149.1	5	3829.815	23.393	.000
	집단내	98087.9	262	374.377		
	전체	117237.0	267			
오류율	집단간	554.165	5	110.833	6.870	.000
	집단내	309.333	262	1.180		
	전체	863.498	267			
어휘오류율	집단간	195.643	5	39.129	7.200	.000
	집단내	307.379	262	1.173		
	전체	503.022	267			
표현오류율	집단간	28.185	5	5.637	4.876	.000
	집단내	302.894	262	1.156		
	전체	331.079	267			
조사오류율	집단간	206.518	5	41.304	5.387	.000
	집단내	308.871	262	1.179		
	전체	515.389	267			
어미오류율	집단간	223.060	5	44.612	5.641	.000
	집단내	3072.017	262	11.725		
	전체	3295.077	267			

<표 44> 일어권 급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1	56	80.3750	48.0933
	2	49	169.6735	104.3640
	3	28	151.7857	89.0515
	4	49	177.9592	100.7236
	5	54	230.5185	95.5999
	6	32	308.4375	176.2141
오류율	1	56	16.4834	9.4178
	2	49	20.6616	15.3663
	3	28	15.1527	11.8468
	4	49	13.9287	9.3310
	5	54	10.4936	6.2476
	6	32	10.2130	5.2666
어휘오류율	1	56	5.5377	4.4943
	2	49	6.5541	5.2754
	3	28	4.7241	3.6792
	4	49	4.5675	3.2280
	5	54	3.0672	1.8683
	6	32	2.5691	1.8838
표현오류율	1	56	.5673	1.1459
	2	49	.9304	1.5587
	3	28	.4930	1.3770
	4	49	5.918E-02	.1858
	5	54	.5769	.5817
	6	32	1.1029	1.1814
조사오류율	1	56	3.8458	3.2494
	2	49	3.8764	3.4796
	3	28	2.6668	2.8566
	4	49	3.3101	3.2024
	5	54	1.8628	1.3761
	6	32	1.7340	1.0477
어미오류율	1	56	1.9042	2.5203
	2	49	4.5146	4.3704
	3	28	2.6405	2.6367
	4	49	2.5322	2.2616
	5	54	2.0227	1.4423
	6	32	2.7171	2.9093
어순오류율	1	56	.2717	.9286
	2	49	.2612	.5672
	3	28	.3035	1.2289
	4	49	.1009	.2436
	5	54	2.698E-02	.1228
	6	32	4.207E-02	.1214
철자오류율	1	56	3.5740	3.6011
	2	49	3.7043	3.6015
	3	28	2.7934	3.6399
	4	49	2.8630	3.0398
	5	54	2.8553	3.4050
	6	32	1.8819	2.0945

<표 45> 일어난 급별 오류율

② 성별 차이

일본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남녀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류율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성별간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한다.

③ 모국어별 차이

일본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교포와 외국인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나온 결과와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권의 경우와 다른 것이었는데, 이는 일본어권 교포 학습자의 경우와 영어권 교포 학습자의 경우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영어권의 교포 학습자의 경우 이민의 역사가 일본권의 경우보다 대체로 짧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에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권의 교포 학습자의 경우, 부모 세대조차도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 내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영어권에 비해 일본어권의 경우 교포와 외국인간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어권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급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교포와 외국인에 따라 오류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각 변인별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급별 차이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급에 따라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4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등 전반적인 오류 유형에서 급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영어권과 마찬가지로 학습 단계인 급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오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어권과 다른 점은 일본어권과 마찬가지로 철자 오류율에 있어서는 급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었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216307.368	5	43261.474	5.597	.000
	집단내	857893.828	111	7728.773		
	전체	1074201.2	116			
오류율	집단간	10122.504	5	2024.501	4.636	.001
	집단내	48474.834	111	436.710		
	전체	58597.338	116			
어휘오류율	집단간	848.682	5	169.736	5.202	.000
	집단내	3621.780	111	32.629		
	전체	4470.462	116			
조사오류율	집단간	735.130	5	147.026	3.698	.004
	집단내	4413.494	111	39.761		
	전체	5148.625	116			
어미오류율	집단간	217.733	5	43.547	2.720	.023
	집단내	1777.177	111	16.011		
	전체	1994.910	116			

<표 46> 중국어권 급별 오류율 차이 분석

총 어절 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대체로 어절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오류 유형의 경우 급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관된 흐름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표본의 숫자이다. 1급에서만 충분한 숫자를 확보했을 뿐(46명) 2급(22명), 3급부터 6급까지는 겨우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밖에는 확보할 수 없어서 각 급의 구성원들의 특징이 확대 해석되어, 어떤 급의 경우 유난히 우수한 중국 학습들이 모여 있을 경우나 또는 그 반대인 경우, 결과가 확대 해석 또는 축소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중국어권의 경우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연구 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② 성별 차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남녀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총 어절수에 있어서만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뿐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류율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은 볼 수 있었으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오류율이나 유형에 따른 오류에 있어서 성별간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한다.

③ 모국어별 차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교포와 외국인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어권과 동일한 결과이며 영어권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도 일본어권 교포와 마찬가지로 영어권 교포 학습자와는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른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1	46	98.4783	69.6320
	2	22	151.9091	98.5813
	3	12	137.7500	59.3206
	4	16	148.5000	95.5231
	5	11	197.2727	93.6259
	6	10	238.3000	138.3980
오류율	1	46	38.8396	27.7749
	2	22	22.3883	12.6913
	3	12	26.5347	15.0721
	4	16	35.6429	20.4499
	5	11	15.9754	10.7086
	6	10	14.3772	7.1406
어휘오류율	1	46	10.1348	7.0988
	2	22	4.3603	2.7033
	3	12	6.3425	4.6480
	4	16	10.5582	7.0683
	5	11	4.6297	3.8465
	6	10	4.9707	2.7005
표현오류율	1	46	2.2201	5.2804
	2	22	.9511	1.0377
	3	12	.5330	1.3455
	4	16	.1890	.3662
	5	11	.5252	1.0047
	6	10	.9924	.9794
조사오류율	1	46	10.7168	7.3439
	2	22	7.1159	5.2198
	3	12	6.7895	5.6314
	4	16	10.6711	6.5291
	5	11	5.5714	5.9368
	6	10	3.3803	2.8594
어미오류율	1	46	3.7674	4.2957
	2	22	5.4777	4.3539
	3	12	5.1414	3.0900
	4	16	6.6808	4.9552
	5	11	2.2997	1.7398
	6	10	2.5171	2.2380
어순오류율	1	46	7.762E-02	.3687
	2	22	.1633	.6457
	3	12	.2825	.7568
	4	16	.1879	.3650
	5	11	.0000	.0000
	6	10	.1010	.2453
철자오류율	1	46	6.5852	6.9162
	2	22	3.2902	2.9520
	3	12	4.5080	4.2520
	4	16	5.6412	7.1317
	5	11	2.2861	1.9378
	6	10	2.2618	1.1798

<표 47> 중국어권 급별 오류율

4) 러시아권

러시아권 학습자들은 급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교포와 외국인에 따라 오류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러시아권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각 변인별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급별 차이

러시아권 학습자들이 급에 따라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어절 수와 표현 오류율,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등에서 급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6264.069	5	51252.814	5.541	.000
	집단내	7709.707	83	9249.515		
	전체	1023973.8	88			
표현오류율	집단간	18.378	5	3.676	3.161	.012
	집단내	96.503	83	1.163		
	전체	114.881	88			
조사오류율	집단간	134.212	5	26.842	2.428	.042
	집단내	917.512	83	11.054		
	전체	1051.724	88			
어미오류율	집단간	146.688	5	29.338	3.176	.011
	집단내	766.643	83	9.237		
	전체	913.331	88			

<표 48> 러시아권 급별 오류율 차이 분석

총 어절 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대체로 어절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오류 유형의 경우 급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관된 흐름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어권과 마찬가지로 표본의 숫자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권도 역시 겨우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밖에는 확보할 수 없어서 각 구성원들의 특징이 확대 또는 축소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러시아권의 경우도 중국권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1	17	70.4118	35.6284
	2	21	98.7619	72.6752
	3	17	152.4706	109.7726
	4	11	180.1818	122.6098
	5	10	132.8000	67.4797
	6	13	235.2308	146.5299
오류율	1	17	18.2839	9.8689
	2	21	17.8719	11.2734
	3	17	16.7464	10.9575
	4	11	21.1966	7.1825
	5	10	24.1114	14.1620
	6	13	12.9355	7.3893
어휘오류율	1	17	3.9972	4.0001
	2	21	4.2016	4.6967
	3	17	4.5065	3.2787
	4	11	6.3438	3.4159
	5	10	6.1743	4.7032
	6	13	4.0949	3.0492
표현오류율	1	17	.3120	.8823
	2	21	.5902	.9344
	3	17	.2537	.6186
	4	11	.4359	.8890
	5	10	1.7271	1.9789
	6	13	.9998	1.2012
조사오류율	1	17	6.1330	4.8878
	2	21	3.0507	2.3450
	3	17	3.7643	3.2601
	4	11	4.9050	2.7719
	5	10	5.2641	3.6657
	6	13	2.8698	2.1881
어미오류율	1	17	1.1417	2.4505
	2	21	4.4398	4.5884
	3	17	2.4595	2.5254
	4	11	4.5549	2.4541
	5	10	2.7295	2.4961
	6	13	1.9958	1.6111
어순오류율	1	17	.4549	1.0187
	2	21	9.524E-02	.4364
	3	17	.1816	.3568
	4	11	.2669	.4130
	5	10	.0000	.0000
	6	13	4.808E-02	.1733
철자오류율	1	17	5.2448	4.3545
	2	21	4.2786	4.6414
	3	17	3.6713	3.3587
	4	11	3.6343	3.5084
	5	10	3.6569	4.1172
	6	13	1.4415	1.4759

<표 49> 러시아권 급별 오류율

② 성별 차이

러시아권 학습자들의 경우 남녀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른 언어권에 비해 성별간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표 50>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류율과 어휘 오류율,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모든 오류 유형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러시아권 학습자들의 경우 대체로 여자 학습자가 남자 학습자에 비해 오류가 적은 정확한 문장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SS	df	MS	F	Sig.
오류율	집단간	1408.667	1	1408.667	14.529	.000
	집단내	8435.053	87	96.955		
	전체	9843.720	88			
어휘오류율	집단간	67.372	1	67.372	4.510	.037
	집단내	1299.626	87	14.938		
	전체	1366.999	88			
어미오류율	집단간	46.193	1	46.193	4.635	.034
	집단내	867.138	87	9.967		
	전체	913.331	88			
시제오류율	집단간	20.954	1	20.954	8.014	.006
	집단내	227.473	87	2.615		
	전체	248.427	88			
존대오류율	집단간	.232	1	.232	4.470	.037
	집단내	4.522	87	5.197E-02		
	전체	4.754	88			
철자오류율	집단간	76.107	1	76.107	5.281	.024
	집단내	1253.792	87	14.411		
	전체	1329.899	88			

<표 50> 러시아권 성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여자	59	144.1017	114.6080
	남자	30	124.3000	93.6513
오류율	여자	59	15.2897	9.5378
	남자	30	23.7058	10.4366
어휘오류율	여자	59	4.0712	3.7577
	남자	30	5.9118	4.0711
표현오류율	여자	59	.5095	.9538
	남자	30	.9005	1.4273
조사오류율	여자	59	3.7687	2.9948
	남자	30	5.1290	4.1303
어미오류율	여자	59	2.3829	2.6373
	남자	30	3.9070	3.9988
어순오류율	여자	59	.1215	.3445
	남자	30	.3070	.8098
철자오류율	여자	59	3.1238	2.9481
	남자	30	5.0801	5.0844

<표 51> 러시아권 성별 오류율

③ 모국어별 차이

러시아권 학습자들의 경우 교포와 외국인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어권이나 중국어권과 같은 결과이며, 영어권과만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도 일본어권이나 중국어권 교포와 마찬가지로

영어권 교포 학습자와는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영어권 교포를 제외한 다른 언어권의 교포의 경우 그 나라의 순수한 외국인 학습자와 오류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6.4 성별에 따른 유형별 오류율 차이 분석

성별에 따라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5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조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157357.687	1	157357.687	11.282	.001
	집단내	8968659.8	643	13948.149		
	전체	9126017.5	644			
오류율	집단간	4146.282	1	4146.282	16.789	.000
	집단내	158798.961	643	246.966		
	전체	162945.243	644			
어휘오류율	집단간	289.147	1	289.147	13.193	.000
	집단내	14092.925	643	21.917		
	전체	14382.072	644			
조사오류율	집단간	295.871	1	295.871	12.089	.001
	집단내	15737.118	643	24.475		
	전체	16032.989	644			
어순오류율	집단간	1.357	1	1.357	4.148	.042
	집단내	210.271	643	.327		
	전체	211.627	644			
절차오류율	집단간	348.211	1	348.211	11.626	.001
	집단내	19258.989	643	29.952		
	전체	19607.200	644			

<표52> 성별 오류율 차이 분석

사 오류율에서만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 어절 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남녀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여자가 급에 상관없이 남자보다 많은 어절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류율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이들의 차이는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휘 오류율에 있어서도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휘 오류 중 가장 많은 범주는 어휘 대치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오류율에 있어서도 역시 남자는 여자보다 오류율이 높았으며, 이들의 차이는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대부분의 오류 유형에서 오류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어휘나 조사 오류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즉 어휘나 조사 오류 외에는 오류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성별 오류율은 <표53>와 같다.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여자	395	173.3114	123.2956
	남자	250	141.2520	109.3822
오류율	여자	395	18.3510	14.4715
	남자	250	23.5551	17.5033
어휘오류율	여자	395	4.9512	4.3427
	남자	250	6.3254	5.1727
표현오류율	여자	395	.7096	1.5414
	남자	250	.8505	2.2785
조사오류율	여자	395	4.5107	4.3634
	남자	250	5.9009	5.7511
어미오류율	여자	395	2.9758	2.8587
	남자	250	3.4497	3.7270
시제오류율	여자	395	.5796	1.2153
	남자	250	.7842	1.7263
표현오류율	여자	395	.1175	.5802
	남자	250	.2264	1.1902
종결오류율	여자	395	.6070	1.1705
	남자	250	.6451	1.3923
연결오류율	여자	395	1.0112	1.3027
	남자	250	1.0865	1.3825
전성오류율	여자	395	.6605	1.0449
	남자	250	.7075	1.3045
어순오류율	여자	395	.1222	.4674
	남자	250	.2163	.7062
철자오류율	여자	395	3.7328	4.4111
	남자	250	5.2409	6.8233

<표53> 성별 오류율

1) 여자

여자 학습자들은 급에 따라, 그리고 언어권에 따라, 또 모국어에 따라 오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자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각 변인별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급별 차이

여자 학습자들이 급에 따라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5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표현 오류율,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 전반적인 오류 유형에서 급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 어절 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산출하는 어절 수도 많아졌다.

오류율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형별 오류율도 대체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나 급별, 언어권별 결과에서와 같이 표현 오류율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일정한 흐름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미 오류에서는 2급과 4급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급별 오류 차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인데, 여자 학습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일본어권이 392명 중 184명으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어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분석된다. 다른 오류 유형의 경우 대체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율은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912685.6	5	382537.117	36.501	.000
	집단내	076823.1	389	10480.265		
	전체	989508.7	394			
오류율	집단간	7747.829	5	1549.566	8.062	.000
	집단내	4765.888	389	192.200		
	전체	2513.717	394			
어휘오류율	집단간	469.046	5	93.809	5.242	.000
	집단내	6961.473	389	17.896		
	전체	7430.519	394			
표현오류율	집단간	50.582	5	10.116	4.444	.001
	집단내	885.588	389	2.277		
	전체	936.171	394			
조사오류율	집단간	915.742	5	183.148	10.818	.000
	집단내	6585.781	389	16.930		
	전체	7501.523	394			
어미오류율	집단간	185.782	5	37.156	4.764	.000
	집단내	3034.017	389	7.800		
	전체	3219.799	394			
철자오류율	집단간	387.132	5	77.426	4.138	.001
	집단내	7279.156	389	18.712		
	전체	7666.287	394			

<표 54> 여자 급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1	84	84.8571	50.6764
	2	91	154.6703	94.6290
	3	56	156.3929	86.1280
	4	63	174.2857	96.7807
	5	51	226.7451	104.0204
	6	50	319.0600	176.5905
오류율	1	84	24.6892	20.2094
	2	91	20.0151	13.6620
	3	56	17.9118	12.4471
	4	63	17.7511	12.6483
	5	51	13.7992	8.9756
	6	50	10.5649	5.7153
어휘오류율	1	84	6.3762	5.2706
	2	91	5.1523	4.7800
	3	56	4.7336	3.6632
	4	63	5.5558	4.4961
	5	51	3.5005	2.7277
	6	50	3.1525	2.1944
표현오류율	1	84	1.0166	2.6497
	2	91	.8663	1.3836
	3	56	.2601	.5602
	4	63	.1460	.3907
	5	51	.6961	.8712
	6	50	1.1361	1.1596
조사오류율	1	84	6.8279	5.6592
	2	91	4.9359	4.3201
	3	56	4.1398	3.6025
	4	63	4.3848	3.9097
	5	51	2.9775	3.1799
	6	50	1.9823	1.2848
어미오류율	1	84	2.5877	2.7772
	2	91	3.9126	3.3410
	3	56	2.8951	2.8210
	4	63	3.5558	3.3103
	5	51	2.2197	1.5648
	6	50	2.0534	1.7480
어순오류율	1	84	.1965	.7552
	2	91	.1596	.5071
	3	56	.1366	.3957
	4	63	.1047	.2633
	5	51	1.883E-02	.1093
	6	50	4.041E-02	.1102
철자오류율	1	84	5.2278	5.3626
	2	91	4.0182	5.0894
	3	56	3.4526	3.5017
	4	63	3.2723	4.0546
	5	51	3.4456	3.6555
	6	50	1.8888	2.0167

<표 55> 여자 급별 오류율

② 언어권별 차이

여자 학습자들의 경우 언어권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6>에 제시된 것처럼 오류율, 어휘 오류율, 표현 오류율,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 전반적인 오류 유형에서 언어권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슷하나 총 어절 수에 있어서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달리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자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언어권에 따라 총 어절 수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오류율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은 .001 수준에서, 그리고 어휘 오류율은 .01 수준에서, 또 표현 오류율은 .04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권별로 가장 오류율이 높은 언어권은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권이었으며, 다음이 영어권, 그리고 일본어권과 러시아권은 오류 유형에 따라 조금씩 순서가 바뀌었다. 다만 철자 오류에 있어서는 영어권 학습자가 가장 오류율이 높았고, 다음이 중국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의 순서였다.

전체적인 오류율과 조사 오류, 철자 오류에 있어서는 일본어권 여자 학습자가 가장 오류율이 낮았으나 어휘 오류와 어미 오류, 표현 오류에 있어서는 러시아권 여자 학습자가 가장 오류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권별 차이에서 나온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SS	df	MS	F	Sig.
오류율	집단간	11039.481	4	2759.870	15.059	.000
	집단내	71474.237	390	183.267		
	전체	82513.717	394			
어휘오류율	집단간	303.365	4	75.841	4.150	.003
	집단내	7127.154	390	18.275		
	전체	7430.519	394			
표현오류율	집단간	23.520	4	5.880	2.513	.041
	집단내	912.650	390	2.340		
	전체	936.171	394			
조사오류율	집단간	1480.864	4	370.216	23.981	.000
	집단내	6020.660	390	15.438		
	전체	7501.523	394			
어미오류율	집단간	205.340	4	51.335	6.642	.000
	집단내	3014.459	390	7.729		
	전체	3219.799	394			
철자오류율	집단간	351.648	4	87.912	4.687	.001
	집단내	7314.640	390	18.755		
	전체	7666.287	394			

<표 56> 여자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영어권	68	173.3529	142.4155
	일본어권	184	186.6196	124.1809
	중국어권	61	167.2787	100.7927
	러시아권	59	144.1017	114.6080
	기타권	23	157.6522	125.4829
오류율	영어권	68	21.9325	12.4955
	일본어권	184	14.2584	10.5369
	중국어권	61	28.5343	23.1202
	러시아권	59	15.2897	9.5378
	기타권	23	21.3485	12.3331
어휘오류율	영어권	68	5.4687	4.7557
	일본어권	184	4.4826	3.8809
	중국어권	61	6.7488	5.4329
	러시아권	59	4.0712	3.7577
	기타권	23	4.6596	3.4752
표현오류율	영어권	68	.8958	1.3926
	일본어권	184	.6190	1.0366
	중국어권	61	1.1514	2.9600
	러시아권	59	.5095	.9538
	기타권	23	.2257	.5879
조사오류율	영어권	68	5.6863	4.8405
	일본어권	184	2.8849	2.7136
	중국어권	61	8.0889	6.0630
	러시아권	59	3.7687	2.9948
	기타권	23	6.4556	4.1419
어미오류율	영어권	68	3.0948	2.6060
	일본어권	184	2.5821	2.5897
	중국어권	61	4.5694	3.5510
	러시아권	59	2.3829	2.6373
	기타권	23	3.0673	2.7970
어순오류율	영어권	68	.1130	.4230
	일본어권	184	.1238	.5211
	중국어권	61	.1695	.5326
	러시아권	59	.1215	.3445
	기타권	23	1.249E-02	5.992E-02
철자오류율	영어권	68	5.3212	6.0220
	일본어권	184	2.9795	3.1504
	중국어권	61	4.4533	5.3983
	러시아권	59	3.1238	2.9481
	기타권	23	4.7138	6.0903

<표 57> 여자 언어권별 오류율

③ 모국어별 차이

여자 학습자들의 경우 교포와 외국인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58>에 제시된 것처럼 총 어절 수에 있어서만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포 학습자의 경우 순수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오류율이 대체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철자 오류율에 있어서는 역시 앞에서 나온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습자가 교포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435.106	1	61435.106	4.073	.044
집단내	928073.6	393	15084.157		
전체	989508.7	394			

<표 58> 여자 모국어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교포	93	195.7849	146.1121
	외국인	302	166.3907	114.7580
오류율	교포	93	17.5518	11.8386
	외국인	302	18.5971	15.1999
어휘오류율	교포	93	4.7152	3.9393
	외국인	302	5.0238	4.4632
표현오류율	교포	93	.7737	1.1082
	외국인	302	.6899	1.6532
조사오류율	교포	93	4.1433	4.5762
	외국인	302	4.6239	4.2973
어미오류율	교포	93	2.7810	2.3466
	외국인	302	3.0357	2.9998
어순오류율	교포	93	5.726E-02	.2283
	외국인	302	.1422	.5180
철자오류율	교포	93	4.0911	5.6343
	외국인	302	3.6224	3.9642

<표 59> 여자 모국어별 오류율

2) 남자

남자 학습자들은 급에 따라, 그리고 언어권에 따라, 또 모국어에 따라 오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자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각 변인별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급별 차이

남자 학습자들이 급에 따라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6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등에서 급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 어절 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산출하는 어절 수도 많아졌다.

오류율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형별 오류율도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휘 오류와 조사 오류에서 4급 남자 학습자의 오류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9518.997	5	115903.799	11.785	.000
	집단내	399632.1	244	9834.558		
	전체	979151.1	249			
오류율	집단간	5924.999	5	1185.000	4.109	.001
	집단내	10360.245	244	288.362		
	전체	16285.244	249			
어휘오류율	집단간	587.395	5	117.479	4.718	.000
	집단내	6075.010	244	24.898		
	전체	6662.405	249			
조사오류율	집단간	769.348	5	153.870	5.029	.000
	집단내	7466.246	244	30.599		
	전체	8235.594	249			
어미오류율	집단간	299.703	5	59.941	4.630	.000
	집단내	3159.115	244	12.947		
	전체	3458.817	249			

<표 60> 남자 급별 오류율 차이 분석

② 언어권별 차이

남자 학습자들의 경우 언어권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62>에 제시된 것처럼 총 어절 수, 오류율,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 전반적인 오류 유형에서 언어권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슷하나 어미 오류에 있어서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달리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자 학습자들의 경우 어미 오류율은 언어권에 따라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총 어절 수는 일본어권, 영어권, 러시아권, 중국어권의 순서로 어절 수가 많았다.

오류율이 가장 높은 언어권은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권이었으며, 다음이 영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의 순서였다. 그러나 철자 오류에 있어서는 영어권 학습자가 가장 오류율이 높았고, 다음이 중국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의 순서였다.

여자 학습자들로부터 나온 결과와 다른 점은 전체적인 오류율과 거의 모든 유형별 오류에 있어서 일본어권의 남자 학습자가 가장 오류율이 낮았다는 점이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1	69	76.4058	56.2859
	2	45	127.4889	94.0847
	3	27	142.5926	83.6114
	4	42	166.7381	111.4812
	5	46	190.2391	86.8634
	6	21	223.8095	195.4312
오류율	1	69	28.8923	22.3538
	2	45	26.7329	16.3340
	3	27	22.3350	14.2980
	4	42	23.5853	15.0541
	5	46	16.8618	14.2201
	6	21	15.3783	6.8393
어휘오류율	1	69	7.9256	6.4655
	2	45	6.7279	5.2549
	3	27	5.1445	3.2974
	4	42	7.4312	4.9572
	5	46	3.9443	3.3194
	6	21	4.7277	3.4008
표현오류율	1	69	1.0982	3.6819
	2	45	1.3721	2.0436
	3	27	.7907	1.6222
	4	42	.1535	.4142
	5	46	.6756	1.1030
	6	21	.7730	.9600
조사오류율	1	69	8.0486	7.0996
	2	45	6.0662	5.5246
	3	27	5.5356	5.5876
	4	42	6.4653	5.2377
	5	46	3.2022	3.6118
	6	21	3.7424	2.9350
어미오류율	1	69	2.7805	3.9332
	2	45	5.3770	5.0203
	3	27	3.0363	2.3894
	4	42	4.2383	3.3575
	5	46	2.2238	1.9297
	6	21	3.1578	3.3168
어순오류율	1	69	.2465	.7609
	2	45	.3646	.8553
	3	27	.3453	1.2625
	4	42	.1497	.3261
	5	46	7.200E-02	.2522
	6	21	8.265E-02	.2180
철자오류율	1	69	6.3590	8.5121
	2	45	5.6053	5.4676
	3	27	5.5450	6.9502
	4	42	4.2833	4.3616
	5	46	5.3361	8.0721
	6	21	2.1021	1.4432

<표 61> 남자 급별 오류율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2962.361	4	50740.590	4.478	.002
	집단내	776188.8	245	11331.383		
	전체	979151.1	249			
오류율	집단간	0785.899	4	2696.475	10.086	.000
	집단내	5499.345	245	267.344		
	전체	6285.244	249			
어휘오류율	집단간	630.679	4	157.670	6.404	.000
	집단내	6031.727	245	24.619		
	전체	6662.405	249			
조사오류율	집단간	1347.848	4	336.962	11.986	.000
	집단내	6887.746	245	28.113		
	전체	8235.594	249			
철자오류율	집단간	903.565	4	225.891	5.178	.001
	집단내	0689.136	245	43.629		
	전체	1592.701	249			

<표 62> 남자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영어권	75	135.4267	106.8864
	일본어권	84	163.8690	120.0081
	중국어권	56	111.6071	82.4799
	러시아권	30	124.3000	93.6513
오류율	영어권	75	27.6178	18.5817
	일본어권	84	15.6214	11.1066
	중국어권	56	31.1924	21.8750
	러시아권	30	23.7058	10.4366
어휘오류율	영어권	75	6.4939	4.6780
	일본어권	84	4.8856	4.0142
	중국어권	56	8.8594	6.8350
	러시아권	30	5.9118	4.0711
표현오류율	영어권	75	.7686	1.6642
	일본어권	84	.5548	1.2715
	중국어권	56	1.3917	3.9692
	러시아권	30	.9005	1.4273
조사오류율	영어권	75	7.1684	5.9334
	일본어권	84	3.1838	3.2239
	중국어권	56	8.9893	7.2855
	러시아권	30	5.1290	4.1303
어미오류율	영어권	75	3.4494	2.8740
	일본어권	84	2.9396	3.5743
	중국어권	56	4.1808	4.7365
	러시아권	30	3.9070	3.9988
어순오류율	영어권	75	.2491	.6960
	일본어권	84	.2558	.8530
	중국어권	56	7.556E-02	.3596
	러시아권	30	.3070	.8098
철자오류율	영어권	75	7.8041	9.6106
	일본어권	84	3.1706	3.7300
	중국어권	56	5.2817	5.9108
	러시아권	30	5.0801	5.0844

<표 63> 남자 언어권별 오류율

③ 모국어별 차이

남자 학습자들의 경우 교포와 외국인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자 오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오류 유형에서 남자 교포 학습자가 남자 외국인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6.5 모국어에 따른 유형별 오류율 차이 분석

모국어에 따라 즉 교포와 외국인간에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64>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SS	df	MS	F	Sig.
철자오류율	집단간	154.340	1	154.340	5.102	.024
	집단내	19452.860	643	30.253		
	전체	19607.200	644			

<표64> 모국어별 오류율 차이 분석

이 표에 의하면 철자 오류율에 있어서만 모국어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그 외에는 모국어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포와 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교포가 서양권 교포와 일본어권 교포, 중국어권 교포와 러시아권 교포가 다 섞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경험적으로 볼 때 서양권 교포는 다른 언어권 교포와 다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언어권 교포에 비해 서양권 교포는 가정에서 한국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듣기와 말하기에 익숙한 경우가 많으며, 구어에 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문법적 접근을 통해 습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거나 읽기에는 상당히 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언어권 교포의 경우, 그 나라 순수 외국인과 그리 큰 차이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교포들이 섞여 한 표집을 이루게 된 본 연구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양권 교포의 특징이 희석되면서 교포와 외국인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적으로 볼 때 교포 학습자가 외국인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철자 오류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다른 오류 범주와는 달리 교포 학습자의 오류율이 외국인 학습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포 학습자의 철자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철자 오류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별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모국어별 오류율은 <표65>와 같다.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교포	152	174.3224	136.7518
	외국인	493	156.7424	112.8551
오류율	교포	152	19.7660	13.0150
	외국인	493	20.5537	16.7049
어휘오류율	교포	152	5.1679	4.1044
	외국인	493	5.5812	4.9012
표현오류율	교포	152	.7382	1.2769
	외국인	493	.7723	2.0089
조사오류율	교포	152	4.5080	4.5332
	외국인	493	5.2165	5.1149
어미오류율	교포	152	3.0531	2.5561
	외국인	493	3.1922	3.4109
시제오류율	교포	152	.5185	1.3012
	외국인	493	.7021	1.4753
존대오류율	교포	152	7.788E-02	.4324
	외국인	493	.1850	.9644
종결오류율	교포	152	.5068	1.0430
	외국인	493	.6572	1.3189
연결오류율	교포	152	1.2268	1.2619
	외국인	493	.9829	1.3511
전성오류율	교포	152	.7231	.9766
	외국인	493	.6650	1.2011
어순오류율	교포	152	.1457	.6624
	외국인	493	.1627	.5435
철자오류율	교포	152	5.1983	6.7376
	외국인	493	4.0457	5.0602

<표 65> 모국어별 오류율

1) 교포

교포 학습자들은 급에 따라, 그리고 언어권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오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포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각 변인별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급별 차이

교포 학습자들이 급에 따라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6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표현 오류율,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 전반적인 오류 유형에서 급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 어절 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대체로 어절 수도 많아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오류율이나 유형별 오류율에서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나 급별, 언어권별, 성별 오류 차이에서처럼 눈에 띄는 흐름을 볼 수 없었다. 즉 교포 학습자의 경우 앞에서의 다른 변인들의 경우처럼 급이 올라가면서 오류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없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급이 올라갈수록 확연히 오류율이 떨어지는

조사나 철자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포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 다른 어떤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포 학습자의 급별 오류율은 <표 67>과 같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2064.211	5	132412.842	8.943	.000
	집단내	161797.0	146	14806.829		
	전체	823861.2	151			
오류율	집단간	2150.303	5	430.061	2.680	.024
	집단내	3427.710	146	160.464		
	전체	5578.013	151			
어휘오류율	집단간	248.797	5	49.759	3.166	.010
	집단내	2294.961	146	15.719		
	전체	2543.759	151			
표현오류율	집단간	27.981	5	5.596	3.744	.003
	집단내	218.223	146	1.495		
	전체	246.204	151			
어미오류율	집단간	83.503	5	16.701	2.700	.023
	집단내	903.069	146	6.185		
	전체	986.571	151			

<표 66> 교포 급별 오류율 차이 분석

② 언어권별 차이

교포 학습자들의 경우 언어권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68>에 제시된 것처럼 오류율, 조사 오류율, 철자 오류율에서 언어권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오류 유형간 차이는 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포 학습자의 경우 순수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보다 언어권이라는 변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류율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조사 오류율은 .01 수준에서, 또 철자 오류율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권별로 가장 오류율이 높은 언어권은 <표 69>에서 보듯이 중국권이었으며, 다음이 영어권, 그리고 일본어권과 러시아권은 오류 유형에 따라 조금씩 순서가 바뀌었다. 다만 철자 오류에 있어서는 영어권 학습자가 가장 오류율이 높았고, 다음이 중국어권, 일본어권, 러시아권의 순서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권별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③ 성별 차이

교포 학습자들의 경우 여자와 남자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70>에 제시된 것처럼 총 어절 수에 있어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인 오류율과 철자 오류율에 있어서도 각각 .01,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 교포 학습자의 경우 남자 교포 학습자에 비해 오류율이 대체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대체로 여자 교포 학습자들이 남자 학습자들에 비해 정확한 문장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1	25	78.6000	55.4655
	2	19	142.4737	85.0479
	3	19	123.0526	64.2776
	4	30	178.7000	100.9401
	5	38	206.8684	108.5649
	6	21	298.3333	239.9817
오류율	1	25	20.5144	13.4930
	2	19	25.2453	18.0906
	3	19	19.0796	7.8372
	4	30	21.8897	11.6767
	5	38	19.7474	14.0602
	6	21	11.5383	6.2980
어휘오류율	1	25	5.7785	4.4577
	2	19	6.1715	4.6346
	3	19	4.6463	3.1327
	4	30	7.0169	4.9308
	5	38	4.0174	3.2262
	6	21	3.4454	2.8686
표현오류율	1	25	.8622	1.7921
	2	19	1.5996	1.4205
	3	19	.6077	1.6370
	4	30	.1867	.3955
	5	38	.5360	.7119
	6	21	1.0829	1.2902
조사오류율	1	25	5.6249	6.1819
	2	19	5.3197	5.3533
	3	19	4.5941	3.6106
	4	30	5.4869	4.3507
	5	38	3.7286	4.0933
	6	21	2.3782	1.9428
어미오류율	1	25	2.6111	2.9370
	2	19	4.2835	2.7676
	3	19	2.7172	2.2541
	4	30	3.9596	2.9198
	5	38	2.6956	1.8610
	6	21	2.1221	2.1370
어순오류율	1	25	.1648	.4973
	2	19	.3148	.9110
	3	19	.3374	1.4706
	4	30	5.072E-02	.2112
	5	38	7.883E-02	.2676
	6	21	5.288E-02	.1795
철자오류율	1	25	4.9922	5.4213
	2	19	7.0155	9.8592
	3	19	4.3178	3.8998
	4	30	4.4990	5.0233
	5	38	7.1065	8.8514
	6	21	2.1422	1.8373

<표 67> 교포 급별 오류율

		SS	df	MS	F	Sig.
오류율	집단간	186.712	3	728.904	4.612	.004
	집단내	391.301	148	158.049		
	전체	578.013	151			
조사오류율	집단간	277.472	3	92.491	4.845	.003
	집단내	825.518	148	19.091		
	전체	1102.991	151			
철자오류율	집단간	785.894	3	261.965	6.389	.000
	집단내	1068.762	148	41.005		
	전체	1854.656	151			

<표 68> 교포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영어권	59	168.0169	145.0801
	일본어권	69	186.3913	132.9043
	중국어권	12	151.0000	108.4041
	러시아권	12	159.2500	151.0648
오류율	영어권	59	23.6867	14.0407
	일본어권	69	16.2493	10.2383
	중국어권	12	24.4265	18.5054
	러시아권	12	16.0492	9.8268
어휘오류율	영어권	59	5.0333	3.9400
	일본어권	69	5.0431	3.5152
	중국어권	12	6.9083	7.3385
	러시아권	12	4.8071	3.9394
표현오류율	영어권	59	.6107	.9692
	일본어권	69	.8294	1.3751
	중국어권	12	1.0338	2.1354
	러시아권	12	.5445	.9506
조사오류율	영어권	59	5.3186	4.7191
	일본어권	69	3.3872	3.6645
	중국어권	12	7.9337	7.0947
	러시아권	12	3.5416	2.4688
어미오류율	영어권	59	3.0146	2.5384
	일본어권	69	3.0311	2.5582
	중국어권	12	2.8880	2.7226
	러시아권	12	3.5347	2.7481
어순오류율	영어권	59	.1217	.5476
	일본어권	69	.1900	.8311
	중국어권	12	6.361E-02	.2204
	러시아권	12	9.058E-02	.3138
철자오류율	영어권	59	8.0029	8.8539
	일본어권	69	3.2265	3.6963
	중국어권	12	4.8261	6.8484
	러시아권	12	3.1191	2.6472

<표 69> 교포 언어권별 오류율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0366.759	1	110366.759	6.101	.015
	집단내	713494.4	150	18089.963		
	전체	823861.2	151			
오류율	집단간	1174.651	1	1174.651	7.220	.008
	집단내	4403.362	150	162.689		
	전체	5578.013	151			
어순오류율	집단간	1.872	1	1.872	4.362	.038
	집단내	64.388	150	.429		
	전체	66.260	151			
철자오류율	집단간	293.691	1	293.691	6.715	.011
	집단내	6560.964	150	43.740		
	전체	6854.656	151			

<표 70> 교포 성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여자	93	195.7849	146.1121
	남자	59	140.4915	113.6699
오류율	여자	93	17.5518	11.8386
	남자	59	23.2562	14.0868
어휘오류율	여자	93	4.7152	3.9393
	남자	59	5.8815	4.2891
표현오류율	여자	93	.7737	1.1082
	남자	59	.6823	1.5138
조사오류율	여자	93	4.1433	4.5762
	남자	59	5.0829	4.4422
어미오류율	여자	93	2.7810	2.3466
	남자	59	3.4820	2.8231
어순오류율	여자	93	5.726E-02	.2283
	남자	59	.2850	1.0136
철자오류율	여자	93	4.0911	5.6343
	남자	59	6.9435	7.9224

<표 71> 교포 성별 오류율

2) 외국인

외국인 학습자들은 급에 따라, 그리고 언어권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오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각 변인별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급별 차이

외국인 학습자들이 급에 따라 오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7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표현 오류율,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 전반적인 오류 유형에서 급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 어절 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급이 올라감에 따라 대체로 어절 수도 많아졌다.

어휘 오류율이나 조사 오류율에서는 4급에서의 오류율만 다소 높게 나타났을 뿐 전체적으로 급이 올라갈수록 오류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어미 오류율이나 표현 오

류율에서는 어떤 일정한 흐름을 찾을 수 없었다.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1780630.7	5	356126.139	38.664	.000
	집단내	4485619.6	487	9210.718		
	전체	6266250.3	492			
오류율	집단간	14493.298	5	2898.660	11.495	.000
	집단내	122801.838	487	252.160		
	전체	137295.136	492			
어휘오류율	집단간	862.979	5	172.596	7.672	.000
	집단내	10955.488	487	22.496		
	전체	11818.467	492			
표현오류율	집단간	59.453	5	11.891	3.006	.011
	집단내	1926.153	487	3.955		
	전체	1985.606	492			
조사오류율	집단간	1566.555	5	313.311	13.497	.000
	집단내	11305.126	487	23.214		
	전체	12871.681	492			
어미오류율	집단간	356.385	5	71.277	6.467	.000
	집단내	5367.797	487	11.022		
	전체	5724.182	492			
철자오류율	집단간	836.255	5	167.251	6.925	.000
	집단내	11761.950	487	24.152		
	전체	12598.205	492			

<표 72> 외국인 급별 오류율 차이 분석

② 언어권별 차이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언어권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74>에 제시된 것처럼 총 어절 수와 오류율,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 어미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 전체적으로 언어권별 차이가 총 어절 수만 .01 수준이고, 나머지 오류율의 경우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앞에서 본 교포 학습자의 결과와 비교할 때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언어권이라는 변인이 오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언어권별로 가장 오류율이 높은 언어권은 <표 75>에서 보듯이 중국권이었으며, 다음이 영어권, 그리고 대체로 러시아권과 일본어권의 순서였다. 다만 철자 오류에 있어서는 영어권 학습자가 가장 오류율이 높았고, 다음이 중국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의 순서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권별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③ 성별 차이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여자와 남자간에 오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76>에 제시된 것처럼 총 어절 수에 있어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인 오류율과 어휘 오류율, 조사 오류율, 철자 오류율 등에서 각각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 77>에서 보듯이 여자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남자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오류율이 대체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대체로 여자 외국인 학습자들이 남자 외국인 학습자들에 비해 정확한 문장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N	Mean	Std. Deviation
종어절수	1	128	81.5234	53.0396
	2	117	146.1966	96.8124
	3	64	160.4688	88.9394
	4	75	168.2933	103.5785
	5	59	211.0847	90.6180
	6	50	287.7600	161.1558
오류율	1	128	27.7703	22.2860
	2	117	21.7495	14.3256
	3	64	19.4311	14.4120
	4	75	19.3628	14.6938
	5	59	12.3560	9.0756
	6	50	12.1777	6.5144
어휘오류율	1	128	7.3282	6.0913
	2	117	5.5928	5.0464
	3	64	4.9328	3.6645
	4	75	6.0216	4.6835
	5	59	3.5136	2.8817
	6	50	3.6910	2.6283
표현오류율	1	128	1.0907	3.3516
	2	117	.9418	1.6618
	3	64	.3808	.8148
	4	75	.1339	.4010
	5	59	.7833	1.1183
	6	50	1.0059	1.0389
조사오류율	1	128	7.7209	6.3575
	2	117	5.3083	4.6842
	3	64	4.5937	4.5884
	4	75	5.1090	4.6926
	5	59	2.6689	2.7790
	6	50	2.5552	2.1335
어미오류율	1	128	2.6871	3.4211
	2	117	4.4156	4.1935
	3	64	3.0075	2.7997
	4	75	3.7765	3.4978
	5	59	1.9163	1.5964
	6	50	2.4884	2.4514
어순오류율	1	128	.2296	.7975
	2	117	.2132	.5980
	3	64	.1651	.4269
	4	75	.1515	.3119
	5	59	2.165E-02	.1176
	6	50	5.291E-02	.1375
철자오류율	1	128	5.8836	7.2310
	2	117	4.1419	3.9803
	3	64	4.0784	5.2486
	4	75	3.3478	3.7934
	5	59	2.5616	2.3134
	6	50	1.8720	1.8791

<표 73> 외국인 급별 오류율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83948.093	4	45987.023	3.690	.006
	집단내	6082302.2	488	12463.734		
	전체	6266250.3	492			
오류율	집단간	21082.732	4	5270.683	22.133	.000
	집단내	16212.404	488	238.140		
	전체	37295.136	492			
어휘오류율	집단간	1014.366	4	253.592	11.454	.000
	집단내	10804.100	488	22.140		
	전체	11818.467	492			
표현오류율	집단간	52.027	4	13.007	3.283	.011
	집단내	1933.579	488	3.962		
	전체	1985.606	492			
조사오류율	집단간	2741.396	4	685.349	33.015	.000
	집단내	10130.284	488	20.759		
	전체	12871.681	492			
어미오류율	집단간	294.849	4	73.712	6.625	.000
	집단내	5429.333	488	11.126		
	전체	5724.182	492			
철자오류율	집단간	517.144	4	129.286	5.222	.000
	집단내	12081.061	488	24.756		
	전체	12598.205	492			

<표 74> 외국인 언어권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영어권	84	143.2381	110.5058
	일본어권	199	177.0955	119.7996
	중국어권	105	139.4476	95.2476
	러시아권	77	134.0260	100.4164
오류율	영어권	84	25.7765	17.5551
	일본어권	199	14.1434	10.8498
	중국어권	105	30.4214	22.8800
	러시아권	77	18.4503	10.7125
어휘오류율	영어권	84	6.6898	5.1211
	일본어권	199	4.4583	4.0485
	중국어권	105	7.8562	6.0989
	러시아권	77	4.6736	3.9671
표현오류율	영어권	84	.9824	1.8242
	일본어권	199	.5190	.9989
	중국어권	105	1.2930	3.5935
	러시아권	77	.6564	1.1743
조사오류율	영어권	84	7.2678	5.8392
	일본어권	199	2.8369	2.5493
	중국어권	105	8.5868	6.6436
	러시아권	77	4.3341	3.5876
어미오류율	영어권	84	3.4678	2.8831
	일본어권	199	2.5773	3.0480
	중국어권	105	4.5543	4.2556
	러시아권	77	2.7972	3.2940
어순오류율	영어권	84	.2284	.6083
	일본어권	199	.1565	.5688
	중국어권	105	.1315	.4784
	러시아권	77	.1986	.5779
철자오류율	영어권	84	5.6545	7.5624
	일본어권	199	2.9745	3.2105
	중국어권	105	4.8525	5.5246
	러시아권	77	3.8868	4.0502

<표 75> 외국인 언어권별 오류율

		SS	df	MS	F	Sig
총어절수	집단간	72564.673	1	72564.673	5.753	.017
	집단내	6193685.6	491	12614.431		
	전체	6266250.3	492			
오류율	집단간	2984.137	1	2984.137	10.909	.001
	집단내	134310.999	491	273.546		
	전체	137295.136	492			
어휘오류율	집단간	242.192	1	242.192	10.272	.001
	집단내	11576.274	491	23.577		
	전체	11818.467	492			
조사오류율	집단간	273.771	1	273.771	10.670	.001
	집단내	12597.910	491	25.658		
	전체	12871.681	492			
철자오류율	집단간	139.658	1	139.658	5.504	.019
	집단내	12458.547	491	25.374		
	전체	12598.205	492			

<표 76> 외국인 성별 오류율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총어절수	여자	302	166.3907	114.7580
	남자	191	141.4869	108.3294
오류율	여자	302	18.5971	15.1999
	남자	191	23.6474	18.4632
어휘오류율	여자	302	5.0238	4.4632
	남자	191	6.4626	5.4194
표현오류율	여자	302	.6899	1.6532
	남자	191	.9025	2.4684
조사오류율	여자	302	4.6239	4.2973
	남자	191	6.1536	6.0868
어미오류율	여자	302	3.0357	2.9998
	남자	191	3.4397	3.9713
어순오류율	여자	302	.1422	.5180
	남자	191	.1951	.5814
철자오류율	여자	302	3.6224	3.9642
	남자	191	4.7150	6.3778

<표 77> 외국인 성별 오류율

7. 요약

이상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이는 오류 유형은 어휘 오류, 조사 오류, 철자 오류, 어미 오류의 순으로, 학습 단계에 따라 오류율에는 차이가 있으며, 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자가 산출한 총 어절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오류율은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오류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표 78>와 같이 다음의 오류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오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은 학습 단계(급)로 거의 모든 오류 유형에서 오류율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서는 언어권이었는데, 어미와 어순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오류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성별이었는데, 성별은 전체적인 오류율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유형별 오류율에서는 어휘와 어순, 철자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국어는 철자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오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습 단계(급)	언어권	성별	모국어
총 어절 수	***	**	***	X
오류율	***	***	***	X
어휘 오류율	***	***	***	X
표현 오류율	***	**	X	X
조사 오류율	***	***	X	X
어미 오류율	***	X	X	X
어순 오류율	X	X	**	X
철자 오류율	***	***	***	**

* p< .05 ** p< .01 *** p< .001

<표 78> 변인별 오류율 차이

학습자의 급별 오류 차이를 총 어절 수와 평균 어절 수, 오류율, 그리고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오류 범주 유형별로 비교하면 <표 79>과 같다.

	평균어절 수	오류어절 수	오류율(%)	1위	2위	3위	4위
1급	81.04	21.53	26.58	조사	어휘	철자	어미
2급	145	30.58	22.23	어휘	조사	철자	어미
3급	151.9	30.66	19.35	어휘	조사	철자	어미
4급	171	29.39	20.08	어휘	조사	어미	철자
5급	209	27.74	15.25	철자	어휘	조사	어미
6급	290	34.23	11.98	어휘	조사	어미	철자

<표 79> 급별 오류 비교

제 6 장

학습자 오류 유형의 국어학적 분석

1. 어휘적 오류 유형의 분석

1.1 한국어 어휘의 특징

한국어의 어휘 특징으로 이충우(1994)에서는 어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 어휘의 특징>

- 1) 유의어가 많다.
- 2) 동음이의어가 많다.
- 3) 대우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다.
- 4) 음운교체에 의한 어감의 차이가 발달하였다.
- 5) 개념어로는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 6) 기초어휘에는 고유어 체계가, 전문어휘에는 한자어가 발달하였다.
- 7) 2-3-4 음절어가 발달하였다.
- 8) 체언이 격에 따라 형식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한국 어휘의 특징은 결국 어휘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유의어가 많고, 개념어 내지는 전문어휘에 한자어가 많이 쓰임으로 인해 어휘의 의미적 오류가 많이 발생하며, 대우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되어 있음으로 해서 어휘의 존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각 등급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존대 어휘 오류의 경우, 주로 저급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존댓말과 반말의 관계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휘 사용에 혼동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학당의 중급1(L3, 3급)이상의 학생들이 이 존대 어휘 오류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급에서 배운 존댓말과 반말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어휘의 오류는 또한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어휘의 양에 따라 그 비율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의 경우, 초급1(1급, L1)에서는 교재에 나타난 710여개의 어휘에 확장 연습을 통해 1,000-1,200여개의 어휘를 배우게 되며, 그 어휘와 관련된 주제는 학습자가 언어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그 어휘의 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초급2(2급, L2)에서도 역시 710여개의 새단어와 이의 확장을 통한 어휘 학습으로 초급2까지의 어휘가 3,000여개의 달하게 된다. 중급1(3급, L3)급에서

는 새단어로 제시되는 것은 500여개이나 읽기 수업등을 통해 초급과 같은 정도의 어휘를 익히게 된다. 중급1(3급, L3)까지는 주제가 일상적이어서 일상 생활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는 어휘가 많기 때문에 중급1단계에서는 어휘의 오류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급2(4급, L4)부터는 주제도 전문적이며 어휘의 통제도 힘들어진다. 즉, 학습자가 접하는 어휘의 양이 초급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의 오류율이 증가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처음 한국어 어휘를 접하게 되는 초급1에서와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유의어 중에서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는지를 보는 어휘의 의미적 오류는 중급이후부터는 어휘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중급이후부터 어휘량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그 많은 어휘의 의미적 차이와 연어 관계 등을 제대로 습득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어휘 오류의 유형을 살펴 보기 위해 태깅 오류 세트를 만들어 태깅하여, 어휘 오류로 태깅된 어절과 문장을 기초로 하여 어휘 오류를 태깅 오류, 문법적 오류, 의미적 오류로 크게 나누었다.

1.2 어휘의 형태적 오류

형태적 오류는 일면 맞춤법 오류와 그 맥이 닿아 있다. 형태적 오류는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의 정확한 맞춤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적절한 한국어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대다수인데, 이 논의에서는 단순한 맞춤법 오류는 다루지 않는다.¹⁾

어휘의 형태적 오류는 그 문맥에 적절한 한국어 어휘를 몰라서

- (1) 모국어나 학습자가 알고 있는 외국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쓴 오류
 - (2) 학습자가 알고 있는 발음이 비슷한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쓴 오류
 - (3)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휘인데 철자를 생략하거나 필요없는 철자를 첨가하여 쓴 오류
 - (4) 학습자 스스로 한국어 어휘를 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낸 오류
 - (5) 모국어의 어휘를 이용하여 한국어 어휘를 만들어 낸 오류
-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가. 저는 자동차 *레이스가(✓ 경주가) 좋습니다.(JAP/L1)

1) 맞춤법 오류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말한다.

(1)하지만 한국말하고 일본말은 문법도 똑같고 *한글도(✓ 한글도) 배우기 쉬어서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JAP/L4)

(2)결과를 알기 *이해서(✓ 위해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지요.(KUSA/L4)

위의 '한글'과 '이해서'는 글로 보지 않고 소리로 들었을 때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이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처럼 학습자가 맞춤법을 틀리게 썼으나, 다른 어휘로 오해할 가능성이 없는 오류를 맞춤법 오류로 보았다.

나. 연세어학원에는 2급부터 *스타트(√시작) 했는데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꼭 알맞음입니다.
(JAP/L2)

다. 둘 *파티를(√잔치를) 신촌에서 축하 했습니다.(BRI/L1)

(2)가. 그래서 조금씩 *잃어버렸다(√잊어버렸다). (KARG/L4))

나. *애를(√예를) 들으면 회사 손님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이름이 딱 들어 보고 나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CHI/L4)

다. 그래서 *현재(√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이해하기 더 힘들어졌습니다.(KUSA/L4)

(3)가. 주요 *인원은(√원인은) 기술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KUSA/L5)

나. 러시아에서는 세대차이문제는 *19세기부터(√19세기부터) 분명히 나타났다.(RUS/L5)

(4)가. 그렇지만 *배병(√배탈) 걸렸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프고 엄마하고 아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NEW/L1)

나. 그거분만 얹이라, 미구과 비교할때 *물값이(√물가가) 너무 싸요.(USA/L5)

다. 그때까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서 *망설거렸지만(√망설였지만)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해서 여기에 와 봤다.(KJAP/L4)

(5)가. 동아리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지간(√학생사이에) 서로 잘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생각이 있다.(CHI/L6)

나. *장래적으로는(√장래에) 한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JAP/L6)

다. 그러다가는 모두가 *소조에도(√모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때로는 농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KJAP/L6)

예문 (1)은 학습자가 모국어나 알고 있는 외국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쓴 오류이며, (2)는 학습자가 알고 있는 비슷한 발음의 어휘로 잘못 쓴 경우, (3)은 음절이나 음운을 잘못 배합하여 어휘를 잘못 만든 오류, (4)는 학습자 스스로 한국어 구조에 맞게 생산했지만 잘못된 어휘를 만들어 낸 오류, (5)는 학습자 모국어에 있는 어휘를 이용하여 한국어 어휘를 만들어낸 오류이다. 특히 (5)와 같은 오류는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일본어와 중국어에 있는 한자어를 한국식으로 읽어서 만든 오류로 오류(1)과 유사하다.

특히 오류 (4)에서처럼 학습자 스스로 어휘를 만들어 낼 경우 한국어 어휘 구조와 맞지 않는 어휘를 쓰는 경우가 많다.

(6)가. 비록 처음 한국올때 매운 음식이 싫었 하지만 점점도 *습관합니다(√습관이 됐습니다).(CHI/L1)

나. 부산에 있었을 때보다 조금은 한국말 실력이 *향상해졌어요(√향상됐어요).(JAP/L2)

다. 그런데 조 선생님이 학원을 설립하셨서 한 반년이 지냈습니다만 학원은 *순조입니까(√잘 됩니까)? (JAP/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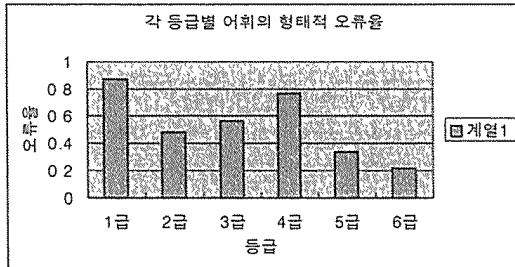
라. 그때에 한국친구를 알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점점도 *흥취했습니다(√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CHI/L1)

마. *가스주에서(√주유소에서) 윤정이 일합니다.(USA/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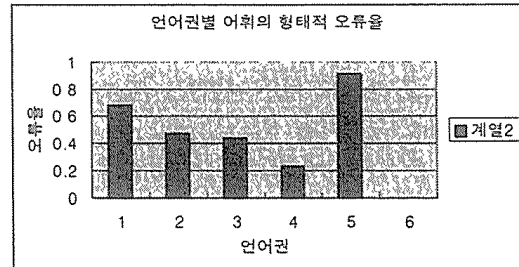
바. 중국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이하면 술을 *적당적으로(√적당하게) 마시면 몸에 좋아요.(CHI/L4)

어휘의 형태적 오류는 전 등급에 걸쳐 고루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특히 예문 (6)과 같은 오류는 어휘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중급의 경우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표1> 각 등급별 어휘 형태적 오류율²⁾



<표2> 언어권별 어휘의 형태적 오류 비율



<가로축 1: 중국어권, 2: 일본어권, 3: 영어권
4: 러시아어권, 5: 기타 언어권>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어휘의 형태적 오류는 비율이 높지 않다. 특히 1급에서 어휘형태 오류율이 높은 것은 처음 한국어 어휘를 접함으로써 소리가 비슷한 어휘 사이의 구별을 잘 하지 못해 오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중급1(3급, L3)과 중급2(4급, L4)에서 오류율이 높아지는 것은 형태 오류 중에서 학습자 스스로 어휘를 만들어 냈으나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만들어 내거나 학습자의 모국어를 이용하여 한국어 어휘를 잘못 만들어내는 오류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1.3 어휘의 문법적 오류

학습자가 어휘를 정확하게 제대로 쓴다는 것은 해당 어휘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모두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문장에서의 결합관계와 기능이 나타난다.

어휘의 문법적 오류는 ① 형태의 변화 오류, ② 조사 결합 오류, ③ 어미 결합 오류, ④ 품사의 오용, ⑤ 어휘의 존재 오류, ⑥ 어휘 생략 오류, ⑦ 어휘의 과용 오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휘 형태의 변화오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어휘는 용언과 서술격 조사, 몇몇의 조사를 제외하고는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였을 때 그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7)가. 한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나. 한국이 참 좋지요?

다.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라.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2) 각 오류율은 각 등급의 전체 어절수에 대한 오류 어절 비율이다.

마. 여기가 한국입니까?

위의 예문에서 ‘한국’, ‘나라’, ‘참’, ‘새’, ‘어린이’, ‘일찍’, ‘여기’와 같은 어휘는 그 형태가 바뀌지 않으나 ‘입니다/입니까’, ‘좋은/좋지요’와 같은 용언과 서술격 조사는 그 문장의 의미가 어떤지, 무엇을 서술하는지/수식하는지에 따라 같은 어휘라 할지라도 그 형태가 바뀌어 나타난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휘를 배울 때 오류를 보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다’, ‘좋다’와 같은 용언과 서술격 조사의 형태가 바뀌는 부분이다.³⁾

그리고, 대명사 중에서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 것이 있다.

(8)가. 제가 하겠습니다.

나. 저는 미국사람입니다.

‘저’와 ‘제’는 뒤에 오는 조사에 따라 쓰이는 이형태이다. 이처럼 용언과 대명사의 형태를 학습자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오류를 어휘 형태 변화 오류라 하여 어휘 오류의 한 유형으로 삼았다. 이 오류의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9)가. 저는 지금 서울시 마포구에서 *살습니다.(√ 삽니다.) (CHI/L1)

나. 저는 한국말을 배우고 *어려워지만(√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CHI/L1)

다. 그리고, 제 종사람과 같이 테이블에서 *기쁘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KJAP/L1)

라. *내는(√ 나는) 너를 보고 싶습니다.(USA/L2)

용언의 형태 변화 오류는 초급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고급의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어휘의 문법적 오류는 조사와의 결합관계에서도 볼 수 있다. 명사는 조사와 제약없이 결합하여 쓰일 수 있으나 그 외의 어휘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나 부사는 보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보조사와의 결합에서도 제약을 보인다. 특히 서술격조사인 ‘이다’는 주격조사, 목적격 조사와 함께 쓰이지 않음에도 ‘이다’를 ‘있다’와 혼동하여 그 앞에 조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오류를 어휘의 조사 결합 오류라 하였다.

(10)가. *날마다(매일)은(√ 날마다) 아침 9시에 수업을 시작 합니다.(CHI/L1)

나. 왜냐하면, 사람마다 *매일에(√ 매일) 비타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CHI/L4)

다. 비록 처음 한국올때 매운 음식이 싫었 하지만 *점점도(√ 점점) 습관합니다.(CHI/L1)

라. 오른에 *저는입니다(√ 제가 있습니다).(CHI/L1)

마. 저는 오른 쪽 하얀색 *옷이입니다(√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CHI/L1)

(10가, 나, 다)는 부사에 조사를 붙여 잘못 쓴 오류이며, (10라, 마)는 ‘이다’를 잘못 씌고 동시에 ‘이다’앞에 조사를 붙여 비문을 만든 오류이다.

3) ‘이/가’, ‘을/를’, ‘은/는’처럼 형태가 바뀌는 조사가 있으나 이는 조사의 오류에서 다루질 것이다. ‘이다’를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이다’와 ‘있다’를 학습자가 어휘 차원에서 혼동하여 쓰기 때문이다.

어휘의 어미 결합 오류는 용언과 서술격 조사가 아닌 성분에 어미를 붙여 비문을 만든 오류이다.

(11)가. 핸드볼 *연습습니다(✓ 연습합니다).(JAP/L1)

(11가)는 명사에 어미를 붙여 비문을 만든 오류이다. 이 오류는 특히 일본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의 초급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다.

어휘의 품사 오용 오류는 각 품사의 특성을 잘못 학습하여 비문을 만드는 오류이다. 어휘는 그 범주별로 문장에서 쓰이는 양상이 다르다. 명사는 조사와 함께 쓰여 문장의 여러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나, 관형사는 언제나 명사 앞에, 부사는 용언이나 관형사, 부사 앞에 쓰이며, 용언은 서술어로 쓰이거나 명사 앞에 관형형으로 쓰인다. 특히 용언의 경우, 앞에 나오는 명사 구와의 관계, 의미적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오류가 발견된다. 즉, 목적어가 있음에도 형용사를 쓴다든가, 행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를 쓴다든가 하는 오류가 발견된다. 이렇게 각 품사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학습하지 못해 범하는 오류를 어휘의 품사 오용 오류라 하여 오류의 한 유형으로 설정했다.

(11)가.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습관(✓ 보통LAd) 침대에서 잔다.(CHI/L3)

나. 기회가 있으면 이런 집에 다시 살고 *싶어합니다(✓ 싶습니다 LAj).(KJAP/L3)

다. 밀라노에 *이는(✓ 있는LAj) 유연한 도오모입니다.(USA/L1)

라. *더(✓ 다른LD) 하나는 1층이 가게이니까 방이 시끄러운 것입니다.(JAP/L3)

마. web 기술 *끝부하기도(✓ 공부LN) 열심히 하겠습니다.(JAP/L1)

바. 저는 한국에 온지 마침 한달 지나니까 한국 생활에도 저금씩 *익숙했어(✓ 익숙해졌어 LV).
(JAP/L2)

(11가)는 ‘습관’이 명사임에도, 특히 부사처럼 쓰일 수 없는 명사임에도 부사로 잘못 쓴 것이며, (11나)는 보조 형용사를 써야함에도 보조 동사를 잘못 쓴 오류이다. (11다)는 서술격 조사를 형용사 ‘있다’와 혼용하여 오류를 보인 것이며, (11라)는 부사를 관형사처럼 잘못 쓴 경우이다. (11마)는 명사를 써야함에도 동사의 명사형을 쓴 오류이며, (11바)는 동사를 써야 할 곳에 형용사를 쓴 경우이다. 어휘의 품사 오용 오류는 특히 저급에서 많이 나타나며,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그 빈도가 낮아진다.

어휘의 존대 오류는 존대 어휘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한국어 어휘에는 화제와 관계 있는 어휘가 있다. 존대법을 문법 요소인 선어말 어미로 나타낼 경우 이는 문법적 오류로 다시 분류가 되어 설명될 것이나, 여기서는 어휘와 관련된 문법적 오류를 보인다면 다음과 같다.

(12)가. 미국에 갈 대 *내가(✓ 저는) 꼭 미국에 있는 Disney Store에 가 보고 싶어요. (KUSA/L2)

나. *저는(✓ 나는) 한국에 온지 마침 한달 지나니까 한국 생활에도 저금씩 익숙했어!(JAP/L2)

다. 아직 제 마음이나 생각기를 어머니한테 잘 전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JAP/L2)

라. 할머니 *나이가(✓ 연세가) 85세입니다.(JAP/L1)

마. 부모님도 후쿠오카에 *있습니다(✓계십니다).(JAP/L1)

이 오류는 어휘로 준대의 유무를 나타낼 때 나타나는 오류이다. 이 오류는 특히 초급1에서 많이 나타나며, 준대말에서 반말로 넘어가는 초급2(2급, L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어휘의 생략오류와 과용 오류는 문장의 구성과 관계있는 오류이다. 한국어는 담화 상황에 따라 문장의 한 성분을 생략하여 쓸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한 특성을 잘못 남용하여 필요한 성분임에도 학습자가 생략하여 쓰는 경향을 보인다.

(13)가. *(✓저는) 일본 마이찌에서 왔습니다.(JAP/L1)

나. *(✓저도) 모르게 한국 사람과 같이 있었을 때 마음이 편했습니다.(JAP/L4)

다. *직업이(✓제 직업은) 학생입니다.(KJAP/L1)

라. 그 사진은 제가 중국 귀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CHI/L1)

마. 이 사진이 *1984에(✓1984년에) 지겼습니다.(USA/L1)

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글이나 한국말로 대화나 *(✓글을) 쓰는 적이 별로 없었다.
(KARG/L4)

사.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유교 사회(✓사회이기) 때문이다.(RUS/L5)

아. 저는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이 축구 월드컵을 무척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ITA/L1)

담화상, 또는 문법적으로 주어가 있어야 함에도 주어를 생략하거나(13가, 나), 관형어를 생략하는 오류를 보이며(13다, 라), 의존명사를 생략하여 숫자만으로 연수를 표시하고(13마), 목적어를 생략하기도 한다(13바). 특히 서술격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가 많으며(13사), 필요한 명사구를 생략할 때도 있다(13아). 어휘 생략 오류는 생략되는 성분이 다양하며, 학습자의 전 등급에 걸쳐 고루 나타난다.

어휘의 과용 오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어휘를 써서 문장을 어색하게 만드는 오류이다.

(14)가. *저는(✓∅) 아버지, 어머니 고향에 계십니다.(CHI/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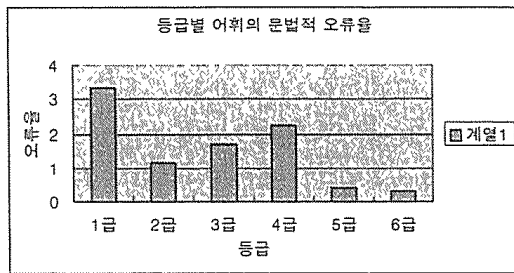
나. 그녀가 항상 '한국은 *하나(✓∅) 대단히 미려한 나라입니다'이라고 합니다. (CHI/L1)

다. 한국말은 동경에 있었을 때, 일년간 *동안(✓∅) 한국 YMCA에서 공부했습니다.(JAP/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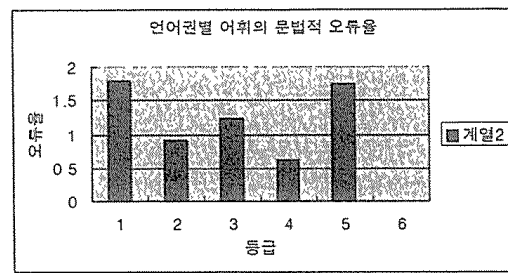
라. 한국에 온지 벌써 한달 되었는데 아직 한국 생활에 *잘(✓∅) 익숙해지지 않았는데요.(CZE/L2)

마. 그 브라질 *사람 여자가(✓사람이) 리오테 자네이로에 태어났어요.(KBRA/L2)

(14)의 각 예문은 필요없는 어휘를 써서 비문을 만드는 오류이다. 특히 (14다, 라)는 이미 문장에 나타난 어휘의 의미가 다른 어휘에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서 의미가 중복되어 문장이 어색한 오류들의 예이다. 이 오류는 전 등급에 걸쳐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표3> 각 등급별 어휘의 문법적 오류 비율



<표4> 언어권별 어휘의 문법적 오류 비율
(<1: 중국어권, 2: 일본어권, 3: 영어권, 4: 러시아어권, 5: 기타 언어권>)

어휘의 문법적 오류는 초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용언의 형태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존대 어휘 사용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중급에서 다시 높아지는 것은 용언의 형태 변화 오류와 존대 어휘 오류는 줄어드나 그대신 어휘의 생략이나 과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4 어휘의 의미적 오류

어휘 오류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이다. 의미적 오류는 어휘의 의미관계를 혼동하여 잘못된 오류를 말하며, (1) 구체적인 용어가 필요한데도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 오류, (2) 너무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 오류, (3) 두 가지 공통 하의 관계어 가운데 적합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한 오류, 즉 유의어 중에서 잘못 어휘를 잘못 선택하여 사용한 오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5)가. 제가 언제나 도서관에서 숙제를 *սւնւմ (✓합니다).(CHI/L1)

나. 제 생각에는 *한글 (✓한국어) 발음은 더 어렵습니다.(CHI/L1)

다.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형하고) 여동생하고 형수하고 여자조카가 있습니다.(CHI/L1)

라. 요즘 한국친구를 *만들습니다 (✓사귀었습니다).(JAP/L1)

마.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입에서 *물 (✓침) 나와요.(KOR/L1)

바. 내가 *눈이 (✓길눈이) 어두워서 보통 집에 학교만 가다와요.(CHI/L1)

(16)가. 일본 주택 근처에서 *걸어가면 (✓걸으면) 생각 보다 깨끗하고 조용해요.(TAI/L2)

나. 돌파티를 신촌 근처에서 *축하했습니다 (✓했습니다).(JAP/L1)

다. 우리 자신이 밥을 *만듭니다 (✓합니다). (CHI/L1)

(17)가. 서울에 *산비탈이 (✓경사진 곳) 많기 때문에 매일에 피곤한 느낌이 있습니다.(CHI/L1)

나.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많은 친구를 *알겠습니다 (✓사귄 겁니다).(CHI/L1)

다. 우리는 그날에 조금 피곤했지만 모두 *기뻐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CHI/L1)

라. 다음에 선생님도 같이 *오십시오 (✓갑시다).(IND/L1)

마. *처음에 (✓첫번째) 3년만에 한국에서 만났던 버마친구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입니
다.(FRA/L2)

바.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연휴에 (✓휴가에) 여행을 가서 관광지가 복잡한 편입니다.(JAP/L2)

사. 나는 왜국여행은 3번째였는데 *작은 (✓어렸을) 때부터 이태리를 그리워하고 있어스니

까....(KJAP/L2)

아. 그런데 저는 요즘 밤늦게까지 바둑을 뒤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게 힘들어서 지각할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선생님 *허가해(✓용서해) 주세요.(JAP/L3)

자. 작고 오래 VCR이지만 우울했을 때 그 VCR가 저를 *위문했습니다(✓위로했습니다).(KUSA/L3)

어휘의 의미적 오류는 유의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할지 모를 때 나타나는 오류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오류이다. 예문 (15)는 구체적인 용어가 필요한데도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 오류의 예이며, (16)은 너무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 오류, (17)은 두 가지 공통 하의 관계어 가운데 적합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한 오류들의 예이다. 어휘의 의미적 오류는 전 등급에 걸쳐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특히 많이 나타나는 한국어에는 어원상 한자어에서 온 어휘와 순수 어휘가 있다. 특히 어휘의 의미적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번째 오류는 이 어원과 관계가 있다. 한자어휘와 순수어휘가 있을 때 학습자는 혼동을 일으켜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18)가. *동급생들이(✓반친구들이)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CHI/L1)

나. 어렸을 때 캠프를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실물의(✓진짜) 복두칠성을 보고 아주 아주 감동했습니다.(JAP/L3)

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가 빨리 *변해졌습니다(✓바뀌었습니다). (USA/L3)

라. 취직후에는 늘 목표를 새우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우다는 *의식으로(✓생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JAP/L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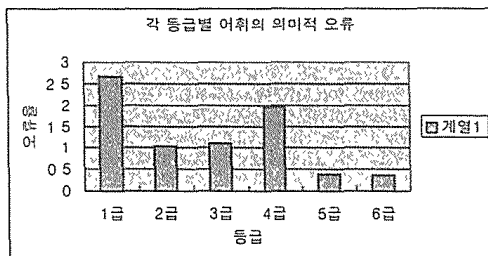
마.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쓰고(✓이용해서) 2박 3일로 갈거예요.(JAP/L4)

바. 이번 학기에는 많이 *연수하겠습니다(✓배우겠습니다).(CHI/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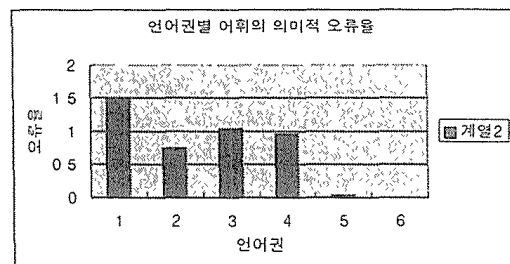
사. 동생이 *1인가(✓한 명은) 고등학생 *1해(✓1학년), *1인가(✓한 명은) *3해입니다(✓3학년입니다).(JAP/L1)

아. *한(✓일) 년후에 뉴욕시에 가고 유명한이 되었습니다.

이 오류를 보이는 학습자는 대부분 중국어권과 일본어권 학습자인데, 숫자와 관계해서는 다른 언어권 학습자도 혼동을 보이고 있다.



<표5> 각 등급별 어휘의 의미적 오류 비율



<표6> 언어권별 어휘의 의미적 오류 비율(<가로축 1: 중국어권, 2: 일본어권, 3: 영어권, 4: 러시아어권, 5: 기타 언어권>)

어휘의 의미적 오류를 하위 분류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오류와 두 번째 오류는 그리 빈도가 많지 않아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몰라서 범하는 오류는 세 번째 오류에 통합하여

비율을 내 보았다. 위의 비율에서 보듯이 어휘의 의미적 오류는 다른 어휘 오류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특히 초급과 4급에서 오류율이 높은 이유는 초급의 경우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확실하게 익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4급의 경우에는 학습해야 하는 어휘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1.5 연어 오류와 파-사동 어휘 오류

어휘의 문법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연어 오류와 파-사동 어휘 오류가 있다. 연어는 명사가 어느 특정한 동사와 잘 어울려 쓰이는 공기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눈’은 ‘닫다’의 의미로 ‘감다’를, ‘열다’의 의미로 ‘뜨다’를 쓰는데(눈을 감다, 눈을 뜨다), ‘입’은 ‘닫다’의 의미로 ‘다물다’를, ‘열다’의 의미로 ‘열다’를 쓴다(입을 다물다, 입을 열다).

이처럼 명사에 따라 쓰이는 동사가 제약될 때 이 동사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학습자는 그와 유사한 의미의 다른 동사를 쓰게 된다.

(19)가. 비싸서 사지 못하면 친구와 같이 시간을 *걸어서(✓들여서) 나무로 별장을 짓고 싶습니다.(JAP/L3)

나.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얻고(✓받고) 싶습니다.(RUS/L4)

다. 경쟁이 심하고 모든 일의 속도는 *높아진다(✓빨라진다).(CHI/L5)

라. 스트레스 *나기(✓생기기) 전에 스트레스를 앓반도록 생활을 잘 유도 하셔야 합니다.(USA/L5)

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2년동안 정말 기계회사에서 무역사무를 *했습니다(✓봤습니다).(JAP/L6)

바. 고등학교 때는 학교 Orchestra에서 바이올린도 *치고(✓켜고) 수영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KUSA/L6)

이 오류는 전 등급에 걸쳐 고루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나, 자료가 더 많이 수집되면 저급 학습자보다는 고급 학습자에게서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급 이후부터 학습하는 어휘의 양이 늘어나며, 고급 어휘일수록 연어관계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파-사동 어휘 오류는 조사의 오류와 함께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파-사동의 문법적인 의미가 어휘 안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수동, 사동의 의미가 문법적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휘적인 요소로 나타나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에는 조사 오류가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가. 물론 돈을 벌으면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번쯤은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납니다(✓생각을 합니다).(JAP/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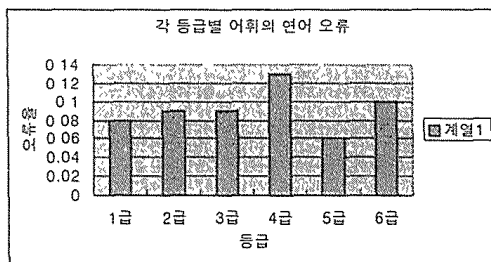
나. 처음엔 힘들었던 만큼 세월이 지나갈수록 *보람이 느껴지게(✓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KJAP/L6)

다. 현재같은 기술이 빨리 *개발하는(✓개발되는) 시대에는 사회도 빨리 발달하고 생활도 급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늙어가는 사람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할 수 없어서 젊은이들과 차이를 느끼는 것이 마련이다.(RUS/L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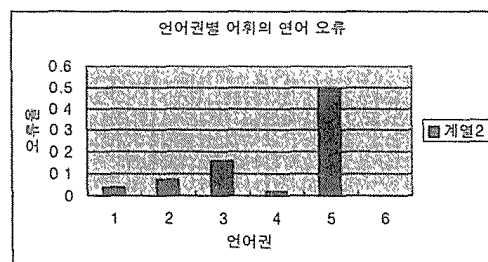
라. 19시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사회는 많이 변화해왔어도 세대차이와 세대차이와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 *줄이기커녕(줄기는커녕) 더 많아졌다.(RUS/L5)

마. 지금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바로 46Kg *늘고(√/늘이고) 경경해 질 것이다. (TAI/L4)

예문 (20가, 나)는 문장의 의미가 능동적이어야 함에도 수동적인 의미의 용언을 쓴 오류이고, (20다, 라, 마)는 앞에 있는 조사에 따라 수동적인 용언을 써야 하는데 능동적인 용언을 써서 생긴 오류의 예이다. 어휘의 파-사동 오류는 초급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어휘량이 증가하면서 어휘의 정확한 쓰임을 간과한 데서 나오는 결과로 보인다.



<표7> 각 등급별 어휘의 연어 오류



<표8> 언어권별 어휘의 연어 오류(<가로축 1: 중국어권, 2: 일본어권, 3: 영어권, 4: 러시아어권, 5: 기타 언어권>)

연어 오류는 빈도가 높지 않아 오류율의 신뢰성이 크지 않다. 특히 기타 언어권에서 연어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수집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휘의 파-사동 오류는 연어 오류보다 빈도가 낮게 나와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없어 오류율을 계산하지 않았다.

1.6 대명사의 사용 양상

한국어의 대명사는 그 쓰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의 한 특성으로 보이는데, 대명사의 종류와 오류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1) 인칭 대명사의 종류

1인칭 대명사 : 나/내, 저/제, 본인, 우리, 저희

2인칭 대명사 : 너/네, 당신, 자네, 너희들, 당신들, ……

3인칭 대명사 : 그, 그(녀), 이이, 그이, 저이, 그들, 이들, 저들, ……

(22) 지시 대명사

사람 지시 대명사 : 이이, 저이, 그이, 그, 그녀

장소 지시 대명사 : 이곳, 저곳, 그곳, 여기, 저기, 거기

(23) 의문 대명사⁴⁾

4) 한국어의 의문 대명사는 부정칭 대명사로도 쓰인다.

의문대명사 : 누구/누, 무엇, 언제, 어디, 아무

(24) 재귀 대명사

자기, 저, 당신

위와 같은 한국어의 대명사는 그 쓰임에서 제약을 보인다. 1인칭 대명사와 2인칭 대명사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생략되는 수가 많으며, 3인칭 대명사는 직급명이나 이름, 지시 관형사 '이, 그, 저'에 '사람'이나 '분'을 붙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에서도 대명사의 용례를 찾기가 힘들다. 특히 2인칭 대명사는 윗사람에게 호칭이나 지칭으로 쓰이는 데에 제약을 보여, 2인칭 대명사의 용례를 찾기가 힘들다.

실제로 어휘 오류 중에서 대명사를 잘못 쓴 비율은 8.41%에 불과하다.⁵⁾ 이는 한국어 대명사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명사를 잘못 쓰는 유형은

(1) 존대법과 관련한 오류

(2) '내'와 '나', '제'와 '저'등의 형태를 잘못 선택하여 쓴 오류

(3) 지시 대명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쓴 오류

(4) 재귀 대명사 '자기'를 잘못 쓴 오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존대법과 관련한 오류는 '나'와 '저', '너'와 적절한 상대방 호칭 등을 혼동하여 쓰거나 대명사를 윗사람에게 잘못 쓴 오류 등을 말한다.

(25)가. 4월 2일부터 *제가(√나는) 어학당에 4급 공부 시작했다.(CHI/L4)

나. *저는(√나는) 한국에 온지 마침 한달 지나니까 한국 생활에도 저금씩 익숙했어!(JAP/L2)

다. *저는(√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그것이 잊으려고하면 된다고 생각한다.(KJAP/L5)

라. *너를(√__씨를) 뵈지 오래 되었습니다.(USA/L2)

마. *너(√__ 씨) 가족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JAP/L2)

바. *당신은(√어머님) 덕분에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요.(USA/L2)

사. 저는 *그들(√부모님을) 아주 그리워 합니다.(CHI/L1)

아. 기획 있으면 다시 *그분을(√그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IND/L1)

(25가, 나, 다)는 글 쓰는 이 자신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음에도 자신을 낮춰 말하여 범한 오류이며, (25라, 마) 상대방의 이름에 '씨'를 붙여서 불러야 하는데도 '너'라고 써서 존대법을 지키지 않은 오류이다. (25바)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로 윗사람에게 '당신'을 쓸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오류이다.

(1)ㄱ. 아무도 없어요?↗ ㄴ. 집에 아무도 없어요.

(2)ㄱ. 어디에 가세요?↘ ㄴ. 어디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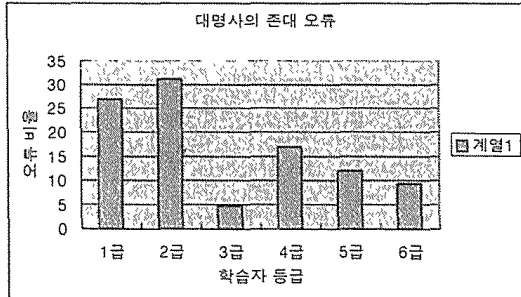
(3)ㄱ. 뭐 드시겠습니까?↘ ㄴ. 뭘 줘 주세요.

각 ㄱ.은 의문대명사로, 각 ㄴ.은 부정칭 대명사로 쓴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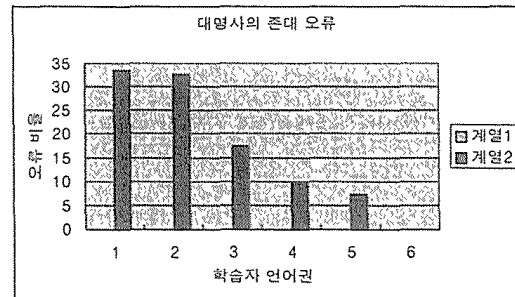
5) 대명사의 오류 유형과 양상을 보려면 오류 말뭉치에 품사 태깅이 되어야 하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품사 태깅을 하지 못한 관계로 대명사 전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못했다. 이 장은 오류 어절 중에 대명사와 관계된 어절을 추출하여 그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 저급에서 나타나며, 중국어권 학습자와 일본어권 학습자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표9> 각 등급별 대명사의 존대 오류



<표10> 언어권별 대명사의 존대 오류



<가로축 1: 중국어권, 2: 일본어권, 3: 영어권
4: 러시아어권, 5: 기타 언어권>

대명사의 형태를 잘못 선택하여 쓴 오류는 다음과 같다. 뒤에 오는 조사의 종류에 따라 선택되는 인칭 대명사의 ‘나/내’, ‘저/제’ 등을 잘못 선택한 오류이다.

(26)가. 그러나 *저가(✓제가) 꼭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야 합니다.(CHI/L4)

나. *제(✓저), 아버지, 어머니, 두명 여동생 한국 생활이 좋습니다.(ISR/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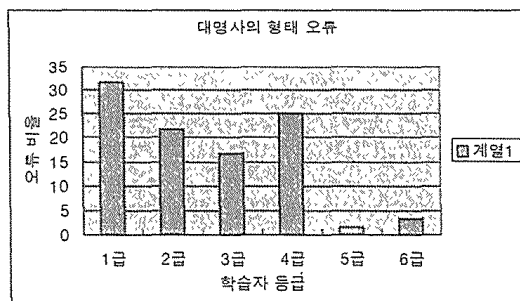
다. *제는(✓저는) 이번 학기에는 여자 친구를 만날 겸 일본에 갈거예요.(JAP/L4)

라. *제도(✓저도) 아직 간 일이 없는데 아주 아름답겠어요.(JAP/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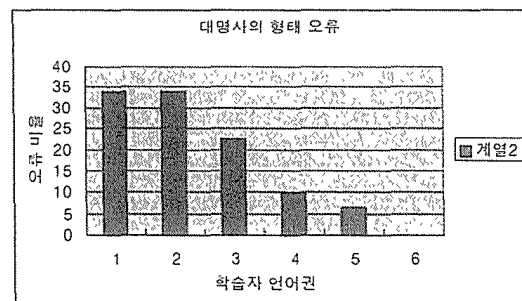
마. 그래고 *내(✓나는) 한국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CHI/L4)

‘내’, ‘제’는 주격 조사와 같이 쓰이거나 다른 명사 앞에 쓰이는 형태이고, ‘나’, ‘저’는 그 외의 조사와 같이 쓰일 때 선택되는 형태인데, (26)의 각 예는 이러한 선택 규칙을 어긴 것들이다. 각 등급별, 언어권별 오류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1> 각 등급별 대명사 형태 오류



<표12> 학습자 언어권별 대명사 형태 오류



<가로축 1: 중국어권, 2: 일본어권, 3: 영어권
4: 러시아어권, 5: 기타 언어권>

대명사의 형태 오류는 초급1(1급, L1)에서 많이 보이나, 중급2(4급, L4)에서도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격식적인(일상적인) 말투에서 격식적인 말투로 넘어가는 과도기 현상이

아닌가 싶다.

지시 대명사의 오류는 ‘이, 그, 저’의 의미를 혼동하는 오류로서, 대명사의 오류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난다.

(27)가. *그것은(√이것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오토바이 사진입니다.(CHI/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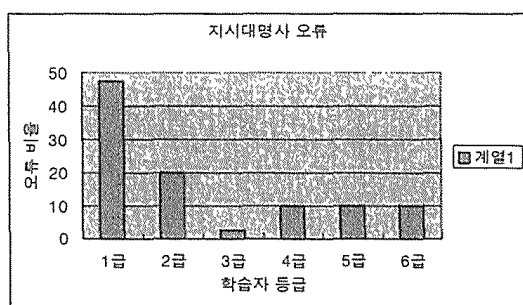
나. *이것은(√그것은) 서울처럼 큰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JAP/L2)

다. *저기에(√거기에) 누나의 얼굴이 있었다.(JAP/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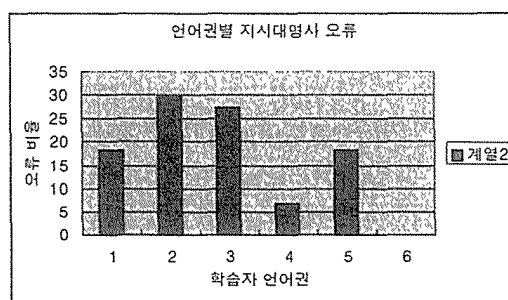
라. *저기는(√거기는) 조선족도 있어요.(CHI/L2)

(27가)에서는 사진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발화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로 써야 하는데, ‘그것’으로 잘못 쓴 오류이며, (27나)는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할 때 ‘그것’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것’으로 써서 어색해진 문장이다. (27다, 라)는 ‘거기’와 ‘저기’를 혼동하여 쓴 것들로서 특히 입말에서 많이 범하는 오류이다.

<표13> 각 등급별 지시 대명사 오류



<표14> 각 언어권별 지시 대명사 오류



<가로축 1: 중국어권, 2: 일본어권, 3: 영어권
4: 러시아어권, 5: 기타 언어권>

지시대명사의 오류 역시 지시대명사를 처음 배우는 초급1(L1)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

한국어의 재귀대명사는 3인칭을 다시 지시할 때 쓰이며, 복문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므로 복문을 많이 쓰는 고급에서 재귀대명사의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28)가. 한국말을 배울 계획도 있고 *자기(√제) 논문을 완성할 계획도 있다.(RUS/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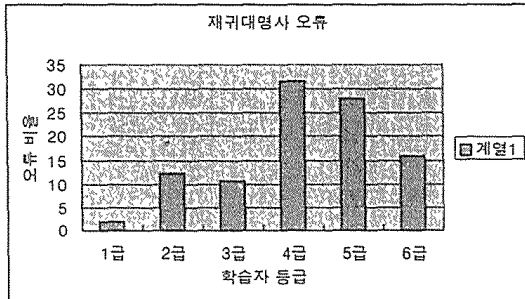
나. 저는 *자기가(√제가) 운동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경기를 관전하면 언제나 선수들을 존경해요.(KJAP/L2)

다. 오래전부터 나는 *자기(√제) 무역회사가 만들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CHI/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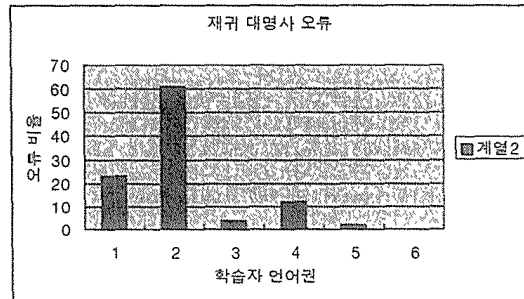
재귀 대명사 오류는 위의 예에서처럼 화자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써서 범하는 오류가 대부분이며, <표15>에서 보듯이 중급2(4급, L4)에서 오류 빈도가 높아진다. 이는 ‘자기’라는 어휘를 배우는 시기와 ‘자기’를 써야 하는 문장의 구조를 습득하는 시기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는 내포절을 가진 복문에서 내포절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단문을 주로 사용하는 초급에서는 ‘자기’를 쓸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자기’를 잘못 쓰는

오류도 그만큼 적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급이상이 되면 연결어미, 전성어미를 이용한 복문 구조를 주로 사용하면서 ‘자기’를 쓰게 된다.⁶⁾

<표15> 각 등급별 재귀 대명사 오류 비율



<표16> 각 언어권별 재귀 대명사 오류 비율



<가로축 1: 중국어권, 2: 일본어권, 3: 영어권
4: 러시아어권, 5: 기타 언어권>

<표16>을 보면 일본어권 학습자에게서 ‘자기’의 오류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본어 ‘自身’을 그대로 ‘자기’로 번역하여 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명사 오류 중에 다음과 같이 통사적인 제약이나 의미적인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범하는 것들이 있다.

(29)가. 오나 가나 *아무곳도(✓어느 곳도) 한국처럼은 같아요.(CHI/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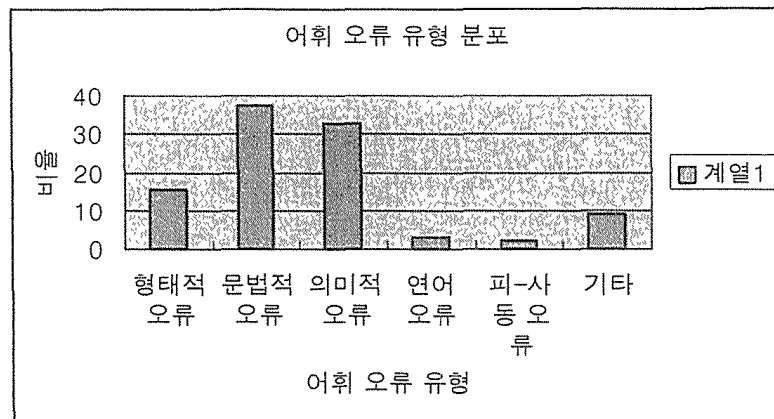
나. 우리 집 근처는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이나(✓뭐든지) 있습니다.(JAP/L3)

위의 예는 ‘아무’와 ‘아무’가 결합된 부정칭 대명사를 부정확하게 쓴 예들이다. 이러한 예는 그리 많이 보이지는 않으나 대명사를 문맥에서 정확하게 쓰기 위해 의미적인 특성을 학습해야 함을 보여 준다.

1.7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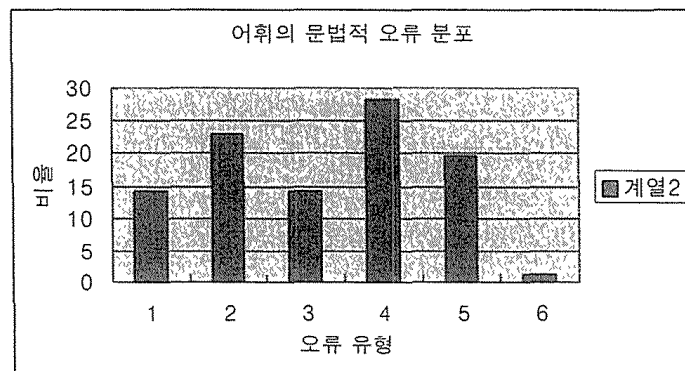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어휘 오류는 크게 형태적 오류, 문법적 오류, 의미적 오류, 연어 오류, 피-사동 어휘 오류이다. 연어 오류와 피-사동 어휘 오류를 따로 떼어 살펴본 것은 이들이 형태적, 문법적, 의미적인 특성을 모두 보이기 때문이었는데, 그리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사이의 오류율을 표로 간단하게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초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접속부사의 사용 빈도가 줄고 접속어미의 사용빈도가 높아진다.(유현경·서상규, 2002)



<표17> 어휘 오류 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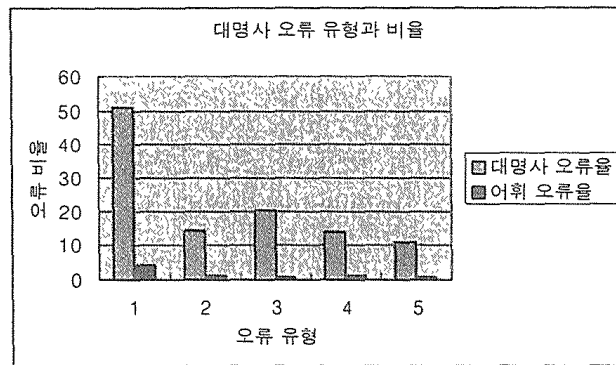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면 어휘의 문법적 오류가 가장 높게 나옴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휘의 문법적 특성이 쉽게 습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법적 특성은 형태 변화 오류와 품사 오류, 어휘의 생략, 어휘의 과용 오류가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높게 나타나는 오류는 어휘를 생략하여 쓰는 오류이다.



<표18> 어휘의 문법적 오류 분포
(<가로축 1: 어휘의 형태 변화 오류, 2: 품사 오류, 3: 존대 어휘 오류, 4: 어휘의 생략, 5: 어휘의 과용, 6: 기타>)

어휘의 의미적 오류는 하의 관계를 보이는 유의어 오류가 전체의 94.61%를 차지한다. 즉, 외국인 학습자가 많은 한국어 유의어간의 의미 차이와 문법적 차이를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명사의 사용 양상을 따로 독립하여 살펴보았다. 대명사는 일반 명사와 달리 문법 범주인 존대법과 관련되며, 그 의미가 문맥에 의존되기 때문에 상황 의존적인 의미를 제대로 습득하여 사용하는지를 보려 했으나 의도한 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했다. 대명사의 특성과 관련된 존대 오류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외에 형태 오류, 지시대명사 오류, 재귀 대명사 오류가 있다. 이들 사이의 분포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9> 대명사 오류 유형 분포
(<가로축> 1: 존대 오류, 2: 형태 오류, 3: 지시 대명사 오류, 4: 제귀 대명사 오류, 5: 기타)

<표19>는 오류 유형과 오류 비율을 보인 것으로 ‘대명사’오류율은 대명사 오류 중에서 해당 유형의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어휘 오류율’은 전체 오류 어절에 대비하여 해당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어휘 오류율은 위에 표에서 보듯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난다.

위의 <표19>에서 보듯이 대명사의 오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존대법과 관계된 대명사 존대 오류로, 전체 대명사 오류 중의 50%이상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서로 비슷한 수준의 오류 비율을 보인다.

2 조사 오류 유형의 분석

2.1 개관

한국어에서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와, 그 말에 일정한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하는 보조사, 그리고 단순히 두 체언을 연결하는 접속 조사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오류 현상을 태깅을 통해 보여주고 원인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게 맡긴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해석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기존의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어 온 부분이 조사 오류 부분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조사 오류에 대한 논의가 단편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상관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중의 오류 태그 부착 말뭉치(중의 초기 구축 말뭉치인 35,060어절)에서는, 조사의 유형을 기준으로 39가지의 조사가 총 14,106번 쓰였다. 이를 현행 학교 문법의 조사 분류 체계에 따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유형		조사	빈도	비율	유형	조사	빈도	비율
격조사	주격조사	가	2969	21.05%	보조사	까지	132	0.94%
		께서	13	0.09%		나	116	0.82%
		이서	1	0.01%		나마	1	0.01%
	목적격조사	를	2308	16.36%		는	2096	14.86%
	관형격조사	의	564	4.00%		대로	6	0.04%
		같이	2	0.01%		도	762	5.40%
	부사격조사	고	333	2.36%		든지	3	0.02%
		께	24	0.17%		라도	11	0.08%
		더러	3	0.02%		마다	89	0.63%
		라고	20	0.14%		마저	1	0.01%
		로	485	3.44%		만	118	0.84%
		로써	16	0.11%		밖에	2	0.01%
		로써	9	0.06%		부터	123	0.87%
		만큼	8	0.06%		뿐	26	0.18%
		보다	58	0.41%	접속조사	과	387	2.74%
		에	2183	15.48%		랑	27	0.19%
		에게	135	0.96%		에다가	2	0.01%
		에게서	15	0.11%		하고	291	2.06%
		에서	733	5.20%	합계		14106	100%
		조차	5	0.04%				
		처럼	29	0.21%				

<표 1 조사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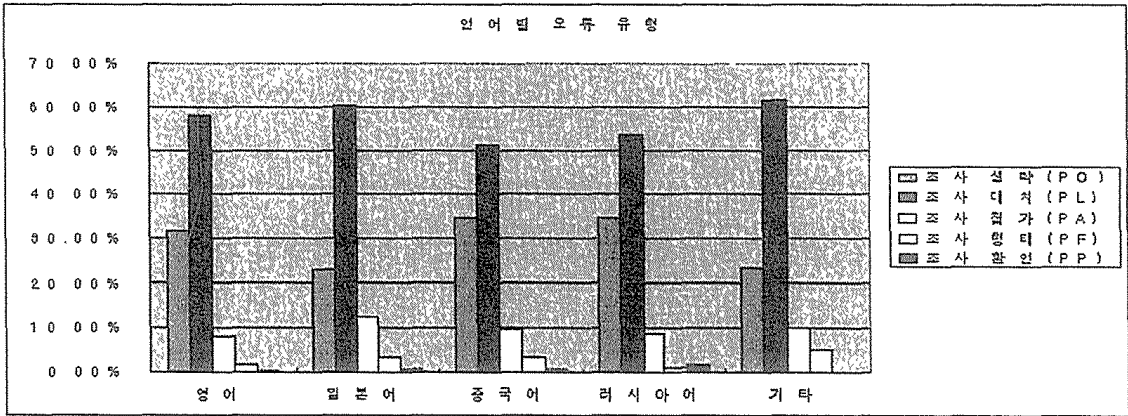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사용된 조사의 종류가 위와 같이 아주 다양한데, 조사의 오류는 형태론적 오류(morphology errors)의 측면에서는 선행 체언의 환경(자음으로 끝났는지 모음으로 끝났는지와 같은 음운적 환경)에 따라 조사의 형태를 올바르게 사용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겠고, 통사론적 오류(syntax errors)의 측면에서는 조사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 두 단어(명사와 명사, 명사와 동사 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적절한 조사가 선택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겠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오류를 ‘조사의 생략(PO)’, ‘조사의 대치(PL)’, ‘조사의 첨가(PA)’, ‘조사의 형태 오류(PF)’, ‘조사의 환언 오류(PP)’ 등으로 나누어 태깅을 하였는데, 각 유형별로 오류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현상적인 측면에서 오류 태깅을 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실제 사용된 조사의 오류 여부를 따져 오류 태그를 부착하였고, 조사의 미사용(조사 생략: PO) 오류 역시 태그를 부착하였다.

먼저 언어별로 나타나는 오류 중에서 오류 유형에 따른 오류의 빈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류유형	언어										합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기타		
조사 생략(PO)	120	31.75%	75	23.15%	149	34.83%	56	34.57%	37	23.27%	437
조사 대치(PL)	220	58.20%	196	60.49%	220	51.40%	87	53.70%	98	61.64%	821
조사 첨가(PA)	30	7.94%	40	12.35%	42	9.81%	14	8.64%	16	10.06%	142
조사 형태(PF)	7	1.85%	11	3.40%	14	3.27%	2	1.24%	8	5.03%	42
조사 환언(PP)	1	0.26%	2	0.61%	3	0.70%	3	1.85%	0	0%	9
합계	378	100%	324	100%	428	100%	162	100%	159	100%	1,451

<표 2. 언어 별 오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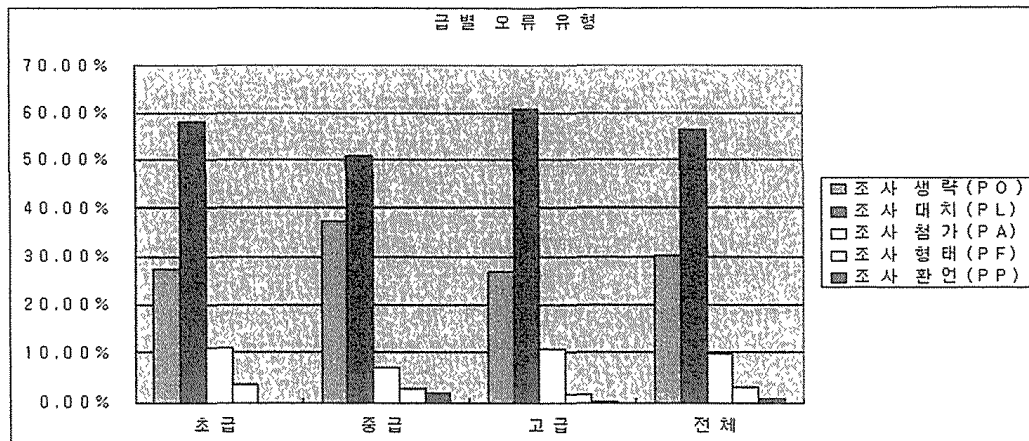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오류의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조사의 부적절한 사용(조사 대치)인데, 명사의 굴절이나 조사류가 없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의 조사 오류 중에서 '조사 대치(PL)'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급별로 오류 유형에 따른 상대적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급						합계	비율
오류유형	초급		중급		고급			
조사 생략(PO)	177	27.15%	164	37.36%	96	26.67%	437	30.11%
조사 대치(PL)	379	58.13%	224	51.03%	218	60.56%	821	56.58%
조사 첨가(PA)	72	11.04%	31	7.06%	39	10.82%	142	9.77%
조사 형태(PF)	24	3.68%	12	2.73%	6	1.67%	42	2.89%
조사 환언(PP)	0	0%	8	1.82%	1	0.28%	9	0.62%
합계	652	100%	439	100%	360	100%	1,451	100%

<표 3. 급별 오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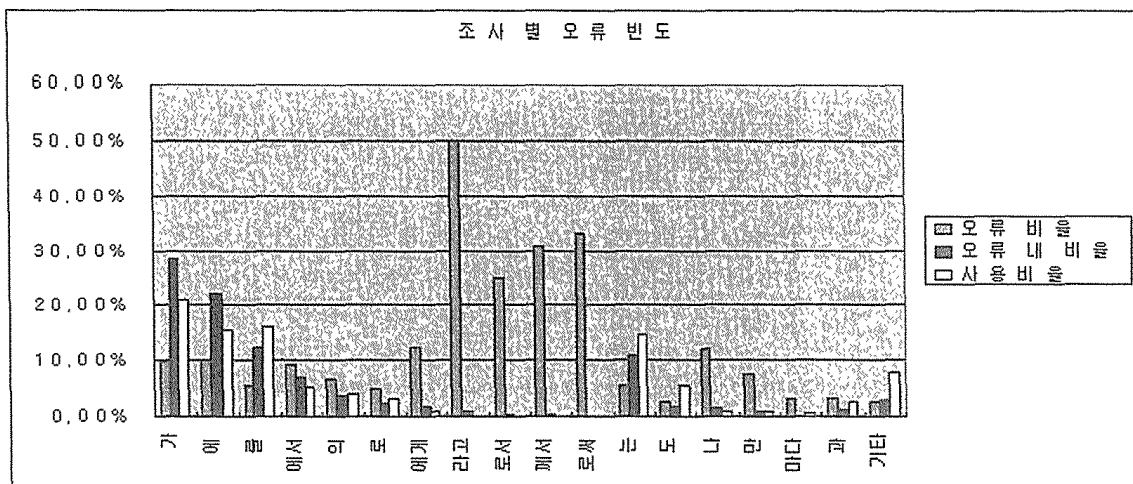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조사의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데, '조사 대치 오류'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면서 조금 개선되는 듯하나, 다시 고급에서 상대적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조사 생략(PO)'에 따른 오류 역시 태그를 붙여 분석을 하였는데, 조사 오류 중에서 조사가 출현한 경우(조사 생략 제외)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조사 형태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7) 편의상, 오류의 빈도가 3 이상의 경우만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오류 비율은, 조사 생략(PO)을 제외한, 실제 사용된 조사의 빈도(1014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해당 조사의 오류 비율을 나타낸다(조사 생략(PO) 부분의 오류 분석을 제외한 이하 동일).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은 조사 오류로는 '께, 보다, 에게서, 더러, 든지, 라도, 부터, 처럼' 등의 오류가 있다.

유형		조사	오류빈도	사용빈도	오류 비율	오류 내 비율	사용비율
격조사	주격조사	가	290	2969	9.77%	28.57%	21.05%
	부사격조사	에	225	2183	10.31%	22.17%	15.48%
	목적격조사	를	128	2308	5.55%	12.61%	16.36%
	부사격조사	에서	69	733	9.41%	6.80%	5.20%
	관형격조사	의	38	564	6.74%	3.74%	4.00%
	부사격조사	로	24	485	4.95%	2.36%	3.44%
	부사격조사	에게	17	135	12.59%	1.67%	0.96%
	부사격조사	라고	10	20	50.00%	0.99%	0.14%
	부사격조사	로서	4	16	25.00%	0.39%	0.11%
	주격조사	께서	4	13	30.77%	0.39%	0.09%
	부사격조사	로써	3	9	33.33%	0.30%	0.06%
보조사		는	113	2096	5.39%	11.13%	14.86%
		도	20	762	2.62%	1.97%	5.40%
		나	14	116	12.07%	1.38%	0.82%
		만	9	118	7.63%	0.89%	0.84%
		마다	3	89	3.37%	0.30%	0.63%
접속조사		과	13	387	3.36%	1.28%	2.74%
기타		기타	30	1103	2.72%	2.96%	7.82%
조사 오류 비율(평균)			1,014	14106	7.19%		
합계						100%	100%

<표 4 조사 별 오류 빈도>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사 오류의 비율/빈도는 대체적으로 사용 비율/빈도와 비례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개별 조사의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한 오류 비율은 조사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는데, 오류 전체에서 개별 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조사의 오류 비율의 순위와 일치하지 않음이 두드러진다. 특히,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라고’에서 오류 비율이 가장 높고, 다른 부사격 조사 ‘로서, 로써’ 등과, 준대법과 관련된 ‘께서’의 오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조사 오류 중에서 오류 비율이 높은 주요 조사를 중심으로 언어와 급별로 오류 빈

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주		조사	언어					급			합계
			노어	일어	영어	중국어	기타	초급	중급	고급	
격조사	주격조사	가	24	73	69	88	36	196	44	50	290
	목적격조사	를	6	21	41	47	13	44	42	42	128
	부사격조사	로	2	11	7	1	3	9	5	10	24
		에	23	48	67	53	34	85	63	77	225
		에게	2	6	6	0	3	2	8	7	17
		에서	15	17	12	18	7	32	26	11	69
	관형격조사	의	4	14	8	10	2	19	9	10	38
보조사		는	17	24	21	29	22	51	40	22	113
		도	2	7	4	3	4	1	8	11	20
기타			10	29	25	18	8	39	25	26	90
합계			105	250	260	267	132	478	270	266	1014

<표 5. 조사 형태에 따른 언어별, 급별 오류 빈도>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살펴 본 조사 사용 오류의 양상을 조사 오류 유형 별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2.2 조사의 생략 오류(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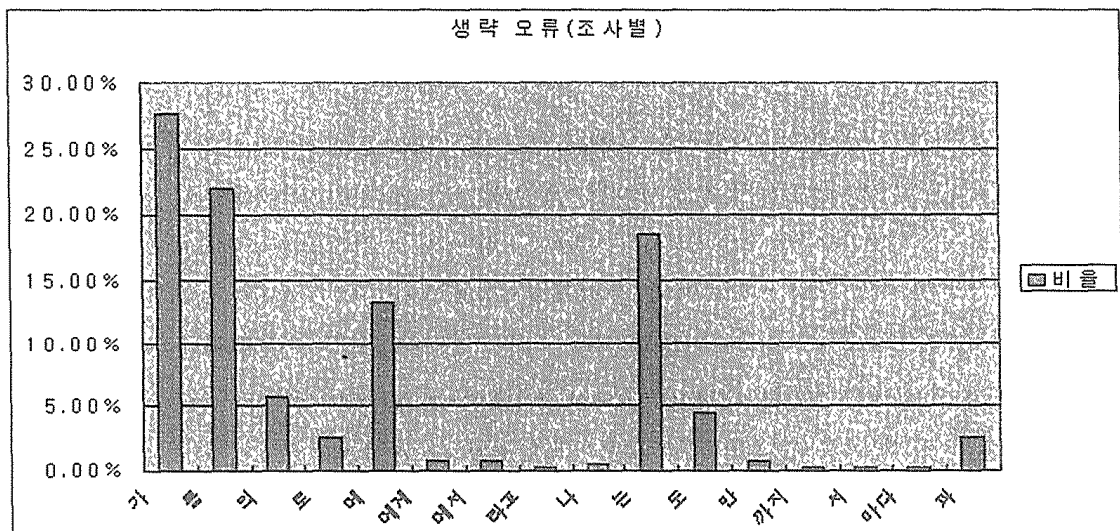
‘조사의 생략(PO)’ 오류는 조사를 써야 할 환경에서 조사를 쓰지 않고 회피한 경우이다. 조사가 없는 언어권 학습자의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이고, 초급 학습자에서 고급 학습자까지 폭넓게 나타난다. ‘-이/가’, ‘-을/를’, ‘-에’, ‘-에서’와 같은 주격이나 목적격, 부사격 등의 격조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때때로 접속 조사나 보조사 등 문장에서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 조사의 경우도 그 용법이 정확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생략 오류의 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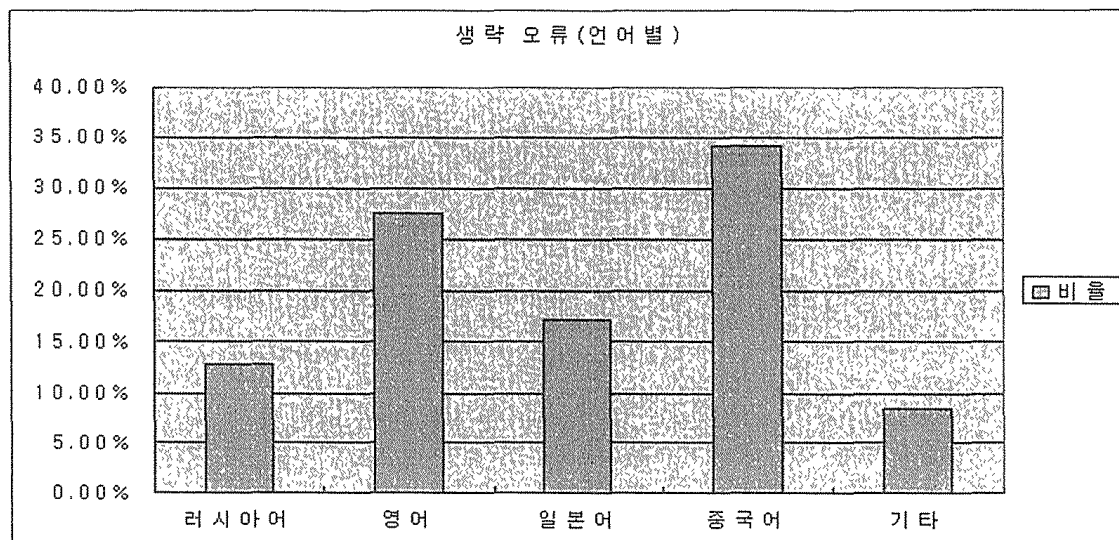
- ▶ 남산 경치(√경치가 PO) 좋습니다.
- ▶ 저는 산(√산을 PO) 보고 예수님을 생각 하고 감사했습니다.
- ▶ 지난 주말에 친구와 같이 롯데 월드(√롯데 월드에 PO) 갔습니다.
- ▶ 이것은 작년 12월 26일(√26일에 PO)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 ▶ 지금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에서 PO) 한국말을 배웁니다.
- ▶ 때때로 어머니하고 아버지(√아버지하고 PO) 같이 낚시합니다.
- ▶ 오후 6시부터 저녁11시(√11시까지 PO) 일합니다.
- ▶ 이 음악을 "Fish and Chips"(√Chips라고 PO) 불러요.
- ▶ 비빔밥을 먹으러 일부러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해서라도 PO) 먹을 만한 맛이니까 한국에 오면 한 번 먹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략 오류를 정리하면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주			초급	중급	고급	합계	비율
격조사	주격조사	가	52	51	18	121	27.69%
	목적격조사	를	31	44	21	96	21.97%
	관형격조사	의	5	7	13	25	5.72%
	부사격조사	로	1	7	3	11	2.52%
		에	28	17	13	58	13.27%
		에게	1		2	3	0.69%
		에서		2	1	3	0.69%
		라고		1		1	0.23%
		나		1	1	2	0.46%
보조사		는	41	26	14	81	18.54%
		도	11	6	2	19	4.35%
		만			3	3	0.69%
		까지		1		1	0.23%
		서		1		1	0.23%
		마다	1			1	0.23%
	접속조사	과	6		5	11	2.52%
합계			177	164	96	437	100.00%
언어	러시아어		9	23	24	56	12.81%
	영어		64	34	22	120	27.46%
	일본어		23	26	26	75	17.16%
	중국어		60	75	14	149	34.10%
	기타		21	6	10	37	8.47%

<표 6. 생략 오류>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중에서는 ‘가’, ‘를’, ‘는’, ‘에’의 순서로 생략 오류가 많고 언어 중에서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의 순서로 오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급으로 갈수록 생략 오류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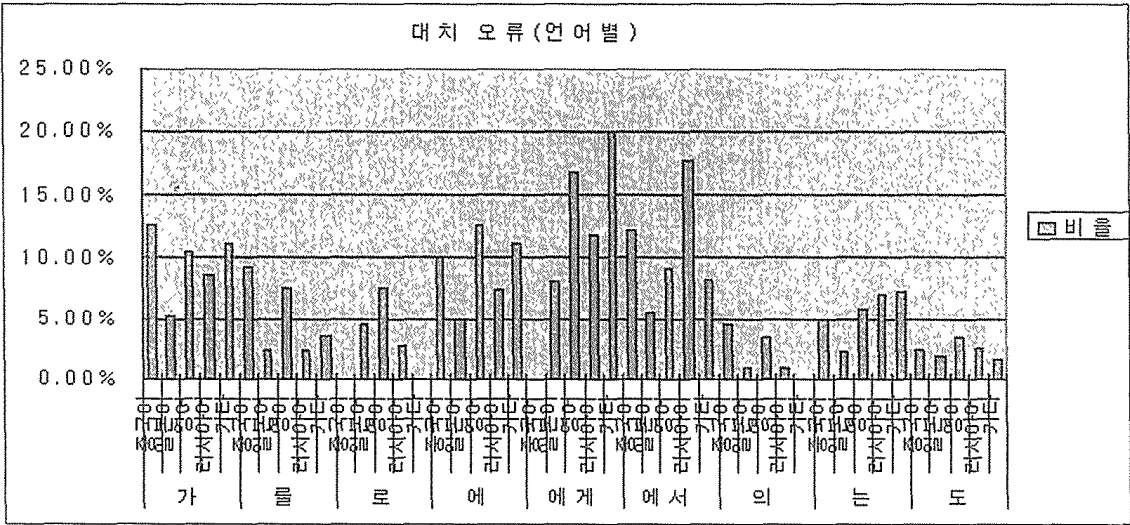
2.3 조사의 대치 오류(PL)

‘조사의 대치(PL)’ 오류는 조사를 사용했으나 조사의 용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다. 조사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 조사 오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이기도 하다. 역시 초급 학습자에서 고급 학습자까지 폭 넓게 나타난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주격과 목적격의 혼용이나 존재의 배경이 되는 ‘-에’와 활동의 배경이 되는 ‘-에서’ 간의 오류가 자주 나타나고 고급 학습자의 경우는 특별한 조사의 의미와 기능이 숙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 정선생님 왼쪽에(√왼쪽이 PL) 읽기 김선생님입니다.
- ▶ 이월에 여자 친구와 여동생을(√여동생이 PL) 홍콩에 갔습니다(√왔습니다).
- ▶ 저는 한국음식이(√한국음식을 PL) 좋아합니다.
-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미국에(√미국을 PL) 여행 했습니다.
- ▶ 그럴 때는 언제나 혼자서 기차로 여행으로(√여행을 PL) 떠난다.
- ▶ 이 사람들이(√사람들은 PL) 우리 대학교 학생 입니다.
- ▶ 한국물건을(√한국물건은 PL) 비싸고 나쁩니다.
- ▶ 금년 3월31일에 한국에서(√한국에 PL) 왔습니다.
- ▶ 친구백 사십 일 년에서(√친구백사십일년에 PL) 태어났습니다.
- ▶ 우리는 식당에(√왼쪽이 PL) 일합니다.
- ▶ 많은 고급의 노래를 짓고 많은 음악가들(√음악가에게 PL) 영감을 컸습니다.
- ▶ 저는 홍콩 수족관에(√수족관으로 PL) 안내했습니다.
- ▶ 나는 Netherland에서는 무료에서(√무료로 PL) 몇번도 탔어요.
- ▶ 우리 아버님이(√아버님은 PL) 회사원이십니다.

▶ 지난 2월 22일에서(√22일부터 PL) 3월 9일까지 우리는 졸업여행 갔습니다.

먼저, 조사 대치 오류를 언어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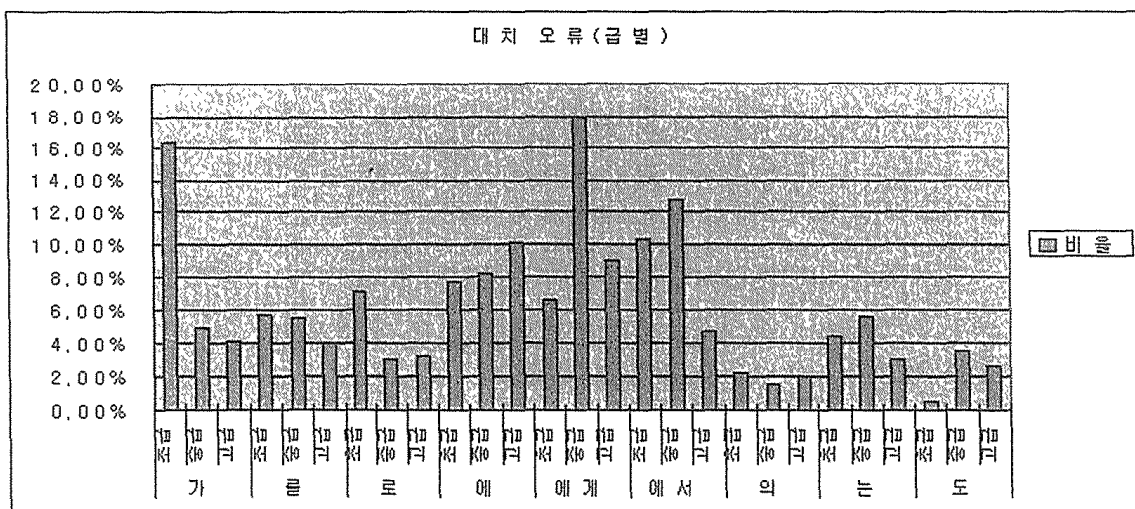
<표 7. 조사 대치 오류(언어별)>

범주		조사	모국어	사용 빈도	오류	비율
격조사	주격조사	가	중국어	615	78	12.68%
			일본어	1140	59	5.18%
			영어	625	65	10.40%
			러시아어	277	24	8.66%
			기타	312	35	11.22%
	목적격조사	를	중국어	445	41	9.21%
			일본어	859	20	2.33%
			영어	498	37	7.43%
			러시아어	259	6	2.32%
			기타	247	9	3.64%
	부사격조사	로	중국어	66	0	0.00%
			일본어	218	10	4.59%
			영어	93	7	7.53%
			러시아어	72	2	2.78%
			기타	36	0	0.00%
		에	중국어	415	42	10.12%
			일본어	809	40	4.94%
			영어	461	58	12.58%
			러시아어	231	17	7.36%
			기타	270	30	11.11%
		에게	중국어	10	0	0.00%
			일본어	63	5	7.94%
			영어	30	5	16.67%
			러시아어	17	2	11.76%
			기타	15	3	20.00%
		에서	중국어	139	17	12.23%
			일본어	291	16	5.50%
			영어	132	12	9.09%
			러시아어	85	15	17.65%
			기타	86	7	8.14%
	관형격조사	의	중국어	109	5	4.59%
			일본어	228	2	0.88%
			영어	88	3	3.41%
			러시아어	104	1	0.96%
			기타	35	0	0.00%
보조사	는		중국어	448	22	4.91%
			일본어	914	20	2.19%
			영어	328	19	5.79%
			러시아어	227	16	7.05%
			기타	179	13	7.26%
	도		중국어	130	3	2.31%
			일본어	374	7	1.87%
			영어	118	4	3.39%
			러시아어	79	2	2.53%
			기타	61	1	1.64%

표와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조사 대치 오류는 일본어 화자의 경우에 가장 낮고, 여타의 언

어들에서는 조사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마도 모국어에 대한 지식이 조사의 학습에 간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즉, 개별 언어에 한국어의 특정 조사에 대응하는 조사의 양상에 따라 조사 학습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된다.

범주		조사	급	사용 빈도	오류 빈도	오류 비율
격조사	주격조사	가	고급	986	40	4.06%
			중급	897	44	4.91%
			초급	1086	177	16.30%
	목적격조사	를	고급	958	38	3.97%
			중급	747	41	5.49%
			초급	603	34	5.64%
	부사격조사	로	고급	252	8	3.17%
			중급	134	4	2.99%
			초급	99	7	7.07%
		에	고급	622	63	10.13%
			중급	678	56	8.26%
			초급	886	68	7.67%
		에게	고급	66	6	9.09%
			중급	39	7	17.95%
			초급	30	2	6.67%
		에서	고급	235	11	4.68%
			중급	197	25	12.69%
			초급	301	31	10.30%
	관형격조사	의	고급	294	6	2.04%
			중급	134	2	1.49%
			초급	136	3	2.21%
보조사		는	고급	658	20	3.04%
			중급	571	32	5.60%
			초급	867	38	4.38%
		도	고급	304	8	2.63%
			중급	231	8	3.46%
			초급	227	1	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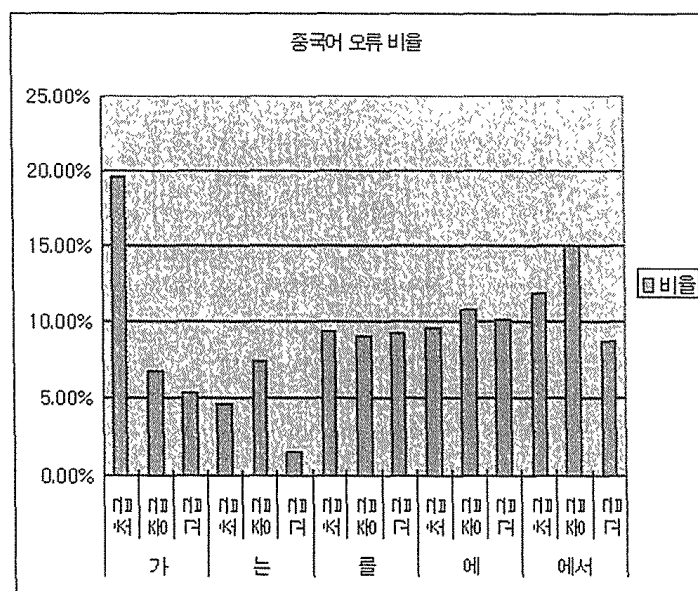


<표 8. 조사 대치 오류(급별)>

다음으로, 조사 대치 오류를 조사마다 급별로 살펴 보면, 대체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오류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에'의 경우에는 고급으로 갈수록 오류의 비율이 높아지며, 같은 부사격조사인 '에게'와 '에서'는 중급일 때가 가장 오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조사의 대치 오류를 각 언어별로 자세히 살펴 보겠다. 먼저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조사 대치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조사	급	사용 빈도	오류 빈도	오류 비율
가	초급	295	58	19.66%
	중급	208	14	6.73%
	고급	112	6	5.36%
는	초급	262	12	4.58%
	중급	120	9	7.50%
	고급	66	1	1.52%
를	초급	150	14	9.33%
	중급	198	18	9.09%
	고급	97	9	9.28%
에	초급	197	19	9.64%
	중급	149	16	10.74%
	고급	69	7	10.14%
에서	초급	76	9	11.84%
	중급	40	6	15.00%
	고급	23	2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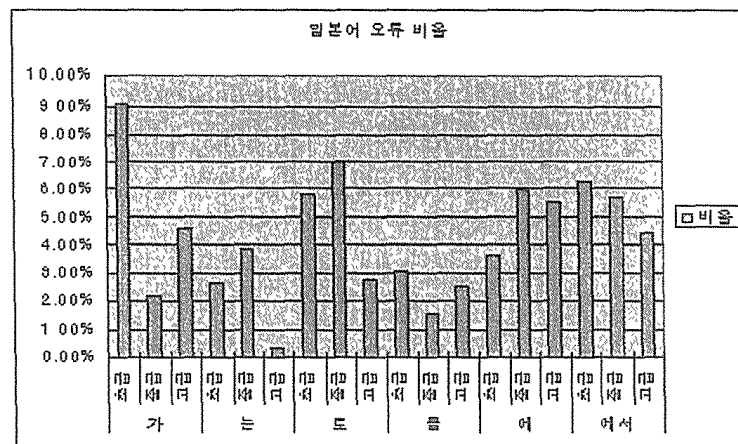
<표 9. 중국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

중국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의 큰 특징은 <표 7>에서 보았듯이 다른 모국어 화자에 비해 조사 오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 '를'과 '에'의 오류 비율이 학습의 정

도와 관계 없이 비슷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음으로 일본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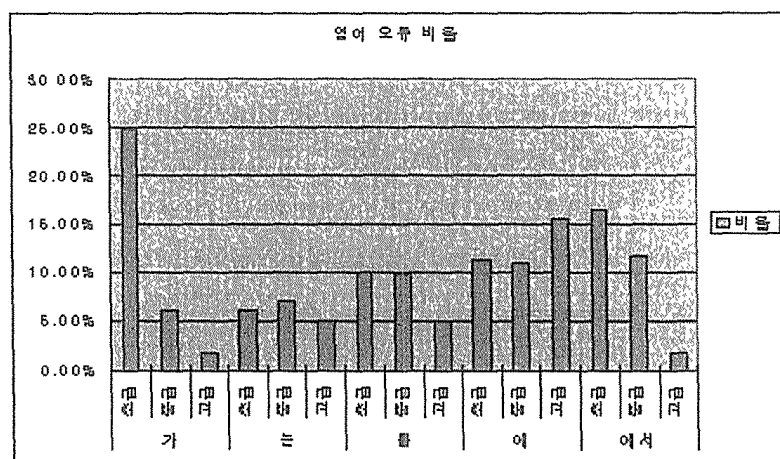
조사	급	사용 빈도	오류 빈도	오류 비율
가	초급	354	32	9.04%
	중급	374	8	2.14%
	고급	412	19	4.61%
는	초급	345	9	2.61%
	중급	259	10	3.86%
	고급	310	1	0.32%
로	초급	52	3	5.77%
	중급	57	4	7.02%
	고급	109	3	2.75%
를	초급	199	6	3.02%
	중급	265	4	1.51%
	고급	395	10	2.53%
에	초급	304	11	3.62%
	중급	269	16	5.95%
	고급	236	13	5.51%
에서	초급	112	7	6.25%
	중급	88	5	5.68%
	고급	91	4	4.40%



<표 10. 일본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

일본어 화자의 조사 오류의 특징은 다른 모국어 화자의 경우보다 오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 '에'와 '에서'의 오류 비율이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 조사 '는'의 오류가 현저히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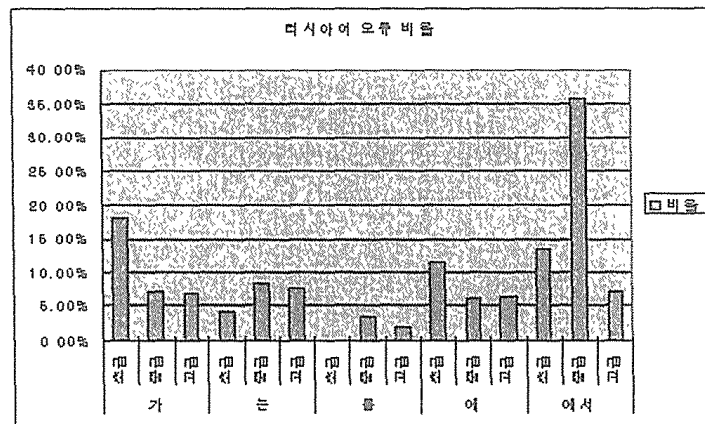
조사	급	사용 빈도	오류 빈도	오류 비율
가	초급	201	50	24.88%
	중급	183	11	6.01%
	고급	241	4	1.66%
는	초급	100	6	6.00%
	중급	86	6	6.98%
	고급	142	7	4.93%
를	초급	112	11	9.82%
	중급	143	14	9.79%
	고급	243	12	4.94%
에	초급	160	18	11.25%
	중급	140	15	10.71%
	고급	161	25	15.53%
에서	초급	49	8	16.33%
	중급	26	3	11.54%
	고급	57	1	1.75%



<표 11. 영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

영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 양상의 특징으로는, 초급에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오류가 다른 모국어 화자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과,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특히 조사 '에')의 오류가 상당히 높고 급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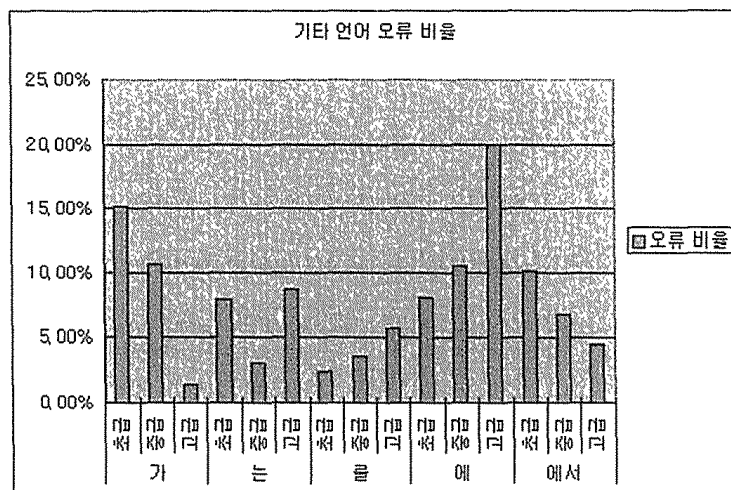
조사	급	사용 빈도	오류 빈도	오류 비율
가	초급	44	8	18.18%
	중급	85	6	7.06%
	고급	148	10	6.76%
는	초급	47	2	4.26%
	중급	74	6	8.11%
	고급	106	8	7.55%
를	초급	19	0	0.00%
	중급	86	3	3.49%
	고급	154	3	1.95%
에	초급	53	6	11.32%
	중급	82	5	6.10%
	고급	96	6	6.25%
에서	초급	15	2	13.33%
	중급	28	10	35.71%
	고급	42	3	7.14%



<표 12. 러시아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

러시아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 양상의 특징은 조사 '에서'의 오류가 다른 모국어 학습자와 비교할 때, 급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다는 것이다. 그밖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개별 모국어마다 그 양상이 다양하여 공통된 특징을 찾기 어려운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급	사용 빈도	오류 빈도	오류 비율
가	초급	192	29	15.10%
	중급	47	5	10.64%
	고급	73	1	1.37%
는	초급	113	9	7.96%
	중급	32	1	3.13%
	고급	34	3	8.82%
를	초급	123	3	2.44%
	중급	55	2	3.64%
	고급	69	4	5.80%
에	초급	172	14	8.14%
	중급	38	4	10.53%
	고급	60	12	20.00%
에서	초급	49	5	10.20%
	중급	15	1	6.67%
	고급	22	1	4.55%



<표 13. 기타 언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

2.4 조사의 첨가 오류(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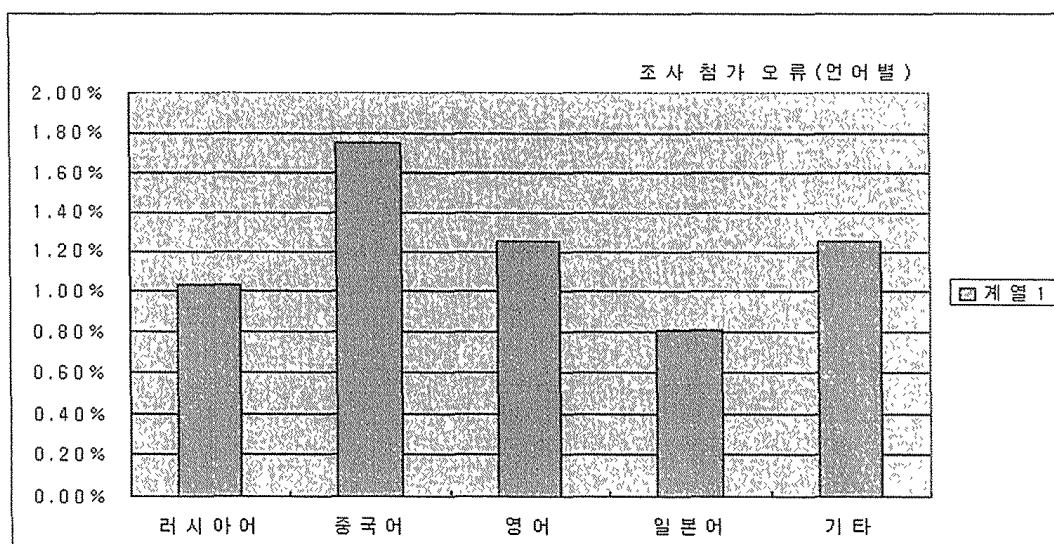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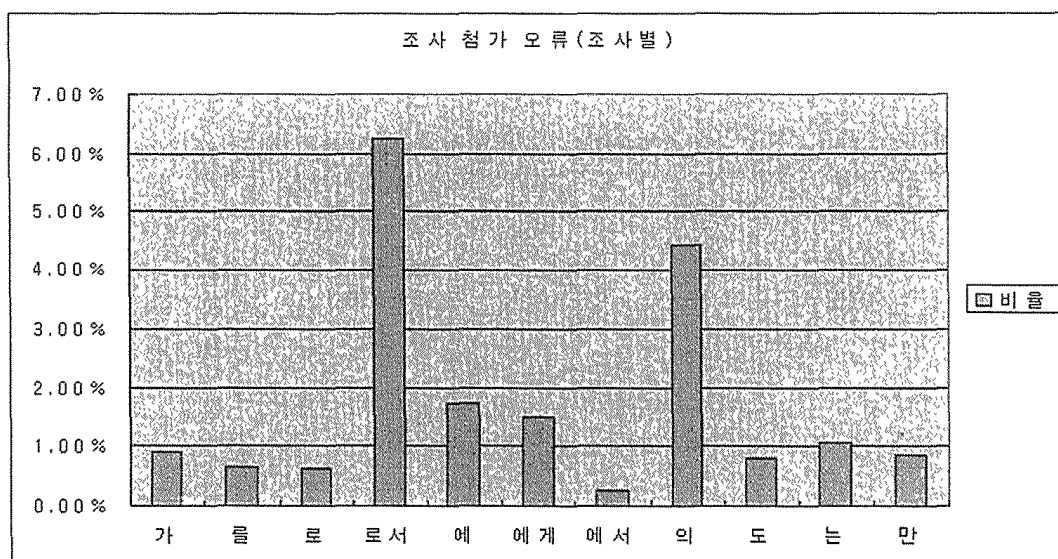
‘조사의 첨가(PA)’ 오류는 조사가 불필요한 환경에 조사를 표기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 보태고 싶어서 불필요한 조사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오류이다. 과잉 적용(over monitoring)이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주로 학습자들은 조사가 필요 없는 특별한 관용 용법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조사를 과잉 적용한다. 특히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이다’ 동사 앞에서 ‘-이/가’나 ‘-을/를’을 쓰는 경우가 많다. 조사의 첨가 오류에 빈번한 경우의 하나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불필요한 조사가 나오는 경우이다.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수식할 때 한국인 화자는 쓰지 않는 관형격 조사 ‘-의’를 쓰는 경우나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에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사에 걸린다고 생각해서 ‘-에’, ‘-에서’ 같은 부사격 조사를 쓸 때도 있다. 특히, 시간 명사나 장소 명사 명사에 ‘-에’가 불필요한 경우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도 많다.

- ▶ 나보다 더 딸이(✓딸 PA) 같습니다
- ▶ 저는 오른쪽 하얀색 옷이 입니다(✓옷입니다 PA).
- ▶ 여기가 우리집 사진을 입니다(✓사진입니다 PA).
- ▶ 많은 고급의 노래를(✓고급 노래를 PA) 짓고 많은 음악가를 영감을 했습니다.
- ▶ 남문으로 들어갑니다. 남문 뒤에서 길로(✓뒤 길로 PA) 똑바로 걸어갑니다.
- ▶ 위에 사진에(✓위 사진에 PA) 아버지 어머니 저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 ▶ 미국 음악 역사는에서(✓역사에서 PA) 버브 대이관(밥 딜런)이 아주 유력(유명)합니다.
- ▶ 그래서 밤 늦게부터(✓늦게 PA) 그냥 바이크를 타다 오싸까으로 출발합니다.

이러한 조사 첨가 오류의 양상을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용빈도	오류 빈도	비율
조사	격조사	주격조사	가	2969	27	0.91%
		목적격조사	를	2308	15	0.65%
		부사격조사	로	485	3	0.62%
			로서	16	1	6.25%
			에	2183	38	1.74%
			에게	135	2	1.48%
			에서	733	2	0.27%
		관형격조사	의	564	25	4.43%
	보조사	도	762	6	0.79%	
		는	2096	22	1.05%	
		만	118	1	0.85%	
합계			12369	142	1.15%	
언어		러시아어	1365	14	1.03%	
		중국어	2398	42	1.75%	
		영어	2399	30	1.25%	
		일본어	4923	40	0.81%	
		기타	1284	16	1.25%	
급		초급	4287	72	1.68%	
		중급	3664	31	0.85%	
		고급	4418	39	0.88%	

<표 14. 조사 첨가 오류>



조사 첨가 오류의 특징은 ‘가’나 ‘를’, ‘는’과 같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에 널리 쓰이는 조사들의 경우보다는 ‘의’의 불필요한 첨가로 인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로서’의 경우에는 오류가 1번밖에 관찰되지 않아 제외함). 그 밖의 조사들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또한 명사의 굴절이나 격표지가 없는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서 가장 오류가 빈번했다. 또한 초급과 중급 사이에는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나, 중급과 고급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특이하다.

2.5 조사의 형태 오류(PF)

한국어 조사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면서도 음운적 환경에 따라 두 가지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다. ‘조사의 형태 오류(PF)’는 이와 같은 경우에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서 쓰지 못하

는 경우이다. 주격에서 ‘-이’와 ‘-가’를 구별해서 쓰지 못하는 것, 목적격의 ‘-을’과 ‘-를’, 보조사 ‘-은’과 ‘-는’, 접속 조사 ‘-와’와 ‘-과’, 부사격의 ‘-으로’와 ‘-로’ 등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국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이것이 한국어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의 형태 오류는 의미나 기능에 대한 문제는 아니므로,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급 단계를 지나면 현저하게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든다.

- ▶ 형제(형)하고 형수이(√형수가 PF) 되(뒤)에 있습니다.
- ▶ 저는 가족를(√가족을 PF)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합니다.
- ▶ 친구은(√친구는 PF) 결혼했습니다.
- ▶ 독일와(√독일과 PF)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갔습니다.
- ▶ 저의 이제까지 기억에 남는 여행은 대학교 이학년 때 친구와 같이 둘 사람으로 3박 4일
으로(√4일로 PF) 타이페이에 가본 일이에요.
- ▶ 가끔 빨래방에서 일했고, 가끔 바나나 field이나(√field나 PF) 아보가도 field에 일했어요.

범주		사용빈도	오류 빈도	비율
조사	가	2969	7	0.24%
	과	387	8	2.07%
	나	116	4	3.45%
	는	2096	4	0.19%
	라고	20	5	25.00%
	로	485	2	0.41%
	로서	16	1	6.25%
	를	2308	4	0.17%
	든지	3	1	33.33%
	처럼	29	1	3.45%
언어	중국어	2758	14	0.51%
	영어	2761	7	0.25%
	일본어	5502	11	0.20%
	러시아어	1508	2	0.13%
	기타	1577	8	0.51%
급	초급	4967	24	0.48%
	중급	4012	12	0.30%
	고급	5127	6	0.12%
		14106	42	0.30%

<표 15. 조사의 형태 오류>

2.6 조사의 환언 오류(PP)

‘조사의 환언 오류(PP)’는 한국어에 그 표현을 위한 적절한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의 용법을 알고 있지 못한 학습자가 다른 어휘적 표현을 써서 조사의 의미를 대신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모국어 사용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표현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부사격 조사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보조사의 사용에서 발생하는데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의 의사 소통 전략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오류이다. 다음 예에서 첫 번

째 문장은 ‘-에게는’의 용법을 ‘-에 있어서’로 풀어 쓴 경우이고, 두 번째 문장은 ‘-로’를 ‘-를 써서’라는 어휘적 표현으로 풀어 쓰고 있다. 총 9번의 오류가 관찰되었는데, 언어나 급 별로 그 차이를 찾기에는 너무 표본이 작아, 아래에 일부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

- ▶ 2박 3일의 여행이어서 그리 관광도 못했는데 나에 있어서(√나에게는 PP) 경복궁이 제일 재미있었다.
- ▶ 단 특급이나 곱행은 탈수 없다. 그 표를 써서(√표로 PP) 자주 여행을 했었지.
- ▶ 나는 언어학자로서 음성논의(√음성에 (대한)PP)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어 교사가 될 일본사람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을 도와줄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SJAP/L4)
- ▶ 한국말 재미있지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생각에는 PP)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요.(SCHI/L4)
- ▶ 그리고 온 몸이 건강하기(√건강을 PP) 위해서 매일 삼십분 씩 운동을 해요.(SRUS/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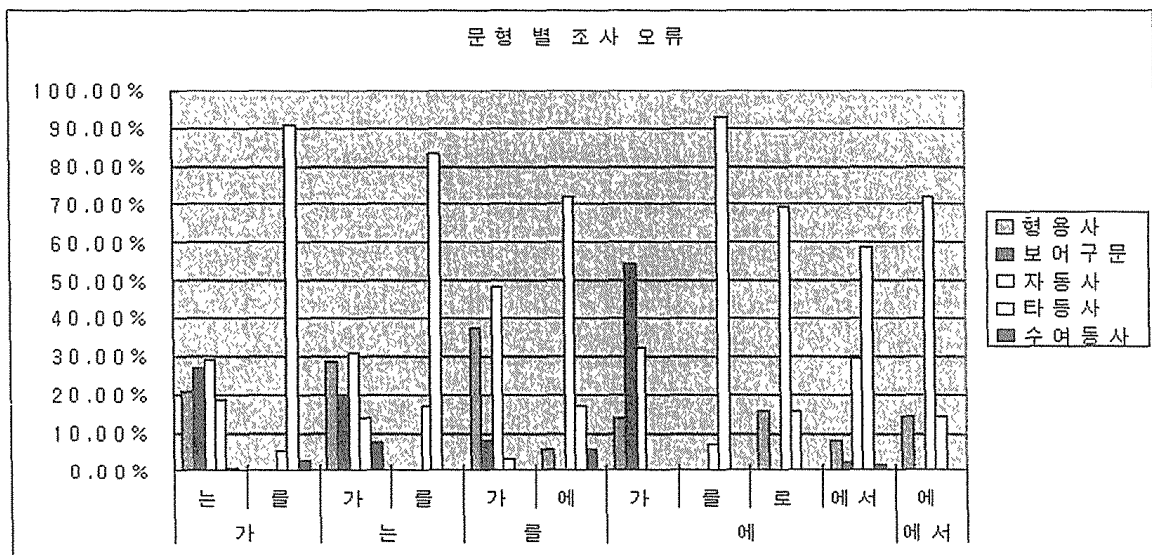
2.7 문형(구문)과 조사 오류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조사의 대치 오류 현상 중에서, 문형(구문)에 따른 조사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자. 조사의 사용은, 그 조사가 쓰이는 문장이나 절의 서술어가 이루는 통사적이고 의미적인 문형 상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개별 조사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확히 쓰일 수 있다. 특히 격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치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학습자가 개별 조사의 성격과 문형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오류 말뭉치에서 다음의 오류들이 관찰된다.

- ▶ 우리가(√우리는 PL) 안양시에 삽니다.(SENG/L1)
- ▶ 그리고 예쁜 옷이(√옷을 PL) 쉽게 살 수 있어요.(RUS/L3)
- ▶ 건강은(√건강이 PL) 제일입니다.(RUS/L4)
- ▶ 독수공원 안에 걸여가고 있었을 때 우리 가족은(√가족을 PL) 생각했어요.(ENG/L2)
- ▶ 이상한 냄새를(√냄새가 PL) 나왔어요.(ENG/L2)
- ▶ 지난 주 목,금요일(√에 PL) 어학당에서 졸업여행을 갔다.(JAP/L6)
- ▶ 기숙사에(√기숙사에서 PL) 편하고 깨끗해요.(CHI/L3)
- ▶ 대학교에(√대학교를 PL) 졸업한 후에 뭔가 부족했습니다.(ENG/L6)
- ▶ 산에 개울이 있어서 큰 돌들 사이에(√사이로 PL) 흘렀어요.(CHI/L2)
- ▶ 점심과 저녁은 식당에(√식당에서 PL) 먹습니다.(ARG/L3)
- ▶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블라디보스톡에 PL) 살고 있지만 제 가족은 모스크바에서(√모스크바에 PL) 삽니다.(RUS/L5)

조사 대치 오류를 문장이나 절의 서술어의 종류(혹은 구문)에 따라 빈도를 조사하여, 각각의 문형에 따른 오류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사용된 조사	정확한 조사	형용사	보어구문	자동사	타동사	수여동사	사용빈도
가	는	30	39	42	27	1	145
	를	0	0	4	67	2	74
는	가	15	10	16	7	4	52
	를	0	0	2	10	0	12
를	가	23	5	30	2	0	62
	에	1	0	13	3	1	18
에	가	3	12	7	0	0	22
	를	0	0	2	26	0	28
	로	2	0	9	2	0	13
	에서	6	2	22	44	1	75
에서	에	7	0	36	7	0	50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는'을 써야 하는데 조사 '가'를 사용한 경우는 특정 구문과 관계가 없으나, 조사 '를'을 써야 하는데 조사 '가'를 사용한 경우는 타동사 구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사 '를' 대신에 다른 조사를 사용한 경우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 '가'의 오류는 타동사 구문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고, 조사 '를'의 오류는 자동사 구문에서, 조사 '에'의 오류는 타동사 구문에서, '에서'의 오류는 자동사 구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학습자가 개별 조사의 특성과 서술어나 문형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종결 어미 오류 유형의 분석

한국어에서 종결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통합되는 어미 중 가장 끝에 놓이는 어미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기능부담성이 큰 문법적 형태이다. 종결어미는 용언의 종류에 따라 통합 관계의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용언이나 선행어미의 종류에 따라서도 선택 제약이 따르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결어미는 각각이 독특한 의미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의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결과 주어의 인칭 제약을 좌우하기도 한다. 종결어미는 화용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화용적 특성으로는 높임의 등분을 나타내는 기능과 서법을 표시하는 기능을 들 수 있다(한길 1991:13~26).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나타난 종결어미의 오류는 크게 형태적인 오류, 동사와 형용사의 선택 제약에 따른 어미 선택의 오류, 문어체와 회화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 서법의 오류, 높임법에 따라 어미를 선택하지 못한 오류, 양태 의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오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3.1. 형태 오류

형태 오류는 한국어 학습자가 적절한 어미 형태를 쓰지 못한 오류이다. 형태 오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가 어미의 형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순 형태 오류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선행 동사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환경에 따라 적절한 이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그 이형태의 선택이 잘못된 이형태 선택 오류이다.

3.1.1. 단순 형태 오류

단순 형태 오류는 초급 학습자에서부터 고급 학습자까지 모두 나타나기는 하나 주로 초급 학습자에서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난다. 초급 학습자들은 어미 ‘ㅂ/습니다’의 형태나 ‘-어/아/여요’ 형태를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오류를 보이지만 급이 올라가고 다양한 어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ㄴ 거야’, ‘ㄴ 게요’, ‘지요’ 등의 어미 형태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 중급 학습자들은 ‘지요’나 ‘거든요’의 형태가 정확하게 사용되지 못한다. 특히 중급학습자의 종결어미 형태 오류에는 내포문 어미로 쓰이는 의문형 종결 어미의 형태의 오류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학습자가 복문 구조를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미 형태 오류의 혼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복문 구조에서의 형태 오류는 고급 학습자들의 오류에서도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단순 형태 오류의 예들이다.

- ▶ 동생 제오 제가 연세대학교가 공부합니다(√공부합니다).(CHI/L1)
- ▶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웁습니다(√배웁니다).(CHI/L1)
- ▶ 한국말이 배움하기가 어렵습니다(√어렵습니다).(CHI/L1)
- ▶ 컴퓨터가책상위에있습니다(√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CHI/L1)

- ▶ 처음 뵈겠습니다(√ 뵈겠습니다).(KJAP/L1)
- ▶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CHI/L1)
- ▶ 노래, 술, 마당을 좋아해요(√ 좋아해요).(TAI/L1)
- ▶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KDAN/L1)
- ▶ 한국 역사가 슬펍니다(√ 슬프습니다).(USA/L2)
- ▶ 요즘에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서 똥똥해졌요(√ 똥똥해졌어요).(KUSA/L2)
- ▶ 아마도 여름에 스웨덴에 돌아 가거야(√ 갈거야).(SWE/L2)
- ▶ 그동안 안녕하셨요(√ 안녕하셨어요)?(CHI/L2)
- ▶ 현숙 언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신지요(√ 바쁘시지요)?(JAP/L2)
- ▶ 다음에 또 편지를 드실세요(√ 드릴게요).(JAP/L2)
- ▶ 우리가 적과 조부모님이 따로따로 살고 있어서 설날이나 추석마다 외조부모님을 만나 뵈러 어머님의 고향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보통이었습니다).(KJAP/L3)
- ▶ "얼마나 큰 방야하면(√ 방이나 하면), 우리교실의 10배쯤되고, 그리고 따로 옷이방, 사우나방, 샤워방, 목욕탕방이 있었습니다."(KJAP/L3)
- ▶ 그리고 머는 나라라면 힘들 것 같은데 한국이라면 아주 가까우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돌아갈 수 있고 든요(√ 있거든요).(JAP/L4)
- ▶ 세월이 쏜살같지요(√ 같지요)?(USA/L4)
- ▶ 재거 서툴러는 한국 말로 대답해쥬(√ 대답하지요).(CHI/L4)
- ▶ 특히 한국 사회에는 세대차이 문제가 심각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RUS/L5)
- ▶ 어느날 친구가 이대앞에 있는 어떤 펜시가게에 가서 인형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아주 큰 마시마로 인형이 떨어졌대고(√ 떨어졌다고) 한다.(JAP/L6)

3.1.2. 이형태 선택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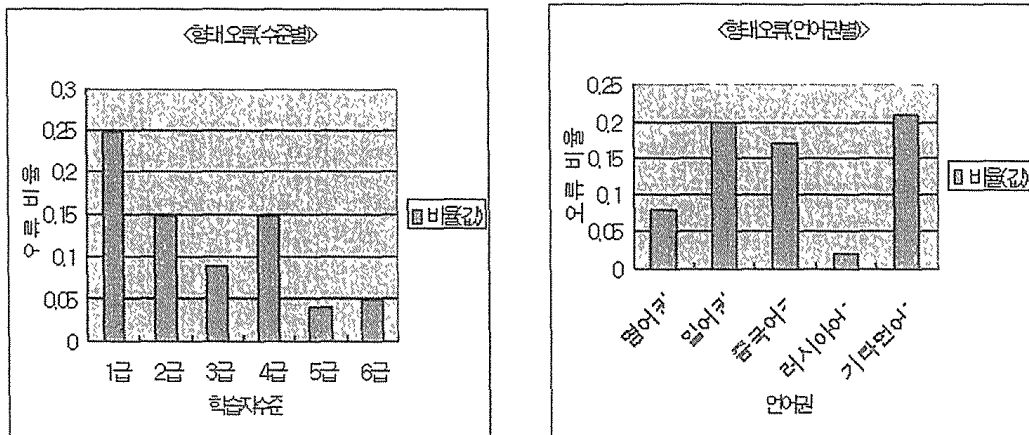
한국어의 어미는 선행 어간의 음운론적 자질이나 형태론적 이유에 의해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형태의 의미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종결어미 ‘습니다’와 ‘ㅂ니다’, ‘는다’와 ‘ㄴ다’, ‘이에요’와 ‘예요’의 교체는 선행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가에 따라 교체가 되는 경우이고, 종결어미 ‘어(요)’와 ‘아(요)’의 교체는 선행 음절이 ‘ㄱ, ㄷ, ㄴ, ㄹ’인 음성 음절이나 ‘ㄷ, ㄴ’인 양성음절이나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이다. ‘하다’ 동사 어간 뒤에 ‘여(요)’가 오거나 ‘이다’, ‘아니다’ 동사의 활용형이 ‘이라’, ‘아니라’가 되는 것은 형태론적인 이유에 의해 어미가 교체되는 경우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이형태를 적절하게 구별해서 쓰기가 쉽지 않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이형태에 대한 개념적, 형태적 이해가 되지 않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형태에 대해 개념적, 형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들도 실수로 오류를 생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형태 선택 오류는 해당 어미 형태를 학습하고 생산하기 시작하는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오류의 종류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초급 학습자들은 주로 ‘ㅂ/습니다’와 ‘어/아요’에서 이형태 선택 오류를 보이고, 중급 학습자들은 ‘이에요/예요’ 및 이들의 복합형 ‘을 뿐이에요’나 ‘을 거예요’ 등의 사용 빈도가 많아지면서 이형태 선택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지 않은 중급 학습자들도 초급학습자들이 생산하는 오류를 생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초급학습자들에게는 나

타나지 않지만 중고급 학습자들에게는 ‘이다’, ‘아니다’의 활용형 ‘이라’, ‘아니라’가 적절하게 선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들 활용형이 내포문 어미 ‘이라고’ 형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학습자의 경우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형태 선택 오류의 예이다.

- ▶ 저는 주말마다 친구들이 만나습니다(√ 만납니다).(CHI/L1)
- ▶ 가족하고 친구를 만나고 싶지만 한국 생활이 공부 되습니다(√ 됩니다).(KJAP/L1)
- ▶ 이 번 주 한국말 수업 끝나습니다(√ 끝납니다).(CHI/L2)
- ▶ 이곳은 따라서 벚꽃이 심어져 있어서 너무 아름답니다(√ 아름답습니다).(JAP/L2)
- ▶ "여름과 겨울은 역사적인 축제도 많고 즐겁니다만(√ 즐겁습니다만), 외국사람한테는 지내는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JAP/L2)
- ▶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오후에 보통 숙제를 한다(√ 한다).(DEN/L2)
- ▶ 예쁘게 입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같아요).(CHI/L3)
- ▶ 제가 세계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실을 뿐예요(√ 뿐이에요).(KUSA/L3)
- ▶ 하지만 제가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할거예요(√ 할 거예요).(KJAP/L3)
- ▶ 혹시 우리는 한국 사람에서 중국 전통 문화의 그림자를 찾어요(√ 찾아요).(CHI/L3)
- ▶ 그 라면을 먹는 것도 일본에 간 이유예요(√ 이유예요).(JAP/L4)
- ▶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배우는다(√ 배운다).(JAP/L4)
- ▶ "가까운데 먼 나라, 한국" 라는(√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JAP/L4)
- ▶ 제 시간에 잠을 자면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요).(CHI/L4)
- ▶ 예전에는 한국은 못사는 나라로면서 계율은 국가 이다고(√ 국가라고) 생각을 했읍니다.(KAUS/L5)
- ▶ 그랬더니 친구는 전혀 아니라고(√ 아니라고) 오히려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JAP/L6)
- ▶ "예를들면, 기독교민는 가족에서 갓난아기가 생길 경우, 그아기는 할수없이 집안교육을 기독교로 배워,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은 선택도 없이 기독교에 영향을 받읍니다."(√ 받읍니다) (KAUS/L6)
- ▶ "결국 종교는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할수 있는 종교를 본인이 믿고있다면, 이상이라고(√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KAUS/L6)

단순 형태 오류와 이형태 선택 오류를 포함한 형태 오류의 발생 경향을 학습자 수준과 언어권별로 나누어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2. 선행 용언의 자질에 따른 어미 선택 제약 오류

종결어미는 선행 용언의 동작성과 상태성 자질에 따라 다른 형태의 어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평서형 종결어미 ‘ㄴ/는다’는 동작성 동사에만 붙는 반면, 상태성 동사에는 ‘다’가 붙는다. 또한 감탄형 종결어미는 동작성 동사에는 ‘는군요’가, 상태성 동사에는 ‘군요’가 붙는다. 같은 양상으로 ‘ㄴ/는데요’와 ‘데요’도 선행 동사의 동작과 상태 자질에 따라 구별된다.

이와 같은 어미의 선택은 어미의 형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언의 동작, 상태 자질을 한국어의 감각에 맞게 받아 들여야 올바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에 좌우되지 않고 급별로 고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동사와 형용사의 오류 비율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동사에 형용사의 어미를 붙인 오류의 생산이 형용사에 동사의 어미를 붙인 오류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오류율을 보인다. 이는 한국어 동사의 수가 형용사의 수에 비해 많은 탓도 있겠지만 한국어의 심리동사류가 상태성으로 인식되기 쉬운데다가 ‘있다’와 같은 일부 상태성동사가 동사 어미를 취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시켜서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선행 용언의 자질에 따른 어미선택 제약의 오류 예들이다.

<동사에 형용사 어미를 사용한 오류>

- ▶ "다만, 금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팀이 이기다면(√이기한다면), 저도 기쁩니다.(ITA/L1)
- ▶ 내 살고 있는 집이 아주 근지 상판 없지만 분위기가 높고 밝아야 하다(√한다).(USA/L3)
- ▶ 취직 후에는 늘 목표를 세우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우다는(√배운다는) 의식으로 일을 하겠습니다.(JAP/L6)
- ▶ 얼마나 멋이든지 지금생각해도 심장이 뛰다(√뛴다).(CHI/L6)
- ▶ 그래서 개의 그림을 점점 머리속에 나타나지 않다(√않는다).(CHI/L6)
- ▶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바 우리나라말은 한글 만으로 표현하며 한자는 한국말이 아니라고 호소하고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다(√않는다).(JAP/L6)
- ▶ 종교를 믿지않다는(√믿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KAUS/L6)
- ▶ 하지만 개의 그림을 항상 제머리속에 나타나다(√나타난다).(CHI/L6)
- ▶ 지금 벌써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어릴때 여러 교육을 지키지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만 하는 것은 더 좋다고 생각하다(√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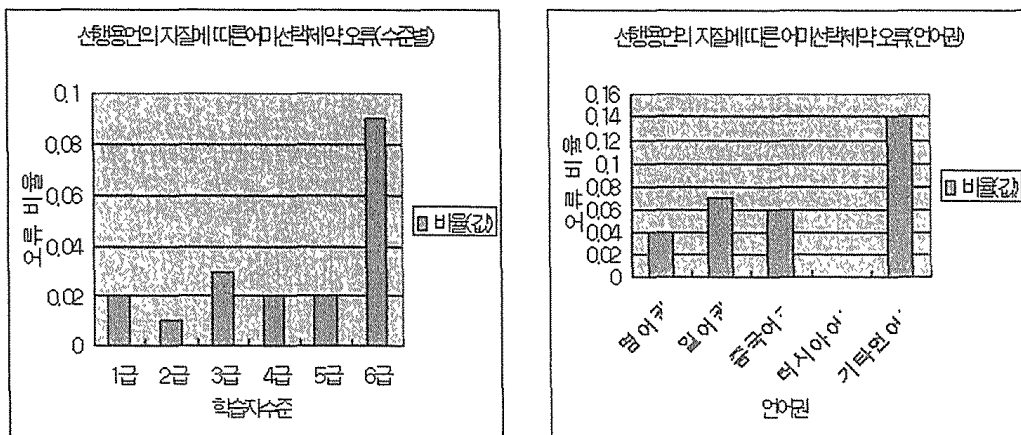
각한다).(JAP/L6)

- ▶ "불경기에서의 탈출, 경제구조 개혁이 정치가로서 우선 해야 하는 일인데, 현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다."(✓않는다).(JAP/L6)
- ▶ 동년배들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재학생 때 고아원에서 가출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루를 지내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다든지(✓한다든지) 등 사회 봉사 일을 몇 번이나 해 본 일이 있습니다.(MON/L6)
- ▶ "나의 모든 슬픔, 고통, 생각, 몽땅 비물에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듯 한다."(✓씻기는 듯 하다).(CHI/L6)

<형용사에 동사 어미를 사용한 오류>

- ▶ 그런데 이전에 오빠가 배의 상태가(컨디션이) 나쁘다고(✓나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후는 어때요?(JAP/L2)
- ▶ 그때는 뭇이 한국풍습인지 모르고 이상하다고(✓이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KJAP/L3)
- ▶ 한국말을 배우면 한국에 관한 또 이해할 수 있는다고(✓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회화할 수 없어요.(JAP/L4)
- ▶ 저에 대한 관심이 진자 있나본다고(✓있나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KUSA/L5)
- ▶ 종교를 꼭 필요하다고(✓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만 통해서 올바른 생활을 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KUSA/L6)
- ▶ 하지만 남자 친누는 아니다(✓아니다).(CHI/L6)

선행 용언의 자질에 따른 어미 선택 제약 오류의 발생 경향을 학습자 수준과 언어권별로 나누어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3. 서법 오류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종결어미는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명령형, 청유형 등의 서법 체계를 나타낸다. 이 서법은 때때로 억양과 같은 초분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고유한 종결어미의 형태를 갖는다. 한국어 학습자는 이 종결 형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잘못 사용으로 인해 서법 종결형의 오류를 보일 수 있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대체로 단순문 종결형에서 서법의 혼용을 보인다. 그리고 그 혼용되는 서법은 주로 평서형 어미를 의문문에 사용했다든지, 의문형 어미를 평서형에 사용한 경우이다. 그리고 명령형과 청유형이 비슷한 의미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때로 명령형과 청유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중급 이상의 학습자는 간접 화법의 내포문에서 중화된 종결어미를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이 오류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오류는 고급 학습자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주 특수하게 명령을 평서형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완곡어법을 잘못 사용해서 이 오류를 생산할 수도 있다. 다음은 이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한 예이다.

<평서형을 의문형으로 잘못 사용한 오류>

- ▶ 텔레비전 보기를 좋아하니까?(√좋아합니다).(BRI/L1)
- ▶ 버스하고 지하철을 탈 까요(√탈거예요).(CHI/L2)

<의문형을 평서형으로 잘못 사용한 오류>

- ▶ 잘지냈어요(√지내요)?(AUS/L2)
- ▶ 왜 중국을 중심이라고 말한다(√말해요)?(CHI/L2)
- ▶ 아마 조금 춥지요(√춥겠지요)?(AUS/L2)
- ▶ 이웃사촌 이라는 말도 있잖습니까(√있잖습니까).(KJAP/L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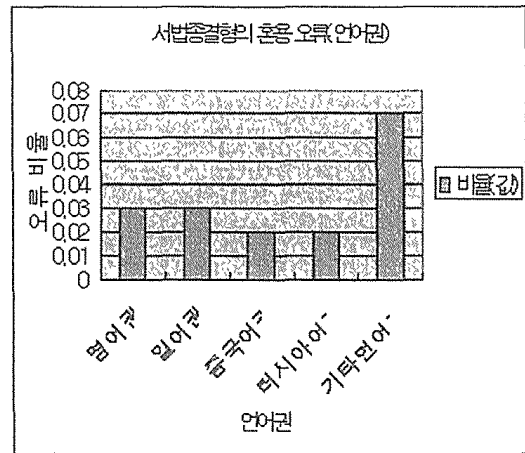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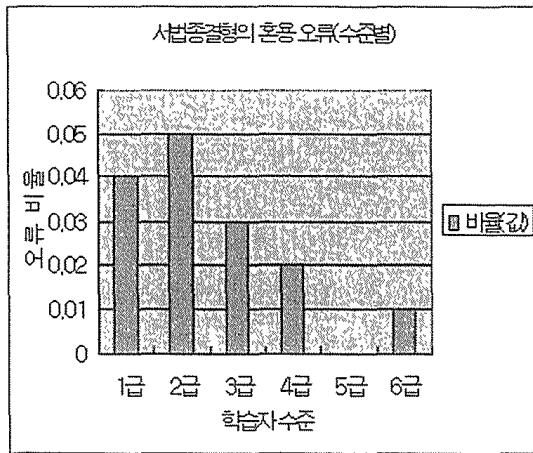
<청유형을 명령형으로 잘못 사용한 오류>

- ▶ 다음에 선생님도 같이 오십시오(√갑시다).(IND/L1)
- ▶ 이 계절에 매년 개최하는 큰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단체로 참가하니까 저도 같이 갈라고(√가자고) 했습니다.(KJAP/L3)

<명령형을 청유형으로 잘못 사용한 오류>

- ▶ 처음에 미국에 가고 싶었지만 집에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유학하고 싶으면 한국에 간다고(√가라고) 했는데 왔어요.(KJAP/L4)
- ▶ "즉, 딸님을 학원에 보내시면 합니다." (√보내십시오) (RUS/L6)

서법 종결형의 혼용으로 인한 오류의 발생 경향을 학습자 수준과 언어권별로 나누어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4. 문체 오류

한국어 종결어미는 문장체와 회화체의 구별에 따라 다른 형태를 쓸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 텍스트의 성격에 좌우되는 것으로 텍스트 전체를 보지 않고 문장만 보아서는 오류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일기 같은 글에서 ‘어요’형을 쓴다면 이상할 것이다. 또한 비격식적인 발표문에서 ‘습니다’형을 쓴다면 그것도 어색하다. 이와 같이 텍스트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문장체와 회화체를 구별하지 못한 쓴 경우를 문체 오류로 지칭한다.

문체 오류는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초급 학습자에게는 대화체 위주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문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텍스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학습자들은 이 문체의 구별이 요구되는데,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체 오류는 문장체의 텍스트에서 회화체의 종결어미를 쓴 경우와 회화체의 텍스트에 문장체의 종결어미를 쓴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가 먼저 회화체를 중심으로 종결어미를 학습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문체 오류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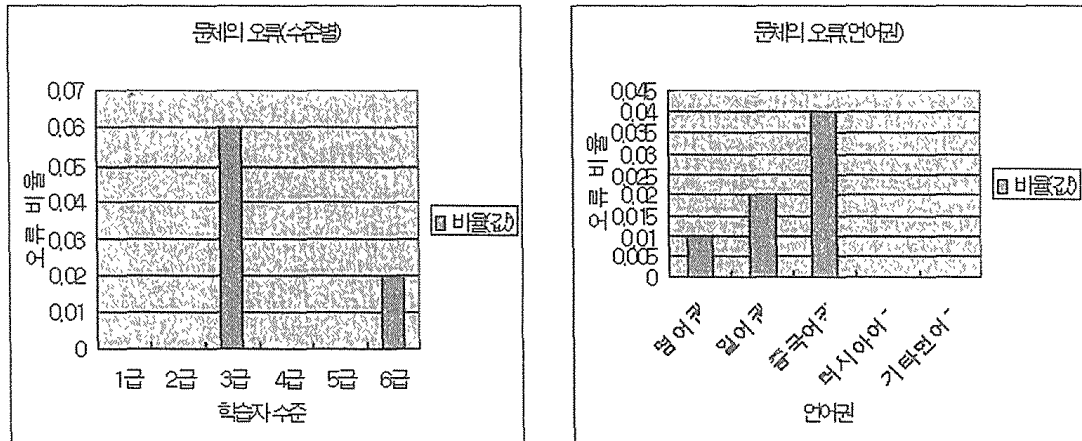
<문장체를 회화체로 사용한 오류>

- ▶ 그리고 중국 남자를 들이는 요리도 잘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중국보다 집안일을 많이 안 한다고 들었어요.(√들었다).(CHI/L3)
- ▶ 지금은 우리가 사는 집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는 것은 물론 옆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조차 몰라요.(√모른다).(CHI/L3)
- ▶ 여러나라에서 온 특이한 것과 친구한테서 받는 것을 치러 놓을 거예요.(√놓을 것이다).(USA/L3)
- ▶ 그때 도와주러 온 점원이 바로 그였대.(√그였다).(JAP/L6)
- ▶ 그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남자랑 사귀고 싶다는 말도 들어 본적이 없었거든.(√없었기 때문이다).(JAP/L6)

<회화체를 문장체로 사용한 오류>

▶ 그때 중국에서 지금처럼 아기옷이 예쁘지 않았습니까(✓않았어요).(CHI/L3)

문체의 혼용으로 인한 오류의 발생 경향을 학습자 수준과 언어권별로 나누어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5. 존대 오류

한국어의 존대법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으)시’로 표현하는 주체높임법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한 높임의 어휘를 써서 표현하는 어휘적 높임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종결어미로 나타내는 상대높임법이다.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에는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누어 6가지가 있지만 오류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높임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하는 것이다. 그 오류도 문장 단위로 포착되기는 어렵고 전체 텍스트를 고려해서만 가능하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학습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 높임의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한국어만큼 복잡하게 발달한 언어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임법의 오류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언어권에 무관하게 골고루 나타난다. 그런데 높임법을 단순 분류했을 때 높임법을 써야 하는 환경에서 낮춤말을 쓴 경우와 낮춤말을 써야 하는 환경에서 높임말을 쓴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에 비해 두 배쯤 많게 나타난다. 그것은 상대높임형이 낮춤형에 첨가적 형태로 덧붙기 때문이다. 첨가되는 형태를 실수로 붙이지 않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잘못 붙이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높임법을 써야 하는 환경에서 낮춤말을 쓴 경우는 같은 텍스트 내에서의 다른 문장의 높임법의 사용 여부와 비교하여 파악될 수 있다. 반면 낮춤말을 써야 하는 환경에서 높임말을 쓴 경우는 텍스트의 화용적 맥락을 고려해야만 파악될 수 있는 점도 이와 같은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한 원인이 될 것이다. 다음의 예는 존대법에서의 오류를 보여주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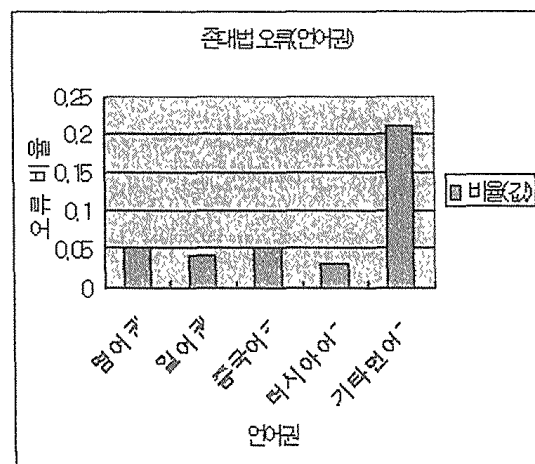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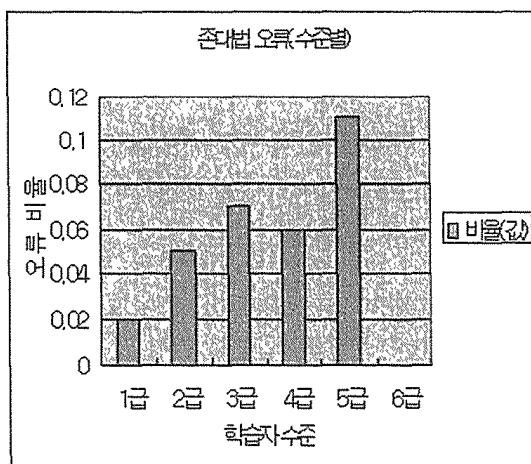
<높임 어미를 써야 하는데 낮춤 어미를 쓴 경우>

- ▶ 한식집맛 좋다(√ 좋습니다).(CHI/L1)
- ▶ 교수님이 10년 전 한국에 유학하셨을 때도 저와 같은 느낌을 들었지(√ 드셨겠지요).(JAP/L2)
- ▶ 지금 제방은 축하의 놀이터가 되어 있을 것이다(√ 것입니다).(KJAP/L3)
- ▶ 제 방이 제일 평화스럽다(√ 평화스럽습니다).(KUSA/L3)
- ▶ "하지만 내 친구 말로는 부자 되는 것은, 나에게 그림의 떡이야." (√ 떡이에요).(KAZ/L3)
- ▶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을까(√ 있을까요)?(KJAP/L3)
- ▶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시험을 보고 결국 제 꿈이 이루어졌다(√ 졌습니다).(MON/L4)
- ▶ 또 가까운 국지만 한국말도 모라서(√ 몰랐어요).(CHI/L4)
- ▶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있는 법이다(√ 법입니다).(USA/L5)
- ▶ 스트레스라는 거는 피레할 수 없는 일이 옅고 문제에서 동망갈 수 없고 견뎌내야 없어지는 것이다(√ 것입니다).(USA/L5)
- ▶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우나를 가거나 마사지를 받는다(√ 받습니다).(USA/L5)
- ▶ 해야할 일이나 중요한 일들을 모두다 적어서 앓 까먹게 해야한다(√ 해야합니다).(USA/L5)

<낮춤 어미를 써야 하는데 높임 어미를 쓴 경우>

- ▶ 지난 주에 받은 편지를 감사합니다(√ 고마워).(DEN/L2)
- ▶ 한국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몰라).(DEN/L2)
- ▶ 내가 서울에서 온지 벌써 한달 지냈어요(√ 지났어).(JAP/L2)
- ▶ 또는 시장과 백화점에서 여러 가지 화려한 옷이 있습니다(√ 있다).(CHI/L3)
- ▶ 미안합니다(√ 미안하다).(RUS/L4)
- ▶ 우리가 사는 환경안에서 오염에 관한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심각하다).(CHI/L5)

존대법 오류의 발생 경향을 학습자 수준과 언어권별로 나누어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6. 양태 오류

한국어의 종결어미는 양태 표현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한다. 언어학에서 양태(modality)라는 용어는 본래 언어 철학의 일부인 양상 논리(modal logic)에서 가능성(possibility)과 필연성(necessity)의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하던 것이다. 국어학에서는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 의무, 의도, 희망, 회의, 추론 등의 의미 범주들이 주로 전통적으로 양태의 의미 범주로 다루어진다.

양태가 실현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어미나 접사를 통해 형태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순 등을 통해 통사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강세나 억양 등 운율적 자질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등 다양한 품사의 어휘를 통해 어휘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으며, 이들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양태표현은 국어학적 개념에서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와 보조용언으로 실현되는 경우, 그리고 복합적인 표현으로 실현되는 경우이다(김지은 1998:19~24). 한국어 교육에서는 종결형으로 단순 종결어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조 용언과 결합되어 굳어진 종결형이나 의존명사 등 다른 표현과 결합되어 굳어진 종결형도 문형이라 하여 한 단위로 취급해 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이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종결어미로 다루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양태 의미가 표현되는 경우는 종결어미 자체가 양태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와 종결어미와 다른 표현과 결합된 복합 어미가 양태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3.6.1. 어미의 양태 의미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

한국어 학습자가 어미의 양태적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여 적절한 형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1급을 제외하고는 아주 폭넓게 나타난다. 1급에서 이러한 오류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어 입문 초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서법 기능을 하는 어미를 중심으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양태 의미를 담은 어미는 보다 고급한 한국어적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2급이 지나면서는 이런 어미들이 학습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오류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나타나는 대표적 오류 유형들로는 ‘거든요’를 써야 하는데 평서형 어미를 쓴 경우나, ‘지요’, ‘군요’등을 잘못 쓴 경우를 들 수 있다.

양태 어미의 오류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이다.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결어미들의 미묘한 표현들을 구분할 만큼 한국어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급 단계에서는 오류를 많이 생산하는 어미들로는 ‘ㄴ 데(요)’, ‘ㄴ 까(요)’, ‘거든(요)’, ‘군(요)’, ‘네(요)’ 등이다. 고급 단계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역시 중급과 유사한 어미들이 오류를 생산한다. 다음은 어미의 양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의 예들이다.

<어미의 양태 의미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

▶ 왜냐하면 항상 아플때 엄마하고 어빠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생각하거든요).(NEW/L2)

- ▶ 왜냐하면 오리 고향 좋은 산 하고 바다 다 있어요(✓있거든요).(CHI/L2)
- ▶ 조선생님의 안내로 유명한 갈비집에 가고,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군요(✓불렀지요).(JAP/L2)
- ▶ 목욕당에도 갔군요(✓갔지요).(JAP/L2)
- ▶ 그 표를 써서 자주 여행을 했었지(✓했었다).(JAP/L2)
- ▶ 왜냐면 TV에 많이 본거리는데 직접 가보니까 데게 되단았어요(✓대단했거든요).(KUSA/L2)
- ▶ 이 원룸이 지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좋을까요)?(KJAP/L3)
- ▶ 내가 부자라면 해외 여행을 자주 갈 것 같은데요(✓같아요).(KAZ/L3)
- ▶ 요즘 계속 복습하고 게다가 학기가 지내면서 피곤해진데 시험을 보기 전에 무리하고 싶지 않고 시험을 위해서만 하고 싶은 데요(✓공부하고 싶어요).(CAN/L3)
- ▶ 혼자 살면 건강을 제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법이에요(✓법이거든요).(KJAP/L4)
- ▶ 신문 발표도 많군요(✓많고요).(CHI/L4)
- ▶ 제가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월드컵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는데요(✓선택했어요).(USA/L4)
- ▶ 왜냐면 한글은 안호 같아서요(✓같았거든요).(JAP/L4)
- ▶ 결과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지요(✓했어요).(KUSA/L4)
- ▶ 지금 중국에서 한류 많이 나와서 한국 문화가 많이 알아면 좋겠네요(✓좋겠어요).(CHI/L4)
- ▶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없었거든요).(THA/L4)
- ▶ 잠도 1시간 밖에 못 잔데 어떻게 하지(✓되었을까)?(KUSA/L4)
- ▶ 물론 이유없이 아니면 계속해서 때리면 안 되잖아요(✓되지요).(USA/L6)
- ▶ 왜 그러냐고(✓그렇까) 생각해 봤다.(JAP/L6)
- ▶ 그것은 물론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 대충 정신과 한국사람의 깊은 정이 합쳐져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아닌가) 싶다.(JAP/L6)

3.6.2. 복합 어미의 양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

종결어미와 그에 선행하는 형태가 복합되어 양태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는 종결어미만으로 양태를 표현하는 경우보다 훨씬 다양하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도 1급부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유형의 오류들도 관련 어미들의 학습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어미의 학습과 함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학습될 수밖에 없는 데 학습된 환경과 학습된 어미가 언제나 정확히 일치되면서 생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실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학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움이 많아질수록 한국어 학습자의 혼란도 가중되게 된다.

1급에서 복합 어미의 양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ㄴ 겹니다’이다. 특히 이 형태는 ‘겠다’와 구별되지 않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2급으로 가면서 ‘ㄴ 거예요’, ‘ㄴ 것 같다’, ‘으려고 한다’, ‘고 싶다’, ‘을텐데(요)’, ‘ㄴ 수 있다/없다’, ‘다고 하다’ 등 대부분의 주요한 표현과 관련된 오류 등이 등장하게 되고, 중급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다시 오류 유형의 주류를 이루면서 ‘고요’, ‘는 일입니다’, ‘어야 한다’, ‘고 나다’, ‘어야겠다’ 등의 표현 등이 추가

된다. 역시 복합 어미 표현에서도 중급의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양태 오류 표현을 생산하게 된다. 고급이 되면서는 초급, 중급 단계에서 빈번하게 오류를 양산하던 기초적인 표현들의 오류가 줄어들지만 다시 새로이 ‘-ㄴ 답니다’, ‘있음직하다’와 같은 고급 표현의 오류들이 등장한다. 다음은 복합 어미의 양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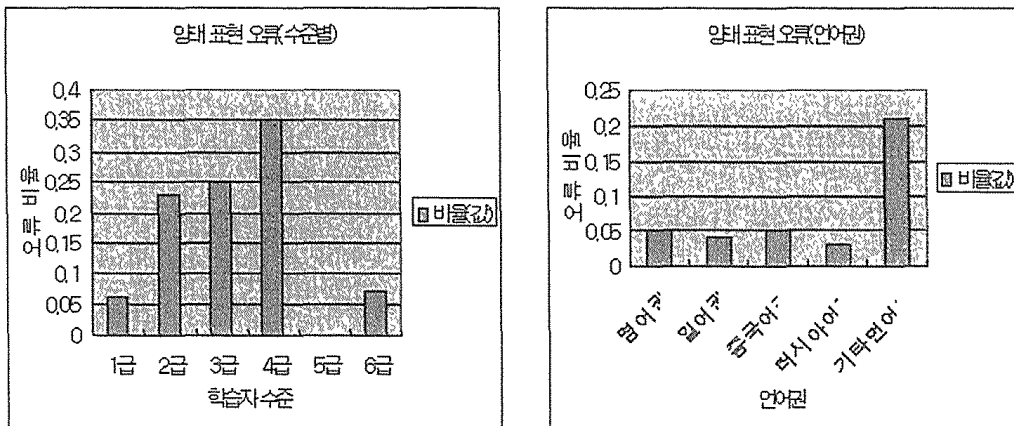
<복합 어미의 양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

- ▶ 나중에 출장으로 한국에 오때 만나겠습니다(√만날 겁니다).(KJAP/L1)
- ▶ 다만, 금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팀이 이기다면, 저도 기쁩니다(√기쁠 겁니다).(ITA/L1)
- ▶ 그렇지 않으면 한국말을 못 배으겠습니다(√배웠을 거예요).(USA/L2)
- ▶ 만마로 가기 가장 좋은 기회는 사월이겠다(√사월일 것 같다).(FRA/L2)
- ▶ 다음 주에 시험 때문에 이 번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겠다(√공부하려고 한다).(DEN/L2)
- ▶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좋았을텐데).(KUSA/L2)
- ▶ 그런데 단어는 공부를 자주 안 하면 단어를 다 잊어버리겠습니다(√잊어버리는 것 같아요).(USA/L2)
- ▶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자(√이야기하고 싶어요).(JAP/L2)
- ▶ 그러면 또 연락할 거예요(√게요).(JAP/L2)
- ▶ 전에 다른 나라 적이 오면 들어가지 않았어요(√들어갈 수 없었어요).(CHI/L2)
- ▶ 한국에 온지 벌써 한 달 되었는데 아직 한국 생활에 잘 익숙해지지 않았는데요(√익숙해지지않았어요).(CZE/L2)
- ▶ 햇벌이 별로 없어서 아마 겨울에는 못 삽니다(√살 거예요).(KJAP/L3)
- ▶ 왜냐면 확실히 살이 찌거예요(√찢 테니까요).(KOR/L3)
- ▶ 내가 선생님이라면 김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고 하면 좋아해요(√좋을 것 같아요).(RUS/L3)
- ▶ 그래도 요즘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와 줄게요(√줄 거예요).(KAZ/L3)
- ▶ "물론, 내가 돈을 내고 말고요." (√내고요).(KAZ/L3)
- ▶ 큰 창문이 있어서 집안 가득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있어요).(USA/L3)
- ▶ 성이별 된 분의 소원이 북한에 계시는 가족들을 뵈것을 이에요(√만나는 것일 거예요).(KUSA/L3)
- ▶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제일 중요한 일이 다시 진급 못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공부하는 일입니다).(CHI/L4)
- ▶ 아침 7시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해야 되고 오후 6시까지 시험을 봐요(√봐야 해요).(KUSA/L4)
- ▶ 그 때 우리는 빨리 먹고 가면 좋다고(√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KJAP/L4)
- ▶ 그 아저씨 행동이 이상한 걸 보면요(√보고 나서요).(KJAP/L4)
- ▶ 하루종일 잔 시간은 아마 12시간 넘었다(√넘었을 것이다).(TAI/L4)
- ▶ 중국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이하면 술을 적당적으로 마시면 몸에 좋아요(√좋대요).(CHI/L4)
- ▶ 너무 기쁘고 정말 열심히 한 번 할 거라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CHI/L4)
- ▶ 한자를 알게 되면 어려운 단어가 더 쉽게 배운다고(√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DEN/L4)
- ▶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현상에 믿지 않으면서 살인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자기 삶을 자기 힘만으로는 영위할 수 없다고 한답니까(√할

수 있습니까)?(KUSA/L6)

- ▶ 그럼 아이가 자꾸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가르칩니까)?(JAP/L6)
- ▶ 그랬는데 그는 5월달에 입대하기로 됐다(√했다고 한다).(JAP/L6)
- ▶ 수렵 생활에서 사람편에 활약하고 도움을 많이 줬던 개는 소중하게 여겨지고 신성시했음 직하다(√신성시했을 것이다).(RUS/L6)
- ▶ 예일 대학교에 건축의 디자인 학생과 틀리는 것은 그 들었던 스튜디오 중에 하나밖에 예일 대학에서 못 들읍니다(√들었다는 것입니다).(USA/L6)

종결어미 자체가 표현하는 양태 의미와 복합 어미가 표현하는 양태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의 경향을 학습자 수준과 언어권별로 나누어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연결어미 오류 유형의 분석

4.1 한국어의 연결어미

국어에서 둘 이상의 의미상 주어와 서술어가 연달아 나타날 때 이를 내포하거나 접속해 주는 것이 연결어미이다. 학교 문법에서 연결어미는 두 절을 동등한 자격으로 연결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 두 절을 부사적 용법의 종속절과 중심절로 연결해 주는 종속적 연결어미,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구분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장에 따라서는 두 절의 연결 관계가 대등적인지, 종속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는 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구분하는 데 유의미한 기준으로 작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조적 연결어미의 오류는 대개 보조용언 자체의 사용 오류와 긴밀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어휘적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대등, 종속, 보조 등의 구별 없이 연결어미의 오류를 태깅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결어미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 연결어미의 종류>

- ①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나열하는 것 : -고, -으며
- ② 한 가지 이상의 일이 동시에 일어남을 보이는 것 : -으면서
- ③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잇달아 일어남을 보이는 것 : -자
- ④ 서로 상반됨을 보이는 것 : -으나, -어도, 지마는, -라도, -되
- ⑤ 조건이나 가정을 보이는 것 : -으면, -라면, -거든, -더라도
- ⑥ 이유나 원인을 보이는 것 : -으니까, -으므로, -어서
- ⑦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의 지속을 보이는 것 : -어서
- ⑧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바뀌는 것을 보이는 것 : -다가
- ⑨ 다른 일이 더 보태지거나 점점 더해 감을 보이는 것 : -을 뿐더러, -을수록
- ⑩ 의도를 보이는 것 : -으려고, -고자
- ⑪ 목적을 보이는 것 : -으러
- ⑫ 어느 쪽이나 상관없이 없음을 보이는 것 : -거나, -든지
- ⑬ 반드시 그래야 함을 보이는 것 : -어야
- ⑭ 어떤 일의 배경을 보이는 것 : -는데
- ⑮ 어떤 행위가 어떤 정도까지 이룸을 보이는 것 : -도록

물론,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한국어에는 훨씬 더 많은 연결어미가 존재한다. 이런 많은 연결어미들을 다룸에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루는 연결어미들은 그 용법의 이해와 훈련을 위해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만 문법적으로 연결어미가 아닌 명사구 내포문 구성을 이루는 통사적 구성체⁸⁾가 있다. 이러한 구성체들은 아직 문법화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하나의 연결어미처럼 학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나의 연결어미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는 연결 어미 오류로 다루었다. 이런 경우들 중에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의 ‘-기 때문에’와 ‘-(으)러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 (1)가. 제 아버지가 일 때문에 항상 출장에 가고 있었으니까(√가졌기 때문에CL) 우리 엄마랑 시간이 지내고 있었다. (RUS/L5)
 나. 가끔 시간이 있을면(√있을때) 우리반 친구들 같이 밖에 놀러가서 사진도 잘 찍었습니다.(VIE/L5)

연결어미가 어순을 바꾸어 문장의 맨 끝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종결어미의 기능을 함으로써 연결어미의 오류에서 다루지 않고 종결어미의 오류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2)가. 우리 나라에도 이런 난방법으로 건설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요(√좋을텐데요 TL).(RUS/L5)

접속문의 시간적 표현의 존재 유무에 따라 시제어미를 지니는 연결어미의 경우에 범하는

8) 백봉자(1999)에서는 ‘통어적 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시제요소의 결합의 오류 시제어미 오류(TL 과 TO)로 다름으로써 주된 오류에 초점을 두어 태깅하였다. 따라서 연결어미의 적용에는 오류가 없으나 시제 사용을 잘못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제오류에서 다루었다.

(3) 그런데 이전에 오빠가 배의 상태가(컨디션이) 나쁘다고 말해고 있었지만(✓말했는데 CL TL) 그후는 어때요?(JAP/L2)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들을 의미기능에 따라 기본적으로 연결어미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다시 말해서 연결어미를 대치하거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접속문을 만들려고 한 의도가 있는 문장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된 오류인 연결어미 오류로 다루었다.

연결어미의 오류를 학습자들이 범하는 이유는 한국어의 연결어미가 가지고 있는 각 나름대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연결어미의 쓰임에 따르는 문법적 제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이다.

연결 어미의 오류를 5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연결어미의 첨가(CA)’, ‘연결어미의 생략(CO)’, ‘연결어미의 잘못 씌, 대치(CL)’, , ‘연결어미의 형태 오류(CF)’, ‘연결어미의 환언 오류(CP)’ 등으로 태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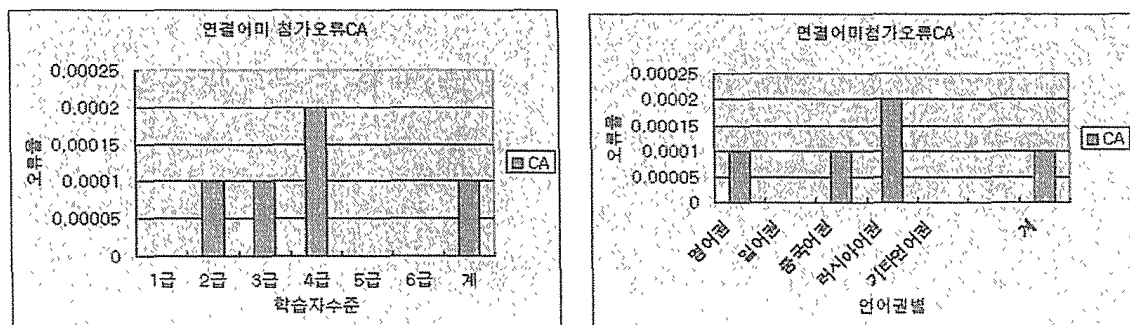
4.2. 연결어미 첨가의 오류 (CA)

‘연결어미의 첨가(CA)’는 연결어미가 불필요한 곳이나 이미 연결어미가 쓰여진 곳에 다른 연결어미를 더 쓴 오류이다. 실제로 용례로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다음의 3개의 용례만 추출되었다.

(4)가. 말 하는 거 하고 행동 하는 거 하고 사는 거는 모두 다 괜찮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여자 마 음을 읽어서(✓읽는 것 CA) 거예요. (KUSA/L2)

나. 죽어야 할텐데요.(✓죽을 텐데요.CA)(RUS/L3)

다. 한국사람과 결혼하고 해서(✓결혼해서) 연대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CHI/L4)



<표1>연결어미 첨가의 오류 분포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중급(4급)학습자와 러시아권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범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 오류의 수가 적으므로 경향을 알 수 있을 뿐 아직 단정지을 수는 없다.

4.3 연결어미의 생략의 오류

‘연결어미의 생략(CO)’은 적절한 연결어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학습자 오류이다, 역시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알고 있다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오류 유형으로 실제 자료에서도 용례가 그리 많지 않았다. 총 15 어절이 추출되었다.

- (5)가. 저의 한국어 수준이 말하기보다 쓸기가 더 어려워니까 작문반에 들어가 많은 노력(√노력하며 CO) 특히는 교수님의 가르친 것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문장과 문서 작성한 수준을 빠른 시일내로 제고된 것을 계획합니다.(CHI/L4)
- 나.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스트레스가 있는데 CO)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으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깨닫던 후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KUSA/L5)
- 다. 으레 주말이 되면 영화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어디든지(√하면서 항상CO) 같이 있었다.(SIN/L5)

예문 5는 동사의 어간을 쓰지 않음으로써 연결어미도 같이 빠진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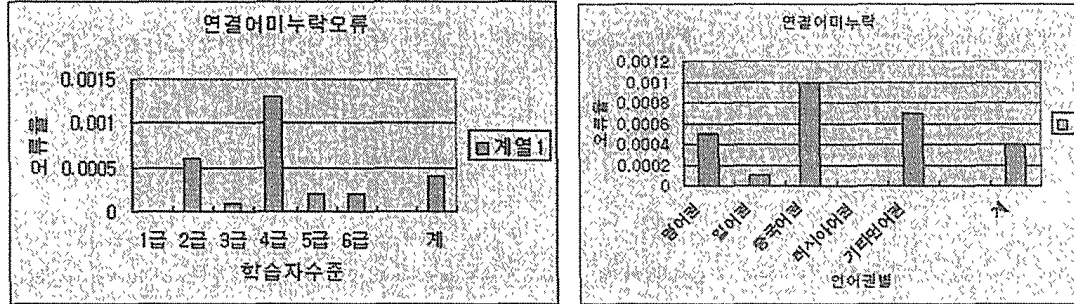
- (6)가. 오늘 오후에 친구의 회사 가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고 다시 한번 타고(√타야 해서CO) 힘들지요.(CHI/L2)
- 나.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는 TV를 많이 보야(√봐야CO) 돼요. (CHI/L4)
- 다.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제가 잘 듣고 잘 예습하고 숙제도 잘 한다고(√해야겠다고CO) 생각했다. (CHI/L4)
- 라. 저는 열성 이런 것은 일을 종할수(√좋아할 수CO) 있는 조건 이라고 생각합니다.(CHI/L6)
- 마. 이제부터도 여러 점이 있을지도 몰라도 우리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지고 살가자(√살아가자CO). (KJAP/L2)
- 바. 다음 주에 시험 때문에 이 번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겠다(√공부해야겠다CO).(DEN/L2)

위의 예문 (6)의 경우는 모두 연결어미 ‘-어’가 누락된 경우로서 예문6의 가는 어미가 다른 경우이고 예문 6의 나, 다, 마는 모두 복합구성을 이루는 요소인 ‘-어’가 빠진 경우이고 예문 6의 바는 2급 학습자의 오류자료이므로 ‘-어야겠다’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오류로 보인다.

- (7)가. 친구들과 놀만(√놀고만CO) 있지 않아?(JAP/L2)
- 나. 제가 세계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실(√도와주고 싶을CO) 뿐예요. (KUSA/L3)
- 다. "언제나 시간이 될 때(√될 때면CO), 4-5기로 수영도 합니다." (USA/L4)

위의 예문 (7)은 연결어미가 빠진 대표적인 경우로서 가와 나는 ‘-고’가 빠진 것이고 다는 ‘으면’이 빠진 경우이다.

이와 같이 연결어미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비교적 여러 단계에서 나타나므로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오류이며 특히 연결어미 ‘-어’가 빠진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음을 두드러진다.



<표2> 연결어미 생략에 의한 오류 분포(CO)

위의 도표에서 보면 단계별로는 2급과 4급 학습자가, 언어권별로는 중국어권 학습자가 더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4 연결어미 형태의 오류

일반적으로 ‘연결어미의 형태 오류(CF)’는 여러 이형태를 가진 연결어미 중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이형태를 쓴 경우이다. 총 144 어절의 용례가 나와서 연결어미의 오류 중 2번째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오류에서는 주로 언어형태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영어권이나 기타 외국어권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오류로 기대가 되었으나 이번 연구 자료에서는 기타언어권만이 매우 높은 오류율을 나타냄으로써 한국어의 어미형태에 대한 학습이 모국어의 언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8)가. 한국어은 아주 어려운 언어이래서(√언어라서 CF) 열심히 노력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KARG/L4)
- 나. 그 Spirit Island는 아주 작아지만(√작지만 CF) 특별한 나무이 있어서 경치가 픽 예뻐데요.(BRI/L2)
- 다. 요즘 계속 복습하고 게다가 학기가 지내면서 피곤해진데(√피곤해지는데 CF) 시험을 보기 전에 무리하고 싶지 않고 시험을 위해서만 하고 싶은 데요.(CAN/L3)
- 라. 내 친구 우종범이 자주 도왔습니까.(√도와주니까)(JAP/L2)
- 마. 저는 한국말 몰라요, 그러더니 상대방이 교포이면 (√"교포면 CF) 한국말 해야죠 한마디로 말씀 해주었어요.(CHI/L4)
- 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점심을 먹으러 가는 학생 식당에서 음식을 수차에 시켰서(√시켜서)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CZE/L2)

사. 앞으로 내가 아이들 나면 아이들한테 한국말 가르치고(√가르치고 CF) 씩습니다. (USA/L4)

아. 먼저 일이 너무 힘들은 것 같엔데(√같았는데 CF) 지금은 여자가 힘이 들어요. (KUSA/L2)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국적이나 언어권을 별로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오류들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런 형태적인 오류는 주로 발음상의 어려움과 한글표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는 것으로 보여 소리나는 대로 적으려는 생각도 오류를 범하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은 아래의 중국인 학습자들의 /ㄹ/소리와 관련한 오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9)가. 예를 들으면(√들면 CF)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그리고 소음공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CHI/L5)

나. "애를 들으면(√들면 CF) 회사 손님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이름이 딱 들어 보고 나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CHI/L4)

다. 스트레스 이 단어를 드면(√들으면 CF) 좀 무거운 느낌이 난다.(CHI/L5)

라. 한가한 오후에 커피를 끓여 놓았고 거실에서 앉아서 라디오에서 흘러 나온 음악을 들면서(√들으면서 CF) 좋아하는 소설을 읽었다.(CHI/L5)

하지만 이러한 발음과 연관이 있는 오류는 비단 중국인 학습자만의 상황이 아니고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많은 학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10)가. 한시간에 쉽고(√쉬고) 습으로 소풍을 갔습니다.(CAN/L1)

나. 예기 이니까(√애기니까) 지금 읍니다.(USA/L1)

다. 결과를 읽거(√읽어) 족전에 너무나 떨어져서 심장마비가 이루어난 것 같았어요.(KUSA/L4)

라. 제 옆에 사는 미국에서 오는 여자가 내 친한 친구가 됐읍니다.(√됐습니다)(KGER/L2)

마. 깎아면(√깎으면) 안돼요.(IND/L2)

바. 하숙집은 2년전에 났은 막니까 새롭고 깨끗하고 학교에도 걸어서 5분이서(√5분 밖에 안 걸리니까) 아주 가까워요.(JAP/L2)

사. 처음에 미국에 가고 싶었지만 집에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유학하고 싶으면 한국에 간다고(√가라고 했는데) 왔어요. (KJAP/L4)

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화를 내셔야(√내셔야CF) 되겠습니까?(MON/L5)

동사와 형용사의 연결어미의 결합방법의 차이에 익숙하지 않아서 범하는 실수도 있다. 또 연결어미의 형태를 제대로 인식 못하여 분석이 잘못된 채로 범해지는 실수도 있다.

(11)가. 개만 만나면(√만나면) 하루종일 기분을 좋다.(CHI/L6)

나. "세대차이가 없으면(√없으면 CF) 발전이 없고, 오히려 발전이 없으면 세대차이가 없을 것이다." (RUS/L5)

다. 우리나라에서 음식 문화가 아주 풍부한데(√풍부한데CF) 옛날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읍니다. (UKR/L3)

라. 활게 슬프하고(√슬피하고) 함께 기쁜 했어요. (TAI/L1)

마. 자면 잘수로(√잘수록 CF) 더 자고 싶어서 일어나도 힘들기 때문에 밥도 안 먹었다.(T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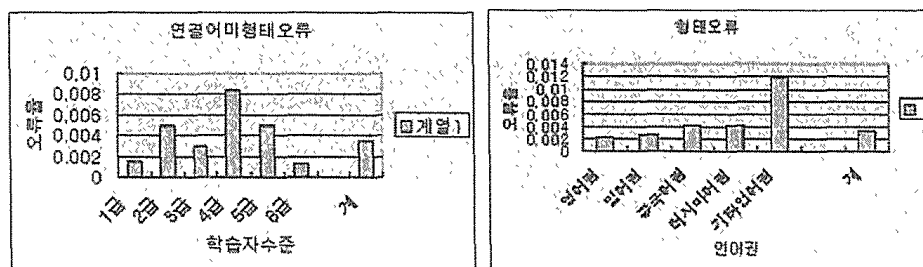
L4)

바. 그래서 이번 학기 한국말을 공부하면서 문화의 재료를 모아서(√모아서CF) 작은 논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VIE/ L4)

연결어미의 종류에 따라 문법적인 쓰임이 달라서 시제어미와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서 시제어미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어미들이 있는데 이런 연결어미에 시제어미를 결합시킴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오류도 형태적 오류(CF)로 분류하였다. ‘-어서’와 같이 항상 시제가 없이 나와야 하는 연결어미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12) 만났어(✓ 만나서 CF) 반갑습니다.(CHI/L4)

연결어미의 형태 오류의 분포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오며 기타 언어권에서 비교적 많은 오류가 나왔다.



<도표 3 연결어미형태의 오류 분포>

4.5 연결어미 환원의 오류

‘연결어미의 환원 오류(CP)’는 화자가 문맥에서 보여주는 의미로 볼 때 한국어에 적절한 연결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문법 요소나 어휘로 대치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분석자가 학습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13) 그 위해에는(√그러기 위해서는 CP) 날씨가 따뜻한 곳에 있어야 돼요.(JAP/L3/F)

위의 예에서 ‘그 위해에는’이라는 부분은 해독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어려운 경우라도 시험이 아닌 작문 첨삭지도의 경우에는 교정을 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어느 부분을 첨삭지도 해야 할지 불분명할 때 분석에 어려움이 다르고 게다가 적은 수의 어절만을 교정하기가 무척어려워 표현오류인 R로 분류하거나 대개는 여러 어절을 묶어서 대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예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14)가. 책상에서 공부하기도 쫓고 침대에서 누워서 음악듣이(√음악 들으면서 CP) 자니다 좋습니다.
(KUSA/L3/M)

나. 수업이 1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간 후에는 낮잠 자거는(√자거나 CP) 숙제를 하거나 합니다.(KJAP/L3/M)

간혹 어미부분의 일부만을 대체하면 되는 연결어미의 대치오류인 CL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판단이 어려울 때도 많다.

(15)가. 교육원장님께서는 나한테 유학 가도록 권하시는(√권하실 CP) 때 알두르는 독일에 가고 싶었다. (UZB/L2/M)

나. 아마 나는 우지베키스탄에 돌아올' 때(√돌아가면 CP) 알두르는 벌써 도강르에 갔을 것이다.(UZB/L2/M)

다. 시골에 친척이 많고 할머니 집에 간때(√가면CP) 사촌에게 안부를 물습니다.(CHI/L3/F)

라. 하지만 우리 중국이 전통 풍습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즘 중국 젊은이 옛날에 중국 사람이 어떻게 생활한 줄(√생활했는지 CP) 몰라요.(CHI/L3/F)

마. 다음에는 선생님은 옛날 한국 사람 만날 때 어떻게 절하는 걸(√절하는지 CP) 가르쳐 줘었어요.(CHI/L3/F)

또 아직 학습자가 적절한 표현방식인 상황에 맞는 표현을 미처 배우지 못하였거나 익히지 못하여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표현을 제시해 주거나 학습을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16)가. "어느날, 대학교 때 교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너는 자기 identity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면(√고민할 바에야 CP) 차라리 한국에 직접가서 자기의 눈으로 한국을 보면 어떨까?"

(KJAP/L4/F)

나. 지금 4급에 올라가고 나서 한국 문학 더 공부할 때(√공부하니까 CP 아주 재미있어
요.(CHI/L4/F)

다. 한국말을 배우면 한국에 관한(√관해서도 CP)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회화
할 수 없어요. (JAP/L4 /F)

특이하게도 연결어미의 오류 중에서 이 오류는 성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흥미롭다.

(17)가. 한국말을 배우는 이유는 처음엔 년편 때문에(√때문이고 CP) 이제는 자기의 취미 있어
요.(CHI/L4/F)

나. 한국 사람하고 교류는 너무 답답해니까 한국말을 배우는(√배우려는 CP) 소원은 더욱 심했어
요.(CHI/L4/F)

다. 제가 브라질에서 태원 했지만 저의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서 집에서 한국 사람처럼 교육 받아
서 제가 한국 사람인지(√사람이라고 CP) 느낀다. (BRA/L4/F)

라. 한국말 재미있지는 있지만(√재미있으니까 CP) 내가 생각하는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요.(CHI/L4 /F)

마. "여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했는데, 아직도(√했는데도 CP) 시험날에 또 긴장해
서 잠을 못 잤어요."(KUSA/L4/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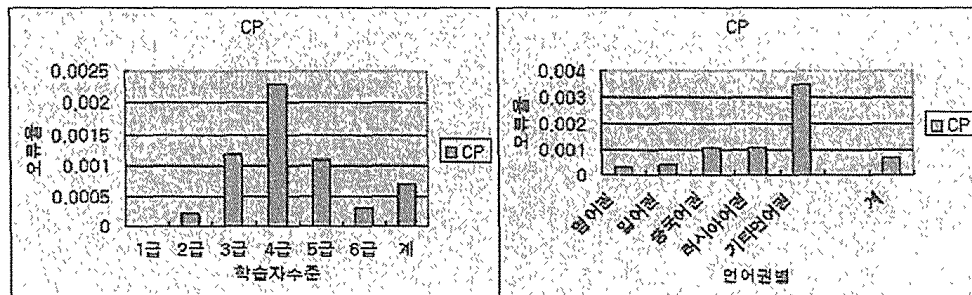
바. 제 누나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된다고 CP) 말해요.(USA/L4/M)

사. 지금은 내가 아침마다 우유를 마시고 운동 좀 하고(√하고 해서CP) 우울한 기분도 벗어나야 한
다. (TAI/L4/M)

아. 제가 한국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많아서CP) 창고를 치는 것을 배우게 시작하면서 한국 전통
적인 춤을 주웠습니다. (RUS/L6/F)

위의 예문에서 바와 사를 제외하면 모두 여성 학습자가 범한 오류이다. 게다가 문장의 길
이도 짧지 않은 것을 볼 때 학습자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자유롭게 어휘와 문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가 여겨지며 이것은 기타 언어권의 학습자가 상
대적으로 오류율이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연결어미의 환원에 의한 오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이 기타 언어권과 중고
급에서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표5> 연결어미 환원의 오류 분포

환원의 오류를 분석할 때 전성 어미를 연결 어미로 사용한 오류는 다루지 않고 전성어미 오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즉 다음 예문 13과 같은 오류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

(18)직어니까(✓찍은DL) 사진에서 티나씨 외에 5명은 있습니다.(L1/IND)

오히려 다음의 용례들이 보여 주듯이 주로 여성 학습자의 연결어미 오류에서 환원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살펴 보면 80%에 이르러서 남성의 4배에 해당하는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19)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빈둥빈둥 놀면서 먹기만 하는 사람은 또는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는(✓않고) 부담만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고 합니다. (KRUS/L6/F)

나. 다행히 4학년 2학기에는 Korea Found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러 한국에 가도록(✓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는 것을 알고보니 너무 기뻐했습니다.(VIE/L5/F)

다. 우리 나라 밥상과 한국 식탁을 비교하면 셀러드 같은 것은 야채로 만든 것이지만 한국인 식탁이 다양한 반찬으로(✓반찬이 있어) 뛰어 납니다. (RUS/L5/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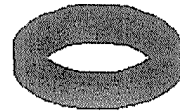
라.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어려워져서) 국내 에너지를 절약해서 사는 거예요. (RUS/L5/F)

마.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음식도 먹고 잠갔으니 몰라보게(✓자고 나니까 금방) TORONTO에 도착했어요. (POL/L5 /F)

	남	여	계
용례수	6	24	30
비율	20%	80%	100%
언어수준	2,3,4	3,4,5,6	

용례수

비율



<도표 6> 연결어미 오류 중 환원의 오류의 남녀 성비

4.6 연결어미 대치의 오류

‘연결어미의 잘못 씌, 대치(CL)’는 적절한 연결어미를 쓰지 못하고 다른 기능을 가진 어미를 쓴 오류이다. 예상대로 연결어미의 오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오류였다. 총 644개의 빈도를 보임으로써 연결어미 오류 총 갯수인 835개의 무려 77.2%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미 예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특히 의미 범주가 유사한 연결어미 간에 혼동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류가 가장 많이 나온 연결어미는 ‘-어’ 또는 ‘-어서’로서 형태 오류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대치오류에서도 빈도가 가장 높았다.

(20) 가. 비행기를 타서(✓타고 CL) 갔어요.(KUSA/L2)

나. 그 때 우리는 빨리 먹고 가면(✓가야 CL) 좋다고 생각했어요.(KJAP/L4)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거나 대표적인 연결어미의 대치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대표적인 대치 오류		
연결어미	수효	비율(%)
-거나	4	
-게	3	
-고	44	13.9%
-고 나서	1	
-기 때문에	4	
-냐고	1	
-느라고	2	
-는다고	1	
-는다는데	1	
-는다면	1	
-는데	42	13.3%
-는데도	1	
-는지	2	
-다가	1	
-든	2	
-든지	1	
-어도	7	
-어봤자	1	
-어서	110	34.8%
-어야	1	
-으니까	15	4.7%
-으러	3	
-으려고	7	
-으려면	4	
-으며	1	
-으면	25	7.99%
-으면서	12	
-으므로	1	
-을 때	4	
-을 텐데	1	
-을지	1	
-자마자	1	
-지만	11	
계	316	

위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초급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연결어미들의 대치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22)가. 이 글을 보면(√보고) CL 나는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CHI/L5)

나. 그리고 재 부모님의 경남 사투리를 자주 듣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부산 억양이 나오기 때문에(√나오는데CL) 1년 동안 신경이 많이 썼어도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서 고민입니다.(CHI/L4)

다. 지금 한국 생활도 익숙해져서 한국말도 많이 배워서(√배우고CL) 한국 친구가 많이 사귀어

요.(CHI/L4)

라. 지난 학기에 제가 휴학이니까(√휴학해서) 오래오래 공부를 못했으니까 좀 긴장했지만 지금 우리반 선생님이 잘 친절하고 잘 가르치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다.(CHI/L4)

마.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제가 잘 듣고 잘 예습하고 숙제도 잘 한다고(√하려고CL) 생각했다.(CHI/L4)

바. 게다가 선배들이은 5급을 더 어렵다고(√어려워CL) 합니다.(CHI/L4)

사. "한국과 무역 한거든(√무역하게 되면CL) 한국문화, 정치, 역사 등이 좀 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CHI/L4)

아. 도는 대학교 졸업 후에 취직하다가(√취직했는데CL) 제가 취지는 회사가 한국회사입니다.(CHI/L4)

자. 한국 사람하고 교류는 너무 답답해니까(√답답해서 CL) 한국말을 배우는 소원은 더욱 심했어요.(CHI/L4)

차.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와 만나고 나서 파티를 하거든(√하거나) 노래방에 가거든 반겨워요.(CHI/L4)

카.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만났어(√만나서CL) 반갑습니다, 상대방에 인사를 해요."(CHI/L4)

타. 그래서 칠레에 있으면 한국 음식을 먹어(√먹고)싶어요.(KOR/L3)

파. 한국에 있으면 칠레 음식을 먹어(√먹고CL) 싶어요.(KOR/L3)

하. 그리고 이 때부터 우리 근처에 있는 슈퍼에 식료품을 사러 가는데(√가고CL) 혼자서 밥을 준비합니다.(CZE/L2)

(22)가. 저에게는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 제 입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갈아서 CL) 그래요.(CZE/L2)

나. 제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고향을 아주 그리워했는데 저녁마다 침대에서 누워 있으며(√누워서 CL) 우리 가족을 생각했습니다.(CZE/ 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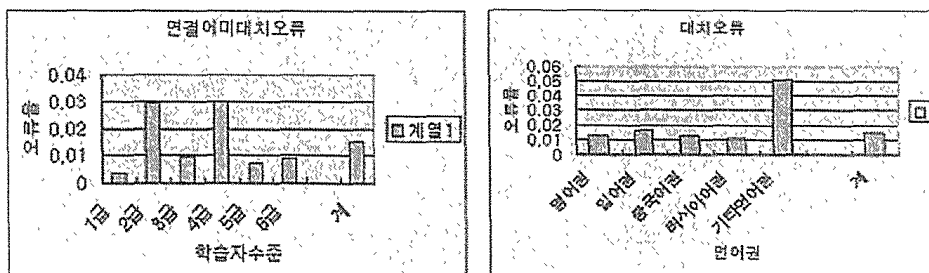
다. 이렇게 늦게 쓰니게(√써서/CL) 미안해요. (CZE/L2)

라. 저녁마다 침대에서 누워고(√누워CL) 있어서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했어요.(CZE/L2)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어미의 대치는 연결어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비슷한 의미의 연결어미들의 용법의 차이에 대해 학습이 덜 되어 범하는 오류이다.

연결어미의 대치의 오류를 분포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대체로 2급과 4급에서 많은 대치 오류를 보이고 있고 언어권은 기타언어권에서 대단히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도표 6> 연결어미 대치의 오류 분포

4.7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연결어미의 오류는 가장 많은 경우가 연결어미 대치의 오류이고 그 다음이 형태의 오류이었고 연결어미 첨가의 오류나 연결어미 생략의 오류는 극히 일부의 예만 보였다. 연결어미 환원의 오류로 분류된 오류들을 모아서 성별로 분류를 해 보았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4배나 많이 나온 것은 특이할 일이고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지 못 하였고 연결어미 대치에서 약 2배가 나오는 등 이런 경향이 형태의 오류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으나 자세한 분석은 행하지 않았다.

연결어미의 대치의 오류가 많고 형태의 오류도 많은 것은 한국어의 학습에서 연결어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문법적인 정확성을 요하는 표현이 많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보겠다. 특히 연결어미 '-어(서)'는 오류의 수가 대단히 많았고 연결어미 대치 오류의 1/3 정도에 이를 정도나 나왔다.

연결어미의 오류는 일반적으로 대치의 오류이며 형태의 오류도 많으므로 연결어미의 오류의 용례를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5. 전성 어미 오류 유형의 분석

학교 문법에서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분류된다.⁹⁾ 명사형 전성어미는 문장의 기능을 명사화하여 명사절로 안긴 문장을 만들어 주거나 명사구 내포문을 만드는 것으로 대표적인 형태로는 '-음'과 '-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명사절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명사형 어미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의 종결형에 '-는 것'이 붙어서, 혹은 문장의 관형사형에 '것'이 붙어서 명사절을 이루고 있다. 또 실제로 '-음'이나 '-기'에 의한 명사절보다는 '-는 것' 혹은 '-다는 것'에 의한 명사절이 훨씬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 '-음', '-기' 외에 '-는 것'과 '-다는 것'도 포함시켜 함께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다음은 학교 문법에서 선행절을 관형사처럼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형 어미로 '-은', '-는', '-을', '-던' 등을 들고 있다.

5.1. 전성 어미와 연결 어미와의 혼용에 의한 오류

먼저 한국어의 전성 어미, 즉 관형사형 어미나 명사형 어미가 복합문에 사용되므로 한

9) 부사형 어미로 '-게', '-도록', '-듯이'와 부사절을 이끄는 접미사 '-이'를 전성어미로 포함시키기도 하나, 오류에 있어서는 그 분포가 많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10만 어절 중 부사형 어미에서의 형태적 오류도 몇 어절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 과일은 너무 비싸서 이 방법은 못하기게(√못하게) 되었다.(L5/CHI)

#관광지들 많(√많이) 봤어요.(L2/KUSA)

또 부사형 어미 '-게'와 '-도록', '-듯이'의 혼용도 2어절 발견되고 있다.

#우리가 오델을 주문한 사이에 어떤 취하게(√취한 듯이) 보이는 아저씨가 내 옆에 왔어요.(L4/KJAP)

국어 학습자는 복합문의 또 다른 하위 부류인 접속문을 이루는 연결 어미와의 혼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복합문을 이루는 접속 어미와 전성 어미 전체의 오류 중에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미 예측할 수 있듯이 한국어 학습자는 동일한 연결 어미 간의 혼용에 의한 오류는 빈번할 수 있으나 접속 어미와 전성 어미의 오류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성 어미를 연결 어미로 사용하는 오류이다. 이는 전성 어미 ‘-은/-는/-을’ 혹은 ‘-기, -는 것’ 대신 다른 연결 어미를 사용하는 오류로서 일반적으로 주로 초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선 관형사형 어미를 다른 연결 어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명사형 어미를 다른 연결 어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직어니까(√적은) 사진에서 티나씨 외에 5명은 있습니다.(L1/IND)

#그러나 요즘은 학교 때문에 아주 바빠서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러(√생각할) 시간이 없어요.(L2/CZE)

#중국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에 있고 같은 습관이 많지만 달라(√다른) 점도 있다.(L3/CHI₁)¹⁰⁾

#거실 작에 커(√큰) 나무 두 개 있어요.(L3/CHI₂)

#그래서 내 자식들 나보다 행복할 아이들이라고(√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든다.(L4/CAZ)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 있어서 배워서(√배우는 게) 좋았습니다.(L3/JAP)

#그런데 조 선생님이 학원을 설립하셨서(√설립하신 지) 한 반년이 지냈습니다만 학원은 순조롭니까?(L2/JAP)

#그렇지만 매일 심심하고 기숙사안에 식당을 없어서 밥을 먹으면(√먹기가) 힘들었어요.(L3/CHI)

위에서 보는 바처럼, 명백한 오류는 초급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중급에서의 명백한 오류는 일반적으로 중국인 화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급에서의 오류는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도 가끔 실수를 할 수 있는 오류로 보인다. 그리고 중급과 고급에서는 인용의 ‘-라고’와 ‘-라는’에 따른 오류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위와는 반대로 연결 어미를 사용하는 데에 전성 어미를 사용하는 오류가 있다. 이는 앞에 기술한 오류에 비하면 그 빈도가 적으며, 이도 역시 명백한 오류는 초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저녁 5시쯤에 떠나가서 배 타는 데에 도착하는(√도착하니까) 밤 10시 쯤이 되었습니다.(L2/KJAP)

#저는 패션설계를 공부하기가(√공부하러) 옵니다.(L1/CHI)

#조선생님 덕분에 연세어학당을 2급부터 시작하기(√시작하게) 됐습니다.(L2/JAP)

#이렇게 말하면 조선생님은 예쁜 선생님을 보고 싶다 라는(√라고) 말씀하지도 모릅니지만 유감스러우나 우리 선생님은 결혼했습니다.(L6/JAP)

10)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적 뒤에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함으로써 구분하기로 하겠다.

위에서와 같이 명백한 오류는 주로 초급(L1/L2)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고급에서는 인용의 ‘-라고’와 ‘-라는’의 혼용만이 보여진다.

위의 전성 어미와 연결 어미간의 혼용에 의한 오류 빈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¹¹⁾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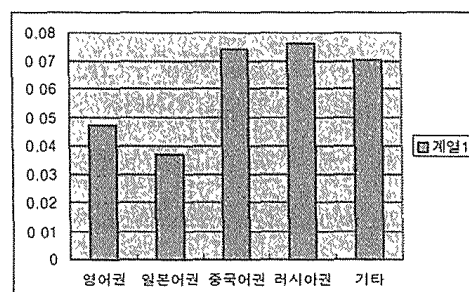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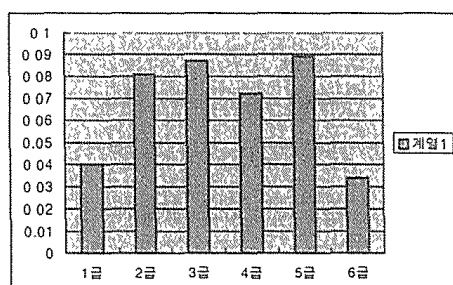
오류의 유형	빈도	오류의 유형	빈도
전성 어미를 연결어미로	50	명사형 어미를 연결 어미로	14
		관형사형 어미를 연결 어미로	36
연결 어미를 전성어미로	17	연결어미를 명사형 어미로	7
		연결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로	10
누계	67	누계	67

<표2>

오류의 유형	빈도
명사형 어미와 연결 어미의 혼용	21
관형사형 어미와 연결 어미의 혼용	46
누계	67

위의 <표1>에서 보듯이 관형사형 어미를 대신하여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오류가 가장 빈도가 높다.

다음으로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간의 혼용으로 인한 오류의 학습자 수준별, 언어권별 오류의 비율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¹²⁾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간의 혼용에 의한 오류는 전급에 고루 퍼져 있으며, 중국어권 화자에게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1) 이 외에 부사형 어미 ‘-게’나 접미사 ‘-이’를 연결 어미로 잘못 쓰는 오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부사형 어미는 제외하기로 한다.

#시간을 확인해 가면서 초조해서(√/초조하게) 기다렸어요.(LB5-B8/POL)

12) 여기에서 표로 보이는 오류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급별 오류의 비율은 1급의 경우, 1급의 전체 어절수에 대한 1급의 해당 오류 어절수의 비율, 2급은 2급의 전체 어절수에 대한 2급에서의 해당 오류 어절수의 비율 등으로 산출하였다. 마찬가지로 언어권별로 보이는 오류의 비율도, 영어권 화자의 오류 비율은 영어권 화자의 전체 어절수에 대한 영어권에서의 해당 오류 어절수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즉 급별 오류 비율을 보이는 도표의 Y축의 숫자는 [오류 어절수 ÷ 해당 급의 총어절수 × 100]이며, 언어권별 오류 비율을 보이는 도표에서 Y축의 숫자는 [오류 어절수 ÷ 해당 언어권의 총 어절수 × 100]이다.

5.2. 명사형 전성 어미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혼용하는 오류

다음으로는 전성어미끼리의 혼용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초급에서 고급까지 두루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관형사형 어미나 명사형 어미의 뒤에 나타나는 명사와의 연어 관계를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로 보인다. 즉 ‘전에’ 앞에는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연결되며, ‘후에’ 앞에는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연결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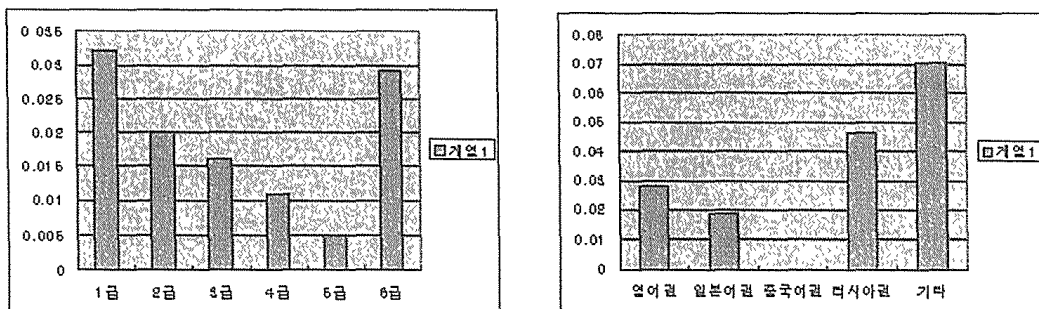
#동경에 살고 있었지만 한국에 올(√오기) 전에 십일간 오카야마에 있었습니다.(L1/JAP)

#한국에 왔기(√온) 후에 고향을 아주 그리워했어요.(L2/CZE)

#학원에 다니기(√다닌) 덕분에 학교에서도 수업중에 여러 가지 잘 생각하는 습관이 됐습니다.(L6/JAP)

#그리고 어려서부터 영어를 공부 시작하고 이스라엘에 오기(√온) 후 헐리어도 배웠습니다.(L6/ISR)

위에서 보는 바처럼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의 혼용에 의한 오류는 ‘~기 전에, ~은 후에, ~은 덕분에’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급별, 언어권별 오류의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의 혼용은 급이 높아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6급의 경우 그 오류율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 덕분에’의 경우 이를 ‘-기 덕분에’ 등으로 잘못 쓴 오류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5.3. 전성 어미를 생략하는 오류¹³⁾

먼저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 머리명사 앞에서, 혹은 불완전 명사 앞에서 고루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초급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로 중국어 학습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13) 이는 엄밀히 말하면 이는 학습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성어미의 사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빠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후 수업이 끝내후에(✓끝난 후에) 도서관에 가겠습니다.(L1/CHI₁)
- #그리고, 제 종사람과(✓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테이블에서 기쁘었습니다.(L1/KJAP)
- #간차나부리에 갔(✓간) 후에 푸켓에 갔습니다(L1/ISR)
- #나는 건 처음에 한국에 왔으때(✓왔을 때) 하숙집에 살았다.(L1/CHI₂)
- #후문은 산에 있는 숲으로 나가문이다.(✓나가는 문이다)(L3/CHI)

그런데 심지어 고급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인용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 #그림을 잘 그리면 공부도 잘 해야 하겠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L6/JAP)
- #말로만 이야기해도 모르(✓모를)때, 때려고 말로 해요.(L6/J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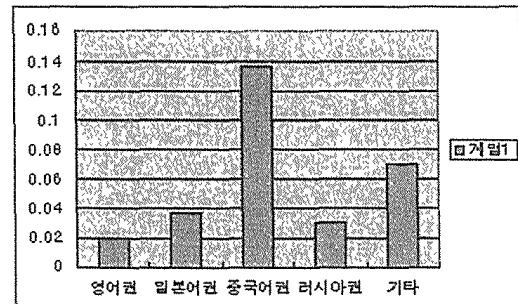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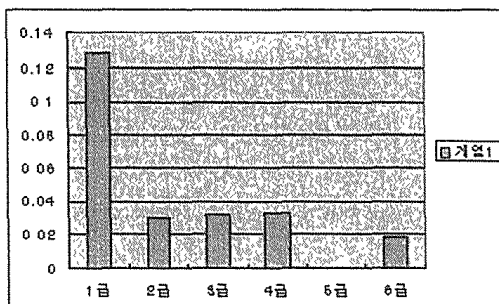
위와 같이 인용의 ‘-다는’의 ‘는’을 생략하는 경우는 고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오류이나 ‘모를 때’를 ‘모르 때’로 관형형 어미를 안 쓴 오류는 고급에서 예측하기 힘든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도 고급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다음은 명사형 어미의 생략으로, 이는 전체 전성어미의 생략 빈도 38중 빈도 14를 차지하여 관형사형 어미의 생략보다는 그 빈도가 적으나 초급의 경우 많이 나타난다. 이도 역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중국이나 타이완의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놀도(✓놀기도) 합니다.(L1/CHI₁)
- #제가 중국에서 일이 노력하고 배우도 열심히 하십니다.(L1/CHI₂)
- #어느년 우연히 이 친구 빠학이(✓방학이기) 때문에 대만에 왔습니다.(L1/TAI)
- #이유는 제 이름 "훈"이 한국에서 100%남자 이름이(✓이름이기) 때문입니다.(L4/JAP)

그리고 위의 예에 보이는 4급에서의 ‘-이기 때문이다’ 오류에서 보이는 ‘이(기)’는 학습자가 주격 조사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학습자는 지정사 ‘이다’의 명사형 어미를 안 쓴 것이 아니라 주격조사 ‘이’를 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전성 어미를 생략하고 동사의 어간만을 사용하는 오류는 초급에서 특히 중국인 화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전성 어미의 생략에 대한 급별 언어권별 오류의 비율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형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하고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만을 쓰는 오류는 1급과 중국어 화자에게서 그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5.4. 명사형 어미에서의 오류

명사형 어미 ‘-기’는 다음과 같은 형태적 오류를 보인다.

#9하고 ‘영원’ 뜻이 같아기(√갈기) 때문에 그래요.(L2/CHI)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앉자기(√앉기)가 힘들어요.(L2/CHI)

위와 같이 ‘-기’를 ‘-아기’ 혹은 ‘-자’로 형태적 오류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은 명사형 어미 ‘-기’와 ‘-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예이다. 명사형 어미 중 ‘-음’이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학습자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른 오류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와 ‘-는 것’의 오류만을 다룬다. 먼저 다음과 같이 명사형 어미 ‘-는 것’을 ‘-기’로 잘못 쓰는 오류이다.

#제 생각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는 재미있습니다.(L1/CHI₁)

#제 취미는 영화 잡지 보기하고 경기 사진전 가기 입니다.(L1/KJAP)

#한국말을 배우기가(√배우는 것이) 재미있습니다.(L1/CHI₂)

#저는 자기가 운동하기는(√운동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않지만 이렇게 경기를 관전하면 언제나 선수들을 존경해요.(L2/KJAP)

#우리는 오늘은 한국 전통 문화를 공부하기가(√공부하는 것이) 끝났어요.(L3/CHI)

#신문도 조금씩 읽기는(√읽는 것이) 필요해요.(L4/CHI)

#건축에 관련이 없는 한국말을 배우기(√배우는 것) 그런건 아니였습니다.(L6/USA)

위에서 보는 것처럼 ‘-는 것’을 ‘-기’로 잘못 사용하는 오류는 1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급 학습자의 경우 명사형 어미로 ‘-기’만은 교수 받게 됨으로써 ‘-는 것’ 명사형 어미를 몰라서, 무지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 순서로 인해 실제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에서는 ‘-는 것’이 무표적이며 ‘-기’가 유표적이나 학습자는 이를 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를 ‘-기’로 과잉일반화시키며 이는 중고급에까지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기’를 ‘-는 것’으로 잘못 쓰는 오류도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그 빈도가 적으며, 그 원인은 후행하는 동사나 형용사의 통사적 제약을 인지하지 못해 나타나게 되는 오류이다.

#현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쌓이기) 마련입니다.(L5/KUSA)

#특별히 애인 하고 친구 사이 라고 해서 통하는 것이(√통하기)가 어려워요.(L3/USA)

다음으로 엄밀한 의미에 명사형 어미의 오류로 보기는 어려우나 ‘알다, 모르다’등의 인지 동사에서 명사형 어미 ‘-는 것’을 ‘-는지’로 잘못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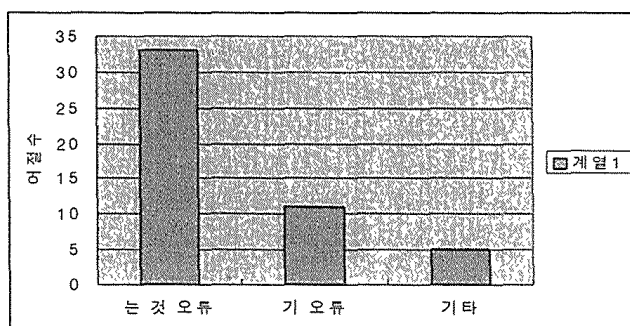
#할머니가 제가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지(√는 것을) 아십니까?(L2/CZE)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한국사람들이 바닥에서 자는지(√자는 거) 몰라?(L3/CHI)

또 다음과 같이 명사형 어미 '-기' 대신에 다른 유사 명사형어미 '-을 수'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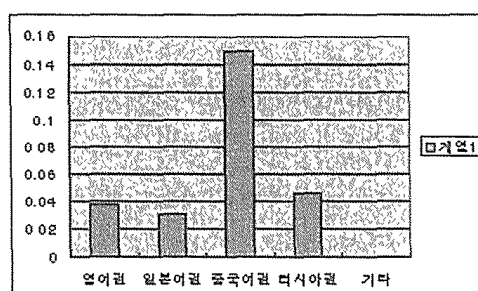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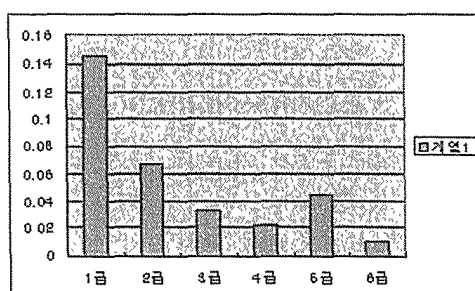
#물론 돈이나 일에 대한 만족감을 필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것은 할 수가(√하기가) 힘들지요?(L5/JAP)

지금까지 살핀 명사형 어미의 오류를 유형 별로 그 어절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명사형 어미의 오류는 '-기'를 '-는 것'으로 잘못 쓰는 오류보다 '-는 것'을 '-기'로 잘못 쓰는 오류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사형 어미의 오류를 급별, 언어권별로 그 오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형 어미를 잘못 쓰는 오류는 1급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2급부터는 그 비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5급에서 그 비율에 조금 높아지는데 이는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기 마련이다' 등의 문장에서 '-기' 대신 '-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언어권별로는 중국어권 화자에게서 그 오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짐을 볼 수 있다.

5.5. 관형사형 어미에서의 오류

5.5.1.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적 오류

관형사형 어미로는 '-는, -은, -을'이 있다. 이들의 형태적 오류로서 먼저, 교포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는' 대신에 '-으는'으로 사용하는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모어 유아기 호자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교포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오류로 추측된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 하는 거 하고 사는 거는 모두 다 괜찮은데.... 제일 어려운 거는 여자 마음을 읽어는(✓읽는) 거예요.(L2/KUSA)

또 관형사형 어미에서의 오류는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 관형사형 어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초급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셔서 다른 제일교포 가정을 비해서 더 일본 문화적인 가정이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L4/JAP)

#제일 오른쪽에 있은(✓있는) 사람이 이름은 가오린입니다.(L1/JAP)

#제 생각에 가족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는(✓중요한) 것 같습니다.(L5/K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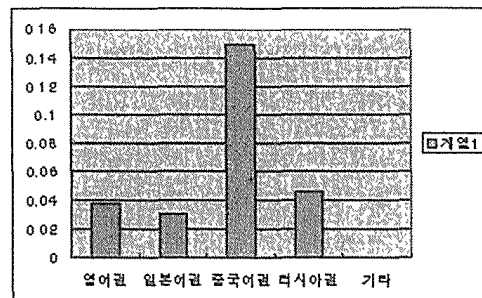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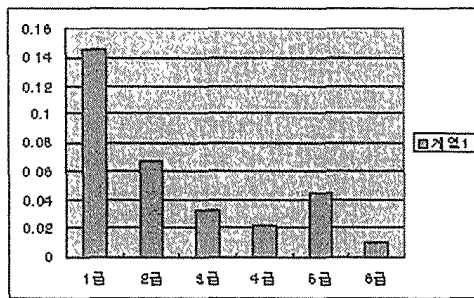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국에 대화여서 많은(✓많은)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L4/UZB)

또 다음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와 시제 어미의 잘못된 결합으로 인한 오류로 이는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적 오류 중 가장 많은 어절수를 차지한다.

#미국으로 유학을 안 했으면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했을) 것 같습니다.(L4/KJAP)

#작년 돌아가셨는(✓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했어 요.(L2/JAP)

이러한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적 오류의 급별, 언어권별 오류 비율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5.5.2. 미래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현재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다음으로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는 시제와 통합되어 나타나는데, 먼저 동사의 현재형 ‘-는’과 과거형 ‘-(으)ㄴ’, 미래형 ‘-(으)ㄹ’이 있으며, 형용사는 현재형 ‘-(으)ㄴ’, 미래형 ‘-(으)ㄹ’이 있다. 이에서는 먼저 미래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ㄹ’ 대신 현재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의 혼용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살아갈) 줄만 알았다.(L6/JAN)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학습자는 기준 시점(과거)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정의 미래시제를 현재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류문은 이러한 경우보다는 ‘할 일, 할 것, 볼 것, 먹을 것’ 등 미래 시제를 의미하는 ‘-(으)ㄹ’의 오류라기보다는 부정 시제인 ‘-(으)ㄹ’의 오류로 볼 수 있는 오류가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크니까 하는(√할) 것이 많다.(L2/DEN)

#해야하는(√할) 것이 많이 있어서 의정부 집으로도 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했서어요.(L2/JAP)

#그런데 우선 경주로 가는 길이 너무 밀려서 도착이 늦었기 때문에 관광을 하는(√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L3/KJAP)

#구경 한 사람들이 물고기에게 먹는(√먹을) 것을 주었습니다.(L1/CHI)

따라서 위의 오류는 학습자가 시제를 잘못 인식하여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를 잘못 썼다기보다는 ‘-(으)ㄹ’의 미래 시제 외의 의미를 학습하지 못함에 의한 오류로 보인다. 또 다음과 같이 ‘-(으)ㄹ’ 것 같다’와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관용구에서 미래 시제 어미 ‘-(으)ㄹ’ 대신에 현재 시제 어미 ‘-는’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귀사라면 한국말을 잘 살릴 수 있는(√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L6/JAP)

다음으로 미래 시제 어미의 오류 중에는 항상 미래 시제 ‘-(으)ㄹ’과만 결합하는 연어

제약을 지닌 ‘때, 경우, 기회...’ 등이 머리 명사로 나타났을 경우 이러한 제약을 인지하지 못해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엌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싶을) 때 아무 시간이나 해 먹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L3/KJAP)

#보기(모양)도 만드는 방법도 전과 비슷해서 일본에서는 한국전을 "한국 오코노미야키"라고 부르는(✓부를) 정도입니다.(L3/JAP)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오는(✓올) 기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전히 한국에 대해서 고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L4/J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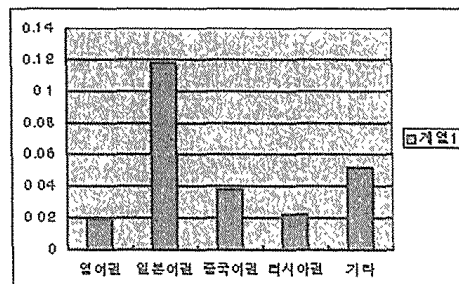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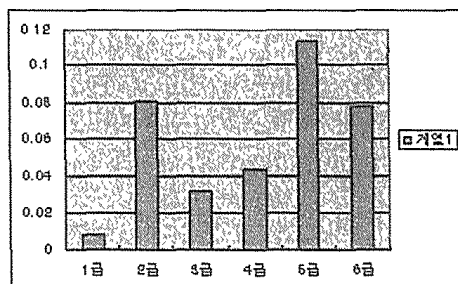
#3년간 공부와 운동의 양립을 했으며 체력은 누구에게도 지지않는(✓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L6/KJAP)

위와 같은 오류는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으)ㄹ’으로 사용하는 모든 오류의 70%를 차지할 만큼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학습자의 경우 ‘-(으)ㄴ’과 ‘-는’의 시제적 차이는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화 시켜 위의 예에도 적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는 머리 명사 ‘때’와의 결합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오류를 흔히 범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의 일반적 규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어린(✓어릴) 때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오사카에 살고 있었어요.(L3/JAP)

#항상 더운물, 찬물 집에 넣고, 손님이 오는(✓올) 때, 물을 마셨어요.(L3/USA)

단지 위와 같은 오류문을 생성하는 학습자는 ‘때’라는 머리 명사는 항상 ‘-(으)ㄴ’형태의 관형사형 어미를 취한다는 어휘적 지식이 없을 뿐이며, 한국어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의 관형사형 형태는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의 급별, 언어권별 오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1급의 오류 비율이 낮으나 이는 1급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많이 쓰지 않음으로 해서 그 오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쓰게 되는 2급에서 그 오류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가 5급에서 급격히 그 오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머리 명사 제약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권별로 보면, 일본어권 화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5.3.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형용사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사용하는 오류가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학습자가 미래 시제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아주 짧은(√짧은) 치마에서부터 긴치마까지 사람들마다 개성껏 자유스럽게 입고 다닌다.(L3/CHI)

#그래서 내 자식들 나보다 행복할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든다.(L4/KAZ)

또 다음과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관용구 ‘-을 것 같다’와 ‘-은 것 같다’의 오류도 있다.

#한국과 일본에는 축구가 비교적으로 세스포츠이지만, 그 두 나라의 자세이 다름(√다른) 것 같습니다.(L1/ITA)

다음으로 동사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ㄹ’로 잘못 쓰는 오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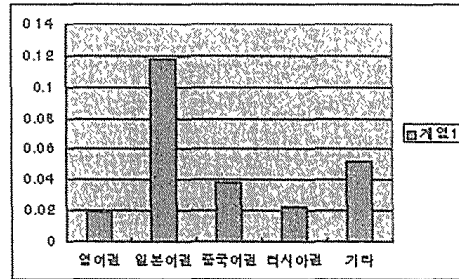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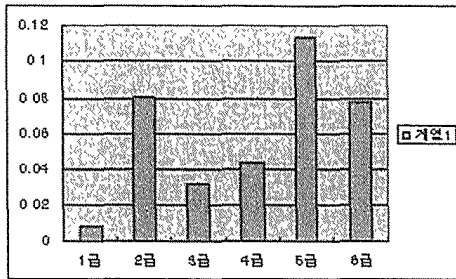
#한국에 김치전, 파전, 해물전 등 여러가지 전이 있는처럼 만들(√만드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오코노미야키도 있습니다.(L3/KJAP)

#한국에서 일을 할(√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지만 일본에서 일을 그만해서 여기에 왔습니다.(L4/JAP)

#이 학기 계획은 말하기 실력이 늘기 위해 한국 사람을 만나서 언어 교환을 할(√하는) 것입니다.(L4/DEN)

#저음어 거절 당했지만 퇴직 종이를 준비할(√준비하는) 날의 한 밤전엔 그 사람이 가란다고 했어요.(L3/USA)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학습자는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에 따른 형태를 잘못 인식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시제를 잘못 인식하여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자는 위의 경우 기준 시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일이고 따라서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에게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에 어느 정도 익숙한 중고급 학습자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오류의 급별 언어권별 오류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앞 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앞절처럼 ‘-(으)ㄴ’을 현재시제로 사용하는 것은 2급(초급)에서 많으며, 위의 도표에서처럼 ‘-는’을 ‘-(으)ㄴ’로 쓰는 오류는 중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학습자들은 ‘-(으)ㄴ’보다는 ‘-는’을 무표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4.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써야 하는 데에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쓰는 오류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복합문에서 과거 시제의 인식을 하지 못해 과거 시제 어미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입는 여자, 가지는 사람’에서처럼 ‘-(으)ㄴ’의 완료적 의미를 인지하지 못해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동사의 상과 완료적 의미를 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는(✓온) 친구들을 사귀었고 요즘은 만날 때 놀아요.(L2/DEN)

#내가 보기로는 이 영화를 볼 만한 최초의 이유는 19시대의 역사적 행사를 정교하게 묘사하는(✓묘사한) 것입니다.(L3/RUS)

#내가 어렸을 때부터 화려한 옷은 입는(✓입은) 여자들이 얼마나 부러운 지 물았어요.(L2/DEN)

#이런 단점을 가지는(✓가진) 제가 시집에서 문제없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대로의 실수를 했습니다.(L6/JA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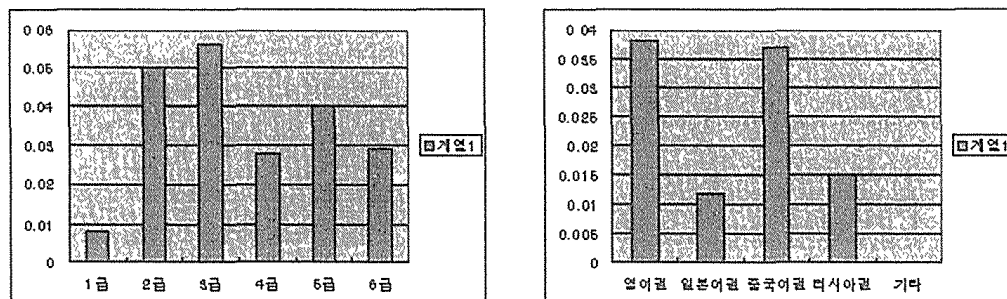
#몰라서 하는(✓한) 일이니까 조금 눈을 감아 주셨으면 했는데...(L6/JAP2)

또 다음과 같이 머리 명사의 의미적 특성 때문에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를 써야 하는데 이를 몰라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제 이사하는(✓이사한) 역사를 아는데 다시 이사가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치 유목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L3/USA)

위와 같이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대신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한 오류의

급별, 언어권별 오류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5.5.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동사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써야 하는 데에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는 오류가 있다. 이는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중 그 빈도가 높다. 이러한 오류는 범하는 이유는 전체 문장의 과거 시제 영향을 받아 관형절의 시제도 과거 시제로 잘못 쓰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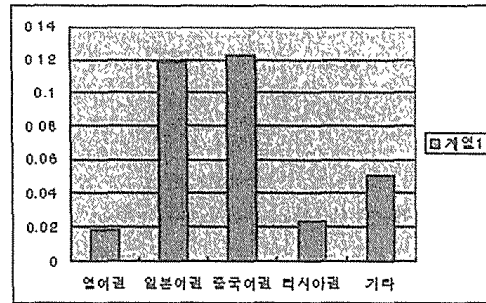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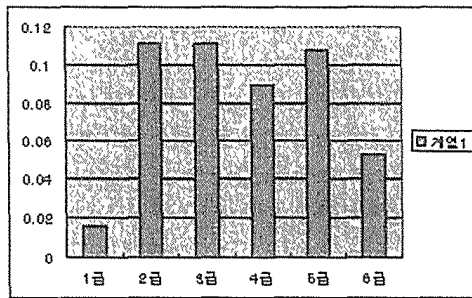
- #본 꽃이 핀(√피는) 따뜻한 계절이 다가 왔어요.(L2/JAP₁)
- #꽃이 아름답게 핀(√피는) 4월이 되었어요.(L2/JAP₂)
- #밥을 먹은(√먹는) 시간이 불편했어요.(L3/CHI)
- #좋아한 것 같았어요.(L3/CHI)
- #그때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노래방에 갔어요.(L4/JAP)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제인 경우 과거의 기준 시점에서 현재 이면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함에도 전체 문장의 과거 영향으로 관형절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또 다음과 같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사실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오류도 있다.

- #제 취미는 영화 감상, 음악감상, 농구하는 것, 역사과 지리 읽은(√읽는) 것을 즐깁니다.(L1/CHI)
- #한(√하는) 일을 힘든데도 많이 있겠는데 계속해서 하는 모습은 정말 못 있다고 생각해요.(L2/KJAP)
- #그리고 옷이 아니지만 자주 보는 것은 접은(√접는) 우산입니다(L3/KJAP)
-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않는) 끈기도 있습니다.(L6JAP)

이러한 오류의 급별, 언어권별 오류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는 중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어권과 중국어권 화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써야 하는 데에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쓰는 오류가 있다. 이 경우도 전체 문장 과거 시제의 영향으로 관형절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같이 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이타리 갔어요.(L2/USA)

#...바닷가 위에 놓은(✓놓을) 이불도 없어서 한 친구의 그의 친구한테 쓸수 없는 매트를 빌려달라고 멀리에서 우리집까지 가지고 왔습니다.(L5/KUSA)

또 다음과 같이 ‘볼 것, 탈 것’ 등 부정 시제로 쓰이는 ‘-(으)ㄹ’로 써야 하는 것을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교도에 다녀온(✓다녀올) 곳하고 본(✓볼) 것 많이 있어요.(L2/USA)

#어래돼 박물관에 가면 새각한(✓생각할) 것이나 배운(✓배울) 것이 많잖아요?(L2/RUS)

#탄 곳도(✓탈 것도) 탈 수 있어요.(L2/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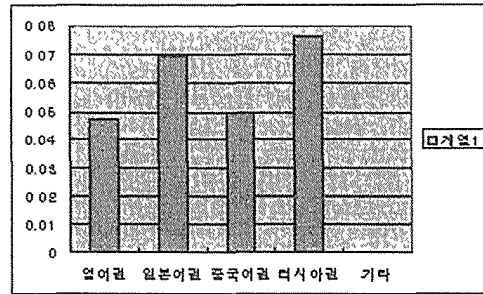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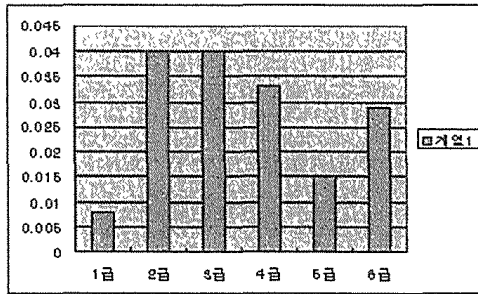
또 다음과 같이 ‘때, 정도’ 등 관형사형 어미 ‘-(으)ㄹ’과만 공기하는 머리 명사가 올 때 그러한 제약을 어겨서 나타나는 오류도 있다.

#집은 바다에 가까워서 어린(✓어릴) 때는 항상 바다에서 놀고 있었어요.(L3/JAP)

#이 사진을 내 형님이 결혼한때(✓결혼할 때) 찍었습니다(L1/CHI)

#그것은 우리가 보면 놀란(✓놀랄) 정도다.(L6/JAP)

이러한 오류의 급별, 언어권별 오류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오류 유형은 2급과 3급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급의 경우 그 오류율이 올라가는 것은 머리 명사의 제약에 다른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때문이다.

5.7.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동사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써야 하는데, 대신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학습자들은 이러한 오류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전에 유리로 만들(✓만든) 상 있어요.(L3/USA)

#요즘은 우리 나라가 통일할까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포기한) 것 같아요.(L3/KUSA)

5.8. 관형사형 어미 ‘던’의 오류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해야 하지만 과거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는 오류가 많은데, 1급의 경우에는 아직 ‘-던’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무지에서 온 오류’로 볼 수 있다.

#구경 한(✓하던) 사람들이 물고기에게 먹는 것을 주었습니다.(L1/CHI)

#자금성은 옛날에 황제 산 곳이에요.(L2/CHI)

#몇 질 전에 같이 간(✓갔던) 사람들이 무여서 본(✓봤던) 것을 이해서 이야기를 했어요.(L2/USB)

또 다음과 같이 형용사의 경우 ‘-었던’을 써야 하는 데에 ‘-(으)ㄴ’을 사용하는 오류가 있다.

#이 부족한(✓부족했던) 것은 바로 건축을 하는 희망이었습니다.(L6/USA)

#세대차이가 옛날부터 있는(✓있었던) 문제입니다.(L5/RUS)

#오동술은 그때 나하고 제일 친한(✓친했던) 친구다.(L3/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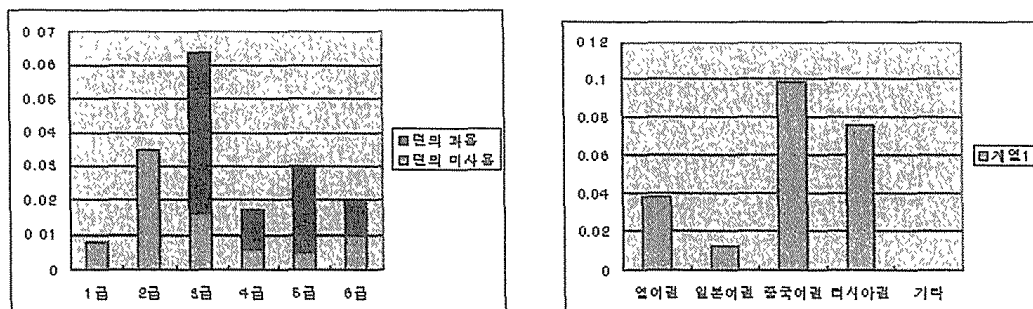
위와는 반대로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데에 ‘-던’을 사용함으로써 ‘-던’으로 과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디든지 간데 살던(✓사는) 집이 아주 중요합니다.(L3/CHI)

#공부하고 재활동하고 자라가는 아이들 보면서 저도 같이 배웠던(✓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L6/KJAP)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으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깨달던(✓깨달은) 후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L5/KUSA)

위와 같이 이러한 오류는 3급 이상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는 ‘-던’을 학습한 후 이를 과대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류로 보인다. ‘-던’을 사용하지 않은 오류와 ‘-던’의 과용으로 인한 오류를 급별, 언어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던’과 관련된 오류는 3급에서 가장 많으며, 특히 3급에서는 ‘-던’의 과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초급에서는 ‘-던’의 과용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교수의 순서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던’과 관련된 오류는 중국어 화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5.9. 그 외의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

그 외의 관형사형 어미에서의 오류는 먼저 활용형에 제약이 있는 동사의 활용 제약을 어긴 오류가 있다. 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일이 있는지 생각하고 선생님에 의논도 한 끝에 유치원 선생님, 복지 시설에 관하는

14) 아래의 표에서 [계열1]은 ‘-던’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한 오류의 비율이며, [계열2]는 현재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대신 ‘-던’을 사용하여 ‘-던’을 과다 사용한 오류의 비율이다.

(√판한) 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2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가로 진학했습니다.(L6/KJAP)

다음으로는 완형 보문과 불구 보문을 이루는 ‘-는’과 ‘-다는’을 잘못 선택하는 오류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는’을 ‘-다는’으로 잘못 쓰는 경우와 ‘-다는’을 ‘-는’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오류는 고급에서만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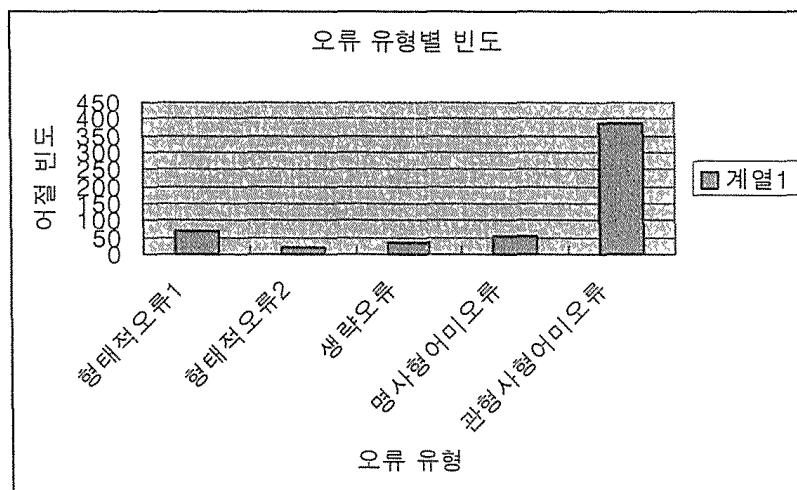
#부모님은 저한테 강제적으로 무엇을 시킨다는(√시키는) 것은 안 하셨습니다.(L6/JAP)

#대학교에서 전공한 과목은 제가 하고 싶은 직업과 아마 관계도 없는것은 알아요.(L5/KUSA)

#왜냐하면 난 같은 반 친구들이랑 공부하면서 내가 아직 6급 레벨이 아닌 것을 실감하니까.(L6/J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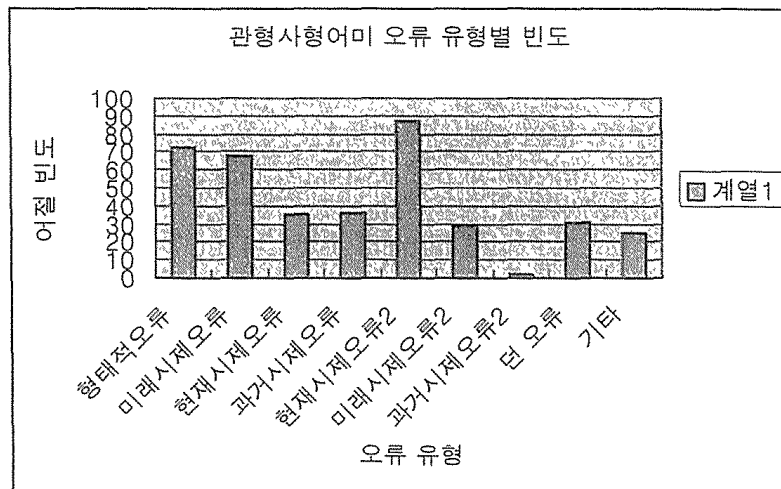
5.10. 요약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전성 어미는 전성 어미를 다른 연결 어미와 혼용하여 사용한 형태적 오류(1)와 전성 어미 내에서 명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혼용하여 사용한 형태적 오류(2), 그리고 명사형이나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생략하고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만을 사용한 생략 오류, 그리고 명사형 어미 내에서의 오류, 관형사형 어미 내에서의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오류를 유형 별로 그 오류 어절 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듯이 전성 어미의 오류로는 관형사형 어미 내에서의 오류가 가장 많은 어절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오류는 거의 비슷한 어절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형사형 어미 내에서의 오류는 관형사형 어미가 시제와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로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 내에서의 오류를 유형별로 그 어절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¹⁵⁾



위에서 보면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하는 오류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 많은 오류는 ‘때, 경우, 정도’ 등 ‘-(으)ㄹ’ 관형사형만이 수식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의 제약을 어겨서 나타나게 된 오류였다. 또 미래 시제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잘못 쓴 어절 빈도가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잘못 쓴 어절 빈도보다 많음을 볼 때 학습자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상 무표적인 관형사형 어미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존대 어미와 시제 어미 오류 유형의 분석

6.1. 존대 어미의 오류 유형

한국어의 높임법은 선어말어미 ‘으시’로 표현되는 주체높임법, 종결어미로 표현되는 상대높임법, 그리고 특수 어휘에 의해 표현되는 어휘적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존대 어미의 오류에서는 ‘으시’로 표현되는 주체높임법의 오류 양상을 보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주체 높임법을 높임의 형태를 썼으나 그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높임을 쓰지 않아야 할 곳에 높임

15) 도표의 가로축의 오류 유형을 왼쪽부터 차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적 오류
- ②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활용을 잘못된 오류
- ③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쓴 오류
- ④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쓴 오류
- ⑤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쓴 오류
- ⑥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쓴 오류
- ⑦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쓴 오류
- ⑧ 관형사형 ‘-던/었던’과 관련된 오류
- ⑨ 기타

법을 잘못 사용한 경우와 높임법을 써야할 곳에 ‘으시’를 쓰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6.1.1. 높임법을 잘못 사용한 경우

한국어 학습자들이 높임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타난다. 첫째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높임법 어미를 붙인 경우이다. 한국인 화자 같으면 일반적인 대상인 경우 연령이 많다 하더라도 높임의 형태를 쓰지 않는데 한국어 학습자는 대상과의 연령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으로 높임의 형태를 쓰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높임법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높임 형태의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초래되는 결과이다. 셋째는 객체높임의 대상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에 이끌려 이를 주체높임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학습자가 주체높임과 객체높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넷째는 ‘있으시다’와 ‘계시다’의 차이를 혼동한 경우이다. 존대의 대상이 가진 소유물을 높일 때는 ‘있으시다’를 쓰고, 대상 자체의 존재를 높일 때는 ‘계시다’를 쓰는데 외국인 학습자가 그것을 구별해서 쓰기는 쉽지 않다. 또 다른 하나는 낮춤의 어휘를 통해서 높임법을 실현하는데 학습자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낮춤 어휘에 높임의 형태를 중복해서 표시한 경우이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 ▶ 이 분이 조덕화이십니다.(√조덕화씨입니다).(CHI/L1)
- ▶ 제가 중국에서 일이 노력하고 배우도 열심히 하십니다(√합니다).(CHI/L2)
- ▶ 그러니까 rent 차에 가서 차가 받으셨어요(√빌렸어요).(TAI/L2)
- ▶ 작년에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폐를 끼쳤었어요.(√끼쳤어요).(JAP/L2)
- ▶ 세종대왕이 여러방면에 호기심을 가져있으시던(√가지고 계시던) 것을 알 수 있었다.(KJAP/L6)
- ▶ 다음에 또 편지를 드실세요(√드릴게요).(JAP/L2)

6.1.2.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체 높임의 ‘으시’를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의식적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국인 화자도 모든 주체높임의 경우에 ‘으시’를 모두 다 넣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 차이가 아주 크더라도 친소 관계에 따라 높임법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개 한국어 화자들은 부모나 조부모, 선생님 등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격식적으로 말할 때 높임을 표시한다. 여기에서도 그런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인 화자라면 높임법으로 표현할 상황인데 한국어 학습자가 높임법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을 존대 어미의 오류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 오류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가 주절에 포함될 때, 종속절에 포함될 때, 내포절에 포함될 때로 구분하였다. 예상되듯이 단순문의 주절에 높임법의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1급을 중심으로 하는 초급 학습자의 경우이다. 1급 학습자는 아직 높임

법을 자연스럽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경우 높임의 형태를 생략하기 쉽다. 6급의 고급 학습자에게서 주절에 높임법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는 대개 그 문장이 복합문이어서 주어와 동사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종속절에서의 높임의 오류는 주로 초·중급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아직 복잡한 문장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는 주절보다는 연결어미 앞에 구현해야 하는 '으시'의 형태를 더 잘 잊기 쉽다.

내포절에 높임의 어미를 올바르게 실현시키는 일은 종속절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 내포절에서의 높임의 어미를 실현하지 않은 오류는 종속절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오류에 비해 그 산출 빈도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급 학습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내포절을 취하면서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고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높임법을 사용해야 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오류의 예이다.

<주절>

- ▶ 부모님께서 애를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십니다).(CHI/L1)
- ▶ 정선생님이 우리를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가르치십니다).(CHI/L1)
-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연희동에서 삽니다(✓ 사십니다).(USA/L1)
- ▶ 외삼촌과 외숙모도 연희동에서 삽니다(✓ 사십니다).(USA/L1)
- ▶ 아버지가 사업가 입니다(✓ 사업가이십니다).(MYA/L1)
- ▶ 어머니가 선생님 이었습니다(✓ 선생님이셨습니다).(MYA/L1)
- ▶ 우리 아버지가 연세대학교에서 졸업했다(✓ 졸업하셨다).(KUSA/L2)
- ▶ 우리 부모님은 제대로 한국말을 배우는 기회가 없고 아버지는 독학으로 배워서 어느 정도는 한국말을 할수있지만 어머니는 전혀 못한다(✓ 못하신다).(KJAP/L6)
- ▶ 농담으로 아버지는 연세대 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어머니는 이화여대 어학당에서 공부하고 들어서 미팅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하신다).(KJAP/L6)

<종속절>

- ▶ 아버님께서 바둑을 아주 좋아하지만(✓ 좋아하시지만) 바둑을 두시기 좋지 않습니다.(CHI/L1)
- ▶ 부모님들이 하도 피곤해서 저한테 의대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셨는데), 의사가 되는 것은 제가 10년 동안이나 키운 꿈이라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KUSA/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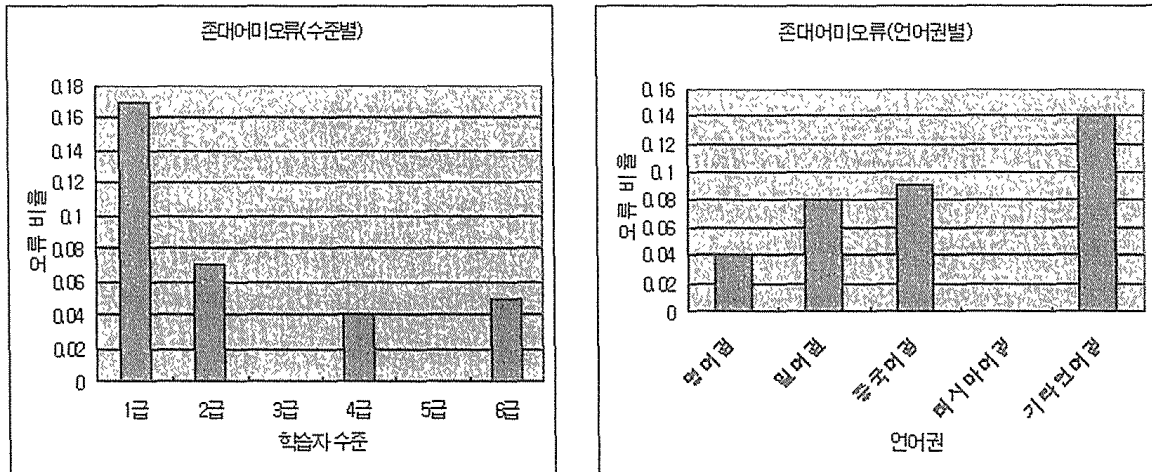
<내포절>

- ▶ 이렇게 말하면 조선생님은 예쁜 선생님을 보고 싶다 라는 말씀하시지도(✓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만 유감스러우나 우리 선생님은 결혼했습니다.(JAP/L2)
- ▶ 저의 한국어 수준이 말하기보다 쓸기가 더 어려워니까 작문반에 들어가 많은 노력 특히는 교수님의 가르친(✓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문장과 문서 작성한 수준을 빠른 시일내로 제고된 것을 계획합니다.(CHI/L4)
- ▶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결혼이야기를 꺼내자 평소에 눈물을 한번도 보여주지 않던 어머니가 큰소리로 내들끼리 하는 말인데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 라고 말하고(✓ 말씀하시곤) 나오는 눈물을 못 참고 방을 나가신 일이 있었다.(JAP/L6)
- ▶ 나도 속으로는 어머니가 잊어버렸겠지(✓ 잊어버리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어디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잘 찾아봤다.(JAP/L6)

- ▶ 우리 부모님은 제대로 한국말을 배우는 기회가 없고 아버지는 독학으로 배워서 어느 정도는 한국말을 할수(✓/하실 수) 있지만 어머니는 전혀 못한다.(KJAP/L6)

존대 어미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오류의 경향을 학습자 수준과 언어권별로 나누어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6.2. 시제 어미의 오류 유형

한국어 교육에서 종결형에 나타나는 시간 표현은 현재, 과거, 미래의 3분 체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제열(2002)에서는 ‘있’과 ‘있었’은 과거로, 무표 ‘∅’를 현재로, 그리고 ‘있’과 ‘있을 것’은 미래라는 시간 범주에 바탕을 두고 교수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우선 국어의 ‘과거’ 시제 형태에는 ‘있’과 ‘있었’이 있다. ‘있었’이 과거 완료나 대과거, 단속상 등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들은 크게 과거라는 범주 안에서 다루어진 것이므로 한국어 교육의 시제 구분에서도 과거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있었’이 ‘있’과 비교할 때 갖는 상적 특성은 이 형태의 의미 기술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문법이나 학교 문법에서는 현재 시제 형태로 ‘ㄴ/는’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표 ‘∅’를 현재형 표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간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논의의 근간에는 ‘ㄴ/는다’에서 현재 시제 형태 ‘ㄴ/는’을 분리하여 독립된 형태소로 다루는 것이 여러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현재 시제는 무표 ‘∅’로 정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여러 문법 형태들은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도 ‘-있습니까’로 제시한다. ‘ㄴ/는’을 현재 시제 형태로 본다고 하더라도 ‘ㅁ/습니다’, ‘어요’, ‘는구나’, ‘ㄴ/는다’와 같이 제시해야 하는데 굳이 형용사 및 대부분의 활용형에서 나타나지 않는 ‘ㄴ/는’을 현재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국어 시제 체계를 2분법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국어에는 미래 시제 형태가 없다고 본다. 이것은 미래 시제 형태로 인식되어 온 ‘겠’이나 ‘ㄹ 것’ 등이 ‘미래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각 시간역에 걸쳐 쓰이고(이익섭·임홍빈 1983: 177), 시제가 아닌 서법의 형태로 보아 ‘추정법’으로 보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다(서정수 1996:230)’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들 형태의 기본 의미를 ‘미래’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것은 이들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미래 상황에 쓰이는 것이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이미 ‘미래’라는 개념이 보편적이어서 이 개념을 버리는 것이 득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나 일본어 같은 언어도 미래 형태로 ‘추정’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겠’이나 ‘을 것’ 등이 가진 구체적인 상황 의미가 ‘미래’라는 시간 의미에 바탕을 두고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3분 체계에 기준을 두고 시제 오류를 살펴보면 오류 태깅의 특성상 형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겠’과 ‘ㄹ 것’, ‘었’과 ‘있었’을 중심으로 오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6.2.1. ‘겠’과 ‘ㄹ 것’

‘겠’과 ‘ㄹ 것’이 미래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두 형태는 단순 미래뿐만 아니라 추측, 의지 등을 표현하는 형태이다. 김제열(2002)에서는 두 형태의 구체적 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두 형태는 화자가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 ‘을 거예요’나 ‘겠’을 다 쓸 수 있으나 일상적 회화에서는 ‘을 거예요’를 더 많이 사용한다. 2) ‘을 거예요’를 사용하여 화자가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사실에 대한 추측을 표현할 수 있다. 3) 현재의 가정된 상황에서 추측 표현으로 ‘을 거예요’를 사용한다. 4) 조건적 상황에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는 ‘겠’을 사용한다. 5) 대화 현장에서 화자의 의도를 결정하거나 표현할 때는 ‘겠’을 사용한다. 6) 일기 예보에서는 관용적으로 ‘겠습니다’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겠’과 ‘ㄹ 것’의 구체적 용법을 한국어 학습자가 구별해서 쓰기는 쉽지 않다.

한국어 학습자가 ‘겠’을 표기한 경우 오류 유형은 첫째, 형태를 잘못 쓰는 오류, 둘째, ‘ㄹ 것’을 써야 할 환경에 ‘겠’을 쓰는 오류, 셋째, 예정된 사실이나 현재의 습관, 현재 상태, 미래 사실에 대한 현재의 바램 등 현재로 표기해야 할 것을 ‘겠’으로 표기한 오류 등으로 나타난다. 한국어 학습자가 ‘겠’을 표기하지 않은 오류 유형은 첫째, 과거나 현재,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지 않은 경우, 둘째, 가정된 사실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지 않은 경우, 셋째, 대화 현장의 의도(의지)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넷째, 과거나 미래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ㄹ 것’의 경우도 유사하게 단순 미래와 추측에서 형태를 표기하지 않은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다음은 그 예이다.

<겠>

- ▶ 아마 학교 공부하던 친구가 같이 가겠어요(√가겠어요).(CHI/L2)
- ▶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겠습니다(√배울 겁니다).(KUSA/L1)
- ▶ 마미는 한 달에 미국에 가겠습니다(√갑니다).(KUSA/L1)

- ▶ 오후 수업이 끝나후에 도서관에 가겠습니다(✓갑니다).(CHI/L1)
- ▶ 여러분 일본에 있는 "오끼나와"를 아시겠습니까?(✓아십니까)?(KJAP/L2)
- ▶ 그 때는 오빠들과 언니들과 함께 모이고 싶겠군요(✓싶군요).(JAP/L2)
- ▶ 난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직접 가면 좋다고(✓좋겠다고) 생각했어요.(KAZ/L3)
- ▶ 아마 조금 춥지요(✓춥겠지요)?(AUS/L2)
- ▶ 한국말 공부 끝나면 한 번 일본에 돌아가면 얼마쯤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즐거움의 하나입니다.(JAP/L4)
- ▶ 이기에는 제가 한국말을 잘 하게 되었으면 좋다고(✓좋겠다고) 생각합니다.(THA/L4)
- ▶ 노력합니다(✓노력하겠습니다)!(KJAP/L1)
- ▶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시작하겠습니다).(JAP/L1)
- ▶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제가 잘 듣고 잘 연습하고 숙제도 잘 한다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CHI/L4)
- ▶ 한국말을 다 배우고 나서 건축 길로 다시 가라 댔습니다(✓나아가겠습니다).(USA/L6)

<-ㄹ 것>

- ▶ 열엄에, 우리 Wash DC에서 다시 만나요(✓만날 거예요).(KUSA/L1)
- ▶ 제 생각은 사실이면 세대차이 사고방식 거리가 더 멀어진다(✓멀어질 것이다).(KUSA/L5)
- ▶ 아마 오늘도 회식입니다(✓회식이 있을 것입니다).(JAP/L6)
- ▶ 다음에 만날 때는 아마 지금보다 말할 수 있게 돼라고(✓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합시다.(JAP/L2)

6.2.2. '있'과 '있었'

'있'과 '있었'은 모두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었'은 일반적으로 과거완료상을 표현할 때의 용법으로 제시된다. '있'은 과거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 1) 과거의 상태나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2)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한 일을 나타낼 수 있다. 3) 현재에 완결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4) 과거에 일정 기간 진행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5) 과거에 반복된 행위나 습관을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하는 오류 중에 과거 형태 '있'을 썼지만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는 형태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오류로 주로 초급 학습자들에게 나타난다. 둘째는 연결 어미와 같이 쓰일 때 그 어미가 갖는 시제 형태 제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주절의 시제가 종속절까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종속절에 시제 형태를 표시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둘 이상의 동사가 연결어미로 연결되어 하나의 표현처럼 쓰일 때, 두 동사 중에 하나에만 시제 형태를 붙여야 하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나타나는 오류이다. '는지 모르다'에서 많이 나타난다. 넷째는 현재형을 써야 하는 경우인데 과거형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항상성이 있는 일반적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 현재의 상태, 현재 진행의 경우에는 현재형을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로는 미래형으로 써야 하는데 과거형이 드러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내포절에서 현재형으로 상대시제 과거를 표

현할 수 있는데 절대시제의 개념을 적용해서 과거형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있’을 잘못 사용한 경우>

- ▶ 이탈리아 남자는 집요하다 성격라고 아렸지만(√알았지만) 사실로, 매우 집요했습니다.(USA/L1)
- ▶ 비행기 음식이 안 막였습니다(√먹었습니다).(AUS/L1)
- ▶ 우리는 배가 고평습니다(√고팠습니다).(AUS/L1)
- ▶ 오래는 안 있어는데(√있었는데) New York City가 왜 "Big Apple"라고 그러는지 좀 알게 습니다.(KUSA/L2)
- ▶ 생각 좀 하면 제 친구 말이 너무 사실이였어요(√사실이었어요).(KUSA/L2)
- ▶ 돈이 3만원 만 있어서 PC 방에 차팅 했이, 어제 집에 왔서(√와서) 많이 먹었어요.(RUS/L2)
- ▶ 집에 이사한대로 집에 조금밖에 안 살았다가(√살다가) 다시 옮기고 싶은 생각이 항상 생겼습시다.(USA/L3)
- ▶ 이번에는 한 사람이 토끼웃 입었고(√입고) 사탕하고 basket 주었습니다.(USA/L3)
- ▶ 구슬 속에 사탕이나 작은 장난감을 넣었으니까(√넣으니까) 재미있게 찾았습니다.(USA/L3)
- ▶ 비록 처음 한국올때 매운 음식이 싫었 하지만(√싫어했지만) 점점도 습관합니다.(CHI/L1)
- ▶ 내가 어렸을 때부터 화려한 웃은 입는 여자들이 얼마나 부러운 지 몰았어요(√부러웠는지 몰라요).(CHI/L3)
- ▶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다(√아팠는지 모른다).(CHI/L6)
- ▶ 우리 나라에는 큰 바다가 없기 때문이었다(√때문이다).(UZB/L2)
- ▶ 그래서 한국 문화 잘 이해하도록 한국말을 공부했어요(√공부해요).(CHI/L4)
- ▶ 이 사진 안에 모두 아홉 사람이 있었습니다(√있습니다).(CHI/L1)
- ▶ 부지런하고 귀여운 것 같았습니다(√같습시다).(IND/L1)
- ▶ 가끔 우리 같이 저녁을 만들고 먹었어요(√먹어요).(CHI/L3)
- ▶ 보고싶는 도쿄에 있는 한국 친구께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어요(√따뜻해져요).(JAP/L2)
- ▶ 지금까지 여기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잊을수 없는 귀중한 하루하루를 버냈어요(√보내고 있어요).(JAP/L6)
- ▶ 일본에 유월에 돌아갈 예정이 있었지만 돌아갈지 안았겠어요(√않겠어요).(JAP/L2)
- ▶ 배육씨는 학교 왔을(√올) 때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탔습시다.(CHI/L1)
- ▶ 거기가 살고 싶었다고(√싶다고) 생각했습니다.(KAZ/L2)
- ▶ 나중에 헤어졌을(√헤어질) 때 학생이 우는 것을 보고 기뻐다.(KJAP/L2)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하는 오류 중에 형태 ‘있’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오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과거 사실이나 상태, 과거 지속적인 습관, 과거의 진행 등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가 담당하는 부분을 표현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것은 물론 한국어 시제에 익숙하지 못한 초급 학습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과거 습관이나 진행은 그 지속성 때문에 중·고급 학습자도 오류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에 현재형을 쓰는 경우이다. 가정이 함유한 비실제성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시제 형태를 표시

하지 않는데 한국어에서 ‘있으면’으로 표현되는 완료적 가정이 더 강한 가정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과거로부터 현재에까지 지속되어온 일에 대해서 현재나 현재 진행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현재의 시점에서 완료된 사실이 현재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국어의 ‘있’이 상적 의미로 (현재)완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다섯째는 과거의 시점에서 완료된 사실이 현재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앞의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아직 시제 형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로 해석된다. 여섯째는 내포절에서 나타나는 상대시제 과거 완료를 과거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학습자는 한국어에서 절대 시제로 과거지만 현재, 혹은 미래로 표현하는 경우와 혼동하여 상대시제 과거 완료마저도 현재나 미래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있’을 표기하지 않은 오류의 예이다.

<‘있’을 표기하지 않은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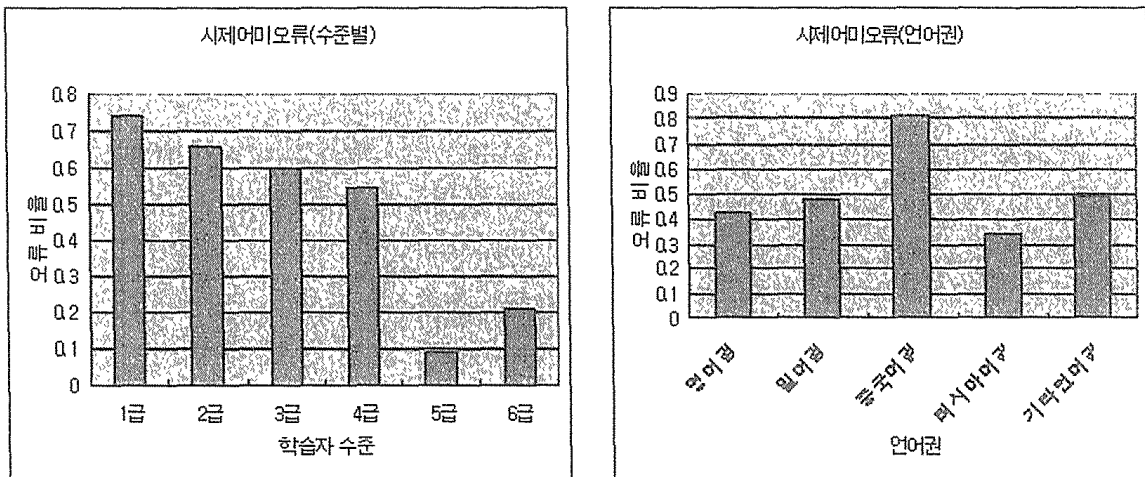
- ▶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십니다(√태어났습니다).(KDAN/L1)
- ▶ 우리 부모님은 제대로 한국말을 배우는 기회가 없고(√없었고) 아버지는 독학으로 배워서 어느 정도는 한국말을 할수있지만 어머니는 전혀 못한다.(KJAP/L6)
- ▶ 그곳에는 경치가 아름답습니다(√아름다웠습니다).(CHI/L1)
- ▶ 저는 중국에 살 때 한국 친구가 많은데(√많았는데) 지금 연계하지 않습니다.(CHI/L1)
- ▶ 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주 만납니다(√만났습니다).(RUS/L2)
- ▶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시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는데(√다니셨는데) 항상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와 동생에게도 그런 교육을 하셨습니다.(JAP/L6)
- ▶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점심때 다 반친구와 같이 학생식당에서 먹곤해다(√먹곤했다).(CHI/L6)
- ▶ 이탈리아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프랑스말도 독일말을 배우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계속했기) 때문에 학비를 혼자서 낼 수 있었습니다.(ISR/L6)
- ▶ 그렇지 않으면(√않았으면) 한국말을 못 배웠습니다.(USA/L2)
- ▶ 그래서 옛날처럼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한일관에서 뭇인가 할 수 있으면(√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은 열심히 한국말 공부하고 있어요.(KJAP/L4)
- ▶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때 선생님들 추천으로 학교방송을 맡고 있습니다(√맡았습니다).(JAP/L6)
- ▶ 날씨가 더욱더 따뜻합니다(√따뜻해졌습니다).(CHI/L1)
- ▶ 서울 생활에는 아직도 익숙해지 않아요(√않았어요).(JAP/L2)
- ▶ 하지만 우리 중국이 전통 풍습을 많이 잃어버리기(√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즘 중국 젊은이 옛날에 중국 사람이 어떻게 생활한 줄 몰라요.(CHI/L3)
- ▶ 주간이 지납니다(√지났습니다).(JAP/L1)
- ▶ 비해기로 아싱던 디씨 도라가습니다(√돌아갔습니다).(USA/L2)
- ▶ 비록 처음 한국올때(√한국에 왔을 때는) 매운 음식이 싫었 하지만 점점도 습관합니다.(CHI/L1)
- ▶ 우리는 갈(√갔을) 때 마침 영국 여왕 방문 3주년 기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람이 하고 출연이 있었어.(CHI/L2)

‘있었’은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 과거를 기점으로 이미 완료된 사실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학습자들은 현재의 상황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느낌이나 과거에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있었’이 더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단순 과거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있었>

- ▶ 처음에 한국에 유학을 할거라고 생각만 하면 아주 신났다(√ 신났었다).(KUSA/L2)
- ▶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유학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든 대학교에 다녔는지(√ 다녔었는지) 볼수 있었다.(KUSA/L2)
- ▶ 다들 피곤해서 이야기도 안했고 웃음소리도 살아졌습니다(√ 사라졌었습니다).(KJAP/L6)

시제 어미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오류의 경향을 학습자 수준과 언어권별로 나누어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관형어 오류 유형의 분석

관형어는 문장의 주요 수식 표현 중 하나이다. 국어 문법에 있어서는 관형어는 문장의 부속 성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이는 문장에서 수의적이어서 이 성분이 없더라도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하는 데는 그리 상관성이 없다. 그러나 관형어의 사용은 표현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즉, 어떠한 사실이나 행위를 기술하고자 할 때 적절한 관형어의 사용은 그 표현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에서는, 국어 문법에서와 동일하게 관형어를 수관형사, 지시관형사 등을 포함한 관형사와 조사 ‘의’를 통한 관형어, 또 관형사형 어미에 의한 관형어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형어는 문장의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형어의 잘못 쓰임은 표현적인 오류를 낳는다. 따라서 이에서는 관형사의 형태적, 의미적, 어휘적 오류를 다루고 다음으로 관형어의 문법적 오류를 다룬다. 그리고 관형어의 표현적 오류에 대

해 다루기로 한다.

7.1. 관형어의 어휘적 오류¹⁶⁾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먼저 관형사가 있다. 관형사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초급에서 교수되는 수관형사와 지시관형사, 의문 관형사 그리고 각 급에서 어휘 학습 차원에서 교수되고 있는 각종 성상 관형사가 있다.

수관형사는 초급에서 한자어 수관형사와 고유어 수관형사가 교수되는데, 이들 간의 혼용에 의한 어휘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급에서도 가끔 나타난다. 이러한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한(√일) 년 후에 뉴욕시에 가고 유명한이 뵈습니다.(L1/USA)

#대학생때 한년에(√일 년에) 한 번 했습니다.(L3/JAP)

#저는 상크트 베테르부르크 국립 대학에서 여섯(육)년 동안 공부했어요.(LB1-B4/RUS)

#사끼는 지금 일곱(칠) 개월입니다.(L1/JAP)

또 다음과 같이 한자어 수관형사와 고유어 수관형사를 겹쳐 쓰는 오류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오후에는 한국어를 세삼 시간쯤 공부했어요.(LB1-B4/USA)

또 수관형사는 ‘한/하나, 두/둘, 세/셋, 네/넷....스무/스물...’ 등 수사와 쌍을 이루는데 이들 간의 혼용으로 인한 오류도 많이 나타난다.

#발리 의 전통 집은 넷(√네) 건물로 나누입니다.(LB1-B4/IND)

#저의 이제까지 기억에 남는 여행은 대학교 이학년 때 친구와 같이 둘(√두) 사람으로 3박 4일로 타이페이에 간본 일이에요.(L2/JAP)

#저에는 둘의(두) 조카딸하고 생질이 있습니다.(L6/JAP)

#그 다음에 우리 두들이(둘이) "Rome" 하고 "Florence" 갔어요.(L2/USA)

위에 보는 것처럼 ‘한, 두, 세, 네...’ 등의 수관형사를 ‘하나, 둘, 셋, 넷...’ 등의 수사로 쓰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등의 수사를 ‘한, 두, 세, 네...’ 등의 수관형사로 쓰기도 한다. 이는 수사와 수관형사 중 어느 것은 중심으로 학습했느냐에 따라 오류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수사 중심의 학습법에서는 전자의 오류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수관형사 중심의 학습법에서는 후자의 오류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오류말뭉치에

16)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체언, 체언+의, 관형사, 용언+어미’인데 여기서 관형어와 관련하여 어휘적 오류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관형사뿐이므로 이에서는 관형사의 어휘적 오류만을 다루기로 한다.

서는 전자의 경우가 더 많다.

위와 같은 수관형사는 초급에서 교수되는데, 서수사나 그 외의 수사는 중고급에서 교수되므로 이에 따르는 오류가 중고급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기수사와 서수사의 혼용에 따른 어휘적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고, 수관형사 ‘두’와 ‘양’의 의미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오류도 나타나고 있다.

#두날(둘째날) 우리는 바다에가서 여기에서 게를 잡고 수영했어요.(L2/CHI)

#그러니까 두(양) 쪽이 저같은 교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많은 교포 2세들이 자기끼리 모이고 다닙니다.(L6/KUSA)

#너무 많은 교포들이 두(양) 쪽에 이해하는 사람을 못 찾아서 포기하고 좋은 점 말고 두 나라의 단점을 배우고 그런식으로 삽니다.(L6/KUSA)

다음으로 지시 관형사 ‘이, 그, 저’의 의미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 이는 ‘이것, 저것, 그것’ 과 같은 지시 대명사의 오류와 평행하게 나타난다.

#그(√이) 두 분이 체 교회친구입니다.(L1/TAI)

#이(√그) 집이 숲에 있습니다.(L1/CAN)

#이(√그) 부족한 것은 바로 건축을 하는 희망이었습니다.(L6/USA)

#이(√그) 화산 근처에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L2/RUS)

#마침 지금은 이(√그) 기회를 왔어요.(L4/CHI)

지시 관형사로는 위에 보는 것처럼 ‘이’와 ‘그’의 혼용에 의한 오류가 있는데 ‘그’를 ‘이’로 잘못 쓰는 어휘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음과 같이 지시 관형사 ‘이, 그, 저’를 확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이, 그, 저’가 수식할 수 있는 명사구나 상황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저녁, 그 이름, 이 주말, 이 학기’ 등이 불가능하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이러한 예문을 빈번히 생산한다.

#그(√그 날) 저녁은 브라질 음식점에서 먹었다.(L2/JAP)

#그(√그 사람) 이름이 무사시 입니다.(L1/JAP)

#이(√이번) 주말에 남편하고 친구하고 같이 소풍을 갔습니다.(LB1-B4/VIE)

#이(√이번) 학기 계획은 말하기 실력이 늘기 위해 한국 사람을 만나서 언어 교환을 할 것입니다.(L4/DEN)

#이 동안(√요즘) 정말 재미있게 살았습니다.(LB1-B4/KRUS)

또 다음과 같이 ‘이, 그, 저’와 ‘이런, 그런, 저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신 속에 있는 단점을 지적해 뒀고 인생을 좌우하는 그(√그런) 친구를 다시 만날지도 모릅니다.(L5/IND)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선 이(√이러한) 용모단정으로부터 분 바람 때문에이어서 그런지 회사의 입사시험같은 특별한 경우 아니더라도 수술으로 미모를 얻자는 인식이 침투했다고 할

수 없을까?(L6/JAP)

#지금 되고 있는 수단 밖에 없어서 이(√이러한) 지금되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L5/USA)

이와 유사하게 의문관형사 ‘어느, 무슨, 아무’와 ‘어떠하다’의 관형형 ‘어떤’ 등의 의미나 용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이를 잘못 사용하는 어휘적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구보다 가족이 많고 넓은 땅에서 커진 남편은 아무(√어떤) 일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L5/JAP)

#오나 가나 아무(√어느)곳도 한국처럼은 같아요.(L3/CHI)

#여러 곳에서 다른 버섯 구름이 금방 생겨서 결국 어떤(√무슨) 국제적인 불꽃놀이처럼 보이게 되었다.(L4)

#내가 대학생대 오랫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어떤(√어느) 날에 손을 씻고 있던 때 거울을 보면(L4/JAP)

#물론 거의 아버지라는 자기 아들한테 어떤(√어느) 정도는 건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L5/KJAP)

이 외에 한국어에서 관형사는 많지 않다. 이 외의 관형사는 ‘다른, 만, 새, 현, 여러, 모든...’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오류 말뭉치 상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어휘에 대한 오류만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다른’의 과잉 적용에 다른 어휘적 오류가 있으며, 교포의 경우 구어체적인 ‘만’을 ‘다른’의 의미로 확대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또 다른) 동생은 사진 중간에(in the middle) 있습니다.(L1/USA)

#다른(√이웃집) 부부들이 사워면 우리가 바로 볼수 있어요.(LB1-B4/IND)

#만(√다른)나라 대학교들은 모르지만, 미국 대학교들은 출석이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L2/KUSA)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생활이 만(√다른) 데보다 틀려요.(L2/KUSA)

또 다음과 같이 관형사 ‘새’와 유사한 의미인 ‘새롭다’의 관형형 ‘새로운’의 어휘적 오류도 보인다.

#국과 일본에는 축구가 비교적으로 새(√새로운) 스포츠이지만, 그 두 나라의 자세이 다를 것 같습니다.(L1/ITA)

그런데 무엇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오류는 관형사 ‘여러’를 명사 ‘여러 가지’로 잘못 쓰는 오류이다.

#특히 가을에 숲에서 열매가 많을 때 여러 가지(√여러) 동물들을 볼 수 있어요.(L2/RUS)

#거기에 여러 가지(√여러) 사람들이 그림을 글렸습니다.(LB1-B4 /HUN)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여러) 비치에 많이 갔는데 거기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

요.(L2/KJAP)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관형어로서 관형사의 오류는 관형사의 관형어로서의 지위 혹은 문장 성분으로서의 오류보다는 관형사 자체의 형태적, 의미적인 어휘적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

7.2. 관형어의 문법적 오류¹⁷⁾

관형어는 체언이나 주어 혹은 목적어 등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며 부사어는 용언이나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수식 기능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므로 한국어 학습자는 관형어와 부사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더(√다른) 하나는 1층이 가게이니까 방이 시끄러운 것입니다.(L3/JAP)

#제 생각이에는 다(√모든) 사람들 가끔은 그렇게 조용한 것에 가고 싶어해요.(L3/KAZ)

#그런 멋있는 얼굴을 가지려면 오래(√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꼭 가질 수 있다고 믿는?(L4/JAP)

#그 집은 산만에 있는 조금(√작은) 마을의 끝집이었어요.(LB1-B4/HUN)

위와 같이 ‘다른, 모든, 오랜’ 등의 관형사를 그와 유사한 의미의 부사인 ‘더, 다, 오래’ 등으로 잘못 쓰기도 한다. 또 ‘작다’의 관형형 ‘작은’을 그와 유사한 의미인 ‘조금’과 혼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관형형과 부사형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맛있게(√맛있는) 와인 너무 좋아?(L1/JAP)

#요즘 그렇게(√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L4/JAP)

#거실 작에 커(√큰) 나무 두 개 있어요.(L3/CHI)

#중국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에 있고 같은 습관이 많지만 달라(√다른) 점도 있다.(L3/CHI)

#직어니까(√찍은) 사진에서티나씨 외에 5명은 있습니다.(L1/IND)

#그러나 요즘은 학교 때문에 아주 바빠서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러(√생각할) 시간이 없어요.(L2/CZE)

#그래서 내 자식들 나보다 행복할 아이들이라고(√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든다.(L4/CAZ)

위와 같이 관형어를 ‘-게’ 부사형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으나, 초급에서는 관형어를 ‘-어서, -니까, -으러’ 등의 연결 어미로 문장을 연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부사어를 관형어로 잘못 쓰거나, 문장 연결을 관형형 어미로 하는 경우도 있다.

17)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것은 ‘관형사, 체언, 체언+의, 용언+전성어미’인데 ‘체언+의’의 문법적 오류는 조사 부분에서, 또 ‘용언+전성어미’의 오류는 전성어미의 오류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에서는 그 외의 것들을 다루기로 한다.

#다음에 일본에 갈때 어떤(√어떻게) 생장을 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L6/JAP)

#저녁 5시쯤에 떠나가서 배 타는 데에 도착하는(√도착하니까) 밤 10시 쯤이 되었습니다.(L2/KJAP)

다음은 체언 관형어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체언만으로 체언의 수식이 가능하므로 조사 '의'에 의한 관형어 형성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체언과 체언의 관계에 따라 조사 '의'가 없으면 비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의한 오류가 학습자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나라는 섬 나라인데, 13717 개(√개의) 섬이 있습니다.(LB1-B4/INDO)

#학교에 들어간 후 제가 대부분(√대부분의) 미국 사람과 다른 줄 알기 되었습니다.(L6/KUSA)

#우리 가족은 원래 아주 사이 좋은 변이지만 이 두 명(√두 명의) 조카 덕택으로 더 사이 좋게 되었다고 느낍니다.(LB5-B8/KJAP)

#나는 핸드폰이 없다 라면 주변에서 시대에서 뒤떨어진 사람 혹은 촌스러운 사람 등(√등의) 호칭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L6/MON)

#러시아(√러시아의) 위대한 고전적인 작가인 푸스킨(Pushkin)의 'Evgenii Onegin', Shakesere 'Romeo와 Juliet', Gabriel Garsia Marke '100년의 외로움'등의 작품에서 진정한 사랑의 빛이 우러나고 있습니다.(L6/RUS)

#일본사람과 한국사람의 모습(√모습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L4/KUSA)

#뉴욕 도시는 재정 중심 뿐만 아니라 문학 중심(√중심의) 도시입니다.(LB1-B4/USA)

#이 사진(√이 사진의) 사람들은 다 제가 아르바이트 친구입니다.(L1/KJA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관형어의 문법적 오류는 관형어를 부사어나 문장 연결 등 다른 문장 성분으로 잘못 쓰는 경우와 조사의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3. 관형어의 표현적 오류

먼저 관형어끼리의 순서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이는 관형어를 많이 사용하는 고급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체벌은 교육의 진정한 효과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L6/KUSA)

#인간 현재(√현대 인간) 사회에는 남성들의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L6/ISR)

또 다음과 같이 관형어와 피수식관계인 체언 사이의 어순이 뒤바뀌는 오류가 있다. 이는 주로 초급에서 많이 발견된다.

#여자 모자(√모자를 쓴 여자가) 있습니다.(L1/CHI)

#검물들이 New York에(✓뉴욕 건물에) 다 너무 머신티었어요.(L2/KUSA)

한국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관형어를 매우 간략하게 사용하고 있다. 즉 어떠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간략하게 기술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확한 문장을 생성한다.

#서울 공원(✓공원에서)의 여행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L1/IND)

#이제부터 4년전에 제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그 여름 방학(✓방학 때)의 말입니다.(L2/KJAP)

#모든(✓사진에 있는) 사람은 태권도 학생입니다.(L1/RUS)

#이 오른쪽(✓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저는 옛날에 다녔던 회사 사장님의 아들 이에요.(L1/TAI)

#사진은 우리 아르바이트의(✓아르바이트 할 때) 사진입니다.(L1/JAP)

#저는 운동하는(✓운동할 때 신는) 구두를 보려고요.(LB1-B4/IND)

#뿐만이 아니라 단군신화에 나오는 환인하고 환웅이라는 부자간은 세대차이의(✓세대차이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L5/RUS)

#6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자(✓여자만 남은) 가족이 되었어요.(L5/JAP)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2년동안 정말 기계회사에서 무역(✓무역에 관한) 사무를 했습니다.(L6/JAP)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오른쪽 친구, 아르바이트의 사진, 운동하는 구두’ 등 체언의 수식이 명확하지 않아 ‘...에 있는, ...을 때, ...을 때 신는’ 등 보충적인 표현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명백한 표현적 오류는 초급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급의 경우에는 ‘세대차이의 한 예, 여자 가족, 무역 사무’ 등 모어 화자에서도 가끔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오류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표현적 오류는 다음과 같이 ‘관형어+체언’으로 정확히 표현해야 하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초급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검은색 상의를 입은(✓입은 사람은) 소정이고, 하얀색 코트를 입은(✓입은 사람은) 영희입니다.(L1/CHI)

#감독 옆에(✓옆에 있는 사람이) 독일 학생입니다.(L1/RUS)

#오른에(✓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저는입니다.(L1/CHI)

관형어와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관형어+체언+있다’ 혹은 ‘관형어+체언+이다’의 명사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문장을 학습자가 쉽게 표현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저는 은메달 승었습니다.(✓은메달을 땀습니다)(L1/RUS)

#저는 너무 많은 권리 의 요구들이 없어요.(✓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LB1-B4/HUN)

#그날 따뜻한 햇빛으니까(✓햇빛이 따뜻하니까) 여자 친구가 자고 싶어요.(L1/CHI)

#저는 바이아를 생각만 하도, 좋은 기분이 납니다.(√기분이 좋습니다)(L2/PAR)

#서울에 산비탈이 많기때문에 매일에 피곤한 느낌이 있습니다.(√피곤합니다)(L1/CHI)

#그래서 친구가 Mexico 음식을 보고 맛있는 모양 있어(√맛있어 보여서) 막고 싶어.(L2/TAI)

#한국에 온지 생긴 일이 많다.(√많은 일이 생겼어요)(L2/DEN)

#저는 마라톤을 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공짜로 좋은 호텔에 잘 수도 있고 경주는 벚꽃의 아름다움이(√벚꽃이 아름다워) 유명하니까 안 가면 손해를 본다고 말했으니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L3/KJAP)

#부모님이 집에서 한국말을 할 때마다 저도 한국 말을 배우는 소원은 있었어요.(√배우고 싶었어요)(L4/CHI)

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권리의 요구가 있다, 따뜻한 햇빛이다, 좋은 기분이 나다, 맛있는 모양이 있다, 생긴 일이 많다, 벚꽃의 아름다움, 한국말 배우는 소원이 있다’ 등 문법적으로는 비문이 아니지만 실제로 모어 화자가 잘 안 쓰는 어색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다, 있다’ 등의 기본 동사를 이용하여 관형어와 체언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미선(1990), "오류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강현숙(1996), "바람직한 구두 언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와 영어 대조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화진(2000), "KFL 학습자들의 작문 오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작문지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고성중(1992), "한국어학습에 있어서의 일본어의 간섭에 대하여", 「연구논총」 8, 서울대 재외국민.
- 공일주(1992), "한국어와 아랍어 음운론적 대조와 ERROR 분석", 「이중언어학회지」 9.
- 구기성(1991), "한국말에 있어서의 참말과 빈말-비교언어학적인 고찰", 「교육한글」4.
- 권현주(1995),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교수법 연구-대조언어학적 방법을 통하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광규(1983), "한미간의 감정표현 연구", 「한국의국어대학 논문집」 16.
- 김기홍(1986), "한미간의 의사소통상 장애가 될 어휘와 구표현", 「한국의국어대학 논문집」 19.
- 김미옥(1994), "한국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 분석", 「한국말교육」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병원(1985), "한국어와 영어의 주제표시", 「이중언어학회지」 2.
- 김선희(1976), "한국어와 영어의 수식구조 대조연구", 연대석사논문.
- 김영만(1994), "오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작문 지도 방안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1990), "재중교포들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오류 분석", 「이중언어학」 7, 이중언어학회.
- 김영실(1987), "영어와 국어의 초분절음소 대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논문.
- 김유미(2000), "학습자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석(1991),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 형태 분류상의 특징적 고찰에서 본 대칭적 거울상 개념", 「응용언어학」4, 한국응용 언어학회.
- 김 정(1998), "보조사 '-까지', '-조차', '-마저'의 한·일 대조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1988),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시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오류 분석", 「한국어학 신연구」. 한신문화사.
- 김정숙(1989),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오류 분석", 「어문론집」28,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김제열(2002), "한국어 교육에서 시간 표현 요소의 문법적 기술 방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기술대회 논문 집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김청자(1997), "한국어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한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 사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
- 김진우(1995), "Korean and Other Languages: Contrasts and Concords", 「한국말교육」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진원(1992), "노어와 국어 자음음소의 음성 음운적 대조", 「이중언어학회지」 9.
- 김진원(1994), "한국어와 노어의 동작상 및 시제범주 체계 대조분석", 「이중언어학회지」 11.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노경희(1996),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Functions in English and Korean", 「응용 언어학」12, 한국응용언어학회.
- 드미트리예와 위.엔.(1991),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비교분석", 「이중언어학회지」 8.
- 리득춘(1997), "외국어를 위한 조선어/한국어 교재의 토 사용 비교-기초단계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8.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 梅田博之(1988), "한국어와 일본어-언어교육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지」 4.
- 문 용(1978), "중간언어론", 「어학연구」142. 서울대 어학연구소.
- 문 용(1983), "오류와 오류 분석의 의의", 「언어와 언어학」, 한국의국어대 어학연구소.
- 문제식(1981), "오류에 대한 두 관점: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閔 子(2000), "오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지도 방안 연구—초급 단계 중국인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나는 오류 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96), "국어오용어법의 예방적 지도법 연구(2)", 「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 박갑수(1984), “국어 오용의 경향에 대하여”, 「국어 생활」창간호, 국어 연구소.
- 박명석(1981), “한국과 미국과의 의사소통양식 - 차이점에 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 논문집」 14.
- 박무태(1976), “현대국어 조사의 문법상 오용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 외(1999), “학습자 오류를 기반으로 한 문법 평가 문항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민선(1993), “영·한 대조분석—문법적 특질을 중심으로”, 「부산여대 논문집」 36.
- 박수영(1992), “헝가리어의 명사문과 한국어의 대응구조”, 「이중언어학회지」 9.
- 박은수(1987), “오류 비중의 결정과 교실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대 사대 부속학교 교육논문집」 8.
- 박이도(1988), “제2언어 습득의 이론적 고찰 - 대조분석 가설을 중심으로”, 「釜山産業大論文集」 9-1 pp.25-48.
- 박종호(1989),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사소통의 차이”, 「언어연구」 6, 한국현대언어학회.
- 백봉자(1987), “교포 2세의 한국어와 쓰기 교육”, 「이중언어학회지」 3호. 이중언어학회.
- 백봉자(1991b),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동방학지」 71·7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변광수(1992), “한국어와 스웨덴어의 음운론적 대조분석”, 「이중언어학회지」 9.
- 쁘리주업(2000), “한국어와 태국어의 문장구조 대조 분석 연구”, 전주대 석사학위논문.
- 서 혁(199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와 교재구성의 방향”, 「선청어문」 2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1998), 「한일어 대조 분석」, 명지출판사.
- 서정수(1993), “한일 양국어의 일부 후치사(조사) 대비 연구”, 「이중언어학회지」 10, 이중언어학회.
- 서정수(1996). <수정 증보판> 국어 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서정수(1997), “인사말 비교 연구”, 「한국어교육」8,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pp.17-48
- 석희선(1988), “대조분석과 오류분석의 이해와 활용”,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7.
- 손 한(1994), “한국어와 영어의 단위 명사”, 「한국말교육」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송향근(1994), “핀란드어의 격체계 고찰- 한국어 격체계와의 대조 분석적 관점에서”, 「이중언어학」 11.
- 송향근(1996), “한국어와 핀란드어의 격체계 대조 분석”, 「이중언어학」13. 이중언어학회.
- 송향근(1997), “핀란드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시의 오류 분석”.
- 신봉수(1994), 「제2언어 학습자의 오류 이론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신성철(2001), An Error Analysis: Orthographic Errors Produced by Australian KFL Learners, IAKLE2001.
- 신은범(1982), “조사”의 “의”의 대조연구-기능·대응·생략문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싯타니 탐마차이(2001), “한국어 쓰기 지도에 관한 연구—태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오소정(1986),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혜(1977), “한일 양국어의 대우표현 비교연구”, 연대석사논문, 「국어교육론총」제2권.
- 오오이 히데아키(1986), 「한국어의 「-가」와 주제 — 일본어 「-Wa」, 「-G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츠보[小坪由希](1992), 「일본인에 대한 한국어 학습 문제점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혜숙(1995), “영어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분석”, 「이중언어학회지」12, 이중언어학회.
- 우인혜(1998),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새국어교육」 56. 한국국어교육학회.
- 우인혜(1998), “한일 언어 비교를 통한 발음 교수법”,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 유석훈(2001),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과 자료 분석”,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유향란(1996), “중학생 문장에 나타난 오류 실태 분석-중학교 2학년생의 글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서상규(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부사 사용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0]
- 이경은(1998), “한국어 문말시상형태소의 오류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계순(1969), “Contrastive Analysis의 이론과 방법”, 「언어교육」3(1),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25-41.
- 이계순(1977), “오류분석과 대조분석의 방향과 그 적용”, 「응용언어학」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광숙(1992), “독일어의 보충어와 한국어의 대응구조”, 「이중언어학회지」 9.
- 이광우(1984),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에 의한 오류 교정과 Communicative Competence 신장”, 「연구월보」.
- 이미영(2001),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전략연구—발화오류자료의 전산코딩을 이용하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송월(1989), “아동의 일기에 나타난 오류 경향의 조사 연구”, 『국어교육논지』 15, 대구교육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이수경(1996),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의 경향에 관하여”, 『한국말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수경(1997),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하고 있다’와 ‘해 있다’의 오류분석”, 『한국말교육』 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73-90.
- 이순자(1987), “문법의 분석-영어화자의 한국어 습득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임흥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정민(1986), “국어 구문 오용의 유형”, 『국어 생활』, 4·5호, 국어연구소.
- 이정희(2001),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오류 연구”,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 이정희(2002).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이지영(1995),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자하어문논집』. 상명대.
- 이충우(1994).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대표 어휘 설정”, [국어 교육 85-86]
- 임동선(2001),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아동의 품사별 오류유형분석”,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萩野綱男 외 5인(1988),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우법 비교대조”, 『이중언어학회지』 4.
- 전경재(1997), “한국어와 독일어의 수식어의 품사 및 형태”, 『한국말교육』 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91-106.
- 전성기(1992), “불어와 한국어의 의미론적 대조분석”, 『이중언어학회지』 9.
- 전은주(1994), “한국어(L2) 학습시 나타나는 학습자의 모국어(L1) 영향”, 『한국말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전제호(1989), “자음 체계의 차이에 따른 한, 미 2중언어의 교육”, 『이중언어학회지』 5.
- 정아영(1985), “한국어와 영어의 음운론적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회지』 2.
- 정승중·한대숙(1994), “제1언어와 제2언어의 독해력과 작문력의 상관관계 연구 - 한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9, 경북대학교. pp.55-71.
- 정희정(2000). [한국어 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 조선경(1996), “한국어의 조사 「의」와 일본어 조사 「の」의 대조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조현룡(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진은주(1994), “한국어(L2) 학습시 나타나는 학습자의 모국어(L1)의 영향”, 『한국말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주시경(1910). 국어 문법. 박문서관.
- 최우영(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석사논문.
- 최정화(1999), “한국어 교수에 있어서 일본어권 학습자의 오류 분석”,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 최현욱(1997) “중간언어에 대한 이론적 연구”, 『부산사대 교육논총』 8.
- 프로이트(이한우 역, 1998)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열린책들.
- 한기화(1986), 『중등 학교 학생들의 문장 표현력에 대한 검토』,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한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 허성도(1992),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분석”, 『이중언어학회지』 9.
- 황식모(1985), “오류 분석에 대한 제고”, 『인문연구』, 영남대.
- Archibald, J.(2000),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Linguistic Theory*, Blackwell.
- Bayley, R & P. Dennis eds(1996),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Linguistic Varia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Braidi, S. M.(1998), *The Acquisition of Second-Language Syntax*, Edward Arnold. 최숙희·김양순 옮김(2001)『제2 언어 통사론 습득』, 동인.
- Brown, H. D.(2001),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Prentice-Hall 이흥수 외 공역(2002),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Burt, M.K. (1975), Error Analysis in the Adult EFL Classroom, *TESOL Quarterly* Vol. 9, No. 1, pp. 53-63.
- Cohen, A.D. and Robbins, M. (1976), Toward Assessing Interlanguage Perform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ed Errors, Learners' Characteristics, and Learners' Explanations, *Language Learning* Vol. 26 No. 1. pp. 45-62.
- Corder, S.P.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RAL* Vol. 5 No. 4. pp. 161-170. Reprinted in S.P. Corder, 1985.

-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rder, S.P. (1971),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RAL* Vol. 9. No. 2. pp. 14-25. Reprinted in S.P. Corder, 1985.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 Corder, S.P. (1985),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mmergues, J.-Y. and Lane, H. (1976), On Two Independent Sources of Error in Learning the Syntax of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Vol. 26 No. 1, pp. 111-123.
- Dulay, H.C. and Burt, M.K. (1974), Errors and Strategie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Vol. 8 No. 2, pp. 129-136.
- Eckman, F.R. (1977), Markedness and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Language Learning* Vol. 27 No. 2, pp. 315-330.
- Etherton, A.R.B. (1977), Error Analysis: Problems and Procedures, *ELTJ* Vol. 32 No. 1, pp. 67-78.
- Gass, S.M. and Selinker, L. (1994),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한국어판: 박의재, 이정원 역, 1999, 「제2언어 습득론」 서울:한신문화사).
- Hatch, E. M.(1978), Discourse analysi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E. Hatch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book of reading. Rowley, MA: Newbury House.
- (new)Hatch, E. & Farhady, H. (1982), *Research Design and Statistics for Applied Linguistics*. Rowley, Mass.: Newbury House.
- Henning, G.H. (1978), A Developmental Analysis of Errors of Adult Iranian Student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anguage Learning* Vol. 28 No. 2, pp. 387-397.
- Hulstijn, J.H. and Hulstijn, W. (1984), Grammatical Errors as a Function of Processing Constraints and Explicit Knowledge, *Language Learning*, Vol. 34 No. 1, pp. 23-43.
- James, C. (1977), Judgements of Error Gravities, *ELTJ* Vol. 31 No. 2, pp. 116-124.
- James, C.(1990), Learner language, *Language Teaching* 23.
- James, C. (1998), *Errors in Language Learning and Use*. New York : Addison Welsey Longman Inc.
- Jaszczolt, K.(1995), Typology of constrastive studies: Specialization, progress, and applications. *Language Teaching* 28.
- Kim, Ik Hwan(1983), *An Analysis of Errors in English Compositions Written By Selected Korean and Thai Students*. Wayne State University. Ph.D.
- Lennon, P. (1991), Error: Some Problems of Definition, Identification, and Distinction, *Applied Linguistics* Vol. 12 No. 2, pp. 180-196.
- Lightbown P. & N. Spada(1993), *How Languages Are Learned*. Oxford U. Press.
- MacWhinney, B. et al.(2000), *CHAT Manual*, <http://chilides.psy.cmu.edu>
- MacWhinney, B. et al.(2000), *CLAN Manual*, <http://chilides.psy.cmu.edu>
- McLaughlin, B(1987), *The Theories of Second-Language Learning*. Edward Arnold Ltd. (한국어판: 이상국옴김, 1996, 「둘째 말 학습이론」, 서울: 도서출판 동인).
- Nakamura, Yoshihiro(1982), *A Systematic Error Analysis of the Written Japanese of American English Speakers and the National Approach to Remedial Instruction*, University of Kansas, Ph.D.
- Oller, J.W, Jr. and Ziahosseiny, S.M. (1970),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and Spelling Errors, *Language Learning* Vol. 20 No. 2, pp. 183-189.
- Richard Young (1991), *Variation in Interlanguage Morphology*, New York : Peter Lang Publishing, Inc. .
- Richard, J. C. (1971), A Non-Contrastive Approach to Error Analysis, *ELTJ* Vol. 25 No. 3, pp. 204-219.
- Richards, J. C. ed.(1992) *Error Analysis: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gman Group Limited.
- Schachter, J. (1974), An error in Error Analysis, *Language Learning* Vol. 24 No. 2, pp. 205-214.

- Schachter, J. and Celce-Murcia M. (1977), Some Reservations Concerning Error Analysis, *TESOL Quarterly* Vol. 11 No. 4, pp. 441-451.
- Selinker, L. (1992), *Rediscovering Interlanguage*. Longman. .
- Selinker, L.(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pp.209-231.
- Sharwood-Smith, M.(1996), Crosslinguistic influe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cquisition of grammar, In Jordens & Lalleman(1996), *Investigat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Sheen, R.(1996), The advantage of exploiting contrastive analysis in teaching and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RAL* 34.
- Soudek, L.I. (1977), Error Analysis and the System of English Consonants, *ELTJ* Vol. 31 No. 2, pp. 125-130.
- Taylor, B.P. (1975), The Use of Overgeneralization and Transfer Learning Strategies by Elementary and Intermediate Students of ESL, *Language Learning* Vol. 25 No. 1, pp. 73-88.
- Verhoeven, Ludo T. (1994), Transfer in Bilingual Development: The Linguistic Interdependence Hypothesis Revisited, *Language Learning* Vol. 44 No. 3. pp. 381-415.
- Wardhaugh, R. (1970),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TESOL Quarterly* Vol. 4 No. 2, pp. 123-130.
- Whitman, R.L. (1970), Contrastive Analysis: Problems and Procedures, *Language Learning* Vol. 20 No. 2, pp. 191-197.
- Zalewski, J.P. (1993), Number/Person Errors in an Information-Processing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Form-Focused Instruction, *TESOL Quarterly* Vol. 27 No. 4, pp. 691-703.

붙임

학습자 오류 말뭉치 목록

자료 1(자유작문)

YON_2002_봄_1차_1급

21_L1_0004_주리리_CHI(1).hwp	21_L1_0006_양홍_CHI(1).hwp
21_L1_0010_상리리_CHI(1).hwp	21_L1_0005_왕가빈_CHI(1).hwp
21_L1_0002_조덕화_CHI(1).hwp	21_L1_0053_황주자_JAP(11).hwp
21_L1_0008_진보화_CHI(2).hwp	21_L1_0036_피터 릭스브르_BRI(6).hwp
21_L1_0009_정효동_CHI(2).hwp	21_L1_0050_가와하라히토시_KJAP(11).hwp
21_L1_0007_시강휘_CHI(1).hwp	21_L1_0071_다나까 토씨히로_JAP(15).hwp
21_L1_0011_왕수운_CHI(2).hwp	21_L1_0052_이형숙_KJAP(11).hwp
21_L1_0012_김의점_CHI(2).hwp	21_L1_0051_기타무라 신고_JAP(11).hwp
21_L1_0013_여량_CHI(2).hwp	21_L1_0054_장진호_KJAP(11).hwp
21_L1_0014_왕설빙_CHI(2).hwp	21_L1_0055_허미혜_KJAP(11).hwp
21_L1_0015_황정정_CHI(4).hwp	21_L1_0056_허옥영_KJAP(11).hwp
21_L1_0016_손결_CHI(4).hwp	21_L1_0058_나가노가즈사_JAP(14).hwp
21_L1_0019_장정_CHI(4).hwp	21_L1_0059_노모도기요코_JAP(14).hwp
21_L1_0018_손단단_CHI(4).hwp	21_L1_0060_무라까미 유미_JAP(14).hwp
21_L1_0028_곽열_CHI(5).hwp	21_L1_0061_오카노카나_JAP(14).hwp
21_L1_0020_장범_CHI(4).hwp	21_L1_0062_스즈키소타로_JAP(14).hwp
21_L1_0021_설건화_CHI(4).hwp	21_L1_0064_이휘성_JAP(14).hwp
21_L1_0017_안문성_CHI(4).hwp	21_L1_0065_오오시마가오리_JAP(14).hwp
21_L1_0023_유제_CHI(4).hwp	21_L1_0066_마쓰모토카나코_JAP(14).hwp
21_L1_0024_이유미_CHI(4).hwp	21_L1_0067_타카하시카즈히토_JAP(14).hwp
21_L1_0025_요선_CHI(5).hwp	21_L1_0068_수미노마유_JAP(15).hwp
21_L1_0026_위명송_CHI(5).hwp	21_L1_0069_스기야마 미사코_JAP(15).hwp
21_L1_0027_손우분_CHI(5).hwp	21_L1_0070_이와세리사_JAP(15).hwp
21_L1_0037_오캐주크_NIG(6).hwp	21_L1_0072_스기우라 시즈에_JAP(15).hwp
21_L1_0029_이춘화_CHI(5).hwp	21_L1_0073_타카오노 요코_JAP(15).hwp
21_L1_0030_장건나_CHI(5).hwp	21_L1_0074_모리시게아이_JAP(16).hwp
21_L1_0031_설희_CHI(5).hwp	21_L1_0075_야츠나미치카코_JAP(16).hwp
21_L1_0032_전태욱_CHI(5).hwp	21_L1_0076_히구치 토모코_JAP(16).hwp
21_L1_0038_이진방_TAI(6).hwp	21_L1_0077_박경자_KJAP(16).hwp
21_L1_0033_이경애_CHI(5).hwp	21_L1_0078_다케다치에_JAP(16).hwp
21_L1_0045_샤론_IND(9).hwp	21_L1_0079_이시이 사나에_JAP(19).hwp
21_L1_0039_루나숙희조이_PHI(6).hwp	21_L1_0001_진효봉_CHI(1).hwp
21_L1_0046_김로버트_KUSA(9).hwp	21_L1_0034_스베트라나_RUS(6).hwp
21_L1_0040_테난_MYA(6).hwp	21_L1_0035_캐를레브 리건 맥캔지_RUS(6).hwp
21_L1_0042_브렛_USA(9).hwp	21_L1_0043_티나 오드카드_DAN(9).hwp
21_L1_0044_아미트카차브_ISR(9).hwp	21_L1_0080_가나자와 우미에_JAP(19).hwp
21_L1_0022_허림걸_CHI(4).hwp	21_L1_0081_카토 아키히사_JAP(19).hwp
21_L1_0048_미치코_JAP(11).hwp	21_L1_0082_코이즈미 츠즈코_JAP(19).hwp
	21_L1_0083_김령강_KJAP(19).hwp
	21_L1_0084_이 새 메구미_JAP(19).hwp
	21_L1_0003_핍견조_CHI(1).hwp
	21_L1_0085_하성경_KJAP(19).hwp
	21_L1_0047_민다우가스_LIT(9).hwp
	21_L1_0049_간다 아츠시_JAP(11).hwp
	21_L1_0057_진보 마사히코_JAP(11).hwp

21_L1_0063_수나미 히로시_JAP(14).hwp
21_L1_0041_주정_CHI(6).hwp

YON_2002_봄_1차_2급

21_L2_0046_이용욱_CHI(8).hwp
21_L2_0002_야마모토마키_JAP(1).hwp
21_L2_0003_나가미 아끼코_JAP(1).hwp
21_L2_0004_장리리_CHI(1).hwp
21_L2_0005_도오야마 아야_JAP(1).hwp
21_L2_0006_니노미야 신페이_JAP(1).hwp
21_L2_0007_치에_JAP(1).hwp
21_L2_0008_리산_USA(1).hwp
21_L2_0009_권세은_KGER(1).hwp
21_L2_0010_마에가와 신지_JAP(2).hwp
21_L2_0011_게찰스_KUSA(2).hwp
21_L2_0012_도로시_USA(2).hwp
21_L2_0013_페뜨라_CZE(2).hwp
21_L2_0014_Eduardo_KBRA(2).hwp
21_L2_0015_아리웅_MON(2).hwp
21_L2_0016_이사다 준코_JAP(2).hwp
21_L2_0017_하란 펠로디_USA(2).hwp
21_L2_0018_미유키_JAP(2).hwp
21_L2_0019_노리코_KJAP(2).hwp
21_L2_0020_코노 다이ске_JAP(2).hwp
21_L2_0021_마사키_JAP(2).hwp
21_L2_0022_요시에_JAP(3).hwp
21_L2_0023_이시카와요스케_JAP(3).hwp
21_L2_0024_Wang Yan_CHI(3).hwp
21_L2_0025_남귀자_KJAP(3).hwp
21_L2_0026_Xue chun mei_CHI(3).hwp
21_L2_0027_김귀월_KJAP(3).hwp
21_L2_0028_나카무라_JAP(3).hwp
21_L2_0029_다니엘니콜_DEN(3).hwp
21_L2_0030_유진산_CHI(5).hwp
21_L2_0031_스즈키 가즈요리_JAP(5).hwp
21_L2_0032_오가와 다카코_JAP(5).hwp
21_L2_0033_마틴_AUS(5).hwp
21_L2_0034_데이비드_AUS(5).hwp
21_L2_0035_히사코_JAP(5).hwp
21_L2_0036_송영_JAP(5).hwp
21_L2_0037_천해선_USA(5).hwp
21_L2_0038_Wang Xiao jie_CHI(6).hwp
21_L2_0039_강연영_CHI(6).hwp
21_L2_0040_Tell Jessica_SWE(6).hwp
21_L2_0041_오리이 아야_JAP(6).hwp
21_L2_0042_후꾸미 구미코_JAP(7).hwp
21_L2_0043_데니스_USA(7).hwp
21_L2_0044_이와사 이키코_JAP(8).hwp
21_L2_0045_이와사키 유카_JAP(8).hwp
21_L2_0001_소노코_JAP(1).hwp
21_L2_0047_WONGURAI WORAWUT_THI(8).hwp
21_L2_0048_이토아이_JAP(8).hwp
21_L2_0049_송매루_CHI(8).hwp
21_L2_0050_하루타 류우지_JAP(8).hwp
21_L2_0051_이노우에 슈리_JAP(8).hwp
21_L2_0052_아이치로_JAP(8).hwp
21_L2_0053_루찌에_CZE(8).hwp

21_L2_0054_유건_CHI(9).hwp
21_L2_0055_아키코_JAP(9).hwp
21_L2_0056_노리코_JAP(9).hwp
21_L2_0057_준코_JAP(9).hwp
21_L2_0058_송송_CHI(9).hwp
21_L2_0059_은하_CHI(9).hwp
21_L2_0060_왕리지_CHI(10).hwp
21_L2_0061_웨이 홍_CHI(10).hwp
21_L2_0062_송영실_KJAP(10).hwp
21_L2_0063_나카츠카 요스케_JAP(10).hwp
21_L2_0064_유카_JAP(10).hwp
21_L2_0065_미하라 토모코_JAP(10).hwp
21_L2_0066_비티밍후에_VIE(10).hwp
21_L2_0067_이노하야 토모미_JAP(10).hwp

YON_2002_봄_1차_3급

21_L3_0038_시즈미 짜에코_JAP(8).hwp
21_L3_0002_친저릭_MON(2).hwp
21_L3_0003_고운향_KJAP(2).hwp
21_L3_0004_요코미조 미호_JAP(2).hwp
21_L3_0005_타무라 요우헤이_JAP(2).hwp
21_L3_0006_최삼진_KOR(2).hwp
21_L3_0007_이진오_KJAP(2).hwp
21_L3_0008_강기우_RUS(3).hwp
21_L3_0009_고바타게 다카요_JAP(3).hwp
21_L3_0010_코유리_JAP(3).hwp
21_L3_0011_다카하라 지애_JAP(3).hwp
21_L3_0012_김도훈_JAP(3).hwp
21_L3_0013_박운_KOR(3).hwp
21_L3_0014_기시카와 가나코_JAP(3).hwp
21_L3_0015_손초_CHI(4).hwp
21_L3_0016_마리크리스틴_GER(4).hwp
21_L3_0017_왕신보_TAI(4).hwp
21_L3_0018_우잉_CHI(4).hwp
21_L3_0019_저스틴_USA(4).hwp
21_L3_0020_김로미나_ARG(4).hwp
21_L3_0021_박크리스틴_USA(4).hwp
21_L3_0022_왕행파_USA(4).hwp
21_L3_0023_필비_CHI(4).hwp
21_L3_0024_김용소_KJAP(5).hwp
21_L3_0025_카사이 미즈코_JAP(5).hwp
21_L3_0026_Shawn_KUSA(5).hwp
21_L3_0027_원청_CHI(5).hwp
21_L3_0028_마리야_RUS(5).hwp
21_L3_0029_무라카미 이쿠요_JAP(6).hwp
21_L3_0030_마나미_JAP(7).hwp
21_L3_0031_미카_JAP(7).hwp
21_L3_0032_미카_JAP(7).hwp
21_L3_0033_김블라지미르_RUS(7).hwp
21_L3_0034_김블라지미르_RUS(7).hwp
21_L3_0035_장정_CHI(7).hwp
21_L3_0036_장정_CHI(7).hwp
21_L3_0037_허승열_KJAP(8).hwp
21_L3_0001_조미영_KJAP(2).hwp
21_L3_0039_루위팡_TAI(8).hwp
21_L3_0040_우딘_GER(8).hwp
21_L3_0041_이시카와 리카_JAP(9).hwp

21_L3_0042_함정아_USA(9).hwp
 21_L3_0043_올리아_KAZ(9).hwp
 21_L3_0044_올리아_KAZ(9).hwp
 21_L3_0045_우애령_TAI(9).hwp
 21_L3_0046_케이_JAP(9).hwp
 21_L3_0047_케이_JAP(9).hwp
 21_L3_0048_다브치 유미_JAP(9).hwp
 21_L3_0049_오노 노부오_JAP(9).hwp
 21_L3_0050_김종서_KUSA(9).hwp
 21_L3_0051_정미_USA(10).hwp
 21_L3_0052_정미_USA(10).hwp
 21_L3_0053_안젤라_UZB(10).hwp
 21_L3_0054_이토켄슈_JAP(10).hwp
 21_L3_0055_아라이 마사유키_JAP(6).hwp

YON_2002_봄_1차_4급

21_L4_0053_신타테 다이스케_JAP(7).hwp
 21_L4_0002_이유경_KOR(1).hwp
 21_L4_0003_세키다 마유미_JAP(1).hwp
 21_L4_0004_우치야마 마사후미_JAP(1).hwp
 21_L4_0005_하라다 마도카_JAP(1).hwp
 21_L4_0006_강경필_KARG(1).hwp
 21_L4_0007_남윤상_USA(1).hwp
 21_L4_0008_안드레이_RUS(1).hwp
 21_L4_0009_아하라 메구미_JAP(1).hwp
 21_L4_0010_석조훈_KUSA(1).hwp
 21_L4_0011_서현석_KUSA(1).hwp
 21_L4_0012_김나_CHI(2).hwp
 21_L4_0013_난딩토포_MON(2).hwp
 21_L4_0014_이따나_KAZ(2).hwp
 21_L4_0015_하라구치 아케미_JAP(2).hwp
 21_L4_0016_김명미_KJAP(2).hwp
 21_L4_0017_김홍경_CHI(2).hwp
 21_L4_0018_아마모토 아즈시_JAP(2).hwp
 21_L4_0019_숨자리_THA(2).hwp
 21_L4_0020_Lunthny talan_VIE(2).hwp
 21_L4_0021_로렌스_USA(3).hwp
 21_L4_0022_로버트 안소니_USA(3).hwp
 21_L4_0023_마사히로_JAP(3).hwp
 21_L4_0024_조신_CHI(3).hwp
 21_L4_0025_야수타 다카코_JAP(3).hwp
 21_L4_0026_Ren peiyu_CHI(3).hwp
 21_L4_0027_카츠노 치사도_KJAP(4).hwp
 21_L4_0028_신정희_KJAP(4).hwp
 21_L4_0029_리사_USA(4).hwp
 21_L4_0030_아키모토_KJAP(4).hwp
 21_L4_0031_미마타 아이코_JAP(4).hwp
 21_L4_0032_시카이 나나에_JAP(4).hwp
 21_L4_0033_주효영_CHI(4).hwp
 21_L4_0034_우리중_CHI(4).hwp
 21_L4_0035_유하_CHI(5).hwp
 21_L4_0036_Felicia_USA(5).hwp
 21_L4_0037_최화선_CHI(5).hwp
 21_L4_0038_Lundqvist pia Duk_DEN(5).hwp
 21_L4_0039_가나모리 다에_JAP(5).hwp
 21_L4_0040_나시무라 게이코_JAP(5).hwp
 21_L4_0041_미경_BRA(5).hwp

21_L4_0042_구라우치 타이코_JAP(6).hwp
 21_L4_0043_히라야마 가요_JAP(6).hwp
 21_L4_0044_April Paik_KUSA(6).hwp
 21_L4_0045_키리_CHI(6).hwp
 21_L4_0046_첸_USA(6).hwp
 21_L4_0047_성진현_USA(6).hwp
 21_L4_0048_이시이 가오루_JAP(6).hwp
 21_L4_0049_이소노 아야코_JAP(6).hwp
 21_L4_0050_호리에 다카시_JAP(6).hwp
 21_L4_0051_민지숙_KJAP(7).hwp
 21_L4_0052_정일래_KJAP(7).hwp
 21_L4_0001_이해연_CHI(1).hwp
 21_L4_0054_하야타 텡페이_JAP(7).hwp
 21_L4_0055_하르트문트_GER(7).hwp
 21_L4_0056_게이코 사와다_JAP(7).hwp
 21_L4_0057_김태영_KUSA(7).hwp
 21_L4_0058_최해연_CHI(7).hwp
 21_L4_0059_아라치 마미_JAP(7).hwp
 21_L4_0060_타티아나_RUS(7).hwp
 21_L4_0061_정올리아_UZB(7).hwp
 21_L4_0062_추미희_KJAP(8).hwp
 21_L4_0063_이훈_KJAP(8).hwp
 21_L4_0064_마스다 요시미_JAP(8).hwp
 21_L4_0065_료스케_JAP(8).hwp
 21_L4_0066_무라세미카_JAP(8).hwp
 21_L4_0067_혜자_JAP(8).hwp
 21_L4_0068_무라타_JAP(8).hwp
 21_L4_0069_홍나은_USA(8).hwp

YON_2002_봄_1차_5급

21_L5_0050_김정자_KOR(7).hwp
 21_L5_0002_최진규_AUS(1).hwp
 21_L5_0003_김쥬노_USA(1).hwp
 21_L5_0004_후쿠나가 히데토시_JAP(1).hwp
 21_L5_0005_김알렉세이_RUS(1).hwp
 21_L5_0006_Howard Kim_CAN(1).hwp
 21_L5_0007_히로사와 유키코_JAP(1).hwp
 21_L5_0008_이시가미 에쓰히사_JAP(1).hwp
 21_L5_0009_와코 마사카즈_JAP(2).hwp
 21_L5_0010_배영희_KJAP(2).hwp
 21_L5_0012_채기_MON(2).hwp
 21_L5_0013_오충신_TAI(2).hwp
 21_L5_0014_Quan yuan hai_CHI(2).hwp
 21_L5_0015_임수양_KJAP(2).hwp
 21_L5_0016_손명_CHI(2).hwp
 21_L5_0017_모우리 미나_JAP(2).hwp
 21_L5_0018_김만야_KJAP(3).hwp
 21_L5_0019_에미 아쓰코_JAP(3).hwp
 21_L5_0020_박미남_KJAP(3).hwp
 21_L5_0021_치카코_JAP(3).hwp
 21_L5_0022_이금미_KJAP(3).hwp
 21_L5_0023_이덕봉_KJAP(3).hwp
 21_L5_0024_헨리 데이비드_USA(3).hwp
 21_L5_0025_김일수_KUSA(3).hwp
 21_L5_0026_신성학_KJAP(3).hwp
 21_L5_0027_다와_MON(3).hwp
 21_L5_0028_이현치_KJAP(4).hwp

21_L5_0029_아마모토 미카_JAP(4).hwp
 21_L5_0030_나카무라 히로코_JAP(4).hwp
 21_L5_0031_히로세 유키에_JAP(4).hwp
 21_L5_0032_이요한_GER(4).hwp
 21_L5_0033_미야타 기미히로_JAP(5).hwp
 21_L5_0034_유미코_JAP(5).hwp
 21_L5_0035_전미기_KJAP(5).hwp
 21_L5_0036_오오우치 마사미_JAP(5).hwp
 21_L5_0037_조우 타카히로_JAP(5).hwp
 21_L5_0038_고수기 미와_JAP(5).hwp
 21_L5_0039_이왕희_KJAP(5).hwp
 21_L5_0040_여효운_CHI(6).hwp
 21_L5_0041_요시다 타마미_JAP(6).hwp
 21_L5_0042_타즈야_JAP(6).hwp
 21_L5_0043_배청미_KJAP(6).hwp
 21_L5_0044_사와 아끼코_JAP(6).hwp
 21_L5_0045_나가노 유조_JAP(6).hwp
 21_L5_0046_토오루_JAP(6).hwp
 21_L5_0047_가와바타 데즈야_JAP(6).hwp
 21_L5_0048_페트릭_USA(6).hwp
 21_L5_0049_오구라 아끼코_JAP(7).hwp
 21_L5_0001_김하_CHI(1).hwp
 21_L5_0051_토니_NED(7).hwp
 21_L5_0052_조향순_KJAP(7).hwp
 21_L5_0053_시즈모어 체리_USA(7).hwp
 21_L5_0054_이충언_KJAP(7).hwp
 21_L5_0055_사이토 히로미_JAP(7).hwp
 21_L5_0056_브라체스 꾸말 씨따야_IND(7).hwp
 21_L5_0057_미키코_JAP(7).hwp
 21_L5_0058_이용수_KJAP(7).hwp
 21_L5_0059_정나미강_KJAP(8).hwp
 21_L5_0060_유소연_CHI(8).hwp
 21_L5_0061_카이세 아키히코_JAP(8).hwp
 21_L5_0062_네모토 히데유키_JAP(8).hwp
 21_L5_0063_코우지_JAP(8).hwp
 21_L5_0064_황보성희_KOR(8).hwp
 21_L5_0065_강방화_KJAP(8).hwp
 21_L5_0066_하시모토 나나에_JAP(8).hwp
 21_L5_0067_최까리나_RUS(8).hwp
 21_L5_0068_김여원_KUSA(8).hwp

YON_2002_봄_1차_6급

21_L6_0017_이지미_KJAP(2).hwp
 21_L6_0002_가네하라 사치에_JAP(1).hwp
 21_L6_0003_오오부치 아끼코_JAP(1).hwp
 21_L6_0004_매튜_KAUS(1).hwp
 21_L6_0005_이옥희_CHI(1).hwp
 21_L6_0006_오치선_KUSA(1).hwp
 21_L6_0007_시가 미찌요_JAP(1).hwp
 21_L6_0008_이지성_HON(1).hwp
 21_L6_0009_오노 미사코_JAP(1).hwp
 21_L6_0010_김영미_KJAP(1).hwp
 21_L6_0011_오오사와_JAP(1).hwp
 21_L6_0012_토미_JAP(2).hwp
 21_L6_0013_까뜨린느_ISR(2).hwp
 21_L6_0014_김화_CHI(2).hwp
 21_L6_0015_김영화_CHI(2).hwp

21_L6_0016_자야_MON(2).hwp
 21_L6_0001_유코_JAP(1).hwp
 21_L6_0018_이케다야요이_JAP(2).hwp
 21_L6_0019_치카오케이코_JAP(2).hwp
 21_L6_0020_이나무라 가츠코_JAP(2).hwp
 21_L6_0021_김경훈_USA(2).hwp
 21_L6_0022_아이노슈카_JAP(3).hwp
 21_L6_0023_타카하시 유카_JAP(3).hwp
 21_L6_0024_다카이 사치에_JAP(3).hwp
 21_L6_0025_정유귀_KJAP(3).hwp
 21_L6_0026_나카노 고헤타로우_JAP(3).hwp
 21_L6_0027_파콜로바 라로슬라바_RUS(3).hwp
 21_L6_0028_이수빈_KUSA(3).hwp
 21_L6_0029_코니시 치아키_JAP(3).hwp
 21_L6_0030_손영_BRI(3).hwp
 21_L6_0031_요시나가마리코_JAP(3).hwp

YON_2002_봄_1차_B고급

21_LB5~B8_0013_왕방화_TAI(B6).hwp
 21_LB5~B8_0002_요안나_POL(B5).hwp
 21_LB5~B8_0003-TranThBichPhuong_VIE(B5).hwp
 21_LB5~B8_0004_지강이_SIN(B5).hwp
 21_LB5~B8_0005_제이미_AUS(B5).hwp
 21_LB5~B8_0006_안나_FRA(B5).hwp
 21_LB5~B8_0007_블라더_BUL(B5).hwp
 21_LB5~B8_0008_Thi Ngoc Bich_VIE(B5).hwp
 21_LB5~B8_0009_테니스_RUS(B5).hwp
 21_LB5~B8_0010_에바_POL(B5).hwp
 21_LB5~B8_0011_김억사나_KRUS(B5).hwp
 21_LB5~B8_0012_야스코_JAP(B6).hwp
 21_LB5~B8_0001_체이스_CHI(B5).hwp
 21_LB5~B8_0014_김금미_KJAP(B6).hwp
 21_LB5~B8_0015_오오즈타 노부히로_JAP(B6).hwp
 21_LB5~B8_0016_소남_IND(B6).hwp
 21_LB5~B8_0017_김상치_KJAP(B6).hwp
 21_LB5~B8_0018_조셉_DEN(B6).hwp
 21_LB5~B8_0019_요네자와 키요에_JAP(B7).hwp
 21_LB5~B8_0020_제프_USA(B7).hwp
 21_LB5~B8_0021_스텔라_RUS(B7).hwp
 21_LB5~B8_0022_이카라시 고이치_JAP(B7).hwp
 YON_2002_봄_1차_B저급

21_LB1~B4_0043_Juhasz Borbala_HUN(B3).hwp
 21_LB1~B4_0002_토마스_GER(B2).hwp
 21_LB1~B4_0003_밀러_USA(B2).hwp
 21_LB1~B4_0004_황티모시_USA(B2).hwp
 21_LB1~B4_0005_아베 마사토_JAP(B2).hwp
 21_LB1~B4_0006_크리스_USA(B2).hwp
 21_LB1~B4_0007_앤드류알렉산더스_AUS(B2).hwp
 21_LB1~B4_0008_예반스 아담_USA(B2).hwp
 21_LB1~B4_0009_한센_AUS(B2).hwp
 21_LB1~B4_0010_마리나_UKR(B2).hwp
 21_LB1~B4_0011_임마누엘 필렐_PHI(B2).hwp
 21_LB1~B4_0012_Ly Nga To_VIE(B2).hwp
 21_LB1~B4_0013_토마스_USA(B2).hwp
 21_LB1~B4_0014_아구스_IND(B3).hwp
 21_LB1~B4_0015_아구스_IND(B3).hwp

21_LB1~B4_0016_아구스_IND(B3).hwp
 21_LB1~B4_0017_인나 발리시나_KYR(B3).hwp
 21_LB1~B4_0018_인나 발리시나_KYR(B3).hwp
 21_LB1~B4_0019_인나 발리시나_KYR(B3).hwp
 21_LB1~B4_0020_인나 발리시나_KYR(B3).hwp
 21_LB1~B4_0021_인나 발리시나_KYR(B3).hwp
 21_LB1~B4_0022_인나 발리시나_KYR(B3).hwp
 21_LB1~B4_0023_김인나_RUS(B3).hwp
 21_LB1~B4_0024_김인나_RUS(B3).hwp
 21_LB1~B4_0025_김인나_RUS(B3).hwp
 21_LB1~B4_0026_김인나_RUS(B3).hwp
 21_LB1~B4_0027_꼬망_IND(B3).hwp
 21_LB1~B4_0028_꼬망_IND(B3).hwp
 21_LB1~B4_0029_꼬망_IND(B3).hwp
 21_LB1~B4_0030_올리아_RUS(B3).hwp
 21_LB1~B4_0031_올리아_RUS(B3).hwp
 21_LB1~B4_0032_올리아_RUS(B3).hwp
 21_LB1~B4_0033_올리아_RUS(B3).hwp
 21_LB1~B4_0034_마리아_USA(B3).hwp
 21_LB1~B4_0035_마리아_USA(B3).hwp
 21_LB1~B4_0036_마리아_USA(B3).hwp
 21_LB1~B4_0037_길 로미_KUSA(B3).hwp
 21_LB1~B4_0038_길 로미_KUSA(B3).hwp
 21_LB1~B4_0039_길 로미_KUSA(B3).hwp
 21_LB1~B4_0040_엘레나_RUS(B3).hwp
 21_LB1~B4_0041_엘레나_RUS(B3).hwp
 21_LB1~B4_0042_엘레나_RUS(B3).hwp
 21_LB1~B4_0001_토마스_GER(B2).hwp
 21_LB1~B4_0044_park kenneth_KCAN(B3).hwp
 21_LB1~B4_0045_park kenneth_KCAN(B3).hwp
 21_LB1~B4_0046_Shin Yen Ju_TAI(B3).hwp
 21_LB1~B4_0047_Finney Yvonne_USA(B3).hwp
 21_LB1~B4_0048_Song yang_CHI(B4).hwp
 21_LB1~B4_0049_Song yang_CHI(B4).hwp
 21_LB1~B4_0050_Song yang_CHI(B4).hwp
 21_LB1~B4_0051_Song yang_CHI(B4).hwp
 21_LB1~B4_0052_알렉세이_RUS(B4).hwp
 21_LB1~B4_0053_레지나 모니카_USA(B4).hwp
 21_LB1~B4_0054_레지나 모니카_USA(B4).hwp
 21_LB1~B4_0055_레지나 모니카_USA(B4).hwp
 21_LB1~B4_0056_베아트릭스메츠시_HUN(B4).hwp
 21_LB1~B4_0057_베아트릭스메츠시_HUN(B4).hwp
 21_LB1~B4_0058_필립_BRI(B4).hwp
 21_LB1~B4_0059_필립_BRI(B4).hwp

자료 2(주제작문)

YON_2002_봄_2차_1급

22_L1_0001_양홍_CHI(1).hwp
 22_L1_0019_이경애_CHI(5).hwp
 22_L1_0003_진효봉_CHI(1).hwp
 22_L1_0004_주리리_CHI(1).hwp
 22_L1_0005_상리리_CHI(2).hwp
 22_L1_0006_근박화_CHI(2).hwp
 22_L1_0007_김의점_CHI(2).hwp
 22_L1_0008_갈운봉_CHI(3).hwp
 22_L1_0009_진승개_CHI(3).hwp

22_L1_0010_범위통_CHI(3).hwp
 22_L1_0011_Zhang Hua Ping_CHI(3).hwp
 22_L1_0012_한우_CHI(3).hwp
 22_L1_0013_위명송_CHI(5).hwp
 22_L1_0014_요선_CHI(5).hwp
 22_L1_0015_전태옥_CHI(5).hwp
 22_L1_0016_설리_CHI(5).hwp
 22_L1_0017_장건나_CHI(5).hwp
 22_L1_0018_손우봉_CHI(5).hwp
 22_L1_0002_소덕화_CHI(1).hwp
 22_L1_0020_이춘화_CHI(5).hwp
 22_L1_0021_황정정_CHI(4).hwp
 22_L1_0022_손단단_CHI(4).hwp
 22_L1_0023_유제_CHI(4).hwp
 22_L1_0024_장범_CHI(4).hwp
 22_L1_0025_유미_CHI(4).hwp
 22_L1_0026_손결_CHI(4).hwp
 22_L1_0027_허림걸_CHI(4).hwp
 22_L1_0028_장정_CHI(4).hwp
 22_L1_0029_세르게이_RUS(6).hwp
 22_L1_0030_숙희 조이 루나_PHI(6).hwp
 22_L1_0031_피터 릭스브르_BRI(6).hwp
 22_L1_0032_스베트라나_RUS(6).hwp
 22_L1_0033_이진방_TAI(6).hwp
 22_L1_0035_데이빗_CAN(7).hwp
 22_L1_0034_로렐_CAU(7).hwp
 22_L1_0036_Abbie_AUS(7).hwp
 22_L1_0037_그레이스_BRI(7).hwp
 22_L1_0038_실비아_ITA(8).hwp
 22_L1_0054_가와하라_JAP(11).hwp
 22_L1_0040_Liza Kim_USA(8).hwp
 22_L1_0041_윤군무_KHON(8).hwp
 22_L1_0042_Fred_USA(8).hwp
 22_L1_0043_에드윈_USA(9).hwp
 22_L1_0044_김로버트_KUSA(9).hwp
 22_L1_0045_브렛_USA(9).hwp
 22_L1_0046_아미크_ISR(9).hwp
 22_L1_0047_Gupta Bharti_IND(9).hwp
 22_L1_0048_미조카미 요우_JAP(11).hwp
 22_L1_0049_히미혜_KJAP(11).hwp
 22_L1_0068_다카하시 카즈히토_JAP(14).hwp
 22_L1_0069_수나미 히로시_JAP(14).hwp
 22_L1_0070_오오시마 가오리_JAP(14).hwp
 22_L1_0071_나가노_JAP(14).hwp
 22_L1_0072_유미_JAP(14).hwp
 22_L1_0073_스즈키스타로_JAP(14).hwp
 22_L1_0074_노모토 기요코_JAP(14).hwp
 22_L1_0077_박경자_KJAP(16).hwp
 22_L1_0050_이노우에 미찌코_JAP(11).hwp
 22_L1_0051_이형숙_KJAP(11).hwp
 22_L1_0052_황주자_KJAP(11).hwp
 22_L1_0053_기타무라 신고_JAP(11).hwp
 22_L1_0067_가와파 사토미_JAP(13).hwp
 22_L1_0055_허옥영_KJAP(11).hwp
 22_L1_0056_진보 마사히코_JAP(11).hwp
 22_L1_0057_장진호_KJAP(11).hwp
 22_L1_0058_오시준_KJAP(12).hwp
 22_L1_0076_마쓰모토 카나코_JAP(14).hwp

22_L1_0075_오카노 카나_JAP(14).hwp
 22_L1_0078_박미향_KJAP(16).hwp
 22_L1_0079_모리시게 아이_JAP(16).hwp
 22_L1_0080_요시히토_JAP(16).hwp
 22_L1_0081_와다 미야코_JAP(17).hwp
 22_L1_0082_권지혜_KJAP(17).hwp
 22_L1_0083_아마미_USA(17).hwp
 22_L1_0084_박일신_KJAP(17).hwp
 22_L1_0059_미카_JAP(12).hwp
 22_L1_0060_하라다 준코_JAP(12).hwp
 22_L1_0062_정아미_KJAP(12).hwp
 22_L1_0063_리나_KJAP(13).hwp
 22_L1_0039_Huang Yu Ling_TAI(8).hwp
 22_L1_0065_미즈타 토시로_JAP(13).hwp
 22_L1_0066_소노 야스토_JAP(13).hwp
 22_L1_0085_오카다 데즈히코_JAP(17).hwp
 22_L1_0091_하야시 요시아키_JAP(18).hwp
 22_L1_0092_이 진유미_KJAP(18).hwp
 22_L1_0093_고시아마 미야코_JAP(18).hwp
 22_L1_0094_한순자_KJAP(18).hwp
 22_L1_0095_아야 코으스케_JAP(18).hwp
 22_L1_0096_이시이 사나에_JAP(19).hwp
 22_L1_0097_가네자와 우미에_JAP(19).hwp
 22_L1_0098_카토 아키히사_JAP(19).hwp
 22_L1_0099_김령강_KJAP(19).hwp
 22_L1_0086_사이토 다에코_JAP(18).hwp
 22_L1_0087_이토 사토시_JAP(18).hwp
 22_L1_0088_나가사키 아이_JAP(18).hwp
 22_L1_0089_정지수_KJAP(18).hwp
 22_L1_0090_최정향_KJAP(18).hwp
 22_L1_0104_장지충_TAI(19).hwp
 22_L1_0103_가나야 기요시_JAP(19).hwp
 22_L1_0102_이세 메구미_JAP(19).hwp
 22_L1_0101_코이즈키 츠츠크_JAP(19).hwp
 22_L1_0100_하성경_KJAP(19).hwp
 22_L1_0064_Sato Kimitoshi_JAP(13).hwp
 22_L1_0061_안유미_KJAP(12).hwp

YON_2002_봄_2차_2급

22_L2_0036_아라키 준코_JAP(9).hwp
 22_L2_0002_Eduardo_KBRA(2).hwp
 22_L2_0003_기라 미유키_JAP(2).hwp
 22_L2_0004_푸쿠우카 마사키_JAP(2).hwp
 22_L2_0005_코노 다이스케_JAP(2).hwp
 22_L2_0006_김귀월_KJAP(3).hwp
 22_L2_0007_Nakamura Chini_JAP(3).hwp
 22_L2_0008_Nicolel_DEN(3).hwp
 22_L2_0009_Wang Yan_CHI(3).hwp
 22_L2_0010_Xue chun mei_CHI(3).hwp
 22_L2_0011_Yosuke Ishikawa_JAP(3).hwp
 22_L2_0012_Winnie Mak_BRI(3).hwp
 22_L2_0013_TAKANO YOSHIE_JAP(3).hwp
 22_L2_0014_남귀자_KJAP(3).hwp
 22_L2_0015_이마이 요코_JAP(4).hwp
 22_L2_0016_이모나카_PAR(4).hwp
 22_L2_0017_고다니 히로미_JAP(4).hwp
 22_L2_0018_장미향_KJAP(4).hwp

22_L2_0019_이치카와 사치요_JAP(4).hwp
 22_L2_0020_이명진_KUSA(4).hwp
 22_L2_0021_뒤발마끄_FRA(4).hwp
 22_L2_0022_도날드_CAN(4).hwp
 22_L2_0023_미사_JAP(4).hwp
 22_L2_0024_오가와다카코_JAP(5).hwp
 22_L2_0025_미네 히사코_JAP(5).hwp
 22_L2_0026_이수연_USA(5).hwp
 22_L2_0027_Wang Xiao Jie_CHI(6).hwp
 22_L2_0028_Tell Jessica_SWE(6).hwp
 22_L2_0029_테니스_USA(7).hwp
 22_L2_0030_조이 한샘_JAP(7).hwp
 22_L2_0031_이노우에 슈리_JAP(8).hwp
 22_L2_0032_이용옥_CHI(8).hwp
 22_L2_0033_유미_JAP(8).hwp
 22_L2_0034_Worawurt_THA(8).hwp
 22_L2_0035_구누끼 아키코_JAP(9).hwp
 22_L2_0001_김도로시_USA(2).hwp
 22_L2_0037_무라타 유이치_JAP(9).hwp
 22_L2_0038_송송_CHI(9).hwp
 22_L2_0039_키미카즈_JAP(9).hwp
 22_L2_0040_루찌에 피이싸로바_CZE(9).hwp
 22_L2_0041_Tsoi Svetlana_RUS(9).hwp
 22_L2_0042_오오노 노리코_JAP(9).hwp
 22_L2_0043_Liu Jian_CHI(9).hwp
 22_L2_0044_Kubota Yuka_JAP(10).hwp
 22_L2_0045_미하라 도모코_JAP(10).hwp
 22_L2_0046_Inohaya Tomomi_JAP(10).hwp
 22_L2_0047_Wang Li Zhe_CHI(10).hwp
 22_L2_0048_Wei Hong_CHI(10).hwp
 22_L2_0049_Motoume Shinji_JAP(10).hwp
 22_L2_0050_Vi Thi Minh Hue_VIE(10).hwp
 22_L2_0051_송영실_KJAP(10).hwp
 22_L2_0052_요스케_JAP(10).hwp
 22_L2_0053_쿠미코_JAP(7).hwp

YON_2002_봄_2차_3급

22_L3_0021_왕둥_CHI(8).hwp
 22_L3_0002_일리아_RUS(1).hwp
 22_L3_0003_Lio Tao_CHI(1).hwp
 22_L3_0004_이현정_KUSA(1).hwp
 22_L3_0005_최삼진_KOR(칠레)(2).hwp
 22_L3_0006_요코미조 미호_JAP(2).hwp
 22_L3_0007_요코미조 미호_JAP(2).hwp
 22_L3_0008_요코미조 미호_JAP(2).hwp
 22_L3_0009_장정_CHI(7).hwp
 22_L3_0010_마나미_JAP(7).hwp
 22_L3_0011_마나미_JAP(7).hwp
 22_L3_0012_김브라지미르_RUS(7).hwp
 22_L3_0013_김브라지미르_RUS(7).hwp
 22_L3_0014_김브라지미르_RUS(7).hwp
 22_L3_0015_미카_JAP(7).hwp
 22_L3_0016_미카_JAP(7).hwp
 22_L3_0017_미카_JAP(7).hwp
 22_L3_0018_미카_JAP(7).hwp
 22_L3_0019_미카_JAP(7).hwp
 22_L3_0020_존_CAN(8).hwp

22_L3_0001_강빅토리아_UKR(1).hwp
 22_L3_0022_가자노베 슈사크_JAP(8).hwp
 22_L3_0023_우던_GER(8).hwp
 22_L3_0024_미셸_GER(8).hwp
 22_L3_0025_오노 노부소_JAP(9).hwp
 22_L3_0026_오노 노부소_JAP(9).hwp
 22_L3_0027_오노 노부소_JAP(9).hwp
 22_L3_0028_케네디 켄케이_USA(9).hwp
 22_L3_0029_케네디 켄케이_USA(9).hwp
 22_L3_0030_케이_JAP(9).hwp
 22_L3_0031_이에홍_CHI(10).hwp
 22_L3_0032_강미양_KJAP(10).hwp
 22_L3_0033_강미양_KJAP(10).hwp
 22_L3_0034_강미양_KJAP(10).hwp
 22_L3_0035_강미양_KJAP(10).hwp

YON_2002_봄_2차_4급

22_L4_0044_유하_CHI(5).hwp
 22_L4_0002_아다치마미_JAP(1).hwp
 22_L4_0003_정일래_KJAP(1).hwp
 22_L4_0004_최해연_CHI(1).hwp
 22_L4_0005_김데이빗_KUSA(7).hwp
 22_L4_0006_민지숙_KJAP(1).hwp
 22_L4_0007_마츠무라에리(1).hwp
 22_L4_0008_신타테다이ске_JAP(1).hwp
 22_L4_0009_웰셔하트무트_GER(1).hwp
 22_L4_0010_박춘녀_XX(1).hwp
 22_L4_0011_이유경_KOR(1).hwp
 22_L4_0012_석조훈_KUSA(1).hwp
 22_L4_0013_XX_XX(1).hwp
 22_L4_0014_남윤상_USA(1).hwp
 22_L4_0015_마도카_JAP(1).hwp
 22_L4_0016_内山正文_JAP(1).hwp
 22_L4_0017_XX_XX(1).hwp
 22_L4_0018_세키다마유미_JAP(1).hwp
 22_L4_0019_이하라메구미_JAP(1).hwp
 22_L4_0020_XX_XX(1).hwp
 22_L4_0021_강경필_KARG(1).hwp
 22_L4_0022_구라우치다이코_JAP(6).hwp
 22_L4_0023_XX_XX(6).hwp
 22_L4_0024_호미에_JAP(6).hwp
 22_L4_0025_아야코_JAP(6).hwp
 22_L4_0026_XX-XX(6).hwp
 22_L4_0027_키리_CHI(6).hwp
 22_L4_0028_XX_JAP(6).hwp
 22_L4_0029_성진현_USA(6).hwp
 22_L4_0030_신정희_KJAP(3).hwp
 22_L4_0031_가와시마가리사_JAP(3).hwp
 22_L4_0032_티토_KCHI(3).hwp
 22_L4_0033_XX_XX(4).hwp
 22_L4_0034_미마타아이코_JAP(4).hwp
 22_L4_0035_리사_USA(4).hwp
 22_L4_0036_안드레이블레힌_RUS(4).hwp
 22_L4_0037_설미혜_KJAP(4).hwp
 22_L4_0038_XX_XX(4).hwp
 22_L4_0039_주효영_CHI(4).hwp
 22_L4_0040_아키토모토_KJAP(4).hwp

22_L4_0041_가나모리다에_JAP(5).hwp
 22_L4_0042_케이코_JAP(5).hwp
 22_L4_0043_모리_JAP(5).hwp
 22_L4_0001_케이코사와다_JAP(1).hwp
 22_L4_0045_XX_XX(5).hwp
 22_L4_0046_고이케타카코_JAP(5).hwp
 22_L4_0047_벤_XX(8).hwp
 22_L4_0048_마스다요시미_JAP(8).hwp
 22_L4_0049_무라타_JAP(8).hwp
 22_L4_0050_야수타다카코_JAP(8).hwp
 22_L4_0051_XX_XX(8).hwp
 22_L4_0052_XX_XX(8).hwp
 22_L4_0053_무라세이카_JAP(8).hwp
 22_L4_0054_XX_CHI(2).hwp
 22_L4_0055_하라구치아케미_JAP(2).hwp
 22_L4_0056_정올리아_UZB(2).hwp
 22_L4_0057_김병미_KJAP(2).hwp
 22_L4_0058_김나_CHI(2).hwp
 22_L4_0059_XX_VIE(2).hwp

YON_2002_봄_2차_5급

22_L5_0047_브라체스 꾸말썬따야_IND(7).hwp
 22_L5_0002_김쥬노_KUSA(1).hwp
 22_L5_0003_김하_CHI(1).hwp
 22_L5_0004_시바누마 케이엔_JAP(1).hwp
 22_L5_0005_최진규_AUS(1).hwp
 22_L5_0006_우진봉_CHI(1).hwp
 22_L5_0007_이시가미 에쓰히사_JAP(1).hwp
 22_L5_0008_후쿠나가 히데토시_JAP(1).hwp
 22_L5_0009_김알렉세이_RUS(1).hwp
 22_L5_0010_유미코_JAP(1).hwp
 22_L5_0011_Kim Howard_CAN(1).hwp
 22_L5_0012_오충신_TAI(2).hwp
 22_L5_0013_배영희_KJAP(2).hwp
 22_L5_0014_와코 마사카즈_JAP(2).hwp
 22_L5_0015_Quan Yuan Hai_CHI(2).hwp
 22_L5_0016_무우리 미나_JAP(2).hwp
 22_L5_0017_임수양_KJAP(2).hwp
 22_L5_0018_카카야 이호_JAP(2).hwp
 22_L5_0019_코우지_JAP(2).hwp
 22_L5_0020_박민철_JAP(3).hwp
 22_L5_0021_다와_MON(3).hwp
 22_L5_0022_김만야_KJAP(3).hwp
 22_L5_0023_박미남_KJAP(3).hwp
 22_L5_0024_에미 아쓰코_JAP(3).hwp
 22_L5_0025_이덕봉_KJAP(3).hwp
 22_L5_0026_이금미_KJAP(3).hwp
 22_L5_0027_헨리_USA(3).hwp
 22_L5_0028_사카이 토모코_JAP(5).hwp
 22_L5_0029_강행혜_KJAP(5).hwp
 22_L5_0030_오오우치 마사미_JAP(5).hwp
 22_L5_0031_고수기 미와_JAP(5).hwp
 22_L5_0032_조우 다카히로_JAP(5).hwp
 22_L5_0033_백영자_KJAP(5).hwp
 22_L5_0034_요시다 타마미_JAP(6).hwp
 22_L5_0035_타쵸야_JAP(6).hwp
 22_L5_0036_가와바다 테쵸야_JAP(6).hwp

22_L5_0037_나카미네 노부코_JAP(6).hwp
 22_L5_0038_패트릭_USA(6).hwp
 22_L5_0039_사와 아끼코_JAP(6).hwp
 22_L5_0040_배청미_KJAP(6).hwp
 22_L5_0041_토오루_JAP(6).hwp
 22_L5_0042_여효운_CHI(6).hwp
 22_L5_0043_미키코_JAP(7).hwp
 22_L5_0044_이충언_KJAP(7).hwp
 22_L5_0045_타티아나_RUS(7).hwp
 22_L5_0046_토니_NED(7).hwp
 22_L5_0001_히로사와 유키코_JAP(1).hwp
 22_L5_0048_오구라 아끼코_JAP(7).hwp
 22_L5_0049_사이토 히로미_JAP(7).hwp
 22_L5_0050_조향순_KJAP(7).hwp
 22_L5_0051_김정자_KOR(7).hwp
 22_L5_0052_제리_USA(7).hwp
 22_L5_0053_네모토 히데유키_JAP(8).hwp
 22_L5_0054_황보성희_KOR(8).hwp
 22_L5_0055_왕영련_CHI(8).hwp
 22_L5_0056_정나미강_KOR(8).hwp
 22_L5_0057_유소언_CHI(8).hwp
 22_L5_0058_카이세 아키히코_JAP(8).hwp
 22_L5_0059_김여원_KUSA(8).hwp
 22_L5_0060_최까리나_RUS(8).hwp
 22_L5_0061_하시모토 나나에_JAP(8).hwp
 22_L5_0062_강방화_KJAP(8).hwp

YON_2002_봄_2차_6급

22_L6_0020_치아키_JAP(2).hwp
 22_L6_0002_오노미사코_JAP(1).hwp
 22_L6_0003_사치에_JAP(1).hwp
 22_L6_0004_유희_JAP(1).hwp
 22_L6_0005_오치선_USA(1).hwp
 22_L6_0006_오오부치 아끼코_JAP(1).hwp
 22_L6_0007_이지성_JAP(1).hwp
 22_L6_0008_이옥희_CHI(1).hwp
 22_L6_0009_매튜_KAUS(1).hwp
 22_L6_0010_김영미_KJAP(1).hwp
 22_L6_0011_미찌요_JAP(1).hwp
 22_L6_0012_치카오카 케이코_JAP(2).hwp
 22_L6_0013_이나무라 가즈코_JAP(2).hwp
 22_L6_0014_아케다 야요이_JAP(2).hwp
 22_L6_0015_까드린_ISR(3).hwp
 22_L6_0016_이지미_KJAP(2).hwp
 22_L6_0017_가와무라 토미_JAP(2).hwp
 22_L6_0018_자야_MON(2).hwp
 22_L6_0019_김화_CHI(2).hwp
 22_L6_0001_오오사와_JAP(1).hwp
 22_L6_0021_다카이 사치에_JAP(2).hwp
 22_L6_0022_나카노_JAP(3).hwp
 22_L6_0023_야샤_RUS(3).hwp
 22_L6_0024_다카하시 유키_JAP(3).hwp
 22_L6_0025_요시나가_JAP(3).hwp
 22_L6_0026_이수빈_KUSA(3).hwp
 22_L6_0027_정유귀_KJAP(3).hwp
 22_L6_0028_손영_BRI(3).hwp
 22_L6_0029_손영_BRI(3).hwp

YON_2002_봄_2차_B고급

22_LB고급_0011_스텔라_RUS(7).hwp
 22_LB고급_0002_블라더_BUL(5).hwp
 22_LB고급_0003_김상치_KJAP(6).hwp
 22_LB고급_0004_Nguyen Ngoc Bich_VIE(5).hwp
 22_LB고급_0005_야스코_JAP(6).hwp
 22_LB고급_0006_소남_IND(6).hwp
 22_LB고급_0007_김금미_KJAP(6).hwp
 22_LB고급_0008_왕방화_TAI(6).hwp
 22_LB고급_0009_이카라시_JAP(7).hwp
 22_LB고급_0010_요네자와_JAP(7).hwp
 22_LB고급_0001_체이스_CHI(5).hwp
 22_LB고급_0012_제프_USA(7).hwp
 22_LB고급_0013_안드레이_UKR(7).hwp
 22_LB고급_0014_TranThiBichPhuong_VIE(5).hwp

YON_2002_봄_2차_B저급

22_LB3_0005_길로미_KRUS(1).hwp
 22_LB2_0013_한센_AUS.hwp
 22_LB2_0014_트레이시_USA.hwp
 22_LB2_0015_아베 마사토_JAP.hwp
 22_LB2_0016_토마스 케른_GER.hwp
 22_LB2_0017_황티모시_USA.hwp
 22_LB2_0018_스캇_USA.hwp
 22_LB2_0019_Dembeck Thomas_USA.hwp
 22_LB2_0020_마리나_UKR.hwp
 22_LB2_0021_KIMBER DAVID_BRI.hwp
 22_LB2_0022_Ly Nga To_VIE.hwp
 22_LB2_0023_올가_RUS.hwp
 22_LB3_0001_김인나_RUS(1).hwp
 22_LB3_0002_아구스_IND(1).hwp
 22_LB3_0003_엘리나_RUS(1).hwp
 22_LB3_0004_꼬망_IND(1).hwp
 22_LB2_0012_앤드류_AUS.hwp
 22_LB3_0006_김인나_RUS(1).hwp
 22_LB3_0007_아구스_IND(1).hwp
 22_LB3_0008_꼬망_IND(1).hwp
 22_LB3_0009_길로미_KRUS(1).hwp
 22_LB3_0010_케이트_TAI(2).hwp
 22_LB3_0011_보리_HUN(2).hwp

자료 3(자유작문)

YON_2002_봄_3차_1급

23_L1_0108_곽행자(SHARON)_TAI(17).hwp
 23_L1_0002_왕설빙_CHI(2).hwp
 23_L1_0003_김의림_CHI(2).hwp
 23_L1_0004_리리_CHI(2).hwp
 23_L1_0005_범위통_CHI(3).hwp
 23_L1_0006_김전_CHI(3).hwp
 23_L1_0007_갈운봉_CHI(3).hwp
 23_L1_0008_왕검_CHI(3).hwp
 23_L1_0009_장화평_CHI(3).hwp
 23_L1_0010_한우_CHI(3).hwp

- 23_L1_0011_손단단_CHI(4).hwp
 23_L1_0012_유미_CHI(4).hwp
 23_L1_0013_황정정_CHI(4).hwp
 23_L1_0014_장범_CHI(4).hwp
 23_L1_0015_허림걸_CHI(4).hwp
 23_L1_0016_안문성_CHI(4).hwp
 23_L1_0017_손걸_CHI(4).hwp
 23_L1_0018_장정_CHI(4).hwp
 23_L1_0019_유제_CHI(4).hwp
 23_L1_0020_손우봉_CHI(5).hwp
 23_L1_0021_설뢰_CHI(5).hwp
 23_L1_0022_이춘화_CHI(5).hwp
 23_L1_0023_요선_CHI(5).hwp
 23_L1_0024_위명충_CHI(5).hwp
 23_L1_0025_이경애_CHI(5).hwp
 23_L1_0026_장건나_CHI(5).hwp
 23_L1_0027_전패옥_CHI(5).hwp
 23_L1_0028_이스베트라나_RUS(6).hwp
 23_L1_0029_피터_BRI(6).hwp
 23_L1_0030_박용학_RUS(6).hwp
 23_L1_0031_리건_CAN(6).hwp
 23_L1_0032_숙희조이루나_FIL(6).hwp
 23_L1_0033_ThetHnin_MYA(6).hwp
 23_L1_0034_이진방_TAI(6).hwp
 23_L1_0035_오케주크_NIG(6).hwp
 23_L1_0036_데이빗_CAN(7).hwp
 23_L1_0037_그레이스_BRI(7).hwp
 23_L1_0038_김현아(캐서린 킴)_AUS(7).hwp
 23_L1_0039_카디르_PAK(7).hwp
 23_L1_0040_앨런_BRI(7).hwp
 23_L1_0041_김리자_USA(8).hwp
 23_L1_0042_FredJung_USA(8).hwp
 23_L1_0043_윌리엄_USA(8).hwp
 23_L1_0044_YulirgHuang_TAI(8).hwp
 23_L1_0045_비키_BRI(8).hwp
 23_L1_0046_실비아탈타리니_ITA(8).hwp
 23_L1_0047_장한(JoeChang)_USA(9).hwp
 23_L1_0048_이은미_RUS(9).hwp
 23_L1_0049_김로버트_USA(9).hwp
 23_L1_0050_티나오드가크_DEN(9).hwp
 23_L1_0051_민다우가스_LIT(9).hwp
 23_L1_0052_XX_XX(11).hwp
 23_L1_0053_장진호_KOR(11).hwp
 23_L1_0054_허미혜_KOR(11).hwp
 23_L1_0056_가와하라히토시_JAP(11).hwp
 23_L1_0057_기타무라신고_JAP(11).hwp
 23_L1_0058_황주자_KJAP(11).hwp
 23_L1_0059_이형숙_KJAP(11).hwp
 23_L1_0060_이노우에미찌코_JAP(11).hwp
 23_L1_0061_미조카미요우_JAP(11).hwp
 23_L1_0062_후지타하루나_JAP(12).hwp
 23_L1_0063_안미카_KJAP(12).hwp
 23_L1_0064_이화순_KJAP(12).hwp
 23_L1_0065_니시와키마사타카_JAP(12).hwp
 23_L1_0066_하라다준코_JAP(12).hwp
 23_L1_0067_히사타카주미_JAP(12).hwp
 23_L1_0068_안유미_KJAP(12).hwp
 23_L1_0069_오시준_KJAP(12).hwp
 23_L1_0070_오츠카타쿠_JAP(12).hwp
 23_L1_0071_가와파썬미_JAP(12).hwp
 23_L1_0072_미즈타토시로_JAP(12).hwp
 23_L1_0073_사이토마사끼_JAP(12).hwp
 23_L1_0074_이시이미야_JAP(12).hwp
 23_L1_0075_사토키미토시_JAP(12).hwp
 23_L1_0076_김리나_KJAP(12).hwp
 23_L1_0077_자하나하루나_JAP(12).hwp
 23_L1_0078_스즈키소타로_JAP(14).hwp
 23_L1_0079_노모토기요코_JAP(14).hwp
 23_L1_0080_마쓰모토카나코_JAP(14).hwp
 23_L1_0081_무라카미유미_JAP(14).hwp
 23_L1_0082_오오시마가오리_JAP(14).hwp
 23_L1_0083_나가노카즈사_JAP(14).hwp
 23_L1_0084_오카노카나_JAP(14).hwp
 23_L1_0085_임승학_KOR(14).hwp
 23_L1_0086_수나미히로시_JAP(14).hwp
 23_L1_0087_다카하시카즈히토_JAP(14).hwp
 23_L1_0088_토리이토모끼_JAP(15).hwp
 23_L1_0089_스기우라시즈에_JAP(15).hwp
 23_L1_0090_타나카토시히로_JAP(15).hwp
 23_L1_0091_스미노마유_JAP(15).hwp
 23_L1_0092_이와세리사_JAP(15).hwp
 23_L1_0093_박정화_KJAP(16).hwp
 23_L1_0094_박경자_KJAP(16).hwp
 23_L1_0095_야마모토요시히토_JAP(16).hwp
 23_L1_0097_야츠나미치카코_JAP(16).hwp
 23_L1_0098_한교진_KJAP(16).hwp
 23_L1_0099_오리시게아이_JAP(16).hwp
 23_L1_0100_마쵸다사토시_JAP(16).hwp
 23_L1_0101_박미향_KJAP(16).hwp
 23_L1_0102_XX_XX(17).hwp
 23_L1_0103_박일신_KJAP(17).hwp
 23_L1_0104_이영미_KJAP(17).hwp
 23_L1_0105_박광성_KJAP(17).hwp
 23_L1_0106_XX_KJAP(17).hwp
 23_L1_0107_다케야미쵸미_JAP(17).hwp
 23_L1_0001_근박화_CHI(2).hwp
 23_L1_0109_와다미야코_JAP(17).hwp
 23_L1_0110_시이바시나오코_JAP(17).hwp
 23_L1_0111_아야코오스케_JAP(18).hwp
 23_L1_0112_최정향_KJAP(18).hwp
 23_L1_0113_이진유미_KJAP(18).hwp
 23_L1_0114_사이토타에코_JAP(18).hwp
 23_L1_0115_고시아마미야코_JAP(18).hwp
 23_L1_0116_정지수_KJAP(18).hwp
 23_L1_0117_나가사키아이_JAP(18).hwp
 23_L1_0118_이토우사토시_JAP(18).hwp
 23_L1_0119_하야시요시아끼_JAP(18).hwp
 23_L1_0120_한순자_KJAP(18).hwp
 23_L1_0121_카토아키히사_JAP(19).hwp
 23_L1_0122_이시이사나에_JAP(19).hwp
 23_L1_0123_김령강_KJAP(19).hwp
 23_L1_0124_가나자와후미에_JAP(19).hwp
 23_L1_0125_하시모토마리_JAP(19).hwp
 23_L1_0126_하성경_KJAP(19).hwp
 23_L1_0127_주리리_CHI(1).hwp
 23_L1_0128_시강희_CHI(1).hwp

23_L1_0129_진효봉_CHI(1).hwp

YON_2002_봄_3차_2급

23_L2_0042_나카츠카 요스케_JAP(10).hwp
 23_L2_0001_기라 미유키_JAP(2).hwp
 23_L2_0002_코노 다이ске_JAP(2).hwp
 23_L2_0003_마에가와 신지_JAP(2).hwp
 23_L2_0004_아료나_MON(2).hwp
 23_L2_0005_Eduardo_KBRA(2).hwp
 23_L2_0006_Pucalikova Petra_CZE(2).hwp
 23_L2_0007_온드라_MON(4)무.hwp
 23_L2_0008_이명진_KUSA(4).hwp
 23_L2_0009_이치카와 사치요_JAP(4).hwp
 23_L2_0010_장미향_KJAP(4).hwp
 23_L2_0011_뒤발 마끄_FRA(4).hwp
 23_L2_0012_뒤발 마끄_FRA(4).hwp
 23_L2_0013_미사_JAP(4).hwp
 23_L2_0014_이동진(Rhee Donald)_CAN(4).hwp
 23_L2_0015_고다니 히로미_JAP(4).hwp
 23_L2_0016_이모니카_PAR(4).hwp
 23_L2_0017_이마이 요코_JAP(4).hwp
 23_L2_0018_Wang Xiao Jie_CHI(6).hwp
 23_L2_0019_야마구찌 하루카_JAP(6)무.hwp
 23_L2_0020_Krigger Larissa_RUS(6)무.hwp
 23_L2_0021_김동순(텔제시카)_SWE(6).hwp
 23_L2_0022_장광_CHI(6)무.hwp
 23_L2_0023_마이클_USA(7)무.hwp
 23_L2_0024_구미꼬_JAP(7).hwp
 23_L2_0025_테니스_USA(7).hwp
 23_L2_0026_아이이치로_JAP(8).hwp
 23_L2_0027_이와사 아키코(JAP8).hwp
 23_L2_0028_이노우에 슈리_JAP(8).hwp
 23_L2_0029_송매여_CHI(8).hwp
 23_L2_0030_이와사키 유카_JAP(8).hwp
 23_L2_0031_Liu Jian_CHI(9).hwp
 23_L2_0032_주은하_CHI(9).hwp
 23_L2_0033_아라키 준코_JAP(9).hwp
 23_L2_0034_오오노 노리코_JAP(9).hwp
 23_L2_0035_송송_CHI(9).hwp
 23_L2_0036_최라나(Tsoi Svetlana_RUS(9).hwp
 23_L2_0037_무라타 유이치_JAP(9).hwp
 23_L2_0038_루찌에 페이싸로바_CZE(9).hwp
 23_L2_0039_구누키 아키코_JAP(9).hwp
 23_L2_0040_니시자와 키미카즈_JAP(9).hwp
 23_L2_0041_웨이홍_CHI(10).hwp
 23_L2_0043_미노하야 토모미_JAP(10).hwp
 23_L2_0044_왕리저_CHI(10).hwp
 23_L2_0045_송영실_KJAP(10).hwp
 23_L2_0046_모토우메 신지_JAP(10).hwp
 23_L2_0047_쿠보타 유카_JAP(10).hwp
 23_L2_0048_미하라 토모코_JAP(10).hwp

YON_2002_봄_3차_3급

23_L3_0025_마후또바마리아_RUS.hwp
 23_L3_0002_류타오_CHI(1).hwp
 23_L3_0003_강정아_XX(1).hwp

23_L3_0004_강명수_KJAP(1).hwp
 23_L3_0005_가와무라 사토시_JAP(1).hwp
 23_L3_0006_이현정_KUSA(1).hwp
 23_L3_0007_원지홍_JAP(1).hwp
 23_L3_0008_타무라 요우헤이_JAP(2).hwp
 23_L3_0009_최예진_CHIL(2).hwp
 23_L3_0010_조미영_KJAP(2).hwp
 23_L3_0011_전용용_CHI(2).hwp
 23_L3_0012_팽배_TAI(2).hwp
 23_L3_0013_이진오_KJAP(2).hwp
 23_L3_0014_고운향_KJAP(2).hwp
 23_L3_0015_나카야마렌스_USA(2).hwp
 23_L3_0016_마리크리스틴호프만_GER(4).hwp
 23_L3_0017_윤형식_KUSA(4).hwp
 23_L3_0018_윤형식(4).hwp
 23_L3_0019_결비(BI FEI)_CHI(4).hwp
 23_L3_0020_우잉_CHI(4).hwp
 23_L3_0021_원청_USA(4).hwp
 23_L3_0022_마리크리스틴호프만_GER(4).hwp
 23_L3_0023_니키_HON(5).hwp
 23_L3_0024_카사이미즈코_JAP.hwp
 23_L3_0001_Hermann Kim_AUS(1).hwp
 23_L3_0026_마나미_JAP(6).hwp
 23_L3_0027_미쿠니사오리_JAP(6).hwp
 23_L3_0028_다카하시타케시_JAP(6).hwp
 23_L3_0029_유안_CHI(6).hwp
 23_L3_0030_임정희_KUSA(7).hwp
 23_L3_0031_김용민(7).hwp
 23_L3_0032_김블라지미르_RUS(7).hwp
 23_L3_0033_야마시타마나미_JAP(7).hwp
 23_L3_0034_소천상(7).hwp
 23_L3_0035_사카이미카(7).hwp
 23_L3_0036_XX_XX(8).hwp
 23_L3_0037_우던_GER(8).hwp
 23_L3_0038_나카다마미(8)_JAP.hwp
 23_L3_0039_XX_XX.hwp
 23_L3_0040_왕동_CHI(8).hwp
 23_L3_0041_시미즈찌에코_JAP(8).hwp
 23_L3_0042_허승열_KJAP(8).hwp
 23_L3_0043_다브치유미_JAP(9).hwp
 23_L3_0044_니헤이케이_JAP(9).hwp
 23_L3_0045_케하라다이ске.hwp

YON_2002_봄_3차_5급

23_L5_0044_요시다 타마미_JAP(6).hwp
 23_L5_0002_김하_CHI(1).hwp
 23_L5_0003_사비누마 케이엔_JAP(1).hwp
 23_L5_0004_우진봉_CHI(1).hwp
 23_L5_0005_김주노_USA(1).hwp
 23_L5_0006_Howard Kim_CAN(1).hwp
 23_L5_0007_히로사와 유키코_JAP(1).hwp
 23_L5_0008_후쿠나가 히데토시_JAP(1).hwp
 23_L5_0009_이시가미 에쓰히사_JAP(1).hwp
 23_L5_0010_유미꼬_JAP(1).hwp
 23_L5_0011_채기_MON(2).hwp
 23_L5_0012_유엔하이_CHI(2).hwp
 23_L5_0013_코우지_JAP(2).hwp

23_L5_0014_모우리 미나_JAP(2).hwp
 23_L5_0015_임수양_KJAP(2).hwp
 23_L5_0016_쑤밍_CHI(2).hwp
 23_L5_0017_와겐 마사카루_JAP(2).hwp
 23_L5_0018_오충신_TAI(2).hwp
 23_L5_0019_배영희_KJAP(2).hwp
 23_L5_0020_타카야 미호_JAP(2).hwp
 23_L5_0021_히로세 유키에_JAP(4).hwp
 23_L5_0022_히로세 유키에_JAP(4).hwp
 23_L5_0023_이요한_GER(4).hwp
 23_L5_0024_야마모토 미카_JAP(4).hwp
 23_L5_0025_나카무라 히로코_JAP(4).hwp
 23_L5_0026_이현치_KJAP(4).hwp
 23_L5_0027_강행해_KJAP(5).hwp
 23_L5_0028_조우 타마히로_JAP(5).hwp
 23_L5_0029_오오우치 마사미_JAP(5).hwp
 23_L5_0030_토모코_JAP(5).hwp
 23_L5_0031_고수기 미와_JAP(5).hwp
 23_L5_0032_전미기_KJAP(5).hwp
 23_L5_0033_백영자_KJAP(5).hwp
 23_L5_0034_이왕희_KJAP(5).hwp
 23_L5_0035_여효운_CHI(6).hwp
 23_L5_0036_배청미_KJAP(6).hwp
 23_L5_0037_가와바다 데즈야_JAP(6).hwp
 23_L5_0038_패트릭_USA(6).hwp
 23_L5_0039_사와 아키코_JAP(6).hwp
 23_L5_0040_나카노 유조_JAP(6).hwp
 23_L5_0041_토오루_JAP(6).hwp
 23_L5_0042_나가미네 노부코_JAP(6).hwp
 23_L5_0043_타즈야_JAP(6).hwp
 23_L5_0001_최진규_AUS(1).hwp
 23_L5_0045_모줄타냐_RUS(7).hwp
 23_L5_0046_이충언_KJAP(7).hwp
 23_L5_0047_오구라 아끼코_JAP(7).hwp
 23_L5_0048_토니_NED(7).hwp
 23_L5_0049_브라제스 꾸말싸디아_IND(7).hwp
 23_L5_0050_이용수_KJAP(7).hwp
 23_L5_0051_제리_USA(7).hwp
 23_L5_0052_김정자_KOR(7).hwp
 23_L5_0053_조향순_KJAP(7).hwp
 23_L5_0054_사이토 히로미_JAP(7).hwp
 23_L5_0055_최가리나_RUS(8).hwp
 23_L5_0056_하시모토 나나에_JAP(8).hwp
 23_L5_0057_카이세 아키히코_JAP(8).hwp
 23_L5_0058_왕영련_CHI(8).hwp
 23_L5_0059_강방화_KJAP(8).hwp
 23_L5_0060_나미강_KJAP(8).hwp
 23_L5_0061_황보성희_KJAP(8).hwp
 23_L5_0062_유소연_CHI(8).hwp
 23_L5_0063_네모토 히데유키_JAP(8).hwp

YON_2002_봄_3차_6급

23_L6_0013_이나무라 가츠코_JAP(2).hwp
 23_L6_0002_정유귀_KJAP(3).hwp
 23_L6_0003_타카하시 유카_JAP(3).hwp
 23_L6_0004_손영_BRI(3).hwp
 23_L6_0005_이수빈_KUSA(3).hwp

23_L6_0006_요시나가 마리코_JAP(3).hwp
 23_L6_0007_나카노 고우하루우_JAP(3).hwp
 23_L6_0008_야샤_RUS(3).hwp
 23_L6_0009_다카이사치에_JAP(3).hwp
 23_L6_0010_코니시 치아키_JAP(3).hwp
 23_L6_0011_김화_CHI(2).hwp
 23_L6_0012_가와무라토미_JAP(2).hwp
 23_L6_0001_이이노 슈카_JAP(3).hwp
 23_L6_0014_가뜨린_ISR(2).hwp
 23_L6_0015_아케다 야요이_JAP(2).hwp
 23_L6_0016_치카오카 케이코_JAP(2).hwp
 23_L6_0017_이지미_KJAP(2).hwp
 23_L6_0018_자야_MON(2).hwp
 23_L6_0019_오오부치 아끼코_JAP(1).hwp
 23_L6_0020_오치선_CHI(1).hwp
 23_L6_0021_가네하라 사치에_JAP(1).hwp
 23_L6_0022_오오사와_JAP(1).hwp
 23_L6_0023_유키_JAP(1).hwp
 23_L6_0024_김영미_KJAP(1).hwp
 23_L6_0025_매튜_KAUS(1).hwp
 23_L6_0026_이지성_CHI(1).hwp
 23_L6_0027_이옥희_CHI(1).hwp
 23_L6_0028_오노미사코_JAP(1).hwp

YON_2002_봄_3차_B고급

23_B6_0015_야스코_JAP.hwp
 23_B6_0016_김금미_KJAP.hwp
 23_B6_0017_소남_IND.hwp

YON_2002_봄_3차_B저급

23_B1_0001_리차드 보먼드_BRI(1).hwp
 23_B1_0002_위치안_TAI(1).hwp
 23_B1_0003_토마스_USA(1).hwp
 23_B1_0004_리차드 보먼드_BRI(1).hwp
 23_B1_0005_막심_RUS(1).hwp
 23_B1_0006_Raffatzla_SWI(2).hwp
 23_B1_0007_Raphael_SWI(2).hwp
 23_B1_0008_고운비_CHI(2).hwp
 23_B1_0009_무하마드_XX(2).hwp
 23_B1_0010_Russell_USA(2).hwp
 23_B4_0011_레히나_USA.hwp
 23_B4_0012_야나_BUL.hwp
 23_B4_0013_김양희_KUSA.hwp
 23_B4_0014_송양_CHI.hwp

자료 4(중간시험)

YON_2002_봄_4차_4급

24_L4_0001_이트경_MON(1).hwp
 24_L4_0002_이하라 메구미_JAP(1).hwp
 24_L4_0003_하라다 마도카_JAP(1).hwp
 24_L4_0004_강경필_KARG(1).hwp
 24_L4_0005_석조훈_KUSA(1).hwp
 24_L4_0006_남윤상_USA(1).hwp
 24_L4_0007_이해연_CHI(1).hwp

24_L4_0008_세키다 마유미_JAP(1).hwp
 24_L4_0009_서현석_KUSA(1).hwp
 24_L4_0010_이유경_KOR(1).hwp
 24_L4_0011_우치야마 마사후미_JAP(1).hwp
 24_L4_0012_Luu Thuy To Lan_VIE(2).hwp
 24_L4_0013_김홍경_CHI(2).hwp
 24_L4_0014_김영미_KJAP(2).hwp
 24_L4_0015_정율리아_UZB(2).hwp
 24_L4_0017_하라구치 아케미_JAP(2).hwp
 24_L4_0018_야마모토 아쓰시_JAP(2).hwp
 24_L4_0019_김나_CHI(2).hwp
 24_L4_0020_솜자리_THA(2).hwp
 24_L4_0021_난딩토야_MON(2).hwp
 24_L4_0022_가와시바 가리사_(3).hwp
 24_L4_0023_이창원_KUSA(3).hwp
 24_L4_0026_바쿨라_KYR(3).hwp
 24_L4_0025_임페유_CHI(3).hwp
 24_L4_0027_티토_CHI(3).hwp
 24_L4_0036_설미혜_KJAP(4).hwp
 24_L4_0028_신정희_KJAP(3).hwp
 24_L4_0029_조신_CHI(3).hwp
 24_L4_0030_사가이 나나에_JAP(4).hwp
 24_L4_0031_미마타 아이코_JAP(4).hwp
 24_L4_0032_카츠노 치사토_KJAP(4).hwp
 24_L4_0033_리사_USA(4).hwp
 24_L4_0034_아키모토_KJAP(4).hwp
 24_L4_0035_안드레이 볼레헨_RUS(4).hwp
 24_L4_0044_사토요_JAP(5).hwp
 24_L4_0037_주호영_CHI(4).hwp
 24_L4_0038_우리룡_CHI(4).hwp
 24_L4_0039_유하_CHI(5).hwp
 24_L4_0040_피아_DEN(5).hwp
 24_L4_0041_가나모리 다에_JAP(5).hwp
 24_L4_0042_최화선_CHI(5).hwp
 24_L4_0043_김미경_BRA(5).hwp
 24_L4_0045_모리 이즈미_JAP(5).hwp
 24_L4_0046_다카코_JAP(5).hwp
 24_L4_0047_장하_CHI(5).hwp
 24_L4_0048_니시무라 게이코_JAP(5).hwp
 24_L4_0049_펠리시아 와이글_USA(5).hwp
 24_L4_0050_이시이 가오루_JAP(6).hwp
 24_L4_0051_카요_JAP(6).hwp
 24_L4_0052_노구치 마사에_(6).hwp
 24_L4_0053_이소노 아야코_JAP(6).hwp
 24_L4_0054_구라우치 다이코_JAP(6).hwp
 24_L4_0055_호리에 다카시_JAP(6).hwp
 24_L4_0056_April Paik_KUSA(6).hwp
 24_L4_0057_키리_CHI(6).hwp
 24_L4_0058_첸_USA(6).hwp
 24_L4_0059_이영_KJAP(6).hwp
 24_L4_0060_성진현_USA(6).hwp
 24_L4_0069_박춘녀_CHI(7).hwp
 24_L4_0062_신타테 다이스케_JAP(7).hwp
 24_L4_0063_하야타 텡페이_JAP(7).hwp
 24_L4_0064_민지숙_KJAP(7).hwp
 24_L4_0065_아다치 마미_JAP(7).hwp
 24_L4_0066_김태영_KUSA(7).hwp
 24_L4_0067_정일래_KJAP(7).hwp

24_L4_0068_Keiko Sawada_JAP(7).hwp
 24_L4_0076_벤 잭슨_BRI(8).hwp
 24_L4_0070_Havtmut_GER(7).hwp
 24_L4_0071_최혜연_CHI(7).hwp
 24_L4_0072_료스케_JAP(8).hwp
 24_L4_0073_무라세미가_JAP(8).hwp
 24_L4_0074_이훈_KJAP(8).hwp
 24_L4_0075_추미희_KJAP(8).hwp
 24_L4_0077_혜자_JAP(8).hwp
 24_L4_0078_무라타 순타로_JAP(8).hwp
 24_L4_0079_야수타 다카코_JAP(8).hwp
 24_L4_0080_마스다 요시미_JAP(8).hwp
 24_L4_0016_곡향봉_CHI(2).hwp
 24_L4_0024_박예쁘게니아_RUS(3).hwp
 24_L4_0061_마쯔무라 에리_JAP(7).hwp

YON_2002_봄_4차_5급

24_L5_0068_미키코_JAP(7).hwp
 24_L5_0002_히로사와유키코_JAP(1).hwp
 24_L5_0003_시바누마케이엔_JAP(1).hwp
 24_L5_0004_이시가미에쓰히사_JAP(1).hwp
 24_L5_0005_후루카와유키미코_JAP(1).hwp
 24_L5_0006_Howard Kim_CAN(1).hwp
 24_L5_0007_우진봉_CHI(1).hwp
 24_L5_0008_김쥬노_KUSA(1).hwp
 24_L5_0009_후쿠나가히데토시_JAP(1).hwp
 24_L5_0010_김알렉세이_RUS(1).hwp
 24_L5_0011_최진규_AUS(1).hwp
 24_L5_0012_배영희_KJAP(2).hwp
 24_L5_0013_와코아사카주_JAP(2).hwp
 24_L5_0014_Quan yuan hak_CHI(2).hwp
 24_L5_0015_코우지_JAP(2).hwp
 24_L5_0016_모우리미나_JAP(2).hwp
 24_L5_0017_충신_TAI(2).hwp
 24_L5_0018_타카야미호_JAP(2).hwp
 24_L5_0019_임수양_KJAP(2).hwp
 24_L5_0020_채기_MON(2).hwp
 24_L5_0021_쑨밍_CHI(2).hwp
 24_L5_0022_김만야_KJAP(3).hwp
 24_L5_0023_미즈야마차카코_(3).hwp
 24_L5_0024_신성학_KJAP(3).hwp
 24_L5_0025_이덕봉_KJAP(3).hwp
 24_L5_0026_김일수_KUSA(3).hwp
 24_L5_0027_이금미_KJAP(3).hwp
 24_L5_0028_아쓰코_JAP(3).hwp
 24_L5_0029_웬으리_USA(3).hwp
 24_L5_0030_박민철_XX(3).hwp
 24_L5_0031_박미남_KJAP(3).hwp
 24_L5_0032_다와_MON(3).hwp
 24_L5_0033_야마모토미카_JAP(4).hwp
 24_L5_0034_나카무라히로코_JAP(4).hwp
 24_L5_0035_문사직_KJAP(4).hwp
 24_L5_0036_히로세유키에_JAP(4).hwp
 24_L5_0037_이요한_GER(4).hwp
 24_L5_0038_이현치_KJAP(4).hwp
 24_L5_0039_김나영_KUSA(4).hwp
 24_L5_0040_케이트허스_USA(4).hwp

24_L5_0041_Shin Alexander_KARG(4).hwp
 24_L5_0042_사카이토모코_JAP(5).hwp
 24_L5_0043_오오치마사미_JAP(5).hwp
 24_L5_0044_미야타기미히로_JAP(5).hwp
 24_L5_0045_이왕희_KJAP(5).hwp
 24_L5_0046_고수기미와_JAP(5).hwp
 24_L5_0047_강재영_KUSA(5).hwp
 24_L5_0048_강행혜_KJAP(5).hwp
 24_L5_0049_조우타카히로_JAP(5).hwp
 24_L5_0050_전미기_KJAP(5).hwp
 24_L5_0051_백영자_KJAP(5).hwp
 24_L5_0052_이노우에토오루_JAP(6).hwp
 24_L5_0053_나카노유로_JAP(6).hwp
 24_L5_0054_타즈야_JAP(6).hwp
 24_L5_0055_가와바타데즈야_JAP(6).hwp
 24_L5_0056_사와아끼코_JAP(6).hwp
 24_L5_0057_오시다 타마미_JAP(6).hwp
 24_L5_0058_나가미네노부코_(6).hwp
 24_L5_0059_배청미_KJAP(6).hwp
 24_L5_0060_여효운_CHI(6).hwp
 24_L5_0061_패트릭_USA(6).hwp
 24_L5_0062_Jeremy Anymou_USA(7).hwp
 24_L5_0063_mozaol_XX(7).hwp
 24_L5_0064_브라세스꾸말씨떠야_IND(7).hwp
 24_L5_0065_조향순_KJAP(7).hwp
 24_L5_0066_이충언_KJAP(7).hwp
 24_L5_0067_오구라아끼코_JAP(7).hwp
 24_L5_0001_김하_CHI(1).hwp
 24_L5_0069_김정자_KOR(7).hwp
 24_L5_0070_이용수_KJAP(7).hwp
 24_L5_0071_최가리나_RUS(8).hwp
 24_L5_0072_카이세아카히고_JAP(8).hwp
 24_L5_0073_황보성희_KOR(8).hwp
 24_L5_0074_하시모토나나에_JAP(8).hwp
 24_L5_0075_강방화_KJAP(8).hwp
 24_L5_0076_정나미강_KJAP(8).hwp
 24_L5_0077_네모또히데유키_JAP(8).hwp
 24_L5_0078_유소언_CHI(8).hwp
 24_L5_0079_김여원_KUSA(8).hwp
 24_L5_0080_왕영현_CHI(8).hwp

YON_2002_봄_4차_6급

24_L6_0023_안지연_XX(3).hwp
 24_L6_0002_오치선_KUSA(1).hwp
 24_L6_0003_미찌요_JAP(1).hwp
 24_L6_0004_유코_JAP(1).hwp
 24_L6_0005_오오시와_JAP(1).hwp
 24_L6_0006_이지성_CHI(1).hwp
 24_L6_0007_이옥희_CHI(1).hwp
 24_L6_0008_김영미_KJAP(1).hwp
 24_L6_0009_사치에_JAP(1).hwp
 24_L6_0010_오오부치아끼코_JAP(1).hwp
 24_L6_0011_오노미사코_JAP(1).hwp
 24_L6_0012_까뜨린_ISR(2).hwp
 24_L6_0013_김경훈_USA(2).hwp
 24_L6_0014_이성진_KUSA(2).hwp
 24_L6_0015_이지미_KJAP(2).hwp

24_L6_0016_쿠와하라토시미스_JAP(2).hwp
 24_L6_0017_이나무라가츠코_JAP(2).hwp
 24_L6_0018_가와무라토미_JAP(2).hwp
 24_L6_0019_김영화_CHI(2).hwp
 24_L6_0020_김화_CHI(2).hwp
 24_L6_0021_차카오카케이코_JAP(1).hwp
 24_L6_0022_바트자야_MON(2).hwp
 24_L6_0001_아케다야요미_(1).hwp
 24_L6_0024_코니시차아키_JAP(3).hwp
 24_L6_0025_요시나가 미리코_JAP(3).hwp
 24_L6_0026_이이노슈카_JAP(3).hwp
 24_L6_0027_손영_BRI(3).hwp
 24_L6_0028_정유귀_KJAP(3).hwp
 24_L6_0029_나가노고우카로우_JAP(3).hwp
 24_L6_0030_야샤_XX(3).hwp
 24_L6_0031_이수민_KUSA(3).hwp
 24_L6_0032_타타하시유카_JAP(3).hwp

자료 5(기말시험)

YON_2002_봄_5차_4급

25_L4_0001_강정철_KARG(1).hwp
 25_L4_0002_하라다미도가_JAP(1).hwp
 25_L4_0003_이하라메구미_JAP(1).hwp
 25_L4_0004_석조훈_KUSA(1).hwp
 25_L4_0005_남윤상_USA(1).hwp
 25_L4_0006_이해연_CHI(1).hwp
 25_L4_0007_세커다마유미_JAP(1).hwp
 25_L4_0008_서현석_KUSA(1).hwp
 25_L4_0010_마사후미_JAP(1).hwp
 25_L4_0011_이유경_KOR(1).hwp
 25_L4_0012_김명미_KJAP(2).hwp
 25_L4_0013_아마모토아쓰시_JAP(2).hwp
 25_L4_0014_이파나_KAZ(2).hwp
 25_L4_0015_정율리아_UZB(2).hwp
 25_L4_0016_하라쿠치아케미_JAP(2).hwp
 25_L4_0017_김나_CHI(2).hwp
 25_L4_0018_김홍경_CHI(2).hwp
 25_L4_0019_송자리_THA(2).hwp
 25_L4_0020_란_VIE(2).hwp
 25_L4_0021_난랑토아_MON(2).hwp
 25_L4_0022_신정희_KJAP(3).hwp
 25_L4_0023_티토_CHI(3).hwp
 25_L4_0024_가와시마가거사_JAP(3).hwp
 25_L4_0025_임페유_CHI(3).hwp
 25_L4_0026_조신_CHI(3).hwp
 25_L4_0027_주효영_CHI(4).hwp
 25_L4_0028_우리둥_CHI(4).hwp
 25_L4_0029_리사_USA(4).hwp
 25_L4_0030_아키모로_KJAP(4).hwp
 25_L4_0031_시키이나나에_JAP(4).hwp
 25_L4_0032_안드레이_(4).hwp
 25_L4_0033_미미타아이코_JAP(4).hwp
 25_L4_0034_설미혜_KJAP(4).hwp
 25_L4_0035_카츠노치다로_KJAP(4).hwp
 25_L4_0036_사료요_JAP(5).hwp
 25_L4_0037_장하_CHI(5).hwp

25_L4_0038_최화선_CHI(5).hwp
 25_L4_0039_다카코_JAP(5).hwp
 25_L4_0040_모리이즈미_JAP(5).hwp
 25_L4_0041_피아_DEN(5).hwp
 25_L4_0042_유하_CHI(5).hwp
 25_L4_0043_펠리샤외이글_USA(5).hwp
 25_L4_0044_니시무라게이코_JAP(5).hwp
 25_L4_0045_가나모리리에_JAP(5).hwp
 25_L4_0046_카와_CHI(6).hwp
 25_L4_0047_호기예다까시_JAP(6).hwp
 25_L4_0048_성자현_USA(6).hwp
 25_L4_0049_가오루_JAP(6).hwp
 25_L4_0050_이영_KJAP(6).hwp
 25_L4_0051_노구치마사에_(6).hwp
 25_L4_0052_구라무치라이호_JAP(6).hwp
 25_L4_0053_Aprilpaik_KUSA(6).hwp
 25_L4_0054_이소노야야코_JAP(6).hwp
 25_L4_0055_커리_CHI(6).hwp
 25_L4_0056_첸_USA(6).hwp
 25_L4_0057_아다치마미_JAP(7).hwp
 25_L4_0058_하야타럽페이_JAP(7).hwp
 25_L4_0059_신라테라이스케_JAP(7).hwp
 25_L4_0060_마쯔무라에리_JAP(7).hwp
 25_L4_0061_박춘녀_CHI(7).hwp
 25_L4_0062_Keikosawada_JAP(7).hwp
 25_L4_0063_김태영_KUSA(7).hwp
 25_L4_0064_민지숙_KJAP(7).hwp
 25_L4_0065_정일래_KJAP(7).hwp
 25_L4_0066_최해연_CHI(7).hwp
 25_L4_0067_Antrunt_(7).hwp
 25_L4_0068_마스다요시미_JAP(8).hwp
 25_L4_0069_무라타순타로_JAP(8).hwp
 25_L4_0070_추미희_KJAP(8).hwp
 25_L4_0071_벤채슨_(8).hwp
 25_L4_0072_야수다다이크_(8).hwp
 25_L4_0073_료스케_JAP(8).hwp
 25_L4_0074_해자_JAP(8).hwp
 25_L4_0075_무라세미카_JAP(8).hwp
 25_L4_0076_이훈_KJAP(8).hwp
 25_L4_0009_이트경_MON(1).hwp

YON_2002_봄_5차_5급

25_L5_0078_카이세아키히코_JAP(8).hwp
 25_L5_0002_히로사와유키코_JAP(1).hwp
 25_L5_0003_HowardKim_CAN(1).hwp
 25_L5_0004_후루카와유미코_JAP(1).hwp
 25_L5_0005_시바누마케이엔_JAP(1).hwp
 25_L5_0006_우진봉_CHI(1).hwp
 25_L5_0007_이시가미에쓰히사_JAP(1).hwp
 25_L5_0008_후쿠나가히데토시_JAP(1).hwp
 25_L5_0009_김하_CHI(1).hwp
 25_L5_0010_최진규_AUS(1).hwp
 25_L5_0011_김알렉세이_RUS(1).hwp
 25_L5_0012_순명_CHI(2).hwp
 25_L5_0013_모우리마나_JAP(2).hwp
 25_L5_0014_유엔하이_CHI(2).hwp
 25_L5_0015_코우지_JAP(2).hwp

25_L5_0016_충신_TAI(2).hwp
 25_L5_0017_임수양_KJAP(2).hwp
 25_L5_0018_타카야미호_JAP(2).hwp
 25_L5_0019_와코마사카주_JAP(2).hwp
 25_L5_0020_체기_MON(2).hwp
 25_L5_0021_배영희_KJAP(2).hwp
 25_L5_0022_박미남_KJAP(3).hwp
 25_L5_0024_김일수_KUSA(3).hwp
 25_L5_0025_김만야_KJAP(3).hwp
 25_L5_0026_에미야쓰코_JAP(3).hwp
 25_L5_0027_다와_MON(3).hwp
 25_L5_0028_헨리_USA(3).hwp
 25_L5_0029_신성학(3).hwp
 25_L5_0030_미즈야마치카코_JAP(3).hwp
 25_L5_0031_이금미_KJAP(3).hwp
 25_L5_0032_아마모토미카_JAP(4).hwp
 25_L5_0033_나카무라히로코_JAP(4).hwp
 25_L5_0034_이현치_KJAP(4).hwp
 25_L5_0035_이요한_GER(4).hwp
 25_L5_0036_히로세유키에_JAP(4).hwp
 25_L5_0038_문사직(4)_KJAP.hwp
 25_L5_0039_케이트허스_USA(4).hwp
 25_L5_0040_쥬우라카히로_JAP(5).hwp
 25_L5_0041_강재영_KUSA(5).hwp
 25_L5_0042_오오우치마사미_JAP(5).hwp
 25_L5_0043_사카이토모코_JAP(5).hwp
 25_L5_0044_강행혜_KJAP(5).hwp
 25_L5_0045_이왕희_KJAP(5).hwp
 25_L5_0046_백영자_KJAP(5).hwp
 25_L5_0047_교수기미와_JAP(5).hwp
 25_L5_0048_전미기_KJAP(5).hwp
 25_L5_0049_나카노유조_JAP(6).hwp
 25_L5_0050_여효운_CHI(6).hwp
 25_L5_0051_패트릭_USA(6).hwp
 25_L5_0052_나가미네노부코_JAP(6).hwp
 25_L5_0053_배청미_KJAP(6).hwp
 25_L5_0054_사와아키코_JAP(6).hwp
 25_L5_0055_타쓰야_JAP(6).hwp
 25_L5_0056_가와바다테쓰야_JAP(6).hwp
 25_L5_0057_요시다타마미_JAP(6).hwp
 25_L5_0058_이노우에토오루_JAP(6).hwp
 25_L5_0059_미키코_JAP(7).hwp
 25_L5_0060_사이또히로미_JAP(7).hwp
 25_L5_0061_이용수_KJAP(7).hwp
 25_L5_0062_김정자_KOR(7).hwp
 25_L5_0063_이충언_KJAP(7).hwp
 25_L5_0064_토니_NED(7).hwp
 25_L5_0065_조향순_KJAP(7).hwp
 25_L5_0066_Mozol_XX(7).hwp
 25_L5_0067_JeremySiyumon_USA(7).hwp
 25_L5_0068_브라제스_IND(7).hwp
 25_L5_0069_오그라야끼코_JAP(7).hwp
 25_L5_0070_황보성희_KOR(8).hwp
 25_L5_0071_하시모토나와에_JAP(8).hwp
 25_L5_0072_정나미강_KJAP(8).hwp
 25_L5_0073_왕영련_CHI(8).hwp
 25_L5_0074_최까리나_RUS(8).hwp
 25_L5_0075_강방화_KJAP(8).hwp

25_L5_0076_네모토히데유키_JAP(8).hwp
25_L5_0077_유소연_CHI(8).hwp
25_L5_0001_김쥬노_USA(1).hwp

자료 6(숙제공책)

YON_2002_봄_6차_2급

26_L2_0001_LeeEduardoSilvio_KBRA(2).hwp
26_L2_0002_KiraMiyuki_JAP(2).hwp
26_L2_0003_KonoDaisuke_JAP(2).hwp
26_L2_0004_PucalikovaPetra_CZE(2).hwp
26_L2_0005_이치가와사치코_JAP(4).hwp
26_L2_0007_ChangMiHyan_KJAP(4).hwp
26_L2_0008_KodaniHiromi_JAP(4).hwp
26_L2_0009_ImaiYoko_JAP(4).hwp
26_L2_0010_MotofujiMisa_JAP(4).hwp
26_L2_0011_RheeDonald_CAN(4).hwp
26_L2_0012_LeeElizabethMyungjin_KUSA(4).hwp
26_L2_0013_NamMinDya(4).hwp
26_L2_0014_ImaiYoko_JAP(4).hwp
26_L2_0015_KodaniHiromi_JAP(4).hwp
26_L2_0006_XX_XX(2).hwp

자료 7(외부자료)

기타_1~6급

27_L4_0003_세르게이_RUS.hwp
27_L1_0001_쓰브젠코 알렉산더_RUS.hwp
27_L6_0004_알료나_UKR.hwp
27_L2_0002_박 예브게니_UZB.hwp

EWHA_2002_봄_3급

27_L3_0001_마사코_JAP.hwp
27_L3_0002_마사코_JAP.hwp
27_L3_0003_마사코_JAP.hwp
27_L3_0004_마사코_JAP.hwp
27_L3_0005_마사코_JAP.hwp
27_L3_0006_마사코_JAP.hwp
27_L3_0007_마사코_JAP.hwp
27_L3_0008_마사코_JAP.hwp
27_L3_0009_마사코_JAP.hwp
27_L3_0010_마사코_JAP.hwp
27_L3_0016_나카무라 교코_JAP.hwp
27_L3_0017_나카무라 교코_JAP.hwp
27_L3_0018_나카무라 교코_JAP.hwp
27_L3_0019_나카무라 교코_JAP.hwp
27_L3_0020_나카무라 교코_JAP.hwp
27_L3_0021_나카무라 교코_JAP.hwp
27_L3_0022_나카무라 교코_JAP.hwp
27_L3_0023_나카무라 교코_JAP.hwp
27_L3_0011_마사코_JAP.hwp
27_L3_0012_마사코_JAP.hwp
27_L3_0013_마사코_JAP.hwp
27_L3_0014_마사코_JAP.hwp
27_L3_0015_나카무라 교코_JAP.hwp

HAHKUK_2002_여름_1~5급

27_L1_0015_이시마루_JAP.hwp
27_L1_0002_코우지_JAP.hwp
27_L1_0003_요안나_POL.hwp
27_L1_0004_나오미_JAP.hwp
27_L1_0005_마치코_JAP.hwp
27_L5_0028_XX_RUS.hwp
27_L1_0011_강서희_KJAP.hwp
27_L1_0008_이시다야스코_JAP.hwp
27_L1_0009_고또에_JAP.hwp
27_L1_0010_시노하라타츠노리_JAP.hwp
27_L5_0026_XX_JAP.hwp
27_L1_0012_다카야마에미코_JAP.hwp
27_L1_0013_이시마루_JAP.hwp
27_L1_0014_신고_JAP.hwp
27_L1_0001_노부코_JAP.hwp
27_L1_0007_태희_KJAP.hwp
27_L2_0018_XX_CHI.hwp
27_L2_0020_류우순_CHI.hwp
27_L2_0019_XX_CHI.hwp
27_L2_0017_미사코_JAP.hwp
27_L3_0021_XX_JAP.hwp
27_L1_0006_조셉_USA.hwp
27_L5_0027_야스_JAP.hwp
27_L5_0025_히야카와사토미_JAP.hwp
27_L4_0022_임아령_CHI.hwp
27_L2_0016_XX_JAP.hwp
27_L5_0029_XX_RUS.hwp
27_L4_0023_이치시마히로코_JAP.hwp
27_L4_0024_시로_JAP.hwp

KUNG_2001_봄_기말_고급

17_고급_0001_타미라_IND(2).hwp
17_고급_0002_쉐브넬케르_TUR(2).hwp
17_고급_0003_후쿠이유주루_JAP(2).hwp
17_고급_0004_김엘레나_KAL(2).hwp
17_고급_0005_토미타요시노부_JAP(2).hwp
17_고급_0006_이청운_CHI(2).hwp
17_고급_0007_레니_RUS(2).hwp
17_고급_0008_마리아_RUS(2).hwp
17_고급_0009_이이다미즈미_JAP(2).hwp
17_고급_0010_수호오치르_MON(2).hwp
17_고급_0011_장경후_CHI(2).hwp
17_고급_0012_방화옥_CHI(2).hwp
17_고급_0013_아리프_BAN(2).hwp
17_고급_0014_다리아_RUS(2).hwp
17_고급_0015_이예까제리나_KAL(3).hwp
17_고급_0016_황해진_TAI(3).hwp
17_고급_0017_왕정_CHI(3).hwp
17_한국학반_0018_항가이마_MON.hwp
17_한국학반_0019_요안나로쿨스카_POL.hwp
17_한국학반_0020_장운정_CHI.hwp
17_한국학반_0021_자립바_KAL.hwp
17_한국학반_0022_김율리아_RUS.hwp
17_한국학반_0023_온제이_CZE.hwp

17_한국학반_0024_안나_RUS.hwp
17_한국학반_0025_카노크완_THA.hwp
17_한국학반_0026_박자연_JAP.hwp

KUNG_2001_가을_초급

17_초급_0001_에브게니_RUS.hwp
17_초급_0003_시바타 요시츠크_JAP.hwp
17_초급_0004_시바타 요시츠크_JAP.hwp
17_초급_0005_시바타 요시츠크_JAP.hwp
17_초급_0006_시바타 요시츠크_JAP.hwp
17_초급_0007_시바타 요시츠크_JAP.hwp
17_초급_0008_시바타 요시츠크_JAP.hwp
17_초급_0009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10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11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12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13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14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15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16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17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20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21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22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23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24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25_호충켄_VIE.hwp
17_초급_0026_호충켄_VIE.hwp
17_초급_0027_호충켄_VIE.hwp
17_초급_0018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19_전용용_CHI.hwp
17_초급_0028_호충켄_VIE.hwp
17_초급_0029_호충켄_VIE.hwp
17_초급_0030_호충켄_VIE.hwp
17_초급_0031_호충켄_VIE.hwp
17_초급_0033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34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32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36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37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35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38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40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41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42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43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44_톨 히로슈_NOR.hwp
17_초급_0045_미우라 카오루_JAP.hwp
17_초급_0046_요시다 나호코_JAP.hwp
17_초급_0048_최유유_CHI.hwp
17_초급_0047_요시다 나호코_JAP.hwp
17_초급_0049_최유유_CHI.hwp
17_초급_0050_최유유_CHI.hwp
17_초급_0051_최유유_CHI.hwp
17_초급_0052_최유유_CHI.hwp
17_초급_0053_최유유_CHI.hwp
17_초급_0001_시바타 요시츠크_JAP.hwp

17_초급_0002_시바타 요시츠크_JAP.hwp

KUNG_2001_가을_중고급

17_중고급_0003_노자와 마미_JAP.hwp
17_중고급_0002_김철_CHI.hwp
17_중고급_0006_마이_VIE.hwp
17_중고급_0018_마이_VIE.hwp
17_중고급_0008_심천지_TAI.hwp
17_중고급_0005_마이_VIE.hwp
17_중고급_0011_던무하메드 예사니프_UZB.hwp
17_중고급_0009_오이카와 히로에_JAP.hwp
17_중고급_0010_나카다테 마유크_JAP.hwp
17_중고급_0012_진시연_TAI.hwp
17_중고급_0013_심천지_TAI.hwp
17_중고급_0014_스즈키 미치코_JAP.hwp
17_중고급_0015_타지마 아키라_JAP.hwp
17_중고급_0016_오이카와 히로에_JAP.hwp
17_중고급_0017_야마사키 줌페이_JAP.hwp
17_중고급_0020_히라고리 다쓰야_JAP.hwp
17_중고급_0019_히라고리 다쓰야_JAP.hwp
17_중고급_0001_우라베히로시_JAP.hwp
17_중고급_0004_야마사키 줌페이_JAP.hwp
17_중고급_0007_던무하메드 예사니프_UZB.hwp

SOGANG_2001_봄_2~7급

17_L5_0002_클라우디아_MEX.hwp
17_L2_0014_가지_BAN.hwp
17_L2_0015_박나스미_KOR.hwp
17_L2_0016_요시에_JAP.hwp
17_L2_0035_루이스_BRI.hwp
17_L2_0036_타카기 시호_JAP.hwp
17_L2_0037_오페르_ISR.hwp
17_L2_0038_윤노_JAP.hwp
17_L5_0001_살로메_LIT.hwp
17_L5_0017_키쿠치_JAP.hwp
17_L5_0018_그레이스_IND.hwp
17_L5_0003_마사코_JAP.hwp
17_L5_0019_우양태_JAP.hwp
17_L5_0020_매튜영_USA.hwp
17_L2_0012_정리미_KOR.hwp
17_L2_0013_히로코_JAP.hwp
17_L5_0004_모리노 야스에_JAP.hwp
17_L5_0005_요다사나에_JAP.hwp
17_L5_0006_화미_TAI.hwp
17_L5_0007_이란숙_USA.hwp
17_L5_0008_래리_USA.hwp
17_L5_0009_마이크_USA.hwp
17_L5_0010_선맥도널드_CAN.hwp
17_L5_0021_네모토_JAP.hwp
17_L5_0030_권중훈_KOR.hwp
17_L6_0023_이지애_KOR.hwp
17_L6_0024_마츠우라 미에_JAP.hwp
17_L6_0025_다카즈 가즈코_JAP.hwp
17_L6_0026_박해밀턴_USA.hwp
17_L6_0027_이에모토 나미_JAP.hwp
17_L6_0028_사토코_JAP.hwp

17_L6_0029_케이_JAP.hwp
 17_L6_0031_타테오_POL.hwp
 17_L5_0022_아니_USA.hwp
 17_L6_0032_강현승_USA.hwp
 17_L6_0033_박문희_KOR.hwp
 17_L7_0039_강양수_KOR.hwp
 17_L7_0040_한스_CAN.hwp
 17_L7_0041_다니엘_USA.hwp
 17_L2_0011_한리실_KOR.hwp
 17_L2_0034_민Freerk Simon_NET.hwp

SOGANG_2002

27_L2_0006_슬라바_RUS.hwp
 27_L1_0003_나탈리아_RUS.hwp
 27_L1_0004_스비틀라나_URK.hwp
 27_L1_0005_타티아나_RUS.hwp
 27_L1_0001_KAZAKOV_RUS.hwp
 27_L4_0007_진 줄리아_RUS.hwp
 27_L6_0008_끼릴_RUS.hwp

자료 8(백일장)

2001_백일장_수필

18_0001_이환희_GER.hwp
 18_0002_고바야시 에미코_JAP.hwp
 18_0003_오자와 사야카_JAP.hwp
 18_0004_다테베 에미.hwp
 18_0005_유진희.hwp
 18_0006_하세모토 후미요_JAP.hwp
 18_0007_통갈락 에르헨바야르.hwp
 18_0008_곽사진.hwp
 18_0009_전창배.hwp
 18_0010_후지타 게이코_JAP.hwp
 18_0011_세라쓰나코.hwp
 18_0012_와다 하루코_JAP.hwp
 18_0013_오가와 유타카_JAP.hwp
 18_0014_이대성.hwp
 18_0015_니시무라 에츠코_JAP.hwp
 18_0016_황잔나.hwp
 18_0017_넬슨 러라.hwp
 18_0018_와타나베 미호_JAP.hwp
 18_0019_도미타 치즈카.hwp
 18_0020_수하이미_MAL.hwp
 18_0021_채계방.hwp
 18_0022_라보바 알렉산드라.hwp
 18_0023_요시노 유이치로_JAP.hwp
 18_0024_마츠우라 미에_JAP.hwp
 18_0025_신희.hwp
 18_0026_응원 티 러엔 짱_CHI.hwp
 18_0027_이영현.hwp
 18_0028_Kiryl Zaleski.hwp
 18_0029_다쓰이시 아쓰시_JAP.hwp
 18_0030_에노모토 나츠코_JAP.hwp
 18_0031_이즈쵸 치요코_JAP.hwp
 18_0032_미도리카와 겐_JAP.hwp
 18_0033_미타 시노_JAP.hwp

18_0034_하시모토 루미_JAP.hwp
 18_0035_히로세 미끼_JAP.hwp
 18_0036_고니시 후사에_JAP.hwp
 18_0037_신인하.hwp
 18_0038_시바누마 케이엔_JAP.hwp
 18_0039_아이카와 나오코_JAP.hwp
 18_0040_이케다 미카_JAP.hwp
 18_0041_김유리자.hwp
 18_0042_메가사와 쟁이치_JAP.hwp
 18_0043_사토우 미나코_JAP.hwp
 18_0044_츠츠이 타카코_JAP.hwp
 18_0045_크리스 바가.hwp
 18_0046_왕휘_CHI.hwp
 18_0047_가타기리 마사토시_JAP.hwp
 18_0048_장위_CHI.hwp
 18_0049_치하라 히토미_JAP.hwp
 18_0050_히라노 토요끼_JAP.hwp
 18_0051_원티빅희.hwp
 18_0052_이나다 세이지_JAP.hwp
 18_0053_Vacharapa Kanitasut_THA.hwp
 18_0054_포스트렐로파 마르가리타.hwp
 18_0055_오노요시노리_JAP.hwp
 18_0056_사코다 히데후미_JAP.hwp
 18_0057_테레사 보예스.hwp
 18_0058_안드레아.hwp
 18_0059_이마이즈미 유키히로_JAP.hwp
 18_0060_정경_JAP.hwp
 18_0061_김정은.hwp
 18_0062_홍대조_JAP.hwp
 18_0063_왕천수.hwp
 18_0064_조다라.hwp
 18_0065_하라구치 히사요_JAP.hwp
 18_0066_옥사나 코베즈.hwp
 18_0067_김진화.hwp
 18_0068_제포 셀먼.hwp
 18_0069_주미영.hwp
 18_0070_김환희.hwp
 18_0071_Silverio Sal Panuco.hwp
 18_0072_안쑤니.hwp
 18_0073_박영우.hwp
 18_0074_이한나.hwp
 18_0075_세키야 미카코_JAP.hwp
 18_0076_가이노우 주고_JAP.hwp
 18_0077_양희_CHI.hwp
 18_0078_이요한.hwp
 18_0079_미루야미 시케키_JAP.hwp
 18_0080_김 빅토리아_KAZ.hwp
 18_0081_왕철용.hwp
 18_0082_호진균.hwp
 18_0083_이주희.hwp
 18_0084_마설.hwp
 18_0085_지문경.hwp
 18_0086_왕민연.hwp
 18_0087_백승혜.hwp
 18_0088_Charles M. Lacy.hwp
 18_0089_김영_CHI.hwp
 18_0090_박춘연_CHI.hwp
 18_0091_안드레이.hwp

18_0092_조흔.hwp	18_0150_갈렌코 올라_RUS.hwp
18_0093_노구치 가즈히코_JAP.hwp	18_0151_진안나.hwp
18_0094_광하.hwp	18_0152_김올가.hwp
18_0095_김요한.hwp	18_0153_Tsybin Pavel_RUS.hwp
18_0096_한진희.hwp	18_0154_타키자와 야요이_JAP.hwp
18_0097_아까하네 유키에_JAP.hwp	18_0155_김염_RUS.hwp
18_0098_유정.hwp	18_0156_이여.hwp
18_0099_김란영.hwp	18_0157_고바야시 유_JAP.hwp
18_0100_원.hwp	18_0158_타케우치 카오리_JAP.hwp
18_0101_미야마 기요미_JAP.hwp	18_0159_니시다 도모코_JAP.hwp
18_0102_광리.hwp	18_0160_이상훈.hwp
18_0103_황은하_CHI.hwp	18_0161_조창훈.hwp
18_0104_나수호.hwp	18_0162_아나스타시아 구리예바.hwp
18_0105_다카타 칸타_JAP.hwp	18_0163_유흔.hwp
18_0106_아마카와 미와코_JAP.hwp	18_0164_Susan Kim.hwp
18_0107_이외진.hwp	18_0165_로라 에인바인더.hwp
18_0108_부 빈.hwp	18_0166_핫타 야스시_JAP.hwp
18_0109_이향숙.hwp	18_0167_최호자_KJAP.hwp
18_0110_판안매.hwp	18_0168_데니엘 한_KUSA.hwp
18_0111_양염_CHI.hwp	18_0169_진평_CHI.hwp
18_0112_황혜진_TAI.hwp	18_0170_진희_CHI.hwp
18_0113_호리 사야카_JAP.hwp	18_0171_김명길_KGER.hwp
18_0114_김유리.hwp	18_0172_이경화_CHI.hwp
18_0115_이향순.hwp	18_0173_유결_CHI.hwp
18_0116_김순_JAP.hwp	18_0174_유소연_CHI.hwp
18_0117_미타 가즈히로_JAP.hwp	18_0175_장인성_GWA.hwp
18_0118_정령강.hwp	18_0176_가바시마 사토코_JAP.hwp
18_0119_전경진.hwp	18_0177_쫄보이 유외_CHI.hwp
18_0120_가라스다 나오유키_JAP.hwp	18_0178_하란영_CHI.hwp
18_0121_우라다 유키_JAP.hwp	18_0179_미야니시 타카후이_JAP.hwp
18_0122_이자와 노리코_JAP.hwp	18_0180_오오블이 아끼코_JAP.hwp
18_0123_정아데_JAP.hwp	18_0181_카이세 아키히코_JAP.hwp
18_0124_와타나베 유키_JAP.hwp	18_0182_미나모토 히데키_JAP.hwp
18_0125_판다썸_MTY.hwp	18_0183_이해명_CHI.hwp
18_0126_요코바타케 이쿠_JAP.hwp	18_0184_이시나가 사오리_JAP.hwp
18_0127_히라타 리매_JAP.hwp	18_0185_김나형.hwp
18_0128_가와이 히데아키_JAP.hwp	18_0186_최은혜_KUSA.hwp
18_0129_아마모토 아키코_JAP.hwp	18_0187_김태진_SUR.hwp
18_0130_고가구미코_JAP.hwp	18_0188_어트경바야르_MON.hwp
18_0131_베레누.hwp	18_0189_추애방_CHI.hwp
18_0132_스티란드 안야 군헨드.hwp	18_0190_정정옥_KCHI.hwp
18_0133_다프타 고오지_JAP.hwp	18_0191_이금강.hwp
18_0134_김영미.hwp	18_0192_박향단_KCHI.hwp
18_0135_김가세.hwp	18_0193_허영희_KJAP.hwp
18_0136_수가 나오코_JAP.hwp	18_0194_유동청_CHI.hwp
18_0137_허 데니스.hwp	18_0195_장영화_CHI.hwp
18_0138_현수희.hwp	18_0196_기누가와 야스코_JAP.hwp
18_0139_노르삼_MAL.hwp	18_0197_이나가와 유우키_JAP.hwp
18_0140_미시마 사키에이_JAP.hwp	18_0198_송엽희_CHI.hwp
18_0141_항튀레_VIE.hwp	18_0199_실투아니 스펜서.hwp
18_0142_이경이.hwp	18_0200_주점영_CHI.hwp
18_0143_송이.hwp	18_0201_정석경_CHI.hwp
18_0144_최혜인.hwp	18_0202_모리 마사시_JAP.hwp
18_0145_최지훈.hwp	18_0203_이이노 슈카_JAP.hwp
18_0146_스스무 요나구니_JAP.hwp	18_0204_장근.hwp
18_0147_사이토 켄_JAP.hwp	18_0205_오자와 유키에_JAP.hwp
18_0148_다무라 메구무_JAP.hwp	18_0206_모리 히로미치_JAP.hwp
18_0149_아토 유코_JAP.hwp	18_0207_장추영_CHI.hwp

18_0208_발라 벨리코바.hwp	18_0266_장신과.hwp
18_0209_요시모토 코지_JAP.hwp	18_0267_주릉릉.hwp
18_0210_사이토 순수케_JAP.hwp	18_0268_유강.hwp
18_0211_브라제스 꾸말 싸띠야_IND.hwp	18_0269_조경혜.hwp
18_0212_김 세르게이_KKAZ.hwp	18_0270_무라타 고.hwp
18_0213_Rebecca Her.hwp	18_0271_가네하라 유지_JAP.hwp
18_0214_이토 아케네_JAP.hwp	18_0272_유영.hwp
18_0215_오카무라 아키코_JAP.hwp	18_0273_후지모토 아야코_JAP.hwp
18_0216_하소강.hwp	18_0274_양리화_CHI.hwp
18_0217_김국화_CHI.hwp	18_0275_박혜란.hwp
18_0218_장국현_CHI.hwp	18_0276_강지호.hwp
18_0219_태영철.hwp	18_0277_미즈하라 카즈미_JAP.hwp
18_0220_양현주_CHI.hwp	18_0278_나카하라 미나코_JAP.hwp
18_0221_왕금.hwp	18_0279_이진일.hwp
18_0222_조춘엽_CHI.hwp	18_0280_정유귀.hwp
18_0223_박향춘.hwp	18_0281_안정화.hwp
18_0224_권영금_CHI.hwp	18_0282_요시나가 마리코_JAP.hwp
18_0225_송학.hwp	18_0283_조향순.hwp
18_0226_엔도히로미_JAP.hwp	18_0284_나가타 아키히로미_JAP.hwp
18_0227_나카무라 유끼_JAP.hwp	18_0285_정선혜.hwp
18_0228_왕천.hwp	18_0286_카토 마리코_JAP.hwp
18_0229_호리코시 료헤이_JAP.hwp	18_0287_Norma Park.hwp
18_0230_방염춘.hwp	18_0288_야마다 카즈아키_JAP.hwp
18_0231_다쓰타 고지_JAP.hwp	18_0289_당찬찬.hwp
18_0232_하다 신이치로_JAP.hwp	18_0290_다와.hwp
18_0233_이리나_KJAP.hwp	18_0291_사이토 히로미_JAP.hwp
18_0234_주나미.hwp	18_0292_이또우 겐슈우_JAP.hwp
18_0235_후쿠즈미 치호_JAP.hwp	18_0293_쿠와하라 토시미츠_JAP.hwp
18_0236_적곤.hwp	18_0294_Lopes Phicippe.hwp
18_0237_이재옥.hwp	18_0295_시미즈 기누코_JAP.hwp
18_0238_사토시.hwp	18_0296_이휘.hwp
18_0239_김미나_CHI.hwp	18_0297_아쿠츠 세이지_JAP.hwp
18_0240_히마다 히사즈미.hwp	18_0298_아케다 야요이_JAP.hwp
18_0241_알렌.hwp	18_0299_고성미.hwp
18_0242_최일.hwp	18_0300_고바야시 유_JAP.hwp
18_0243_후쿠다 카츠히사_JAP.hwp	18_0301_서래.hwp
18_0244_가와무라 사부로_JAP.hwp	18_0302_이구치 켄지_JAP.hwp
18_0245_요코_JAP.hwp	18_0303_가와무라 토미_JAP.hwp
18_0246_코니시 치아키_JAP.hwp	18_0304_김여원.hwp
18_0247_이성.hwp	18_0305_시모라 유코_JAP.hwp
18_0248_엄춘하.hwp	18_0306_와다 하루코_JAP.hwp
18_0249_니시 유우스케_JAP.hwp	18_0307_Doan Nam Giao.hwp
18_0250_이사리.hwp	18_0308_이세 다케시_JAP.hwp
18_0251_이또 하루나_JAP.hwp	18_0309_쿠셀레.hwp
18_0252_rldyna.hwp	18_0310_도모노 아유미_JAP.hwp
18_0253_노형석.hwp	18_0311_요시무라 미유키_JAP.hwp
18_0254_Ha Minh Thanh.hwp	18_0312_이와사키 요시코_JAP.hwp
18_0255_가와라노 히로코_JAP.hwp	18_0313_민지숙.hwp
18_0256_오카무리 미키코_JAP.hwp	18_0314_김봉혜.hwp
18_0257_요시무라 고오시_JAP.hwp	18_0315_사이트 와카나_JAP.hwp
18_0258_경초.hwp	18_0316_고수기 미와_JAP.hwp
18_0259_양성민.hwp	
18_0260_시키 코우이치_JAP.hwp	2001_백일장_시
18_0261_유유.hwp	
18_0262_이경이_CHI.hwp	18-0206_야곱.hwp
18_0263_이하 히로키_JAP.hwp	18-0207_김양순.hwp
18_0264_오노 미사코_JAP.hwp	18-0208_박지영.hwp
18_0265_이재인.hwp	18-0209_유이치.hwp

18-0210_백우리.hwp	18_0027_장기.hwp
18-0259_박승길.hwp	18_0027_환베르겔_NET.hwp
18-0260_돌고르마.hwp	18_0028_미도리카와 켄_JAP.hwp
18-0261_무라야마 케이코.hwp	18_0028_아나스타시아 오노시코_RUS.hwp
18-0273_남수적_CHI.hwp	18_0029.hwp
18-0277_양기성.hwp	18_0029_이이다 류지_JAP.hwp
18_0001_요안나.hwp	18_0030_에다 오칸차이.hwp
18_0001_이창한.hwp	18_0030_이귀숙.hwp
18_0002_테니스허가이_UZB.hwp	18_0031_이충언.hwp
18_0002_펠립 거즈렐.hwp	18_0031_히라노 아쓰하사_JAP.hwp
18_0003_마에라카추노리_JAP.hwp	18_0032_니시 노부히코_JAP.hwp
18_0003_사와시 카라블루트_TUR.hwp	18_0032_마숙향_CHI.hwp
18_0004_사와시 카라블루트_TUR.hwp	18_0033_김경훈.hwp
18_0004_이치카와 하야미_JAP.hwp	18_0033_주매분_CHI.hwp
18_0005_신텐 다카시_JAP.hwp	18_0034_아키타.hwp
18_0005_이상원_KOR.hwp	18_0034_이형미.hwp
18_0006_우잉.hwp	18_0035_구즈카머 나까.hwp
18_0006_이동희_KOR.hwp	18_0035_신 구미자.hwp
18_0007_꾸라나 비끄럼싱_IND.hwp	18_0036_가끼누마 죠지.hwp
18_0007_아베 요시히로.hwp	18_0036_이지성.hwp
18_0008_고바야시 에미코.hwp	18_0037_김 역사나나.hwp
18_0008_모함메드.hwp	18_0037_수홍예.hwp
18_0009_PHAM HUYHOANG.hwp	18_0038_아마나 후미키.hwp
18_0009_와꾸이 미나_JAP.hwp	18_0038_후지타 토오루_JAP.hwp
18_0010_이노우에 토오루.hwp	18_0039_노구치 마사에.hwp
18_0010_이지미_KOR.hwp	18_0039_여효운_CHI.hwp
18_0011_손맹_CHI.hwp	18_0040_김철삼.hwp
18_0011_이상명.hwp	18_0040_추비_CHI.hwp
18_0012_나가무네 노리하사_JAP.hwp	18_0041_김 크리스틴.hwp
18_0012_최림.hwp	18_0041_오쿠다 코지_JAP.hwp
18_0013_구마모토 카즈에.hwp	18_0042_아카사카 루미.hwp
18_0013_나가무라 쵸코_JAP.hwp	18_0042_야끼야마 아야_JAP.hwp
18_0014_손철영_CHI.hwp	18_0043_에미 아쓰코_JAP.hwp
18_0014_이시이 루미.hwp	18_0043_정의훈.hwp
18_0015_마즈다 준코_JAP.hwp	18_0044_렌게 아케미_AUS.hwp
18_0015_키무라 케이이찌_JAP.hwp	18_0044_소남.hwp
18_0016_오구라 아끼코.hwp	18_0045_이규환_KOR.hwp
18_0016_헨리 두이_USA.hwp	18_0045_최경자.hwp
18_0017_곽진화_CHI.hwp	18_0046_Richard Scott Philips.hwp
18_0017_우염.hwp	18_0046_하따에 노부오_JAP.hwp
18_0018_민연숙.hwp	18_0047.hwp
18_0018_심일미_KOR.hwp	18_0047_다케다 마미.hwp
18_0019_박미남.hwp	18_0048_아마모토 유우지_JAP.hwp
18_0019_조홍영_CHI.hwp	18_0048_요시카와 오사무.hwp
18_0020_김 오_CHI.hwp	18_0049_유모_CHI.hwp
18_0020_오오야 치히로.hwp	18_0049_하시모토 나나에_JAP.hwp
18_0021_감레_VIE.hwp	18_0050.hwp
18_0021_요시다 타마미.hwp	18_0050_가이무라 신지.hwp
18_0022_유영진.hwp	18_0051_가와타 마스미_JAP.hwp
18_0022_하나사카 고지_JAP.hwp	18_0051_오오츠키 노부히로_JAP.hwp
18_0023_박영우_KOR.hwp	18_0052_에다 오칸차이_JAP.hwp
18_0023_이진원_KCAN.hwp	18_0052_에바타 카즈요.hwp
18_0024_신 엘레나_RUS.hwp	18_0053_시오타 료스케.hwp
18_0024_정황자.hwp	18_0053_여호_CHI.hwp
18_0025_테류기나 타티아나_RUS.hwp	18_0054.hwp
18_0025_이창한.hwp	18_0054_정희진.hwp
18_0026_백영자.hwp	18_0055_유호미.hwp
18_0026_진씨벽봉_VIE.hwp	18_0055_황 세르게이.hwp

- 18_0056_기도 하즈키.hwp
 18_0056_기무라 미치코_JAP.hwp
 18_0057_김소연_KOR.hwp
 18_0057_허훈.hwp
 18_0058_임정희.hwp
 18_0058_최동일_KOR.hwp
 18_0059_미에이.hwp
 18_0059_와타나베 미호_JAP.hwp
 18_0060_다카타 요코.hwp
 18_0060_장하.hwp
 18_0061_Aniela.hwp
 18_0061_유영진.hwp
 18_0062_마리코.hwp
 18_0062_미아토 유카.hwp
 18_0063_우성세.hwp
 18_0063_지아드.hwp
 18_0064_송계정.hwp
 18_0064_시바하라 토모에_JAP.hwp
 18_0065_나타샤.hwp
 18_0065_히라키 노부아키.hwp
 18_0066_성 지연.hwp
 18_0066_이이다 미즈미_JAP.hwp
 18_0067_아다치마미.hwp
 18_0067_투카사.hwp
 18_0068_이시이 타즈야.hwp
 18_0068_최영은_KOR.hwp
 18_0069_가나이 마사히로.hwp
 18_0069_김연아_KOR.hwp
 18_0070_전영아.hwp
 18_0070_힐베드로 페네세스.hwp
 18_0071_폴 달포스.hwp
 18_0071_히라세 가스오.hwp
 18_0072_가나이리카.hwp
 18_0072_진소연_KOR.hwp
 18_0073_사카이 유끼_JAP.hwp
 18_0073_피델리스 아르민_IND.hwp
 18_0074_오오사와 토미오_JAP.hwp
 18_0074_후지노 카즈요시.hwp
 18_0075_아나스타시아 오노시코_RUS.hwp
 18_0075_카츠노 치사토.hwp
 18_0076_김람마_RUS.hwp
 18_0076_유정.hwp
 18_0077_이 엘레나_UZE.hwp
 18_0077_카이후 마리.hwp
 18_0078_가브리엘라 랑겔로바_BUL.hwp
 18_0078_박금설.hwp
 18_0079_테루이 미나코.hwp
 18_0079_황 황_CHI.hwp
 18_0080_시미즈 사치코_JAP.hwp
 18_0080_오우치 마사미.hwp
 18_0081_강성미.hwp
 18_0081_김금희_KOR.hwp
 18_0082_와타나베 노리코.hwp
 18_0083_키릴 잘레스키.hwp
 18_0084_가네하라 사치여.hwp
 18_0085_이현치.hwp
 18_0086_이다민.hwp
 18_0087_쿄헤이.hwp
 18_0088_강행혜.hwp
 18_0089_준다 알레시오.hwp
 18_0090_양연주.hwp
 18_0091_Sitkitman.hwp
 18_0092_잔 파케트.hwp
 18_0093_이토 사오리.hwp
 18_0094_최일.hwp
 18_0095_한성민.hwp
 18_0096_다카모리 히데아키.hwp
 18_0097_후루카와 유미코.hwp
 18_0098_마수타 히로아키.hwp
 18_0099_권선흥.hwp
 18_0100_토조 타카시.hwp
 18_0101_갈 가.hwp
 18_0102_쿄헤이.hwp
 18_0103_빌 립.hwp
 18_0104_마크 스어즈.hwp
 18_0105_박 규치.hwp
 18_0106_송 건우.hwp
 18_0107_박지원.hwp
 18_0108_조남순.hwp
 18_0109_오타 야스코.hwp
 18_0110_손전신.hwp
 18_0111_오카마토 유카.hwp
 18_0112_황보 성희.hwp
 18_0113_배영희.hwp
 18_0114_진함기.hwp
 18_0115_감배 안즈.hwp
 18_0116_최 민들레.hwp
 18_0117_마키노 타케하키.hwp
 18_0118_강 재영.hwp
 18_0119_나이트 유카리.hwp
 18_0120_사사키 도시미.hwp
 18_0121_이종수.hwp
 18_0122_후지 나오코_JAP.hwp
 18_0123_마썬우라 미나.hwp
 18_0124_아케무라 에이치.hwp
 18_0125_쥬우 타카히로.hwp
 18_0126_오자와 미쿠.hwp
 18_0127_Mi-Ra B.J. Schelpe.hwp
 18_0128_Bukhuyag Khishigjargal.hwp
 18_0129_김부강.hwp
 18_0130_김미정.hwp
 18_0131_싸라예프 알렉스.hwp
 18_0132_타구치 요코.hwp
 18_0133_이인영.hwp
 18_0134_우티삭.hwp
 18_0135_야마사키 마사토시.hwp
 18_0136_오유진.hwp
 18_0137_가와시마 가리사.hwp
 18_0138_이시이 가오루.hwp
 18_0139_누마노 히로미.hwp
 18_0140_이성진.hwp
 18_0141_허자천.hwp
 18_0142_마쓰오 모토요시.hwp
 18_0143_김지자.hwp
 18_0144_코야마 키요코.hwp
 18_0145_한호선.hwp

- 18_0146_나까네 기누에.hwp
 18_0147_하야타 텡페이.hwp
 18_0148_밀너 찰스.hwp
 18_0149_김용소.hwp
 18_0150_오노테라 시즈.hwp
 18_0151_나까야마 치에코.hwp
 18_0152_사카구치 마키.hwp
 18_0153_Jeremy Sezemore.hwp
 18_0154_Wati Hassan.hwp
 18_0155_킴 스토커.hwp
 18_0156_시오미 사오리.hwp
 18_0157_하야시 마끼코.hwp
 18_0158_시오다 아스카.hwp
 18_0159_목지미.hwp
 18_0160_이태규.hwp
 18_0161_고성미_JAP.hwp
 18_0162_조용준_GER.hwp
 18_0163_아사즈마 아키에.hwp
 18_0164_아나세 준코.hwp
 18_0165_시코다 나오미.hwp
 18_0166_Nicolas Bousquet.hwp
 18_0167_이희준.hwp
 18_0168_기미즈카 아사코.hwp
 18_0169_다마다 후사코.hwp
 18_0170_박호명.hwp
 18_0171_사이토 리에.hwp
 18_0172_이또 야스요.hwp
 18_0173_우치가키 가요.hwp
 18_0174_이귀연.hwp
 18_0175_Yefimoua Anna.hwp
 18_0176_하시모토 투기샤.hwp
 18_0177_김성철.hwp
 18_0178_기쿠치 마츠코.hwp
 18_0179_이윤지.hwp
 18_0180_고지마 쥔코.hwp
 18_0181_권창국.hwp
 18_0182_Samuel Lee.hwp
 18_0183_Michael Winands.hwp
 18_0184_이동규.hwp
 18_0185_수몽준.hwp
 18_0186_브랜든 로라.hwp
 18_0187_유희린.hwp
 18_0188_상균영_CHI.hwp
 18_0189_미찌자와 요코.hwp
 18_0190_에시마 유우키.hwp
 18_0191_사토 에리.hwp
 18_0192_사카와 미찌요.hwp
 18_0193_최일민.hwp
 18_0194_고티에 화브리스.hwp
 18_0195_하나오카 노리야스.hwp
 18_0196_최유진.hwp
 18_0197_Gavin Healy(힐리 게빈).hwp
 18_0198_신창호.hwp
 18_0199_샤피로 매튜.hwp
 18_0200_기쿠치 미찌루.hwp
 18_0201_진경지.hwp
 18_0202_아까하네 유끼에.hwp
 18_0203_헤르나와티 테.hwp
 18_0204_미치요 사토.hwp
 18_0205_마에야마 이쿠미.hwp
 18_0211_김미지자.hwp
 18_0212_타나가 요시타케.hwp
 18_0213_남수신_CAN.hwp
 18_0214_Olivier Park.hwp
 18_0215_오카미쓰 노리카.hwp
 18_0216_아타라시 미치요.hwp
 18_0217_하야카와 히로요.hwp
 18_0218_신경동.hwp
 18_0219_우쓰미 히로가즈.hwp
 18_0220_정재화.hwp
 18_0221_Julia Aitimbetova(진희).hwp
 18_0222_오구마 사끼코.hwp
 18_0223_구와바라 요코.hwp
 18_0224_Rick Rupp.hwp
 18_0225_스즈무라 요시미.hwp
 18_0226_쥬다 마유미.hwp
 18_0227_손옥대.hwp
 18_0228_오오시마 아야코.hwp
 18_0229_이다 수리 올란다리.hwp
 18_0230_이병수.hwp
 18_0231_최철지.hwp
 18_0232_박시영.hwp
 18_0233_카리나.hwp
 18_0234_이마호리 가오루.hwp
 18_0235_나카무라 마키.hwp
 18_0236_가네하라 유지.hwp
 18_0237_김일수.hwp
 18_0238_워렌 산덜.hwp
 18_0239_홍세미.hwp
 18_0240_진려옥.hwp
 18_0241_알라나 펄스제럴드.hwp
 18_0242_이노우에 나오유키.hwp
 18_0243_다가요시 도모코.hwp
 18_0244_요시무라 미유키.hwp
 18_0245_부춘선.hwp
 18_0246_윤진유미.hwp
 18_0247_우찌다 요우코.hwp
 18_0248_김순.hwp
 18_0249_구마가이 켄조.hwp
 18_0250_오오타 요우코.hwp
 18_0251_이보나.hwp
 18_0252_조상자.hwp
 18_0253_이수범.hwp
 18_0254_김수열.hwp
 18_0255_이재건.hwp
 18_0256_김구미.hwp
 18_0257_조이스.hwp
 18_0258_강음.hwp
 18_0262_키르기즈스탄.hwp
 18_0263_전성철.hwp
 18_0264_두무르.hwp
 18_0265_최정.hwp
 18_0266_히라오카 다이스케.hwp
 18_0267_윤해연.hwp
 18_0268_아베 유미.hwp
 18_0269_량결빙.hwp

- 18_0270_김영나.hwp
 18_0272_오노 마사나오.hwp
 18_0274_마에다 토모코.hwp
 18_0275_아오키 키미코.hwp
 18_0276_김상일.hwp
 18_0278_텐들러 다니엘.hwp
 18_0279_마새.hwp
 18_027_기무라 리에코_JAP.hwp
 18_0280_김애.hwp
 18_0281_바넷사 버쓰(Vanessa Voss).hwp
 18_0282_김연화.hwp
 18_0283_한드자르갈.hwp
 18_0284_딘 코벌트(Dean Covalt).hwp
 18_0285_나카무라 히토미.hwp
 18_0286_나오시마 아야.hwp
 18_0287_시가 미치요.hwp
 18_0288_아라이 사토미.hwp
 18_0289_이시오로시 미나.hwp
 18_0290_Sharapou Suan.hwp
 18_0291_오노 마사나오.hwp
 18_0292_김부연.hwp
 18_0293_라비케쉬.hwp
 18_0294_김인혜.hwp
 18_0295_채땡발.hwp
 18_0296_다카라 유리.hwp
 18_0297_송매.hwp
 18_0298_이경수.hwp
 18_0299_미카엘 클라슨.hwp
 18_0300_김숙경.hwp
 18_0301_존.hwp
 18_0302_통가.hwp
 18_0303_오오츠카 노부히로.hwp
 18_0304_모이세에바 나디아.hwp
 18_0305_차부웅.hwp
 18_0306_미야기 수미코.hwp
 18_0307_김양향.hwp
 18_0308_마스다 신페이.hwp
 18_0309_수호 오치르.hwp
 18_0310_박혜진.hwp
 18_0311_도몬나미.hwp
 18_0312_오까다 노보루.hwp
 18_0313_엄격_CHI.hwp
 18_0314_마르틴.hwp
 18_0315_신용식.hwp
 18_0316_장은영.hwp
 18_0317_권진미.hwp
 18_0318_웬황홍.hwp
 18_0319_아마구찌 유우야_JAP.hwp
 18_0320_박성광.hwp
 18_0321_오키무라 미치코_JAP.hwp
 18_0322_네모토 미즈히로_JAP.hwp
 18_0323_요시하라 아키히코_JAP.hwp
 18_0324_나카무라 가즈시_JAP.hwp
 18_0325_카이후 마리.hwp
 18_0326_이 예까찌리나_RUS.hwp
 18_0327_마사히로_JAP.hwp
 18_0328_후지 하루카_JAP.hwp
 18_0329_오노데라 타카유키_JAP.hwp
 18_0330_다카하시 가즈키.hwp
 18_0331_야마토 게이코.hwp
 18_0331_이강순.hwp
 18_0332_선설립.hwp
 18_0333_구양자_JAP.hwp
 18_0334_정혜순.hwp
 18_0335_이와 미니카.hwp
 18_0336_종효명.hwp
 18_0337_말리가_THA.hwp
 18_0338_조민.hwp
 18_0339_요시무라 타케히코_JAP.hwp
 18_0340_유재호.hwp
 18_0341_엔 사사 리스트-젠센_DEN.hwp
 18_0342_가와이 히로미_JAP.hwp
 18_0343_오쿠보 켄이치_JAP.hwp
 18_0344_기미즈가 도시오_JAP.hwp
 18_0345_심희선_USA.hwp
 18_0346_이정수.hwp
 18_0347_박용태.hwp
 18_0348_스즈키 게이코_JAP.hwp
 18_0349_사이다 치구사_JAP.hwp
 18_0350_임지미.hwp
 18_0351_박제니아_RUS.hwp
 18_0352_다카야마 준코_JAP.hwp
 18_0353_한우실.hwp
 18_0354_수기하라 가오리.hwp
 18_0355_김율리아_RUS.hwp
 18_0356_니시오 쿄우코_JAP.hwp
 18_0357_하시모토 지에코_JAP.hwp
 18_0358_여인엽_KUSA.hwp
 18_0359_오가타 게이코_JAP.hwp
 18_0360_정진매.hwp
 18_0361_파티히.hwp
 18_0362_오노 에이코_JAP.hwp
 18_0363_PAUL FRANCIS GRIPMA_USA.hwp
 18_0364_니노미야 히로끼_JAP.hwp
 18_0365_김덕훈.hwp
 18_0366_우미노 아야코_JAP.hwp
 18_0367_구나향.hwp
 18_0368_고성희_KJAP.hwp
 18_0369_사사키 노부코_JAP.hwp
 18_0370_최강.hwp
 18_0371_임상.hwp
 18_0372_요시지마 유우코_JAP.hwp
 18_0373_오가사와라 사토루_JAP.hwp
 18_0374_에구치 마리에_JAP.hwp
 18_0375_기도 시즈요_JAP.hwp
 18_0376_야마가 유키코.hwp
 18_0377_기무라 타케오_JAP.hwp
 18_0378_오가와 마사요시.hwp
 18_0379_타니자키 미즈코.hwp
 18_0380_종효명.hwp
 18_0381_천미희.hwp
 18_0382_나카무라 케이코_JAP.hwp
 18_0383_김우길.hwp
 18_0384_묘진 사치코_JAP.hwp
 18_0385_전봉혜.hwp
 18_0386_아키타 아유미.hwp

- 18_0387_아사바 쿠미_JAP.hwp
 18_0388_최경한.hwp
 18_0389_파올라 요시오카.hwp
 18_0390_후지키 와쿠마.hwp
 18_0391_망옥산.hwp
 18_0392_나평하.hwp
 18_0393_왕진진.hwp
 18_0394_오오츠카 다다쿠라_JAP.hwp
 18_0395_가와시마 유미코_JAP.hwp
 18_0396_정국량.hwp
 18_0397_도날드_CHI.hwp
 18_0398_강월자.hwp
 18_0399_아마다 메구미_JAP.hwp
 18_0400_이용.hwp
 18_0401_황현정_GER.hwp
 18_0402_고성일.hwp
 18_0403_코미나미 요시타츠_JAP.hwp
 18_0404_스기모토 유키노_JAP.hwp
 18_0405_타니가키 아사코_JAP.hwp
 18_0406_마루야마 미사코_JAP.hwp
 18_0407_이시카와 다카코.hwp
 18_0408_사이토 가오루_JAP.hwp
 18_0409_도모코_JAP.hwp
 18_0410_생비랙_MON.hwp
 18_0411_장가영.hwp
 18_0412_장홍란.hwp
 18_0413_이리에 마리코.hwp
 18_0414_왕생.hwp
 18_0415_손미영.hwp
 18_0416_이정숙.hwp
 18_0417_진효혜.hwp
 18_0418_왕정.hwp
 18_0419_아오키 토모아키_JAP.hwp
 18_0420_이노우에 유미코.hwp
 18_0421_기토시다 아이_JAP.hwp
 18_0422_동봉령.hwp
 18_0423_나카노 다가요키_JAP.hwp
 18_0424_이치노세 다이ске_JAP.hwp
 18_0425_퓨 캔드라_USA.hwp
 18_0426_장순희.hwp
 18_0427_강명.hwp
 18_0428_종설.hwp
 18_0429_호시나 가쓰히로_JAP.hwp
 18_0430_길레.hwp
 18_0431_정우순.hwp
 18_0432_마에다 아키히로.hwp
 18_0433_하마나카 게이이찌_JAP.hwp
 18_0434_한연.hwp
 18_0435_강성민.hwp
 18_0436_채화경.hwp
 18_0437_캐롤린 모스텔라.hwp
 18_0438_모토키 미카미.hwp
 18_0439_김빅터.hwp
 18_0439_말롤레드코 알렉세이.hwp
 18_0440_Lani Parrilla.hwp
 18_0441_이코 타카오_JAP.hwp
 18_0442_박금영.hwp
 18_0443_김제용.hwp
 18_0444_세리 황.hwp
 18_0445_Brandi Nies_USA.hwp
 18_0446_손양.hwp
 18_0447_빠뜨 다니엘.hwp
 18_0448_미야타 기미히로.hwp
 18_0449_Susan son.hwp
 18_0450_태티아나 솔로드카_UCR.hwp
 18_0451_정진화_KUSA.hwp
 18_0452_정맹희.hwp
 18_0453_코스기야마 유키노_JAP.hwp
 18_0454_김나_KCHI.hwp
 18_0455_안제나_KAZ.hwp
 18_0456_Mercedes M. Valle_USA.hwp
 18_0457_신타니 아키라.hwp
 18_0458_가와사끼 고시로.hwp
 18_0459_산토 유코.hwp
 18_0460_마크 스어즈.hwp
 18_0461_Per Petersson.hwp
 18_0462_김레타니.hwp
 18_0463_이영.hwp
 18_0464_미야가와 다카히로.hwp
 18_0465_신타테 다이ске.hwp
 18_0466_나가이 치에.hwp
 18_0467_Pia Lundvist.hwp
 18_0468_Felicia Weigel_USA.hwp
 18_0469_안팀프리디완_IND.hwp
 18_0470_이소노 아야코.hwp
 18_0471_조신_CHI.hwp
 18_0472_히로세 유키에.hwp
 18_0473_사와 아끼코.hwp
 18_0474_Mark Helie_USA.hwp
 18_0475_하시모토 지에코.hwp
 18_0476_무라세 미카.hwp
 18_0477_김세나_KRUS.hwp
 18_0478_김득호.hwp
 18_0479_타티아나_RUS.hwp
 18_0480_강은하.hwp
 18_0481_갈석영.hwp
 18_0482_요네자와 키요에.hwp
 18_0483_아마다 사토시.hwp
 18_0484_와타나베 켄지.hwp
 18_0485_류카랑_USA.hwp
 18_0486_김명.hwp
 18_0487_오치선.hwp
 18_0488_아마구치 히로시.hwp
 18_0489_아베 미키코.hwp
 18_0490_고토 시즈노.hwp
 18_0491_이정선.hwp
 18_0492_이은영.hwp
 18_0493_미나미 안리_JAP.hwp
 18_0494_김태영(David).hwp
 18_0495_키쿠치 아키히로.hwp
 18_0496_찰리 왕_USA.hwp
 18_0497_제니퍼 조르단_USA.hwp
 18_0498_원홍_CHI.hwp
 18_0499_이훈.hwp
 18_0500_치카오카 케이코.hwp
 18_0501_사카이 미키.hwp

18_0502_미마타 아이코.hwp
 18_0503_김안나_KTHA.hwp
 18_0504_이성록_KUSA.hwp
 18_0505_Ian C. Dake.hwp
 18_0506_캐런 머프_USA.hwp
 18_0507_수미따 체크리.hwp
 18_0508_아셀_KHA.hwp
 18_0509_무라타요시노무.hwp
 18_0510_김화.hwp
 18_0511_수레스_IND.hwp
 18_0512_미트라.hwp
 18_0513_바야르_MON.hwp
 18_0514_다니구치 요시카즈.hwp
 18_0515_김전자_KJAP.hwp
 18_0516_키리.hwp
 18_0517_오호_CHI.hwp
 18_0518_충광영_CHI.hwp
 18_0519_서운영.hwp
 18_0520_이향_KCHI.hwp
 18_0521_다카시 호리에.hwp
 18_0522_Carolyn Mosteller.hwp
 18_0523_낸시 랭.hwp
 18_0524_이천학.hwp
 18_0525_오원자_KJAP.hwp
 18_0526_남진_CHI.hwp
 18_0527_시모카와 치나즈.hwp
 18_0528_모리카와 코우지.hwp
 18_0529_심재훈.hwp
 18_0530_다카라다 도시야.hwp
 18_0531_채기_MON.hwp
 18_0532_타카이사치에.hwp
 18_0533_사바 타파_SIN.hwp
 18_0534_신 옥사나_KRUS.hwp
 18_0535_정아대_KJAP.hwp
 18_0536_아키토모 가주토시_JAP.hwp
 18_0537_나까야 쇼소.hwp
 18_0538_케그로버즈 토마스.hwp
 18_0539_최혜연_KCHI.hwp
 18_0540_이나바 고오.hwp
 18_0541_고미나_KUSA.hwp
 18_0542_이덕근_USA.hwp
 18_0543_고맹하_CHI.hwp
 18_0544_조입균_CHI.hwp
 18_0545_추미희_KJAP.hwp
 18_0546_스기모토 케이.hwp
 18_0547_니시무라 게이코.hwp
 18_0547_왕수지_CHI.hwp
 18_0548_유파.hwp
 18_0549_김미희_KJAP.hwp
 18_0550_IKEYA.hwp
 18_0551_스즈키 키미코.hwp
 18_0552_Olga Vorontsova_RUS.hwp
 18_0553_야콥축 드미뜨위이.hwp
 18_0554_권선흥_KCHI.hwp
 18_0555_이에모토 나미_JAP.hwp
 18_0556_양방행_KJAP.hwp
 18_0557_이수빈_KUSA.hwp
 18_0558_하세가와 마쓰오.hwp

18_0559_가와바타 데즈야.hwp
 18_0560_진호한_CHI.hwp
 18_0561_오시카와 해자.hwp
 18_0562_지은경_KUSA.hwp
 18_0563_이선호.hwp
 18_0564_김 알렉산드르.hwp
 18_0565_정원도.hwp
 18_0566_강순복.hwp
 18_0567_사모일렌코 바실리나_RUS.hwp
 18_0568_John Merrick.hwp
 18_0569_임가나_KJAP.hwp
 18_0570_Pierre Perrier.hwp
 18_0571_카에를 안와르_IND.hwp
 18_0572_정석진_KCHI.hwp
 18_0573_Anne Charlotte Le Diot_FRA.hwp
 18_0575_마쯔무라 에리_JAP.hwp
 18_0576_다나가 겐지.hwp
 18_0577_가마카리 스즈.hwp

자료 9(2001년)

YON_2001_겨울_기말_1급

19_L1_0001_마이클 코펜해버_USA.hwp
 19_L1_0002_비비안 리_USA.hwp
 19_L1_0003_데니스_USA.hwp
 19_L1_0004_천혜선(Chun Karen)_USA.hwp
 19_L1_0005_이수연(Patricia)_USA.hwp
 19_L1_0006_캔지_USA.hwp
 19_L1_0007_데이빗_AUS.hwp
 19_L1_0008_아조라프_JOR.hwp
 19_L1_0009_제시카(김동순)_SWE.hwp
 19_L1_0010_에디(에드워드)_BRI.hwp
 19_L1_0011_오케주그_NIG.hwp
 19_L1_0012_Osku Sundqrist_FIN.hwp
 19_L1_0013_민호엄_VIE.hwp
 19_L1_0014_김 알렉산더_RUS.hwp
 19_L1_0015_라나(Tsoi)_RUS.hwp
 19_L1_0016_오한샘_PHI.hwp
 19_L1_0017_Vi thi Minh hue_VIE.hwp
 19_L1_0018_유명운_CHI.hwp
 19_L1_0019_손옥교(Sun Yu Jiao)_CHI.hwp
 19_L1_0020_대려(Dai Li)_CHI.hwp
 19_L1_0021_송송_CHI.hwp
 19_L1_0022_창치쿵_TAI.hwp
 19_L1_0023_고운비(Ga Yun Fei)_CHI.hwp
 19_L1_0024_펄견초(Bi Jian chao)_CHI.hwp
 19_L1_0025_마즈오_JAP.hwp
 19_L1_0026_오쿠다 마사카츠_JAP.hwp
 19_L1_0027_구보타 유카_JAP.hwp
 19_L1_0028_니시자와 키미카즈_JAP.hwp
 19_L1_0029_미호코_JAP.hwp
 19_L1_0030_오오노 노리코_JAP.hwp
 19_L1_0031_쿠누키 아키토_JAP.hwp
 19_L1_0032_이이(Aiichiro)_JAP.hwp
 19_L1_0033_키리야마_JAP.hwp
 19_L1_0034_미야자키 오사_JAP.hwp
 19_L1_0035_무라타 유이치_JAP.hwp

19_L1_0036_마사노_JAP.hwp
 19_L1_0037_아키다 히데키_JAP.hwp
 19_L1_0038_이토 아이_JAP.hwp
 19_L1_0039_이와사키 유카_JAP.hwp
 19_L1_0040_하루타 류우지_JAP.hwp
 19_L1_0041_히데마사_JAP.hwp
 19_L1_0042_이토 히로시_JAP.hwp
 19_L1_0043_이와사 아키코_JAP.hwp
 19_L1_0044_김계행_KJAP.hwp
 19_L1_0045_강태서_KJAP.hwp
 19_L1_0046_김성일_KJAP.hwp
 19_L1_0047_미우라_JAP.hwp
 19_L1_0048_오리이 아야_JAP.hwp
 19_L1_0049_요시무라 마이코_JAP.hwp
 19_L1_0050_에미코_JAP.hwp
 19_L1_0051_구미코_JAP.hwp
 19_L1_0052_다카시마 요코_JAP.hwp
 19_L1_0053_김미려_KJAP.hwp
 19_L1_0054_미네 히사코_JAP.hwp
 19_L1_0055_모또우메 신지_JAP.hwp
 19_L1_0056_이노하야 토모미_JAP.hwp
 19_L1_0057_시마자키_JAP.hwp
 19_L1_0058_송영실_KJAP.hwp
 19_L1_0059_조상자_KJAP.hwp
 19_L1_0060_가와무라 미키_JAP.hwp
 19_L1_0061_미하라 토모코_JAP.hwp
 19_L1_0062_키하라 요우스케_JAP.hwp
 19_L1_0063_주연_CHI.hwp
 19_L1_0064_Yu Tao_CHI.hwp
 19_L1_0065_조성_CHI.hwp
 19_L1_0066_유진_CHI.hwp
 19_L1_0067_주흥화_CHI.hwp
 19_L1_0068_진효영_CHI.hwp
 19_L1_0069_Wei Hong_CHI.hwp
 19_L1_0070_왕효결(Wang Xiao Jie)_CHI.hwp

YON_2001_겨울_기말_2급

19_L2_0001_유연준_CHI.hwp
 19_L2_0002_Wood Joann_KUSA.hwp
 19_L2_0003_코유리 야스코_JAP.hwp
 19_L2_0004_강종민_USA.hwp
 19_L2_0005_Gromova Elena_RUS.hwp
 19_L2_0006_로빈 고든_BRI.hwp
 19_L2_0007_왕찰리_USA.hwp
 19_L2_0008_이소복_KJAP.hwp
 19_L2_0009_함정아_KUSA.hwp
 19_L2_0010_마리아_USA.hwp
 19_L2_0011_홍광석_GER.hwp
 19_L2_0012_안조니_GER.hwp
 19_L2_0013_미셸_GER.hwp
 19_L2_0014_잔 파케트_CAN.hwp
 19_L2_0015_우딘_GER.hwp
 19_L2_0016_Petra Kubisch_GER.hwp
 19_L2_0017_김종서_KUSA.hwp
 19_L2_0018_마리 크리스틴 호프만_GER.hwp
 19_L2_0019_강미양_KJAP.hwp
 19_L2_0020_우애령_TAI.hwp

19_L2_0021_Lu Yu Fong_TAI.hwp
 19_L2_0022_라우디 라모스_FIL.hwp
 19_L2_0023_장개추_TAI.hwp
 19_L2_0024_니키_NIG.hwp
 19_L2_0025_내니_HON.hwp
 19_L2_0026_왕사박_TAI.hwp
 19_L2_0027_애린_NEW.hwp
 19_L2_0028_김 브라디미르_RUS.hwp
 19_L2_0029_블라드_UZB.hwp
 19_L2_0030_신티리_RUS.hwp
 19_L2_0031_김지일_KJAP.hwp
 19_L2_0032_올리아_KAZ.hwp
 19_L2_0033_한 안젤라_UZB.hwp
 19_L2_0034_바바라_UZB.hwp
 19_L2_0035_아나(lana)_RUS.hwp
 19_L2_0036_공가쉬_RUS.hwp
 19_L2_0037_장종명_CHI.hwp
 19_L2_0038_왕포성_CHI.hwp
 19_L2_0039_양빙_CHI.hwp
 19_L2_0040_손초_CHI.hwp
 19_L2_0041_남민자_KAZ.hwp
 19_L2_0042_주빈빈_CHI.hwp
 19_L2_0043_진신(chen chen)_CHI.hwp
 19_L2_0044_필의부_CHI.hwp
 19_L2_0045_필비_CHI.hwp
 19_L2_0046_유화(Liu Bo)_CHI.hwp
 19_L2_0047_소천상_CHI.hwp
 19_L2_0048_원보준_CHI.hwp
 19_L2_0049_원청_CHI.hwp
 19_L2_0050_왕행타_CHI.hwp
 19_L2_0051_황퇴_CHI.hwp
 19_L2_0052_장정_CHI.hwp
 19_L2_0053_김만영_CHI.hwp
 19_L2_0054_이예홍_CHI.hwp
 19_L2_0055_박신삼_CHI.hwp
 19_L2_0056_신용매_CHI.hwp
 19_L2_0057_왕동_CHI.hwp
 19_L2_0058_허령_CHI.hwp
 19_L2_0059_양광_CHI.hwp
 19_L2_0060_제니(Jiang Tao)_CHI.hwp
 19_L2_0061_키요에_JAP.hwp
 19_L2_0062_야마구치 하루키_JAP.hwp
 19_L2_0063_마나미_JAP.hwp
 19_L2_0064_다카하시 타케시_JAP.hwp
 19_L2_0065_스즈키 유우스케_JAP.hwp
 19_L2_0066_성지연_KJAP.hwp
 19_L2_0067_신봉식_JAP.hwp
 19_L2_0068_오오스미 나오_JAP.hwp
 19_L2_0069_오노 노부오_JAP.hwp
 19_L2_0070_야마시다 마나미_JAP.hwp
 19_L2_0071_카사이 미츠코_JAP.hwp
 19_L2_0072_쿠로다 히로유키_JAP.hwp
 19_L2_0073_시미즈 켄에코_JAP.hwp
 19_L2_0074_이시키와 리카_JAP.hwp
 19_L2_0075_마에 유미코_JAP.hwp
 19_L2_0076_이노우에 에리코_JAP.hwp
 19_L2_0077_사카이 미카_JAP.hwp
 19_L2_0078_무라카미 이쿠요_JAP.hwp

19_L2_0079_허승열_KJAP.hwp
 19_L2_0080_사노 마사유키_JAP.hwp
 19_L2_0081_이토 겐슈_JAP.hwp
 19_L2_0082_시바사키 유키_JAP.hwp
 19_L2_0083_정일래_KJAP.hwp
 19_L2_0084_미무니 사오리_JAP.hwp
 19_L2_0085_케이 니헤이_JAP.hwp
 19_L2_0086_가와노베 슈사쿠_JAP.hwp
 19_L2_0087_다니구지 리카_JAP.hwp
 19_L2_0088_아라이 마사유키_JAP.hwp
 19_L2_0089_키하라 다이스케_JAP.hwp
 19_L2_0090_오노테라 시즈_JAP.hwp
 19_L2_0091_김현일_KJAP.hwp
 19_L2_0092_다브치 유미_JAP.hwp
 19_L2_0093_나카가와 에리_JAP.hwp
 19_L2_0094_야마모토 유이치로_JAP.hwp
 19_L2_0095_김용소_KJAP.hwp
 19_L2_0096_이의량_KJAP.hwp
 19_L2_0097_이의량_JAP.hwp
 19_L2_0098_왕영_CHI.hwp

YON_2001_겨울_기말_3급

19_L3_0001_Chaffin_USA.hwp
 19_L3_0002_홍나온_USA.hwp
 19_L3_0003_김미경_BRA.hwp
 19_L3_0004_케이코_JAP.hwp
 19_L3_0005_차 클라우디아_BRA.hwp
 19_L3_0006_홍리리_CHI.hwp
 19_L3_0007_이유경_KOR.hwp
 19_L3_0008_이해연_CHI.hwp
 19_L3_0009_최화선_CHI.hwp
 19_L3_0010_피터_GER.hwp
 19_L3_0011_로버트 안소니_USA.hwp
 19_L3_0012_Netuyen Xuan Phuong_VIE.hwp
 19_L3_0013_제임스_AUS.hwp
 19_L3_0014_가나모리 다에_JAP.hwp
 19_L3_0015_박제냐_RUS.hwp
 19_L3_0016_오원자_KJAP.hwp
 19_L3_0017_에이지_JAP.hwp
 19_L3_0018_가와시마 가리사_JAP.hwp
 19_L3_0019_김태(데이빗)영_KUSA.hwp
 19_L3_0020_사사키 토시미_JAP.hwp
 19_L3_0021_페이랑_TAI.hwp
 19_L3_0022_이시이 가오루_JAP.hwp
 19_L3_0023_리사_USA.hwp
 19_L3_0024_가미무라 신지_JAP.hwp
 19_L3_0025_신정희_KJAP.hwp
 19_L3_0026_오지용_CHI.hwp
 19_L3_0027_키리_KHON.hwp
 19_L3_0028_다나카 켄타르_JAP.hwp
 19_L3_0029_유동령_CHI.hwp
 19_L3_0030_마사(히사)_JAP.hwp
 19_L3_0031_우잉_CHI.hwp
 19_L3_0032_아키모토_KJAP.hwp
 19_L3_0033_Sit kit man_CHI.hwp
 19_L3_0034_이케이 타이치_JAP.hwp
 19_L3_0035_오유진_USA.hwp

19_L3_0036_조신_CHI.hwp
 19_L3_0037_카츠노 치사토_KJAP.hwp
 19_L3_0038_니사무라 게이코_JAP.hwp
 19_L3_0039_제냐_KAZ.hwp
 19_L3_0040_미마타 아이코_JAP.hwp
 19_L3_0041_유하_CHI.hwp
 19_L3_0042_사토요_JAP.hwp
 19_L3_0043_장하_CHI.hwp
 19_L3_0044_정선헌_KJAP.hwp
 19_L3_0045_최해연_CHI.hwp
 19_L3_0046_이조셉(민호)_KUSA.hwp
 19_L3_0047_이영_KJAP.hwp
 19_L3_0048_올라 브론초바_RUS.hwp
 19_L3_0049_히라키 노부아키_JAP.hwp
 19_L3_0050_신타테 다이스케_JAP.hwp
 19_L3_0051_김용성(Tom)_CAN.hwp
 19_L3_0052_April Paik_KUSA.hwp
 19_L3_0053_신구미자_KJAP.hwp
 19_L3_0054_성진이(Liu Hsi En)_TAI.hwp
 19_L3_0055_나카오 미치코_JAP.hwp
 19_L3_0056_Hartmut_GER.hwp
 19_L3_0057_누마노 히로미_JAP.hwp
 19_L3_0058_쿠마모토 카즈에_JAP.hwp
 19_L3_0059_펠리시아 와이글_USA.hwp
 19_L3_0060_성진현(Jean)_USA.hwp
 19_L3_0061_이소노 아야코_JAP.hwp
 19_L3_0062_히라야마 가요_JAP.hwp
 19_L3_0063_민지숙_KJAP.hwp
 19_L3_0064_마쓰다 요시미_JAP.hwp
 19_L3_0065_노구치 마사에_JAP.hwp
 19_L3_0066_스기모토 케이_JAP.hwp
 19_L3_0067_모리 이즈미_JAP.hwp
 19_L3_0068_주미희_KJAP.hwp
 19_L3_0069_이훈_KJAP.hwp
 19_L3_0070_하야타 템페이_JAP.hwp
 19_L3_0071_아다치 마미_JAP.hwp
 19_L3_0072_박수선_USA.hwp
 19_L3_0073_신가키 아키코_JAP.hwp
 19_L3_0074_장보량_KGER.hwp
 19_L3_0075_료스케_JAP.hwp
 19_L3_0076_김희미_KJAP.hwp
 19_L3_0077_마쓰무라 애리_JAP.hwp
 19_L3_0078_무라세 미카_JAP.hwp
 19_L3_0079_무라타_JAP.hwp
 19_L3_0080_구라우치 타이코_JAP.hwp
 19_L3_0081_혜자(Im Son Ru Ji)_JAP.hwp
 19_L3_0082_히라노 아즈히사_JAP.hwp
 19_L3_0083_차윌희(Carolina)_BRA.hwp
 19_L3_0084_벤 잭슨_BRI.hwp

YON_2001_겨울_기말_4급

19_L4_0001_스티븐 핀란_USA.hwp
 19_L4_0002_이중화_USA.hwp
 19_L4_0003_나카미네 노부코_JAP.hwp
 19_L4_0004_김희동_KGER.hwp
 19_L4_0005_스즈키 에이이치_JAP.hwp
 19_L4_0006_Imaki Katsuhiko_JAP.hwp

19_L4_0007_김나영_KUSA.hwp
 19_L4_0008_여효운_CHI.hwp
 19_L4_0009_네모또 히데유키_JAP.hwp
 19_L4_0010_이왕희_KJAP.hwp
 19_L4_0011_이요한_GER.hwp
 19_L4_0012_히로세 유키에_JAP.hwp
 19_L4_0013_김일수_KUSA.hwp
 19_L4_0014_백영자_KJAP.hwp
 19_L4_0015_렌페유_CHI.hwp
 19_L4_0016_가나이 마사히로_JAP.hwp
 19_L4_0017_김만야_JAP.hwp
 19_L4_0018_조함_CHI.hwp
 19_L4_0019_정나미강_KJAP.hwp
 19_L4_0020_설미혜_KJAP.hwp
 19_L4_0021_다와_MON.hwp
 19_L4_0022_배영희_KJAP.hwp
 19_L4_0023_이현치_KJAP.hwp
 19_L4_0024_박미남_KJAP.hwp
 19_L4_0025_하마다_JAP.hwp
 19_L4_0026_나카무라 히로코_JAP.hwp
 19_L4_0027_조우 타카히로_JAP.hwp
 19_L4_0028_유강_CHI.hwp
 19_L4_0029_야마모토 미카_JAP.hwp
 19_L4_0030_우리룡_CHI.hwp
 19_L4_0031_이금미_KJAP.hwp
 19_L4_0032_에미 아쓰코_JAP.hwp
 19_L4_0033_신성학_KJAP.hwp
 19_L4_0034_유키노_JAP.hwp
 19_L4_0035_유소연_CHI.hwp
 19_L4_0036_강방화_KJAP.hwp
 19_L4_0037_박지영_KJAP.hwp
 19_L4_0038_강행혜_KOR.hwp
 19_L4_0039_구와하라 모모코_JAP.hwp
 19_L4_0040_브라제스 꾸말 싸떠야_IND.hwp
 19_L4_0041_황보성희_KJAP.hwp
 19_L4_0042_카이세 아키이코_JAP.hwp
 19_L4_0043_민연숙_KJAP.hwp
 19_L4_0044_하시모토 나나에_JAP.hwp
 19_L4_0045_쿄야마 키요코_JAP.hwp
 19_L4_0046_오구라 아끼코_JAP.hwp
 19_L4_0047_목지미_KUSA.hwp
 19_L4_0048_미키코_JAP.hwp
 19_L4_0049_토오루_JAP.hwp
 19_L4_0050_조향순_KJAP.hwp
 19_L4_0051_모라카와 쿄우지_JAP.hwp
 19_L4_0052_가와바라 데쓰야_JAP.hwp
 19_L4_0053_최까리나_RUS.hwp
 19_L4_0054_요시다 타마미_JAP.hwp
 19_L4_0055_사카이 도모코_JAP.hwp
 19_L4_0056_고수기 미와_JAP.hwp
 19_L4_0057_Jeremy_USA.hwp
 19_L4_0058_이용수_KJAP.hwp
 19_L4_0059_최크리스티나_UKR.hwp
 19_L4_0060_타쓰야_JAP.hwp
 19_L4_0061_구사카 마사노리_JAP.hwp
 19_L4_0062_Kate Hers_USA.hwp
 19_L4_0063_김철삼_KJAP.hwp
 19_L4_0064_미야타 기미히로_JAP.hwp

19_L4_0065_배청미_KJAP.hwp
 19_L4_0066_미스야마 치카코_JAP.hwp
 19_L4_0067_한성민_KUSA.hwp
 19_L4_0068_김청자_KOR.hwp
 19_L4_0069_이충언_KJAP.hwp
 19_L4_0070_강재영_KUSA.hwp
 19_L4_0071_유희미_KJAP.hwp
 19_L4_0072_전미기_KJAP.hwp
 19_L4_0073_문사직_KJAP.hwp
 19_L4_0074_헨리 데이빗_USA.hwp
 19_L4_0075_유소연_CHI.hwp
 19_L4_0076_사와 아끼코_JAP.hwp
 19_L4_0077_후루카와 유미코_JAP.hwp
 19_L4_0078_체기(Tserenna)_MON.hwp
 19_L4_0079_패트릭(필러 찰스)_USA.hwp
 19_L4_0080_네모또 히데유키_JAP.hwp

YON_2001_겨울_기말_5급

19_L5_0001_오카모토_JAP.hwp
 19_L5_0002_사치에_JAP.hwp
 19_L5_0003_유희_JAP.hwp
 19_L5_0004_후지모토 신야_JAP.hwp
 19_L5_0005_이지성_HON.hwp
 19_L5_0006_미야_BRI.hwp
 19_L5_0007_다카히로_JAP.hwp
 19_L5_0008_성민_NED.hwp
 19_L5_0009_가브리엘라_BUL.hwp
 19_L5_0010_미찌요_JAP.hwp
 19_L5_0011_토시미츠_JAP.hwp
 19_L5_0012_엘레나_RUS.hwp
 19_L5_0013_김화_CHI.hwp
 19_L5_0014_김영화_CHI.hwp
 19_L5_0015_가와무라 토미_JAP.hwp
 19_L5_0016_가나이 리카_JAP.hwp
 19_L5_0017_치카오카 케이코_JAP.hwp
 19_L5_0018_까뜨린_ISR.hwp
 19_L5_0019_아케다 야요이_JAP.hwp
 19_L5_0020_오치선_USA.hwp
 19_L5_0021_오오부치 아끼코_JAP.hwp
 19_L5_0022_오노 미사코_JAP.hwp
 19_L5_0023_김태랑_CHI.hwp
 19_L5_0024_이성진_KUSA.hwp
 19_L5_0025_바트자야_MON.hwp
 19_L5_0026_가와라노 히로코_JAP.hwp
 19_L5_0027_이사라_KJAP.hwp
 19_L5_0028_이지미_KJAP.hwp
 19_L5_0029_이나무라 가츠코_JAP.hwp
 19_L5_0030_요네자와 키요에_JAP.hwp
 19_L5_0031_아츠시_JAP.hwp
 19_L5_0032_요시나가 마리코_JAP.hwp
 19_L5_0033_전영아_KUSA.hwp
 19_L5_0034_이이노 슈카_JAP.hwp
 19_L5_0035_허훈_SWE.hwp
 19_L5_0036_정유귀_KJAP.hwp
 19_L5_0037_나카하라 미나코_JAP.hwp
 19_L5_0038_김지자_KJAP.hwp
 19_L5_0039_조경해(Cao Jing hai)_CHI.hwp

19_L5_0040_코니시 치아키_JAP.hwp
 19_L5_0041_이수빈_KUSA.hwp
 19_L5_0042_야샤(Pakoulouva laroslava)_RUS.hwp
 19_L5_0043_Matthew_KAUS.hwp
 19_L5_0044_이옥희_CHI.hwp
 19_L5_0045_후쿠시마 사토시_KJAP.hwp
 19_L5_0046_안청화_KJAP.hwp
 19_L5_0047_코레나가 치호_JAP.hwp
 19_L5_0048_타카이 사치에_JAP.hwp
 19_L5_0049_나카노 고타로_JAP.hwp
 19_L5_0050_무라카미 토모코_JAP.hwp
 19_L5_0051_김아랑_CHI.hwp

YON_2001_겨울_기말_6급

19_L6_0001_다나카 요시히로_JAP.hwp
 19_L6_0002_테티아나_UKR.hwp
 19_L6_0003_엘레나_RUS.hwp
 19_L6_0004_제이슨_KUSA.hwp
 19_L6_0005_미나토 유카_JAP.hwp
 19_L6_0006_하워드_USA.hwp
 19_L6_0007_나카무라 마키_JAP.hwp
 19_L6_0008_마쓰오_JAP.hwp
 19_L6_0009_아마모토 유지_JAP.hwp
 19_L6_0010_김좌비_KJAP.hwp
 19_L6_0011_다키구치_JAP.hwp
 19_L6_0012_야기시타 켄_JAP.hwp
 19_L6_0013_다니무라 히로미_JAP.hwp
 19_L6_0014_다카요시 토모코_JAP.hwp
 19_L6_0015_아광축 드미트리_UKR.hwp
 19_L6_0016_이찌요시 노리히로_JAP.hwp
 19_L6_0017_테류기나 타티아나_RUS.hwp
 19_L6_0018_최호자_KJAP.hwp
 19_L6_0019_이와사키 요시코_JAP.hwp
 19_L6_0020_요쿠바타게 이쿠_JAP.hwp
 19_L6_0021_발라_BUL.hwp
 19_L6_0022_우에노 테츠지_JAP.hwp
 19_L6_0023_시오디 아스카_JAP.hwp
 19_L6_0024_바실리나 사모일렌코_JAP.hwp
 19_L6_0025_고바야시 에미코_JAP.hwp
 19_L6_0026_히라야나기 다쓰키_JAP.hwp
 19_L6_0027_이하 히로키_JAP.hwp
 19_L6_0028_카이후 마리_JAP.hwp
 19_L6_0029_이토 아카네_JAP.hwp
 19_L6_0030_김소연_USA.hwp
 19_L6_0031_나카지마 유미코_JAP.hwp
 19_L6_0032_니하시 야스요_JAP.hwp
 19_L6_0033_신행혜_KJAP.hwp
 19_L6_0034_모리 마사리_JAP.hwp
 19_L6_0035_키릴_RUS.hwp
 19_L6_0036_센자(심가)_CHI.hwp

YON_2001_겨울_기말_B1급

19_L1_0001_미리암_SWI.hwp
 19_L1_0002_R Scott Phillips_USA.hwp
 19_L1_0003_데이빗 킴브_BRI.hwp
 19_L1_0004_토마스_USA.hwp

19_L1_0005_Biorn(비온)_SWE.hwp
 19_L1_0006_마리나_UKR.hwp
 19_L1_0007_올가_RUS.hwp
 19_L1_0008_임마누엘_PHI.hwp
 19_L1_0009_노베르_GER.hwp
 19_L1_0010_야나_GER.hwp
 19_L1_0011_료허인_CHI.hwp

YON_2001_겨울_기말_B2급

19_LB2_0001_Mackie_USA.hwp
 19_LB2_0002_백지연(크리스틴)_USA.hwp
 19_LB2_0003_박홍준(kenneth)_KCAN.hwp
 19_LB2_0004_김대우(크리스토퍼)_USA.hwp
 19_LB2_0005_트레이시_USA.hwp
 19_LB2_0006_엘레나_RUS.hwp
 19_LB2_0007_유하스 보리_HUN.hwp
 19_LB2_0008_Shawn Song_KUSA.hwp
 19_LB2_0009_권은희(Linda)_USA.hwp
 19_LB2_0010_인나 발리시나_KYR.hwp
 19_LB2_0011_백경선_KUSA.hwp
 19_LB2_0012_홍자경(제니퍼)_KUSA.hwp

YON_2001_겨울_기말_B3급

19_LB3_0001_미셀_KUSA.hwp
 19_LB3_0002_필립_BRI.hwp
 19_LB3_0003_김미정_KUSA.hwp
 19_LB3_0004_관혜명_CHI.hwp
 19_LB3_0005_이인영_KUSA.hwp
 19_LB3_0006_매치 베아트릭스_HUN.hwp
 19_LB3_0007_알렉세이_RUS.hwp
 19_LB3_0008_킴스토커_USA.hwp
 19_LB3_0009_레히나(모니카)_USA.hwp
 19_LB3_0010_임정희_KUSA.hwp

YON_2001_겨울_기말_B4급

19_LB4_0001_역사나_KRUS.hwp
 19_LB4_0002_신준보_CHI.hwp
 19_LB4_0003_김철호(Sanderhoff)_DEN.hwp
 19_LB4_0004_안나_FRA.hwp
 19_LB4_0005_체이스_CHI.hwp
 19_LB4_0006_요안나_POL.hwp
 19_LB4_0007_김 제이미_AUS.hwp
 19_LB4_0008_김지혜_KGER.hwp
 19_LB4_0009_김 알렉산드르_RUS.hwp
 19_LB4_0010_지강이_SIN.hwp
 19_LB4_0011_치디(EKEBERE)_NIG.hwp
 19_LB4_0012_블라더_BUL.hwp

YON_2001_겨울_중간_4급

19_L4_0070_사카이 토모코_JAP.hwp
 19_L4_0003_나카미네 노부코_JAP.hwp
 19_L4_0004_김희동_KGER.hwp
 19_L4_0005_스즈키 에이이치_JAP.hwp
 19_L4_0006_Imaki katsuhiko_JAP.hwp

19_L4_0007_나카야마 이즈미_JAP.hwp
 19_L4_0008_김나영_KUSA.hwp
 19_L4_0009_안릴라_BOL.hwp
 19_L4_0010_여효운_CHI.hwp
 19_L4_0011_데이비드 필레_USA.hwp
 19_L4_0012_네모또 히테유키_JAP.hwp
 19_L4_0013_이왕희_KJAP.hwp
 19_L4_0014_이요한_GER.hwp
 19_L4_0015_히로세 유키에_JAP.hwp
 19_L4_0016_김일수_KUSA.hwp
 19_L4_0017_백영자_KJAP.hwp
 19_L4_0018_강전일_KOR.hwp
 19_L4_0019_정의훈_TAI.hwp
 19_L4_0020_렌페유_CHI.hwp
 19_L4_0021_일리야_RUS.hwp
 19_L4_0022_가나이 마사히로_JAP.hwp
 19_L4_0023_김만야_JAP.hwp
 19_L4_0024_조함_CHI.hwp
 19_L4_0025_정나미강_KJAP.hwp
 19_L4_0026_이광걸_CHI.hwp
 19_L4_0027_설미혜_KJAP.hwp
 19_L4_0028_다와_MON.hwp
 19_L4_0029_배영희_KJAP.hwp
 19_L4_0030_이현치_KJAP.hwp
 19_L4_0031_Fatih_MON.hwp
 19_L4_0032_박미남_KJAP.hwp
 19_L4_0033_하마다 히사즈미_JAP.hwp
 19_L4_0034_나카무라 히로코_JAP.hwp
 19_L4_0035_Henry_USA.hwp
 19_L4_0036_조우 타카히로_JAP.hwp
 19_L4_0037_유강_CHI.hwp
 19_L4_0038_야마모토 미카_JAP.hwp
 19_L4_0039_우리룡_CHI.hwp
 19_L4_0040_이금미_KJAP.hwp
 19_L4_0041_에미 아쓰코_JAP.hwp
 19_L4_0042_아나스타샤 오노시코_RUS.hwp
 19_L4_0043_신성학_KJAP.hwp
 19_L4_0044_유키노_JAP.hwp
 19_L4_0045_대운_NED.hwp
 19_L4_0046_유소연_CHI.hwp
 19_L4_0047_강방화_KJAP.hwp
 19_L4_0048_김여원_KUSA.hwp
 19_L4_0049_박지영_KJAP.hwp
 19_L4_0050_강혜_KOR.hwp
 19_L4_0051_구와하라 모모코_JAP.hwp
 19_L4_0052_브라제스 꾸말 싸피야_IND.hwp
 19_L4_0053_황보성희_KJAP.hwp
 19_L4_0054_카이세 아키히코_JAP.hwp
 19_L4_0055_민연숙_KJAP.hwp
 19_L4_0056_하시모토 나나에_JAP.hwp
 19_L4_0057_코야마 키요코_JAP.hwp
 19_L4_0058_오구라 아끼코_JAP.hwp
 19_L4_0059_목지미_KUSA.hwp
 19_L4_0060_카토 마리코_JAP.hwp
 19_L4_0001_스티븐 편란_USA.hwp
 19_L4_0062_미키코_JAP.hwp
 19_L4_0063_토오루_JAP.hwp
 19_L4_0064_조향순_KJAP.hwp

19_L4_0065_코우지_KJAP.hwp
 19_L4_0066_가와바타 테즈야_JAP.hwp
 19_L4_0067_최가리나_RUS.hwp
 19_L4_0068_요시다 타마미_JAP.hwp
 19_L4_0069_후루카와 유미코_JAP.hwp
 19_L4_0002_이중화_USA.hwp
 19_L4_0071_고수기 미와_JAP.hwp
 19_L4_0072_오오우치 마사미_JAP.hwp
 19_L4_0073_Jeremy Sizemore_USA.hwp
 19_L4_0074_이용수_KJAP.hwp
 19_L4_0075_최크리스티나_UKR.hwp
 19_L4_0076_김지혜미_KJAP.hwp
 19_L4_0077_타즈야_JAP.hwp
 19_L4_0078_구사카 마사노리_JAP.hwp
 19_L4_0079_구사카 마사노리_JAP.hwp
 19_L4_0080_김철삼_KJAP.hwp
 19_L4_0081_미야타 기미히로_JAP.hwp
 19_L4_0082_베라_RUS.hwp
 19_L4_0083_배청미_KJAP.hwp
 19_L4_0084_미즈야마 치카코_JAP.hwp
 19_L4_0085_한성민_KUSA.hwp
 19_L4_0086_한성민(패트릭 찰스)_USA.hwp
 19_L4_0087_김정자_KOR.hwp
 19_L4_0088_이충언_KJAP.hwp
 19_L4_0089_강재영_KUSA.hwp
 19_L4_0090_유호미_KJAP.hwp
 19_L4_0091_전미기_KJAP.hwp
 19_L4_0092_강행혜_KJAP.hwp
 19_L4_0093_문사직_KJAP.hwp
 19_L4_0061_Otgonbayar_MON.hwp

YON_2001_겨울_중간_5급

19_L5_0001_오카모토 코마끼_JAP.hwp
 19_L5_0002_사치에_JAP.hwp
 19_L5_0003_후지모토 신야_JAP.hwp
 19_L5_0004_이지성_HON.hwp
 19_L5_0005_미야_BRI.hwp
 19_L5_0006_미야가와 다카히로_JAP.hwp
 19_L5_0007_성민_NED.hwp
 19_L5_0008_가브리엘라_BUL.hwp
 19_L5_0009_미찌요_JAP.hwp
 19_L5_0010_쿠와하라 토시미츠_JAP.hwp
 19_L5_0011_김화_CHI.hwp
 19_L5_0012_김영화_CHI.hwp
 19_L5_0013_가와무라 토미_JAP.hwp
 19_L5_0014_가나이 리카_JAP.hwp
 19_L5_0015_치카오카 케이코_JAP.hwp
 19_L5_0016_까뜨린_ISR.hwp
 19_L5_0017_아케다 야요이_JAP.hwp
 19_L5_0018_오치선_USA.hwp
 19_L5_0019_오오부치 아끼코_JAP.hwp
 19_L5_0020_오노 미사코_JAP.hwp
 19_L5_0021_김태랑_CHI.hwp
 19_L5_0022_이성진_KUSA.hwp
 19_L5_0023_바트자야_MON.hwp
 19_L5_0024_가와라노 히로코_JAP.hwp
 19_L5_0025_이사라_KJAP.hwp

19_L5_0026_이지미_KJAP.hwp
 19_L5_0027_이나무라 가츠코_JAP.hwp
 19_L5_0028_요네자와 키요에_JAP.hwp
 19_L5_0029_아츠시_JAP.hwp
 19_L5_0030_요시나가 마리코_JAP.hwp
 19_L5_0031_전영아_KUSA.hwp
 19_L5_0032_이이노슈카_JAP.hwp
 19_L5_0033_허훈_SWE.hwp
 19_L5_0034_정유귀_KJAP.hwp
 19_L5_0035_나카하라 미나코_JAP.hwp
 19_L5_0036_김지자_KJAP.hwp
 19_L5_0037_조경혜_CHI.hwp
 19_L5_0038_코니시 치아키_JAP.hwp
 19_L5_0039_이수빈_KUSA.hwp
 19_L5_0040_아사(Pakoulava laroslava)_RUS.hwp
 19_L5_0041_Matthow_KAUS.hwp
 19_L5_0042_이옥희_CHI.hwp
 19_L5_0043_후쿠시마 사토시_KJAP.hwp
 19_L5_0044_안청화_JAP.hwp
 19_L5_0045_치호_JAP.hwp
 19_L5_0046_다카이 사치에_JAP.hwp
 19_L5_0047_나카노 고타로_JAP.hwp
 19_L5_0048_무라카미 토모코_JAP.hwp
 19_L5_0049_김아랑_CHI.hwp
 19_L5_0050_장주현(제임스)_KUSA.hwp
 19_L5_0051_스텔라(엘레나)_RUS.hwp

YON_2001_겨울_중간_6급

19_L6_0001_Zaleski Kiryl_BEL.hwp
 19_L6_0002_Kim Andrew_KUSA.hwp
 19_L6_0003_테티아나_URK.hwp
 19_L6_0004_미나토 유카_JAP.hwp
 19_L6_0005_마쓰오_JAP.hwp
 19_L6_0006_Howard_USA.hwp
 19_L6_0007_엘레나_RUS.hwp
 19_L6_0008_Jason Choi_USA.hwp
 19_L6_0009_야기시타 켄_JAP.hwp
 19_L6_0010_다카요시 도모코_JAP.hwp
 19_L6_0011_다카구치_JAP.hwp
 19_L6_0012_키릴 잘레스키_BEL.hwp
 19_L6_0013_야쿱츨 드미트리_UKR.hwp
 19_L6_0014_이와사키 요시코_JAP.hwp
 19_L6_0015_요코바타게 이쿠_JAP.hwp
 19_L6_0016_발라_BUL.hwp
 19_L6_0017_우에노 테츠지_JAP.hwp
 19_L6_0018_시오다 아스카_JAP.hwp
 19_L6_0019_바실리나_RUS.hwp
 19_L6_0020_고바야시 에미코_JAP.hwp
 19_L6_0021_이찌요시 노리히로_JAP.hwp
 19_L6_0022_테류기나 타티아나_RUS.hwp
 19_L6_0023_최호자_SJAP.hwp
 19_L6_0024_김좌비_SJAP.hwp
 19_L6_0025_니하시 야스요_JAP.hwp
 19_L6_0026_히라야나기 다쓰키_JAP.hwp
 19_L6_0027_김소연_USA.hwp
 19_L6_0028_나카지마 유미코_JAP.hwp
 19_L6_0029_신행혜_KJAP.hwp

19_L6_0030_임기일_RUS.hwp
 19_L6_0031_카이후 마리_JAP.hwp
 19_L6_0032_이하 히로키_JAP.hwp
 19_L6_0033_센지아(심가)_CHI.hwp
 19_L6_0034_이토 아카네_JAP.hwp
 19_L6_0035_모리 마사시_JAP.hwp

YON_2001_겨울_중간_B1급

19_LB1_0001_애디 와이엇_USA.hwp
 19_LB1_0002_아스마한_LIB.hwp
 19_LB1_0003_Biorn(비온)_SWE.hwp
 19_LB1_0004_레이빗 킴브_BRI.hwp
 19_LB1_0005_R Scott Phillips_USA.hwp
 19_LB1_0006_토마스_USA.hwp
 19_LB1_0007_미리암_SWI.hwp
 19_LB1_0008_료허인_CHI.hwp
 19_LB1_0009_마리나_UKR.hwp
 19_LB1_0010_올가_RUS.hwp
 19_LB1_0011_임마누엘_PHI.hwp
 19_LB1_0012_야나_GER.hwp
 19_LB1_0013_노베르_GER.hwp

YON_2001_겨울_중간_B3급

19_LB3_0001_미셸_KUSA.hwp
 19_LB3_0002_와티 하산_BRU.hwp
 19_LB3_0003_김미정_KUSA.hwp
 19_LB3_0004_관혜명_CHI.hwp
 19_LB3_0005_이인영_KUSA.hwp
 19_LB3_0006_매치 베아트릭스_HUN.hwp
 19_LB3_0007_알렉세이_RUS.hwp
 19_LB3_0008_킴스토커_USA.hwp
 19_LB3_0009_마리아_UZB.hwp
 19_LB3_0010_레히나(모니카)_USA.hwp

YON_2001_겨울_중간_B4급

19_LB4_0001_지강이_SIN.hwp
 19_LB4_0002_치디(EKEBERE)_NIG.hwp
 19_LB4_0003_김 제이미_AUS.hwp
 19_LB4_0004_김 알렉산드르_RUS.hwp
 19_LB4_0005_블라더_BUL.hwp
 19_LB4_0006_김지혜_KGER.hwp
 19_LB4_0007_역사나_KRUS.hwp
 19_LB4_0008_신준보_CHI.hwp

YON_2001_봄(작문)_6급

19_L6_0015_임애라_XX.hwp
 19_L6_0057_크리스2_USA.hwp
 19_L6_0002_김행자_KJAP.hwp
 19_L6_0003_박진요_USA.hwp
 19_L6_0004_정행지_KJAP.hwp
 19_L6_0005_오카쇼우사코_JAP.hwp
 19_L6_0006_마코도_JAP.hwp
 19_L6_0007_박진요1_USA.hwp
 19_L6_0008_정행지1_KJAP.hwp

19_L6_0009_오카쇼우사JJ1_JAP.hwp
 19_L6_0010_마코토1_JAP.hwp
 19_L6_0012_다프나_JAP.hwp
 19_L6_0013_김행자1_KJAP.hwp
 19_L6_0014_황발비나_ENG.hwp
 19_L6_0016_니시하타아스카_JAP.hwp
 19_L6_0017_김미우_KJAP.hwp
 19_L6_0018_정미영_USA.hwp
 19_L6_0019_티모시안킨슨_USA.hwp
 19_L6_0020_가또진코_JAP.hwp
 19_L6_0021_김행자2_KJAP.hwp
 19_L6_0021_이시구로나오미.hwp
 19_L6_0023_황발비나1_USA.hwp
 19_L6_0024_오카쇼우사JJ2_JAP.hwp
 19_L6_0025_무라카미류지1_JAP.hwp
 19_L6_0026_정행지2_KJAP.hwp
 19_L6_0027_박진요2_USA.hwp
 19_L6_0028_마코토2_JAP.hwp
 19_L6_0029_다지리아야_JAP.hwp
 19_L6_0030_사토노리카즈_JAP.hwp
 19_L6_0031_미야기쿠니코_JAP.hwp
 19_L6_0032_토모_JAP.hwp
 19_L6_0033_니시무라사미_JAP.hwp
 19_L6_0034_야마모토스미에_JAP.hwp
 19_L6_0035_다카히로야마요_JAP.hwp
 19_L6_0036_다카즈유키_JAP.hwp
 19_L6_0037_이시구로나오미_JAP.hwp
 19_L6_0038_데이빗_USA.hwp
 19_L6_0039_크리스_USA.hwp
 19_L6_0040_요코바타케이쿠_JAP.hwp
 19_L6_0041_이병수_KJAP.hwp
 19_L6_0042_산타니아키라_JAP.hwp
 19_L6_0043_스텔라_RUS.hwp
 19_L6_0044_정승유_TAI.hwp
 19_L6_0045_종길_SWI.hwp
 19_L6_0046_산타니아키라_KJAP.hwp
 19_L6_0047_이병수1_KJAP.hwp
 19_L6_0048_요코바타케이쿠1_JAP.hwp
 19_L6_0049_데이빗1_USA.hwp
 19_L6_0049_이진지_CHI.hwp
 19_L6_0050_조귀련_JAP.hwp
 19_L6_0051_이노우에_JAP.hwp
 19_L6_0052_제직수_KJAP.hwp
 19_L6_0053_이진지1_KCHI.hwp
 19_L6_0055_데이빗2_USA.hwp
 19_L6_0056_조귀련1_KJAP.hwp
 19_L6_0001_무라카미류지_JAP.hwp
 19_L6_0058_스텔라1_RUS.hwp
 19_L6_0059_정승유1_TAI.hwp
 19_L6_0060_종길1_SWI.hwp
 19_L6_0061_산타니아키라1_JAP.hwp
 19_L6_0062_이노우에1_JAP.hwp
 19_L6_0063_크리스3_USA.hwp
 19_L6_0054_이병수2_KJAP.hwp

자료 10(2000년 이전)

YON_2000_가을_4급

00_L4_0001_하시모토 나오_JAP(7).hwp
 00_L4_0002_심가_JAP(7).hwp
 00_L4_0003_사토에리_JAP(7).hwp
 00_L4_0004_나카무라_JAP(7).hwp
 00_L4_0005_김오만_KJAP(7).hwp
 00_L4_0006_에비하라 히로시_JAP(7).hwp
 00_L4_0007_고명인_KJAP(7).hwp

YON_2000_가을_6급

00_L6_0001_유카_JAP.hwp
 00_L6_0002_엘레나_RUS.hwp
 00_L6_0003_테티아나_UKR.hwp
 00_L6_0004_나카무라 마키_JAP.hwp
 00_L6_0005_야마모토 류우지_JAP.hwp
 00_L6_0006_마쓰오_JAP.hwp
 00_L6_0007_다나카 요시히로_JAP.hwp
 00_L6_0008_엘레나_RUS.hwp
 00_L6_0009_엘레나_RUS.hwp
 00_L6_0010_다나카 요시히로_JAP.hwp
 00_L6_0011_나카무라 마키_JAP.hwp
 00_L6_0012_우에노 테츠키_JAP.hwp
 00_L6_0013_고바야시 에미코_JAP.hwp
 00_L6_0014_우에노 테츠키_JAP.hwp
 00_L6_0015_이찌요시 노리히로_JAP.hwp
 00_L6_0016_최호자_KJAP.hwp
 00_L6_0017_최호자_KJAP.hwp
 00_L6_0018_요시코_JAP.hwp
 00_L6_0019_임기일_CHI.hwp
 00_L6_0020_이하 히로키_JAP.hwp
 00_L6_0021_이토 아카네_JAP.hwp
 00_L6_0022_카이후 마리_JAP .hwp
 00_L6_0023_나하시 야쓰요_JAP .hwp
 00_L6_0024_나카지마 유미코_JAP .hwp
 00_L6_0025_모리 마사시_JAP .hwp
 00_L6_0026_심가_CHI .hwp
 00_L6_0027_신행혜_KJAP .hwp
 00_L6_0028_모리다마시_JAP .hwp
 00_L6_0029_신행혜_KJAP .hwp
 00_L6_0030_나하시 야쓰요_JAP .hwp
 00_L6_0031_심가_CHI.hwp
 00_L6_0032_모리 마사시_JAP .hwp
 00_L6_0033_이토 아카네_JAP .hwp
 00_L6_0033_이하이 도키_JAP .hwp
 00_L6_0034_히와야나키 다스키_JAP .hwp
 00_L6_0035_카이후 마리_JAP .hwp
 00_L6_0036_첸_JAP .hwp
 00_L6_0037_다니무라 히토미_JAP .hwp
 00_L6_0038_다니무라 히토미_JAP .hwp
 00_L6_0039_첸_JAP .hwp
 00_L6_0040_다기구찌 아즈미_JAP .hwp
 00_L6_0041_도모코_JAP .hwp
 00_L6_0042_김좌비_KJAP .hwp
 00_L6_0043_첸_JAP .hwp
 00_L6_0044_히토미_JAP .hwp
 00_L6_0045_키릴 잘레스키_BEL .hwp
 00_L6_0046_야쿱 드미트리_UKR.hwp

00_L6_0047_오오사와_JAP.hwp
 00_L6_0048_키릴 잘레스키_BEL .hwp
 00_L6_0049_야콩룩 드미뜨리이_UKR.hwp
 00_L6_0050_이토 아카네_JAP .hwp
 00_L6_0051_나카지마 유미코_JAP .hwp
 00_L6_0052_심가_CHI .hwp
 00_L6_0053_임기일_CHI.hwp
 00_L6_0054_요코바타케 이꾸_JAP.hwp
 00_L6_0055_이찌요시 노리히로_JAP.hwp
 00_L6_0056_바실리나 사모일렌코_RUS.hwp
 00_L6_0057_타나_RUS.hwp
 00_L6_0058_발라_BUL.hwp
 00_L6_0059_미나토 유카_JAP.hwp
 00_L6_0060_미나토 유카_JAP.hwp
 00_L6_0061_하워드_USA.hwp
 00_L6_0062_다키꾸찌 아즈미_JAP.hwp

YON_2000_겨울_기말_6급

00_L6_0001_캔드라_XX.hwp
 00_L6_0002_히다요시노리_JAP.hwp
 00_L6_0003_풍적이_XX.hwp
 00_L6_0004_장은영_XX.hwp
 00_L6_0005_김리나_XX.hwp
 00_L6_0006_최빛나_XX.hwp
 00_L6_0007_후루이다카아커_XX.hwp
 00_L6_0008_사토고우이치_JAP.hwp
 00_L6_0009_마사쯔마아키에_XX.hwp
 00_L6_0010_기미츠마토시오_JAP.hwp
 00_L6_0011_권종범_XX.hwp
 00_L6_0012_바이르_XX.hwp
 00_L6_0013_권민미_XX.hwp
 00_L6_0014_길레_XX.hwp
 00_L6_0015_김가세_XX.hwp
 00_L6_0016_미케디미카_XX.hwp
 00_L6_0017_사또우미니크_XX.hwp
 00_L6_0018_백승혜_XX.hwp
 00_L6_0019_가베루유리_XX.hwp
 00_L6_0020_쇼네타손_XX.hwp
 00_L6_0021_송이_XX.hwp
 00_L6_0022_리우쥔.hwp
 00_L6_0023_사또루_XX.hwp
 00_L6_0024_하라오카다이스케_JAP.hwp
 00_L6_0025_알렉시_XX.hwp
 00_L6_0026_가오리_XX.hwp
 00_L6_0027_강건_XX.hwp

YON_2000_겨울_중간_1급

00_L1_0001_로버트시아가인_XX.hwp
 00_L1_0002_니콜드허리_XX.hwp
 00_L1_0003_이미란_XX.hwp
 00_L1_0004_시마카와다까시_JAP.hwp
 00_L1_0005_이이지마요시코_JAP.hwp
 00_L1_0006_강지호_XX.hwp
 00_L1_0007_오오이시카즈요_JAP.hwp
 00_L1_0008_다케다마미_JAP.hwp
 00_L1_0009_마키노신이쨌로우_XX.hwp

00_L1_0010_화재준_XX.hwp
 00_L1_0011_이현덕_XX.hwp
 00_L1_0012_서용민_XX.hwp
 00_L1_0013_가나이리카_JAP.hwp
 00_L1_0014_미나모토허데키_JAP.hwp
 00_L1_0015_사사타니_XX.hwp
 00_L1_0016_이상용_XX.hwp
 00_L1_0017_미쯔구치마키_JAP.hwp
 00_L1_0018_치하라요시노리_JAP.hwp
 00_L1_0019_이케베미야코_JAP.hwp
 00_L1_0020_고누마미유기_XX.hwp
 00_L1_0021_도요다하루코_JAP.hwp
 00_L1_0022_아마나후미키_JAP.hwp
 00_L1_0023_가네하라사치에_JAP.hwp
 00_L1_0024_이노우에슈리_JAP.hwp
 00_L1_0025_박리나_XX.hwp
 00_L1_0026_역사나_RUS.hwp
 00_L1_0027_테니스_XX.hwp
 00_L1_0028_포익군_XX.hwp
 00_L1_0029_우타삭_XX.hwp
 00_L1_0030_김올렉_XX.hwp
 00_L1_0031_바홀굴_XX.hwp
 00_L1_0032_지강이_XX.hwp
 00_L1_0033_이지성_XX.hwp
 00_L1_0034_저스틴아이톤_XX.hwp
 00_L1_0035_김영화_XX.hwp
 00_L1_0036_이해연_XX.hwp
 00_L1_0037_미카엘_XX.hwp
 00_L1_0038_카린순비_XX.hwp
 00_L1_0039_이선주_XX.hwp
 00_L1_0040_김동현_XX.hwp
 00_L1_0041_XX_XX.hwp

YON_2000_봄_보고서_6급

00_L6_0025_가마타마끼코_JAP.hwp
 00_L6_0001_나꼬세히데미_JAP.hwp
 00_L6_0002_사에끼이시오_JAP.hwp
 00_L6_0003_러버트라이딩_USA.hwp
 00_L6_0004_오꾸조노히데미_JAP.hwp
 00_L6_0005_사와다가쨌미_JAP.hwp
 00_L6_0006_스트로마비티_XX.hwp
 00_L6_0007_김승인_CHI.hwp
 00_L6_0008_다치바나시게요_JAP.hwp
 00_L6_0009_그리열제이슨_USA.hwp
 00_L6_0010_박승익_UZB.hwp
 00_L6_0011_모로사쨌코_JAP.hwp
 00_L6_0012_후지타미도리_JAP.hwp
 00_L6_0013_아사카와신_JAP.hwp
 00_L6_0014_사이토나즈쨌_JAP.hwp
 00_L6_0015_김승인_KCHI.hwp
 00_L6_0016_허순희_CHI.hwp
 00_L6_0017_오오쨌끼준코_JAP.hwp
 00_L6_0018_정미영_KUSA.hwp
 00_L6_0019_김을가_KAZ.hwp
 00_L6_0020_이복미_KJAP.hwp
 00_L6_0021_문훈_KJAP.hwp
 00_L6_0022_박범지_KJAP.hwp

00_L6_0023_서영실_KJAP.hwp
00_L6_0024_오가와사또꼬_JAP.hwp
00_L6_0026_리타베르너_GER.hwp
00_L6_0027_한수아_KJAP.hwp
00_L6_0028_나가타토시꼬_JAP.hwp
00_L6_0029_이쫓까다미꼬_JAP.hwp
00_L6_0030_코바야시미쯔에_JAP.hwp
00_L6_0031_지꼬유리꼬_JAP.hwp
00_L6_0032_다카하시요시에_JAP.hwp
00_L6_0033_마에다토모히꼬_JAP.hwp
00_L6_0034_스즈끼사치꼬_JAP.hwp
00_L6_0035_바바치즈꼬_JAP.hwp
00_L6_0036_자일즈안토니_USA.hwp
00_L6_0037_니시야쇼조_JAP.hwp
00_L6_0038_알린반더빌트_USA.hwp
00_L6_0039_에가시라시쓰꼬_JAP.hwp
00_L6_0040_베레나솔테_GER.hwp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2002년 11월 인쇄

2002년 11월 발행

발행자 : 문화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420

인쇄처 : 학위사

전 화 : 7199-567

ISBN : 89-7820-088-5 03710

<비매품>